

문화마을 최소기준과 거버넌스 모델 구축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부천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15년 지역문화컨설팅(문화마을 최소기준과 거버넌스 모델 구축)』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2월

(재)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이 진 선

"2015년 지역문화컨설팅"

참여연구진

- 총괄기획: 손경년(부천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 연구책임: 신정호(부천문화재단 문화정책팀대리)
- 공동연구진
 - ❖ 노명우(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 권범철(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 ❖ 조광호(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 ❖ 류태희(마을만들기네트워크 연구위원)
- 연구보조원
 - ❖ 김소형(부천문화재단 문화정책팀)



<제목 차례>

연구내용 요약	1
제1장 연구개요	3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5
1. 연구배경	35
2. 연구목적	37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8
1. 연구내용 및 범위	38
2. 연구방법	39
제2장. 문화마을 최소기준 개념과 목표	41
제1절.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43
1. ‘지금’ ‘현재’의 한국 사회에 대한 진단	43
2. 최소기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	44
3. 현재 논의로부터 발전을 다시 생각한다	46
4. 문화마을이라는 사회적 최소조건	48
제2절. 문화마을이라는 지향점	51
1. 부정형으로 규정된 문화마을	51
2. 기존 문화마을 정의	52
3. 지향점으로써의 문화마을	54
4. 문화마을의 실현을 위한 방향성	58
제3장. 문화마을 최소기준 주요정책 현황	61
제1절. 문화도시(마을) 정책현황	63



1. 문화체육관광부	63
2. 타 부처	100
3. 거버넌스 구축	105
제2절. 문화마을 관련 최소기준 설정 현황	116
제4장. 부천시 문화마을 진단	123
제1절. 부천시 정책 및 사업 현황	125
1. 일반현황	125
2. 부천시 문화마을 정책현황	130
3. 공간 및 프로그램	132
4. 예산현황	143
제2절. 부천시 문화마을 진단	153
1. 도서관 도서 대출의 지리적 분포(도서대출 GIS 분석의미)	153
2. 문화예술 프로그램	161
3. 소결	175
제5장. 문화마을 최소기준 설정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구상	179
제1절. 문화마을 최소기준 설정 방향	181
제2절. 문화마을 최소기준 구성	188
1. 사람기준	188
2. 공간기준	193
3. 프로그램 기준	205
4. 예산기준	214
제3절. 문화마을 거버넌스를 위한 구상	222
1. 광역단위 거버넌스	222
2. 기초단위 거버넌스	226
※ 참고문헌	229



<표 차례>

<표2-1> 국민복지기본선의 두 가지 유형과 원리	46
<표2-2> 아마티아 센의 자유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조건 및 선택수단	48
<표2-3> 문화마을에 대한 일반적 개념	53
<표2-4> 문화마을의 정책적 개념정의	54
<표3-1> 사회·일반적 의미에서의 본 문화도시와 문화마을 개념탐색 비교	63
<표3-2>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中 마을중심 및 문화마을 관련 정책계획 주요내용 정리	66
<표3-3>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에서의 사업 정의 및 목표	67
<표3-4> 문화도시 문화마을의 정책적 개념정의(종합)	68
<표3-5> 문화마을에 대해 일반화되는 정책적 개념 탐색 결과종합	72
<표3-6> 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관련 정책사업 주요 추진현황	73
<표3-7> 문화마을 사업유형	74
<표3-8> 2014년 지역문화특화지역사업 中 문화마을사업 추진현황	75
<표3-9> 문화특화지역사업 中 문화마을사업 추진현황	76
<표3-10> 생활문화공동체 사업내용	78
<표3-11> 단계별 지원내용 및 범위(2015년)	78
<표3-12>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시범사업 졸업단체 현황(2014년 기준)	78
<표3-13> 2015년도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선정단체	80
<표3-14> 문화이모작 사업대상	82
<표3-15> 문화이모작 사업 연도별 추진현황	84
<표3-16>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 사업 - 지원예산 및 규모	88
<표3-17>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지원현황(2014년 기준)	89
<표3-18>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지원 주요내용	91
<표3-20> 생활문화센터 기획프로그램 지원현황	92
<표3-21> 생활문화센터 이용자 지원 프로그램 지원현황	93
<표3-22>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사업 내용	94



목 차

<표3-23> 생활밀착형 문화 프로그램 지원내용	94
<표3-24>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지원현황	95
<표3-26> 2013년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구성 및 추진현황	98
<표3-27> 시시콜콜 사업 지원	99
<표3-28> 시시콜콜 사업 지원내용	99
<표3-29> 2014년도 시시콜콜 사업 선정 단체	100
<표3-31> 부처별 지역문화공동체 활성화 사업유형	103
<표3-32> 중앙부처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현황 및 주요내용	104
<표3-33> 마을공동체사업의 현황	105
<표3-34> 경기도 마을 만들기 관련 조례 제정 현황	106
<표3-35> 경기도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 현황(2015년 기준)	106
<표3-38> 2015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선정결과 현황	109
<표3-39> 2015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시군별 현황	110
<표3-40> 부천시 공모사업 선정모임 현황	110
<표3-41> 2015 시군지원 공모사업 추진현황	111
<표3-43> 공유성북원탁회의 구성	113
<표3-44> 공유성북원탁회의 워킹그룹 활동현황	114
<표3-45> 문화도시(마을)진단지표 분류 항목	117
<표3-46> 문화권의 주요 범주 설정	118
<표3-47> 최저생계비의 생필품 항목	120
<표3-48> 서울시민 복지기준 설정(안)	121
<표4-2> 지역발전지수(2014년)	127
<표4-3> 부천시민 주말 문화 활동 유무 및 방문지역	128
<표4-4> 향후 5년 이내 이사계획 및 이사계획 이유	129
<표4-5> 부천시 문화마을 관련 정책 현황	130
<표4-6> 부천시 도서관 1관 당 현황	133
<표4-7> 부천시 작은 도서관 및 흘씨도서관 현황	134
<표4-8> 도서관 이용 의사 응답률	134



목 차

<표4-9> 부천시 내 박물관 운영현황	135
<표4-10> 민관 문화국간 개방시설 현황	135
<표4-11> 인구 1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136
<표4-12> 부천시 동 축제	137
<표4-13> 부천시 축제 행사 인지도(2013년)	138
<표4-14> 부천시민 축제 참여율	138
<표4-15> 도서관 및 주민센터 프로그램 현황	139
<표4-16> 부천시 공립 도서관 문화교실 프로그램 현황(2015년)	139
<표4-17>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교육 강좌 수(2015년)	140
<표4-18> 부천시 공간 및 프로그램 지역 간 격차 현황	142
<표4-19> 부천시 예산분석 관련 대상부서	143
<표4-20> 부천시 문화예산 분류코드	143
<표4-21> 부천시 총예산(일반회계) 현황(2015년)	145
<표4-22> 부천시 문화예술분야 예산(2015년)	145
<표4-23> 부천시 문화재분야 예산(2015년)	146
<표4-24> 부천시 종무분야 예산(2015년)	146
<표4-25> 부천시 문화산업분야 예산(2015년)	146
<표4-26> 부천시 관광분야 예산(2015년)	147
<표4-27> 부천시 체육 분야 예산(2015년)	147
<표4-28> 문화예술분야 예산 대비 문화정책개발 예산 비중(2015년)	148
<표4-29>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예산(2015년)	148
<표4-30> 문화예술 분야 홍보 및 교류 예산(2015년)	149
<표4-31> 문화예술 공간 지원 예산(2015년)	149
<표4-32> 문화예술 활동지원	149
<표4-33> 문화예술 행사지원 예산(2015년)	150
<표4-34> 문화예술 기관(단체)지원 예산(2015년)	150
<표4-35> 문화예술기반시설 건립 지원 예산	150
<표4-36> 문화예술기반시설 운영	151



목 차

<표4-37> 국토및지역개발 예산 대비 마을 만들기 예산 비중(2015년)	151
<표4-38> 부천시 총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대비 기능별 예산비중(08년~15년)	152
<표4-39> 문화프로그램 종합	162
<표4-40> 문화시설 분포(분야별)와 강좌 내용	169
<표4-41> 생활예술 동아리 회원 지역별 분포	171
<표5-1> 생활문화시설 관련 사람 최소 기준	191
<표5-2> 부천시 공공도서관 사서 현황	191
<표5-3> 부천시 공공도서관 사서 최소 기준	192
<표5-4> 문화시설의 정의	193
<표5-5> 생활문화시설의 정의 및 조성 방안	194
<표5-6> 위계별 공공문화체육시설 공급기준	194
<표5-7> 기존 공공문화시설과 마을예술창작소의 비교	195
<표5-8> 문화시설의 공급 기준	197
<표5-9> 부천시 생활문화시설의 최소 기준	201
<표5-10> 부천시 도서관 현황	202
<표5-11> 부천시 구별 작은 도서관 현황	203
<표5-12> 부천시 도서관의 최소 기준	204
<표5-13> 프로그램 관련 지역문화지표	206
<표5-14> 학교아트밸리 연도별 사업 규모	207
<표5-15> 학교아트밸리 학교 급별 프로그램당 인원 수	207
<표5-16> 부천평생학습센터 학습동아리 등록 현황(2011~2012년)	208
<표5-17> 문화통합이용권 예산 비교	209
<표5-18> 찾아가는 문화 활동 예산 비교	210
<표5-19> 도서관 및 주민센터 1관 당 강좌 수 및 인구수	210
<표5-20> 도서관 1관 당 강좌 수 및 인구수	211
<표5-21> 주민센터 1관 당 강좌 수 및 인구수	211
<표5-22> 부천시 권역별 문화 활동비 지출 현황	212
<표5-23> 오락·문화비 지출 현황	213



목 차

<표5-24> 프로그램 최소기준(안)	213
<표5-25> 문화마을 프로그램 세부추진과제	214
<표5-26> 문화예산 관련 지역문화지표(2012년)	215
<표5-27> 지자체별 총예산(문화예산) 대비 문화마을 예산 비중	216
<표5-28> 부천시 행정단위별 문화마을 관계예산 세부	217
<표5-29> 부천시 자치구별 문화마을 관계예산 세부	217
<표5-30>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문화 분야 사업선정 현황	218
<표5-31> 지자체별 1인당 문화관계 예산 및 문화마을 예산 비교	219
<표5-32> 지자체별 문화마을 관계예산 비교	220
<표5-33> 문화마을 예산 최소기준(안)	220
<표5-34> 예산 최소기준 세부추진과제	221
<표5-35> 부천시 문화마을 거버넌스 예산 현황(2015년 기준)	228
<표5-36> 너른문화네트워크 세부 프로그램	228



<그림 차례>

[그림1-1] 부천시 문화정책 구상에 따른 도시이미지 변화	35
[그림1-2] 부천 형 문화도시 만들기 단계별 추진계획 구조도	36
[그림1-3] 문화도시(마을) 도약 단계별 구상	38
[그림1-4] 연구방법	39
[그림2-1] 플라톤의 4가지 삶	50
[그림2-2] 쿠싱의 4가지 지역구분	59
[그림3-1]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구성 주요내용 ('15년 8월 기준)	65
[그림3-2] 문화마을의 개념정의 기본모델	69
[그림3-3] 주민공동체 구축 4단계	77
[그림3-4] 제주 서귀포 - 월평, 예술로 물들다	80
[그림3-5] 강원 춘천 -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낭만골목'	80
[그림3-6] 문화이모작 사업의 목적	82
[그림3-7] 문화이모작 사업추진 프로세스 구성	83
[그림3-8] 생활문화센터 현황	90
[그림3-9] 따복공동체 행정부문 거버넌스 구축(안)	107
[그림3-10] 창조적 공유지로서의 혁신 거버넌스 : 기능과 역할 및 구성요소	112
[그림3-11] 공유성북원탁회의의 운영 원리	113
[그림4-1] 부천시 문화 활동 유무 및 방문지역	127
[그림4-2] 5년 이내 이사 계획	128
[그림4-3] 문화특별시 부천 정책 추진 현황	132
[그림4-4] GIS 분석의 의미	153
[그림4-5] 부천시 인구밀도	154
[그림4-6] 부천시립도서관 도서대출 분석(2012년)	155
[그림4-7] 부천시립도서관 도서대출 분석(2015년)	156
[그림4-8] 부천시립도서관 도서대출 분석(2012~2015년)	157



목 차

[그림4-9] 지리적 10등간 처리	158
[그림4-10] 지도계산기 10등간 처리	159
[그림4-11] 부천시립도서관 대출현황 10등간 처리결과	160
[그림4-12] 문화 프로그램 데이터 수립 현황	161
[그림4-13] 부천시 문화프로그램의 지리적 분포	163
[그림4-14] 부천시 문화프로그램 수요·공급 편중 현상	164
[그림4-15] 부천시 문화프로그램 지도계산기 적용	165
[그림4-16] 부천시 문화프로그램 공급의 편중현상	166
[그림4-17] 복지시설 수와 강좌, 인구분포	167
[그림4-18] 복지관별 강좌 수 및 공동주택가격 비교	168
[그림4-19] 주민센터 강좌 수와 공동주택가격 비교	168
[그림4-20] 문화시설 강좌 수와 경제력과 인구밀도 관련성	169
[그림4-21] 도서관 강좌수와 인구분포, 공동주택가격 비교	170
[그림4-22] 부천시 생활문화활동의 지리적 편중	170
[그림4-23] 부천시 문화예술프로그램 및 생활문화예술동아리 교차분석	172
[그림4-24] 부천시 주택유형 현황	173
[그림4-25] 부천 아파트 기준시가를 활용한 소득수준 분포도	173
[그림4-26] 부천시 문화향유와 주택요인(아파트 밀도)	174
[그림4-27] 문화향유와 주택요인(아파트 기준시가/2그룹)	174
[그림4-28] 향유와 공급의 격차	175
[그림4-29] NEA 문화예술 관람 장벽과 동기에 대한 그룹 비교	176
[그림4-30] 부천시 주택데이터 분석 시사점	176
[그림5-1] 사회권 개념도	186
[그림5-2] 문화마을 최소기준 설정 원칙 및 방향	187
[그림5-3] 부천시 도서관 시설 및 서비스 만족도	199
[그림5-4] 문화마을 프로그램 최소기준 설정 구조도	205
[그림5-5] 생활문화복지 특화 정보 제공 기관의 필요성]	208
[그림5-6] 생활문화복지 활성화를 위한 부천시의 최우선 과제	209



목 차

[그림5-7] 문화마을 예산 최소기준 설정 구조도	215
[그림5-8] 행정의 중간지원조직과의 역할분담	226

2015년 지역문화컨설팅

연구내용 요약

1. 연구개요

가.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내부 환경 : 공장도시에서 문화도시로 변화
 - 1994년 이전 : 농·공업 도시로 인식(62.0%)
 - 농촌·공업도시(62.0%), 사건·사고(11.5%), 위성도시(8.8%), 복사골예술제(5.0%)
 - 1995년~ : 3대 문화산업(만화·영화·음악) 집중 육성, 문화도시로 인식(74.5%)도기 시작
 - 3대 국제축제(BiFan, BIAF, BICOF) 개최 및 한국문화영상진흥원,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 운영
 - 시민이 행복한 ‘문화특별시’를 위한 정책구상
 - 2013년~2014년 : 생활밀착형 문화사업 및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추진
 - 문화마을 :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제정(2013년) 및 지원센터 설립 예정
 - 생활문화 : 생활문화 지원조례 제정(2014년) 및 중간지원센터 설립 예정(2015년)
 - 유휴공간 문화적 재생 : 삼정동소각장 미래문화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2014년~)
 - 지속적인 문화정책기조를 유지해 온 부천시의 의지에 비해 사업수행에 있어서 체계적인 시스템이 여전히 불비함
 - 문화도시에 대한 비전의 내재화와 일상 속에서의 체감 필요
 - 문화예술행사 참여율은 26.1%, 그중 42.4%가 만족하고 있음(부천시 사회조사분석, 2013.)
- 외부환경

- 문화마을 정책 부상과 문화적 권리 보장 측면에서의 ‘최소기준’ 설정 움직임

- 대한민국헌법 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음
-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국민의 최저한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근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음
- 그러나 문화영역에서 문화적 권리 보장 측면에서 최소기준 설정에 대한 기초논의는 미진함

2) 연구목적

- 중간지원조직(공공+민간)현황 파악 및 역할정립
- 문화도시 정책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
 - 유관 정책 연계 : 3대 문화콘텐츠산업 정책+생활밀착형 사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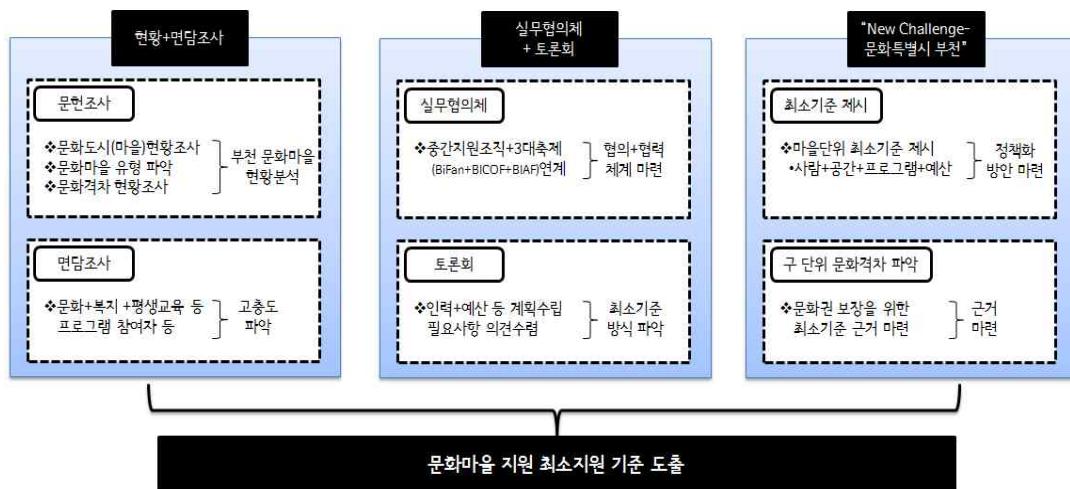
- 제도/기반 조성 : 마을단위 별 정책 및 사업지원에 대한 최소기준 설정, 계획 구상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 문화특별시 부천 문화도시 유관 정책 분석현상 분석
- 시민을 위한 도시, 시민에 위한 도시, 시민의 도시가가 '문화특별시 부천'의 궁극적 지향점으로 보고 이를 위한 시민소통방식 등 시민성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 모색
- 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단위 별 지원의 최소 기준 설정 및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공간적 범위 : 마을단위 계획을 중심으로

□ 연구방법



[그림] 연구방법

2. 문화마을 최소기준 개념과 목표

가. 문화마을이라는 사회적 최소조건

□ 사회적 최소조건과 5가지의 도구적 자유

- 아마티아 센이 제시하는 자유에 도달하기 위한 5가지의 도구적 자유 역시 경제적 최소조건과 사회적 최소 조건을 모두 포함함
- (1) 정치적 자유: “누가 어떤 원칙으로 지배하는가를 결정할 기회를 말한다. 또한 여기에는 당국을 감시하

고 비판할 수 있는, 정치적 표현과 검열 없는 언론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서로 다른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아마트야 센, 2013: 87)

- (2) 경제적 용이성: “소비, 생산, 혹은 교환의 목적으로 경제적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 개인들이 누리는 기회”(아마트야 센, 2013: 87)
- (3) 사회적 기회: “사회가 교육, 보건 등을 위해 만들어놓은 제반 제도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개인의 실질적 자유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제도들은 개인적인 삶의 영위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활동에 더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아마트야 센, 2013: 88)
- (4) 투명성 보장: “투명성 보장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개방성의 필요와 관련 있다. 그것은 정보가 명료하게 공개되는 상황에서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자유다. 그러한 신뢰가 심각하게 침해될 때, 많은 사람들의 삶의 개방성의 결여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아마트야 센, 2013: 88)
- (5) 안전 보장: “안전보장이란 사람들이 절망적인 비참함, 혹은 기아나 사망 때문에 고통을 겪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 안전보장의 영역은 실업 급여나 빈곤층에 대한 소득 보조와 같은 안정된 제도적 배열뿐만 아니라 기근 구제나 극빈층에게 소득을 제공하는 비상 공공근로와 같은 긴급 조치를 포함”(아마트야 센, 2013: 88-89)

나. 문화마을이라는 지향점

- 문화마을에 대한 부정적 정의(4) : 문화마을의 공간단위는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는다
 - 문화마을의 단위는 행정적 목표를 위한 시군부 구획 단위와는 관계없음
 - 문화마을의 기본 단위는 행정적 구획보다는 실제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사실상의 교통망/의사소통망(communication)의 형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 ‘마을’은 행정적 단위의 공통성이 아니라 의사소통망을 공유하고 있는 집합체가 자신이 속한 집합체에 부여하는 상징이자 공감의 단위
 -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공감이 형성되면 ‘마을’의 개념이 물질성을 획득하지만, 공감이 부재하면 ‘마을’이라는 기호는 공허함
 - 이런 맥락에서 인구이동이 반복하고 이로 인해 상호작용의 시간적 역사와 상호작용 빈도와 강도가 관계로 축적되어 있는 공간에는 행정구역의 의미로서의 ‘동’은 존재하지만 문화적 의미의 ‘마을’은 존재할 수 없음
 -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문화마을에 대한 망각적 사례: 염리동 창조마을, 방학동 방아골 마을, 상도동 상대골 마을 등
- 지향점으로써의 문화마을
 - 문화마을의 지향(1) -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써의 문화마을

- 문화마을의 지향(2) - 동질성에 기반을 둔 공동체(community)가 아니라 공통성에 기반을 둔 공통체(commonwealth)로써의 문화마을
- 문화마을의 지향(3) - 강한 유대가 아니라 약한 유대(weak tie)에 의한 사회자본 재생
- 문화마을의 지향(4) 문화를 매개로 한 역량 회복
- 문화마을의 지향(5) 인간친화기능과 자기성찰 기능의 배양
- 문화마을의 지향(6) 취향의 공통체로써의 문화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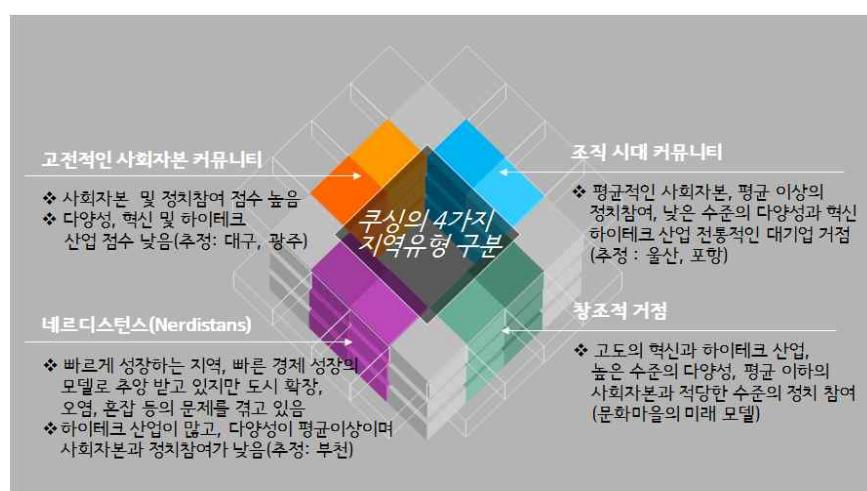
다. 문화마을의 실현을 위한 방향성

□ 문화마을 실현 가능성: 인구 흡입 요인과 배출 요인에 대한 해석

- 거주지를 결정할 때 사람들은 경제적인 것과 라이프 스타일적인 사항을 중요하게 여김
- 지역의 라이프 스타일적 측면이 지역의 어메니티를 규정하며, 어메니티의 매혹성의 차이에 의해 인구 흡입과 인구 배출이 이루어짐
- 한 지역이 이른바 창조계급을 흡입하는 요인을 갖고 있는지, 배출하는 요인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문화마을의 실현 가능성은 달라짐

□ 문화마을 모델 구현 장소의 특성에 대한 분석

- 통계학자 로버트 구성의 연구: 사회자본, 인적 자본 및 창조 자본에 대한 실증적 검증
- 구성에 의한 4가지 지역 유형 구분



[그림] 구성의 4가지 지역구분

- 높은 사회자본 공동체는 사회적 고립과 안전 및 안정성에 강한 선호도, 가장 낮은 경제성장
- 높은 사회자본 공동체의 특징은 폐쇄성 정신 구조
- 창조적 거점은 다양성과 관용성의 정신구조(예- 게이지수, 보헤미안 지수가 높음)

3. 문화도시(마을) 정책현황

가. 부처별 추진정책

- 각 부처(청)별 지역문화공동체 관련 정책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행자부는 마을기업 육성, 정보화마을 조성, 평화생태마을 조성 등 3개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역공동체 기반 관련 사업(2개)이 단순지역개발 사업(1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농식품부는 색깔 있는 마을, 전원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어촌마을리모델링, 농촌공동체활성화 사업, 공동체회사 육성사업 등 5개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환경부는 농·산 어촌을 대상으로 자연생태 우수마을 및 자연생태복원 우수마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순지역개발의 특성을 갖고 있음
 - 고용부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지역공동체 기반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기재부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협동조합의 모델 발굴 및 성장 지원을 위하여 민간 조직과 연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문체부는 지역공동체 기반 문화마을 조성사업, 관광두레 시범사업, 문전성시 프로젝트 등 3개의 정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나. 거버넌스 구축

1) 경기도 따복공동체

- 광역차원에서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2012)를 제정, 2015년 따복공동체지원센터를 설립함(마을과사회적경제 수탁)
- 민선6기에서 사회적 경제 및 마을 만들기 분야에 대한 융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목표로 중간지원조직인 ‘따복공동체지원센터’를 설립함
-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와 마을 만들기 사업의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함
- 주요사업

- 따복공동체에서 제시하는 마을의 유형은 6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표> 따복공동체 모델 유형

유형	마을명	성과	시사점
문화 마을	수원 조원동 대추동이 문화마을	마돈나돈까스 운영 수익으로 마을환경 개선, 복지, 주민교육 등 활발한 활동	협동조합인 마돈나돈까스를 운영 하여 사회적 경제를 통한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확보
관광 마을	남양주시 능내1리 연꽃마을	주민주도로 하천 및 유류부지가 연꽃 테마 단지로 변화(연매출 4억 원) 전국마을만들기콘테스트, 도시부문 수상	주민참여를 기반으로한 공동체 활동과 행정기관의 지원으로 규제 극복, 소득 창출 기반 마련
마을 학교	시흥 하중동 참여스쿨 평생학습 마을학교	주민들의 이해·소통 마련 전국 최초의 평생학습 마을이자 국내 외 벤치마킹 대상으로 자리매김	삶의 질에 대한 고민을 하는 마을리더와 열정과 의지를 가진 주민의 만남이 성공적인 공동체 활동
유류 공간 재생	시흥 정왕동 참새방앗간	방치 공간이 400여명 주민이 만나서 대화하고 공부하며 활동하는 공간으로 변화	초기에는 비판적이던 세대도 점차 모여들어 전체 아파트 활동 확산 재능기부, 취미교실 생활품 수익으로 수익금 창출
조합	화성 풀향기 영농조합	연 매출 1억 2천만 원 전국 마을기업 박람회 매출액 1위 달성 마을 노인의 일자리 창출	원주민과의 소통과 나눔을 통한 마을 공동체 농산물 직거래 판매로 일자리 창출 민농민 소득 증가
사회적 기업	화성시 사회적기업 (주) 컴원	취약계층에 PC 기증 '14년도 매출 20억 원 직업 28명 중 18명이 취약계층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신감과 희망 제공 지원의 효율적인 재활용과 사회나눔활동으로 선순환 경제 가능성 제시

- 따복공동체 지원센터 사업의 특징은 융합적 사업 추진과 민관 거버넌스 구축에 있음

- 따복공동체 사업은 사회적 경제 전반과 마을 만들기 등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 분야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표방하므로, 정책운영의 핵심은 연대와 협력에 기초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에 있음

2)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생태계만들기, 공유성북원탁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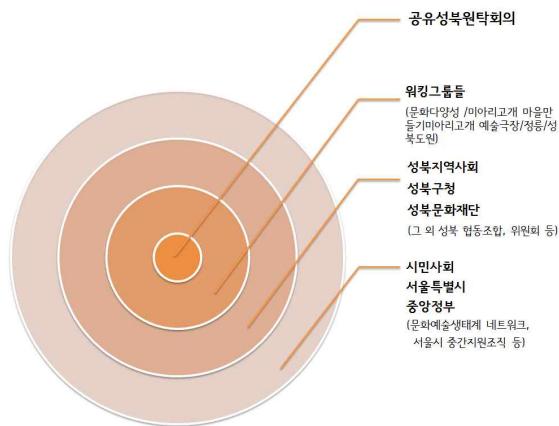
□ ‘공유성북원탁회의’의 제안 배경

- 지역문화생태계 형성으로서 성북 지역문화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유지” 조성
- 창의적인 거버넌스 실험으로서 지역문화 주체들 사이의 능동적인 거버넌스에 기반한 “커뮤니티 예술” 활성화
 - 지역문화를 둘러싼 문화적 가치와 권리의 확대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
 - 다양하고 창의적인 “민+민”, “민+관” 거버넌스 시스템(성북문화공간운영위원회, 성북마을축제위원회, 성북문화콘텐츠공유 협동조합, 성북문화예술창고 등)을 실험하고 성과를 공유
- 중장기적이고 생태계의 관점에서 협력 및 지원
 -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 성북구 마을 및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성북구내 다양한 중간지원조직 등을

비롯하여 지역 내 공공영역과 자율 활동 사이의 연계성 및 관계 확장

□ 공유성북원탁회의 구조

- 실질적인 활동들이 진행되면서 활동 의제별로 5개의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운영
- 5개의 워킹그룹은 각각 원하는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구성하고, 모인 사람들이 해당 워킹그룹의 활동 방향 및 운영 방식을 토론하고 결정하여 진행



[그림] 공유성북원탁회의의 거버넌스 구조

□ 5개 워킹그룹 활동 현황

<표> 공유성북원탁회의 워킹그룹 활동 현황

워킹그룹	성격	사업명
정릉	초기에는 서울시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인 <정릉 마음시장>을 공유성북원탁회의 차원의 거버넌스 모델로 사업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시작되었음	정릉마음시장, 정릉예술마을만들기, 정릉적정기술놀이터
미아리고개 마을 만들기	미아리고개의 하부 공간을 도시 재생하는 <미인도> 프로젝트 사업 진행	미인도
미아리고개예술극장	아리랑아트홀 공간을 문화재생하고 그 이후 다양한 공연 작품 진행	아리랑아트홀 공간재생, 변방예술제, 10분 연극제, 인권연극제
문화다양성	성북문화재단과 성북구청과 연계하여 활동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성북도원	무허가 식당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생 작가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전시 진행	성북예술창작터

다. 최소기준 관련 설정현황

□ 현재 문화마을 최소기준 설정을 위한 지표 및 지수, 통계는 생산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일부 도시 차원의 지표 및 지수, 통계 등이 생산되고 있으나, 마을단위 측정 도구는 부재한 상황임
- 도시 차원의 진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표 및 지수, 통계 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최근 ‘지역공동체행복지표’ 등 주민들의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 활발해지고 있음
- ‘지역공동체행복지표’는 3개 영역, 88개 세부지표를 구성하여 읍면동 마을자원 현황, 지역공동체 역량, 주민 삶의 질 현황을 담은 지표를 개발하였음

<표> 문화도시(마을)진단지표 분류 항목

작성기관 (연구명)	문화지표 관련 공통요소		
	문화정책	문화시설	문화 프로그램
문화통계 및 지표체계 연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6)	-	문화유산	대중매체, 여가활동, 문학예술, 사회적문화활동
문화지표체계개선 (한국문화정책기본원, 1995)	-	문화유산	대중매체, 여가활동, 국제문화교류, 문학/예술, 사회적문화활동
서울시 문화지표 설정 및 측정연구 (서울시정책기본연구원, 1995)	문화행정인력, 문화재정, 문화홍보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전통문화자원, 문화 활동
국민문화지수체계개발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정책기본원, 2000)	-	문화유산	여가활동, 대중문화, 문학/예술, 사회적문화활동
대구경북개발원 (문화도시 대구, 현주소와 발전방향, 2003)	문화예술예산, 행사참여도, 문화지수, 문화인식도	문화예술인프라, 문화기반시설현황, 역사문화자원	향토문화축제, 예술단운영현황
문화도시 부산을 위한 전략과 정책방향 연구(부산발전연구원, 2009)	인적자원, 문화 활동, 문화지수	전문문화시설, 생활문화시설, 여가시설, 전통문화자원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건설교통부, 2006)	지역문화정책 유무 및 정책 조례 수립 건수, 문화예술 관련 공무원 수, 문화역사자원의 보전을 위한 지구지정 및 단위시설 지정	지역문화시설 확충정도, 지역문화시설 이용실적, 옥외공간문화 조성 건수 및 면적	지역문화행사 실적, 지역문화교실 교육실적,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
충청북도 문화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충북발전연구원, 2009)	지역문화정책평가	문화 인프라, 문화향수 및 수요, 일반현황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대상 (건설교통부, 2007)	지역문화정책 및 관련조례 제정 건수, 문화예술관련 예산 및 공무원 수, 문화역사자원 보전을 위한 지구지정 면적 및 단위시설 지정건수	지역문화시설 확충도, 지자체소유 문화예술단체 및 시설의 접근성 향상도	지역문화행사 건수 증가, 지역 내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시설의 이용향상도,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개선도
서울 커뮤니티 재생지표 (서울연구원, 2011)	-	-	자생력(마을가꾸기 활동)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 (농촌경제연구원, 2012)	-	삶의 여유공간(문화시설 체육시설)	-
마을진지표의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	문화시설 불만족도	-
인천발전연구원 (인천광역시 문화지표 설정 및 조사에 관한 연구, 2013)	공공지원(인력, 재정), 민간지원(문화진흥기금지원액)	문화향수 및 수요, 문화산업, 인문사회환경시설, 문화자원	향토문화축제, 예술단운영현황
국민 삶의 질 지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	-	여가시간 및 활용, 문화 활동
경기도 미래지표 (경기개발연구원, 2014)	-	도서관당 인구수	국민문화향유율
서울형 행복지표 (서울연구원, 2015)	-	-	문화여가시간, 삶의 균형
지역행복지수 (지역발전위원회, 2015)	-	천 명당 도서관 수, 천 명당 문화시설 수	문화여가만족도

지역문화지표 (문화체육관광부, 2015)	정책수립(종합계획), 정책실행(조례 등), 정책예산, 문화 활동(단체수, 활동인력 등)	문화유산, 문화기반시설, 문화시설활용, 문화자원(축제, 일간당장서수 증가율)	문화 복지(문화향유, 문화 복지-문화프로그램 건수 등)
지역공동체행복지표 (행정자치부, 2015)	공동체 역량(인력)	마을자원 영역(역사 및 관광자원 수), 삶의 질 영역(문화기반시설 수 및 이용률)	공동체역량(중간지원 조직 등 공동체 기반 협회, 프로그램 등 공동체 과정)
공통요소	문화관련 조례 및 예산	문화재수, 문화기반시설현황	지역문화행사, 문화교실
추가요소	문화 활동 인력	문화시설 이용실적(인구수/시설), 문화시설 만족도	공동체 중간지원 조직

□ 문화적 환경 및 인프라 지원 정책에서 문화적 권리 보장 측면의 접근 필요

- 기존 문화정책 연구는 주로 문화 환경이나 인프라를 지원하는 정책이 주를 이루어, 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한 ‘문화마을 최소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준으로 설정하기에는 특성화되어 있지 못함
- ‘문화권 NAP 수립을 위한 기초 현황 실태조사와 정책연계 방안’(2004,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에서는 문화권 정의 및 범주화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음
 - 4개영역(문화자유권, 문화평등권, 문화 참여권, 문화 환경권)과 18개 세부 분야를 설정하고 있음

<표> 문화권의 주요 범주 설정

문화권	분야별	세부영역
문화 자유권	표현의 자유	정치적 이념 표현의 자유 성표현의 자유 정보통신 활동의 자유
	학술사상의 자유	학술사상 주장의 자유 학술사상 출판의 자유 학술사상의 교육의 자유 학술사상 단체 활동의 자유
	종교 활동의 자유	종교적 표현의 자유 종교적 문화 활동의 자유 양심적 병역거부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언론 취재의 자유 언론 취재원의 보호
문화 평등권	양성 문화평등	양성표현의 자유 양성표현의 출판 및 제작의 자유 양성문화 차별의 금지 양성문화 평등의 사회적 실현
	성적소수자 문화 평등	성적 소수자 표현의 자유 성적 소수자 출판 및 제작의 자유 성적 소수자 문화 활동의 자유 성적 소수자 문화차별의 제한
	이주 노동자 문화평등	이주 노동자 문화적 차별 금지 이주 노동자 자녀 교육권 확대 이주 노동자 문화적 자유 이주 노동자 문화 다양성 확대
	탈북자 문화평등	탈북자의 문화적 차별 금지 탈북자 자녀 교육권 확대 탈북자 문화적 적응지원

문화 참여권	장애인 문화평등	장애인의 문화차별 금지
		장애인의 문화접근권 확대
		장애인의 교육권 확대
	청소년 문화 활동	청소년 문화차별의 제한
		청소년 문화격차의 해소
		시민의 공공문화참여 기회 확대
		시민의 방송제작 참여 기회 확대
		시민의 평생교육권의 확대
		학생들의 문화교육권
		대안적 문화교육권의 확대
	문화공공서비스권	공공문화기반시설 이용 권리
		공공문화장소의 가격할인
		문화정보 서비스권
	문화행정 시민참여권	공공 문화행정 감시권의 확대
		공공 문화축제의 시민참여권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재 보호의 민간 참여확대
		문화재 정책의 시민 참여확대
	문화 환경권	쾌적한 주거환경의 권리
		주거환경 보호의 권리
		녹지보존의 권리
		주거 균형공원 향유의 권리
	보행권	보행권
		사회적 약자의 보행권의 확대
	문화영향평가제도	난개발로 인한 문화 환경 침해 제한의 권리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의무화
		문화재 보호의 권리
	문화재 향유권	문화재 향유의 권리
		문화재 교육의 권리

※ 자료원 : 국가인권위원회, “문화권 NAP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 및 실태파악 정책연계 방안”, 2004, 65~66쪽 인용.

□ 보건사회연구원(2004)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에서는 최저생계비] 아래 <표>와 같이 품목별 최저 생계비를 품목별로 정의한바 있음

<표> 최저생계비의 생필품 항목

구분	정의
교양 오락비	• 최저 교양오락비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지난 최소한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용

※ 자료원 : 장세길, “문화 복지 기준설정에 관한 기초 연구”, 전북발전연구원, 2012, 89쪽 인용

4. 부천시 문화마을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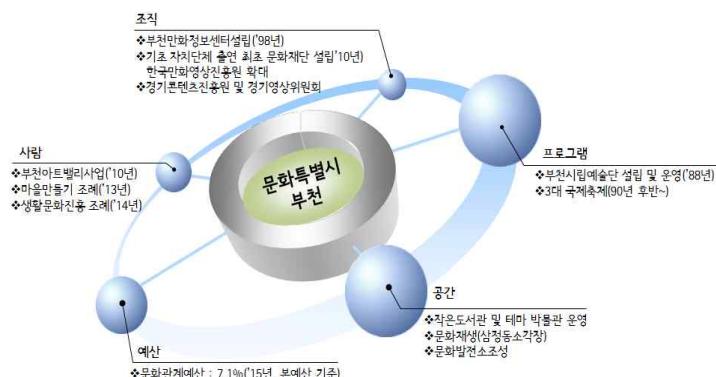
가. 부천시 정책 및 사업 현황

1) 추진체계

- 부천시 문화마을 관련 부서는 4국(2기획단) 6과 9개팀 등이 관련성이 있음
- 복지국(1개): 복지운영과(복지운영팀), 무한돌봄팀)
 - 행정지원국(2개): 참여소통과(주민자치팀), 평생교육과(평생학습운영팀)
 - 문화기획단(2개): 문화예술과(문화팀, 예술진흥팀), 문화시설팀), 문화산업과(영상문화팀)
 - 균형발전사업단(1개): 원도심지원과(마을만들기팀)

2) 주요사업

- 만화·영화 등 3대 국제행사와 음악을 통해 문화도시로써의 정체성 구축
-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1997년)를 통한 지역이미지 메이킹
- 부천 팔하모니오케스트라를 통한 문화도시이미지 홍보
-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을 통한 만화도시 이미지 홍보
-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통한 만화산업 활성화
-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연중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고 구현되는 문화도시 구현
-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 까지 예술의 대중화 정책 구현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
-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2013년)’를 근거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 부천시는 2014년 6월 민선6기 시정목표 및 3개 중점과제를 발표함



[그림] 문화특별시 부천 정책 추진 현황

3) 공간 및 프로그램

- 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에서 부천은 전국 및 경기도 평균보다 낮았고, 지역 간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음

- 2014년 인구 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는 전년보다 전국(0.2개)·경기도(0.1개)로 격차 확대
 - 도서관 1관당 평균 인구수는 소사구(186,548명)가 가장 많았고, 원미구(55,330명)가 가장 낮았음
 - 도서관 1관당 평균 자료 수는 오정구(51,473권)가 부천시 평균(86,093권)보다 매우 낮았음
 - 박물관 1관당 평균 면적(62,303m²)은 오정구(1,365m²)가 가장 낮았음
- 도서관·주민자치센터에서 637개 강좌가 운영 중이며, 시설평균 운영 강좌 수는 14.5개로 나타남
- 소사구(15.8개)>원미구(15.5개)>오정구(9.4개) 순으로 조사됨
- 도서관 1관당 강좌 수는 오정구(21.0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원미구(33.0개) > 소사구(21.7개) > 오정구(21.0개) 순으로 조사됨
- 주민자치센터 1관당 평균 강좌 수는 10.6개, 오정구(7.7개)는 평균보다 낮음
- 소사구(11.7개)>원미구(11.2개)> 오정구(7.7개) 순으로 조사됨

<표> 부천시 공간 및 프로그램 지역 간 격차 현황

구분	내용		
공간	문화기반시설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경기) 평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 0.5개, 경기: 0.4개, 부천: 0.3개)
	도서관 (1관당)	인구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편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 평균(77,781명) > 소사구(186,548명)·오정구(113,200명)
		자료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정구 부천 평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 평균(86,093권) > 오정구(51,473권)
	박물관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미구(8,182m²) 부천시 평균(65,303m²) 이상 • 원미구(8,182m²)>소사구(3,209m²)>오정구(1,365m²)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주민자치센터 637개 프로그램 운영, 시설평균 14.5개로 조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사구(15.8개)>원미구(15.5개)>오정구(9.4개) 순임 • 도서관 1관 당 강좌 수 : 오정구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미구(33.0개) > 소사구(21.7개) > 오정구(21.0개) • 오정구(7.7개) 주민자치센터 강좌수 부천 평균(10.6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사구(11.7개)>원미구(11.2개)> 오정구(7.7개) 		

4) 예산현황

- 총예산 대비 ‘문화 및 관광예산’ 비중은 전체 평균(6.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영역 예산은 2013년부터 예산 비중이 전체 평균(29.2%) 보다 높게 나타남
- 그러나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수송및교통, 예비비’ 등은 예산 비중이 낮아지고 있음

<표> 부천시 총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대비 기능별 예산비중(08년~15년)

(단위 :%)

구분	평균	15년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09년	08년
일반공공행정	7.6	4.9	7.0	9.3	8.6	8.4	7.2	5.7	9.6
공공질서및안전	0.8	1.3	1.1	1.2	1.2	0.4	0.3	0.6	0.4
교육	2.9	4.3	4.7	4.5	3.4	2.6	1.1	1.2	1.7
문화및관광	6.6	6.5	5.7	6.1	5.8	6.0	7.4	7.5	7.7
환경보호	6.0	5.8	6.3	6.4	4.9	5.9	5.2	6.3	7.2
사회복지	29.2	37.8	36.1	32.5	26.0	28.6	24.9	24.6	23.4
보건	1.5	2.0	1.9	2.0	1.4	1.4	1.2	1.1	1.1
농림해양수산	0.8	0.9	0.7	0.7	0.7	0.6	0.4	1.8	0.6
산업·중소기업	2.1	2.1	1.9	1.7	1.6	2.4	2.5	2.3	2.2
수송및교통	20.5	10.9	12.1	11.4	25.7	21.9	30.0	27.5	24.3
국토및지역개발	5.9	6.8	5.8	6.7	6.2	6.6	5.3	4.6	5.2
예비비	1.7	1.2	1.4	1.3	2.2	1.4	2.0	2.6	1.8
기타	14.3	15.5	15.3	16.0	12.4	14.0	12.7	14.2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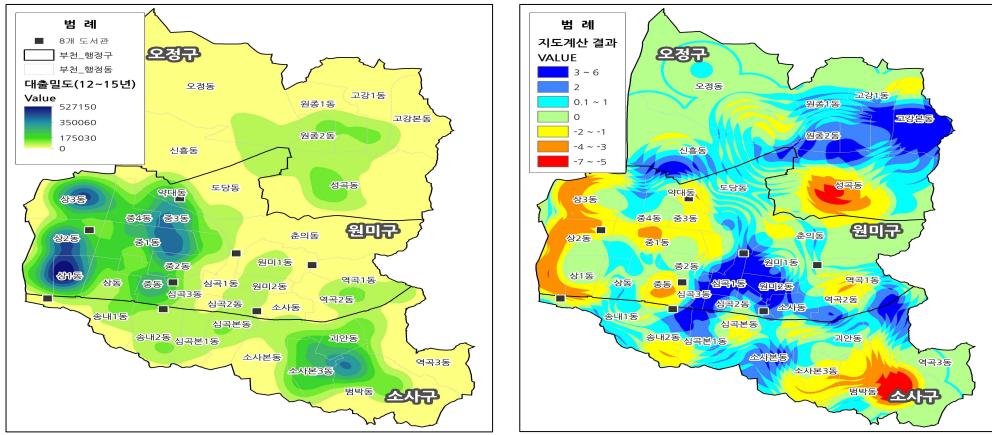
나. 부천시 문화마을 진단

1) 공간

□ 도서관 : 2012~2015년 - 443만 건 분석

- 부천시 8개 공공도서관에서 2012년부터 2015년 9월까지 도서대출한 443만 건을 한 장의 GIS 지도에
압축하면 4개의 이용객 밀집지역이 도출됨
- 부천시 전체 면적 중에서 1) 원미구 상동지역, 2) 원미구 중동지역, 3) 소사구 소사본3동지역, 4) 오정구
원정·성곡동지역이 고밀도를 형성함
- 과거 2010년 부천문화재단에서 수행한 공공도서관 대출이용객, 공연 관람객, 문화교육 프로그램 참여객
에 대한 GIS 공간분석에서도 거의 동일한 패턴이 드러남
- 지리적 10등간 처리
 - 원미구 상동의 '연초록' 지역은 인구밀도의 점수와 대출밀도의 점수가 똑같은 곳으로 '상1동'의 중심에
표현된 '연초록'지역은 부천시 전체에서 '인구밀도 10점'지역이면서 동시에 '대출밀도 10점'지역이라는
의미임. 인구도 가장 많고 도서대출도 가장 활발한 지역임

● ● ● 문화마을 최소기준과 거버넌스 모델 구축



부천시립도서관 도서대출 분석(2012~2015년) 부천시립도서관 대출현황 10등간 처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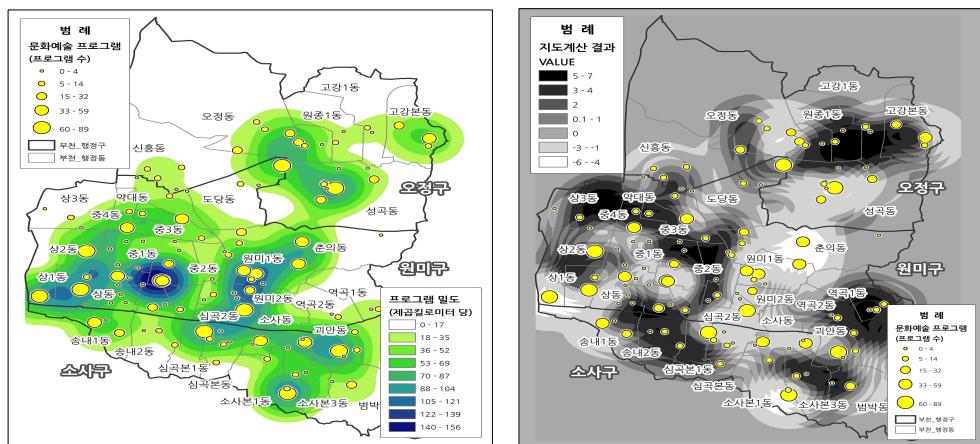
[그림] 부천시 도서관 대출 분석 및 10등간 처리결과

2)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리적 분포

① 강좌 등 문화프로그램

□ 문화프로그램의 지리적 분포

- 부천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59개 장소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제공된 1909개 문화 프로그램의 지리적 분포를 2가지 시각화 방법으로 GIS 지도에 표현함
- 이 지도는 값이 클수록 검은색의 농도가 진하게 표현되었는데, 이는 인구밀도는 높지만 문화 프로그램 공급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을 의미함
- 예를 들어, 오정구의 진한 검정지역은 인구밀도는 10점대로 높지만 문화 프로그램의 상대적 공급점수는 3점 수준에 불과하여 ‘인구점수’에서 ‘프로그램 점수’에 뺄셈을 적용하면 ‘7점’이 나왔다는 것으로 공급이 불균형하다고 해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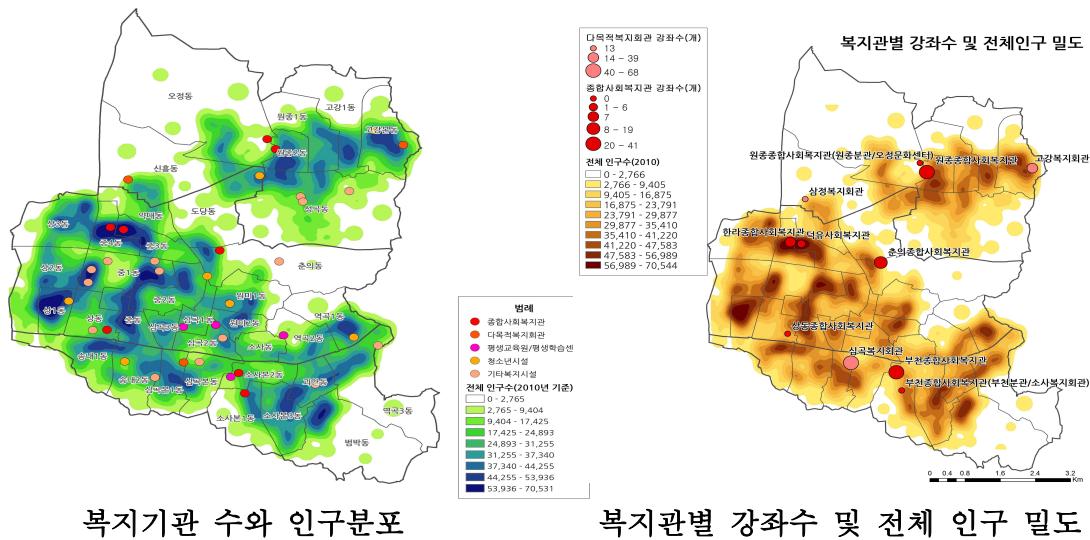


부천시 문화프로그램의 지리적 분포

부천시 문화프로그램 공급의 편중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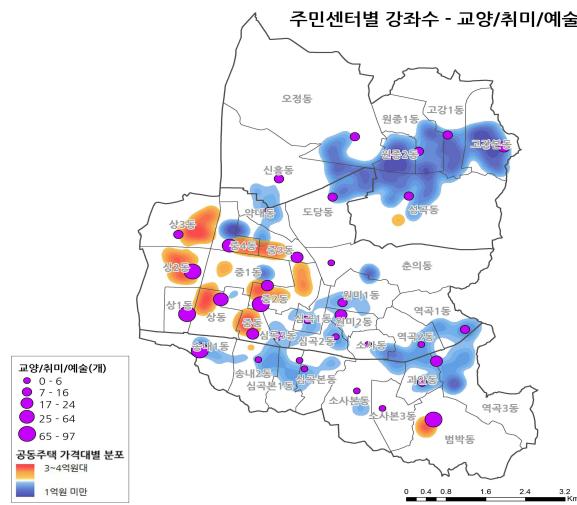
[그림] 부천시 문화프로그램 지리적 분포 및 공급 분석

- 원미구의 춘의동 지역은 바탕이 흰색으로 인구밀도에 비해 문화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그림] 복지시설 수와 강좌, 인구분포

- 주민자치센터 강좌 수와 경제력을 상관관계를 보임
- 중상동 지역은 교양취미예술 등 강좌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력과 비례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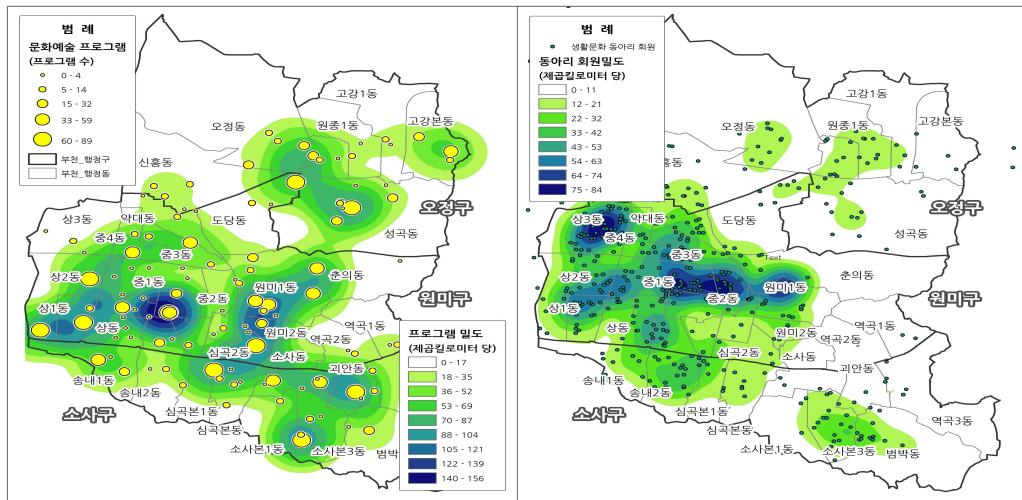


[그림] 주민센터 강좌 수와 공동주택 가격 비교

② 생활문화활동의 지리적 편중

- GIS 밀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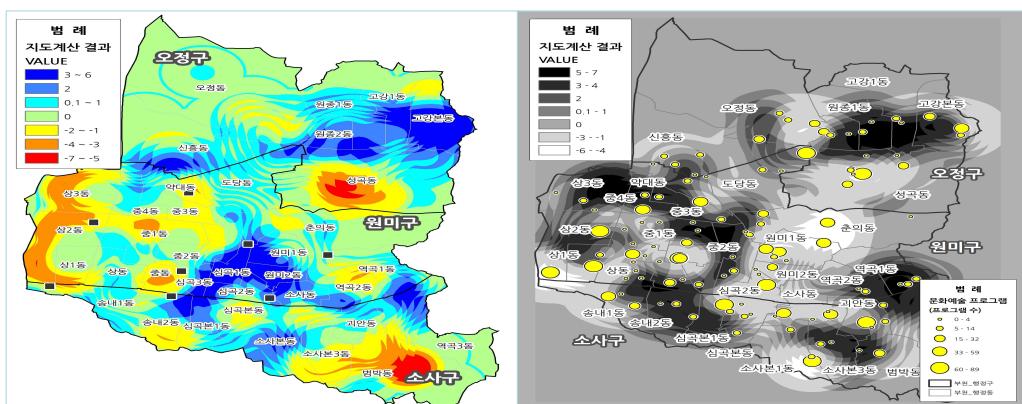
- [왼쪽 지도]는 부천시 공공기관에서 운영한 1909개 문화 프로그램의 지리적 분포이며, [오른쪽 지도]는 부천시 소재 문화예술 동아리의 회원 분포도임
- [오른쪽 지도]인 회원분포도는 실제 활동 중인 회원을 전수 추적한 것이 아니라 주소정보가 있는 한정된 데이터에 기반을 두어 신뢰도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예를 들어, 원미구 원미1동 지역은 도서관 대출밀도는 상대적으로 미약했지만 문화 프로그램 제공기관과 제공 프로그램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문화예술 동아리 회원의 분포도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됨



[그림] 부천시 문화예술프로그램 및 생활문화예술동아리 교차분석

③ 교차분석 : 향유와 공급의 격차

- 부천시의 경우, [왼쪽 지도]가 표현하고 있는 인구밀도와 도서관 대출이용과의 격차현상, [오른쪽 지도]가 표현하는 인구밀도 대비 1909개 문화 관련 프로그램 공급의 격차는 상당지역에서 반복되고 있음
- 예를 들어, 오정구의 고강본동과 원종동 지역, 원미구 삼곡동과 역곡동 지역, 소사구의 송내동과 소사동 일부 지역이 두드러짐



[그림] 향유와 공급의 격차

5. 문화마을 최소기준 설정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구상

가. 문화마을 최소기준 설정 방향

□ 첫째, ‘사회권’의 적극적 수용

- 사회권은 교육권, 노동권, 건강권, 복지권을 포함하는 포괄적 내용이며, 연령, 소득, 장애, 사회경제적 위치와 상관없이 공동체가 발전시켜온 경제·사회·문화적 성과를 시민들이 공유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권임

□ 둘째, ‘문화권’의 적극적 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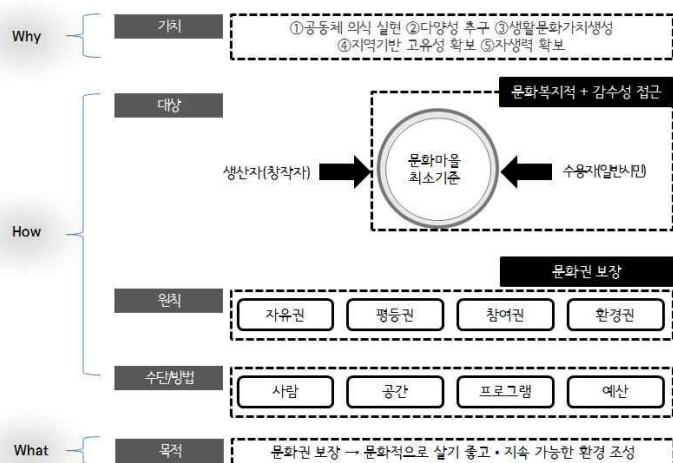
- 원칙을 설정함에 있어 자유권·평등권·참여권·환경권으로 나누어 설정하며, 수단으로는 사람·공간·프로그램·예산으로 구분하여 방법을 찾아감

□ 셋째, 수용자(일반시민)를 대상으로 함

- 문화 복지적 접근 및 감수성 접근 차원에서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함

□ 넷째, 도시 전사적 차원이 아닌, 마을단위를 기준으로 설정함

- 외연적으로 성장한 도시에 거주하는 마을단위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는 높지 않아, 체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준설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그림] 문화마을 최소기준 설정 원칙 및 방향

나. 문화마을 최소기준 구성

1) 사람기준

□ 범위와 접근 방법

-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예술가의 역할임. SIAP의 보고서는 “문화 브로커”, 즉 매개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예술가들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음
- 다른 한편으로 전문 인력에 대한 기준도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마을 수준에서의 문화시설로 생활문화시설과 도서관을 설정하였으므로(다음 절) 이를 시설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다루도록 하겠음

□ 정책 성과와 한계

- 아트밸리 사업의 사례
 - 부천시가 청소년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아트밸리 사업은 전문 강사를 학교나 동아리에 파견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
 - 특히 청소년 아트밸리의 경우 2015년 현재 부천시 전체 초·중·고 120개교에서 213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약 94%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2012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공모에서 유품행정수상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전문 인력의 부족
 - 부천시 공공도서관의 총 사서 수는 48명으로 사서 1인당 대상 인구수는 17,689명에 달함. 이는 전국 평균(13,482명)보다 높은 숫자일 뿐 아니라 서울시(12,314명), 경기도 평균(14,694명)보다도 높은 숫자임
 - 사서 1인당 대상 인구수와 관련하여 국제도서관연맹(IFLA)는 최저 2,500을 제시한 바 있음. 이 수준까지는 무리가 따르다 하더라도 타 시도와의 격차, 부천시 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최소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최소 기준

최소기준(안)	지역 문화매개인력(주민-매개자-예술가)을 양성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며, 문화기반시설 내 문화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주민 서비스 편익을 도모 한다.
---------	--

- 앞서 논의한 최소 기준의 범주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음. 하나는 매개자-예술가들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이들과 주민들을 연결하기 위한 기준이고 또 하나는 다음 절에서 다룰 마을 수준의 문화시설에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한 기준임
- 마을 수준의 문화시설 중 생활문화시설이 매개자-예술가와 주민 간 교류를 위한 공간으로 적합하므로 첫 번째 최소 기준은 생활문화시설에 필요한 매개자에 대한 기준으로 설정하며 두 번째 기준은 나머지 문화시설, 즉 도서관에 필요한 전문 인력(사서)의 기준으로 설정함
- 생활문화시설 관련 사람 최소 기준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술가와 주민 간 위계가 설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아트밸리 사업은 예술가와 주민의 관계가 강사와 수강생으로 설정됨

- 이러한 사업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예술가는 “상상력과 창조적 아이디어의 원천”이고 주민은 그것의 수혜자라는 것. 그러나 상상력 혹은 창조성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회적 과정의 산물로 이해되어야 함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예술가 네트워크와 주민 네트워크가 어울리면서 진화하는 과정이며 생활문화시설은 그것의 기반이 되어야 함
- 따라서 여기서 다룰 매개자는 생활문화시설에서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협업할 수 있도록 만남을 조직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이는 특정 개인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영역의 구성원들이 함께 만나는 회의 형태가 바람직. 즉 (가칭)네트워크 회의가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

<표> 생활문화시설 관련 사람 최소 기준

분류	최소 기준	세부 기준	
생활 문화 시설	부천시 내 예술가와 주민들의 협업이 생활문화시설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 한다	예술가와 주민 간의 관계	생활문화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수평적 협력자
		(가칭)네트워크 회의	지역 예술가 2인, 지방 문화원 1인, 생활문화지원센터 1인, 지역 주민 2인

○ 도서관 관련 사람 최소 기준

- 여기서 다룰 것은 도서관 사서에 대한 최소 기준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천시 공공도서관의 사서 숫자는 인구수 대비로 볼 때 경기도나 서울시,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임
- 또 하나의 문제는 부천시 내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것. 가장 도서관이 많은 원미구의 경우 사서수도 가장 많으며 사서 1인당 대상 인구도 11,064명으로 가장 낮음. 그러나 소사구는 사서 1인당 대상 인구가 37,055명, 오정구는 92,087명으로 이는 원미구의 3.3배, 8.3배에 달하는 숫자임
- 또한 도서관 1개소당 사서 숫자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함. 원미구의 경우 도서관 1개소 당 평균 사서 숫자가 6.7명이나 소사구는 3명, 오정구는 2명에 불과

<표> 부천시 공공도서관 사서 현황

(단위 : 개, 명)

지역	인구	도서관수	사서수	사서 1인당 대상 인구
원미구	442,546	6	40	11,064
소사구	222,331	2	6	37,055
오정구	184,174	1	2	92,087
부천시	849,051	9	48	17,689

※ 자료원 : 문화체육관광부, 『2015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2015를 바탕으로 정리

- 제2차 도서관별전종합계획(2014-2018)에서 목표로 삼은 사서 1인당 대상 인구는 7,600명이나 부천시의 현재 여건 상 이를 최소 기준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음. 2015년 현재 부천시 인구가 약 85만이므로 1인

당 대상 인구가 7,600명이 되려면 112명이 필요하며 이는 현재 사서 수의 두 배가 넘는 숫자임.

- 따라서 최소 기준은 현재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즉 부천시 평균에 미달하는 소사구와 오정구의 사서 수준을 경기도 평균 수준(14,694명)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최소 기준으로 함.
- 이를 위해서는 소사구의 사서 수가 현재보다 9명 늘어난 15명이 되어야 하며 오정구는 11명이 늘어난 13명이 되어야 함. 그러면 부천시 전체 사서 수는 지금보다 20명이 늘어난 68명이 되며 사서 1인당 대상 인구는 현재보다 5,200여명이 줄어 든 12,486명으로 개선될 수 있음.
- 이것은 다음 절에서 다룰 공공도서관 공급 기준과 함께 진행되어야 함.

<표> 부천시 공공도서관 사서 최소 기준

분류	최소 기준	세부 기준		비고
공공 도서관	사서 1인당 대상 인구 개선 으로 부천시 내 지역 간 도 서관 서비스의 불균형 해소	사서수	소사구: 6명 → 15명 오정구: 2명 → 13명 원미구: 현행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시 전체 사서 1인당 대상 인구를 현행 17,689명에서 12,486명으로 개선 • 공공도서관 공급 기준과 결합하여 진행

2) 공간기준

□ 범위와 접근 방법

- 문화시설의 범위

- 본 연구에서 중요한 문화시설이 마을 수준에서 이용 가능한 시설임을 고려해 볼 때,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강조는 필요함. 이소영·박진경(2014)은 위계별로 공공문화체육시설의 공급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마을 수준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시설은 도서관, 실내체육관, 청소년문화의집 순으로 나타남

<표> 위계별 공공문화체육시설 공급기준

구분	저위서비스	중위서비스	고위 서비스	최고위 서비스
1순위	문화시설	도서관	문예회관	박물관
2순위	체육시설	실내체육관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3순위	청소년시설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야영장

※ 자료원 : 이소영·박진경, 『지역맞춤형 기초생활시설 공급방안:문화·체육·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147쪽.

- 접근 방법

- 최근 문화시설의 변화 흐름을 살펴보면 시설의 형태면에서는 종합형 대규모시설에서 중소규모의 전문

시설로 변화하고 있으며, 시설의 기능면에서는 발표/전시시설에서 창작/제작 관련 시설로, 설치 단위는 거점시설에서 생활권 문화시설로 다양화되고 있음

<표> 기존 공공문화시설과 마을예술창작소의 비교

구분	기존 공공문화시설	마을예술창작소
운영목적	문화서비스 제공	주민 자치의 문화예술 창작
운영형태	전문가(강사, 예술가 중심)	마을 주민 중심
시설형태	교육 및 행사 중심 공공시설 공간 (공연장, 강습실 등)	마을문화 창작활동을 위한 사유시설 공간 (카페, 연습실 등)
운영주체	공공기관	마을주민

※ 자료원 : 라도삼, 2015, 7쪽.

- 본 연구에서는 문화 시설의 양적 기준뿐 아니라 질적 기준 또한 함께 제시하고자 함. 양적 최소 기준이 문화적 마을을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 마련을 위한 것이라면 질적 최소 기준은 그 시설의 운영 원리로 이해할 수 있음

□ 정책 성과와 한계

- 지금까지 문화시설 배치와 관련된 정책은 어떻게 문화 시설을 적절한 위치에 적정한 수량으로 공급할 것인가의 문제로만 다루어져 왔음. 물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서 문화시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임
-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문화시설에 있어 물리적 시설을 우선한다는 문제가 있음. 다시 말해 언제나 물리적 시설을 전제하기 때문에 문화 활동은 그것의 부수적인 효과가 될 수밖에 없는 것
- 물리적 시설이 문화 활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잠재하는 주민들의 욕망과 비공식적으로나마 실재하는 활동을 우선 인식하는 일임. 그러므로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문화시설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주민들의 욕망과 활동에 문화시설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함
- 여기서는 마을 수준에서 적절한 최소 기준 설정을 위해 우선 기존의 문화시설 공급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음

□ 문화시설의 공급 기준

- 문화시설 중 도서관은 시설공급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음. 도서관법 제14조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매5년마다 도서관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담은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이 마련되어 있음. 공공도서관의 지속적 확충을 목표로 2018년까지 1,100개관을 건립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는 인구 4만 5천 명당 도서관 1개관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은 것임

- 또한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여 공공도서관의 입지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도서관 입지는 인구가 밀집된 곳에 위치해야 하며 1차 반경(1km) 내의 봉사대상인구가 도보로 15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고, 2차 반경(1.5km) 내에서는 20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박물관/미술관 및 공연장의 경우 현재 별도의 시설배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며, 2004년 수립된 문화기반시설 확충 계획(2005~2011)에서 제시된 시설 공급기준이 원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 계획의 경우 박물관/미술관은 인구 15만 명당 1개소를 공급기준으로 삼고 있음. 또한 시단위 기초자치단체는 인구기준에 따라 건립하되, 추가인구 50% 초과당 1개소를 추가 건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적용함
- 문예회관의 경우 기초 자치단체(시군구)당 1개소를 기준으로 삼고 있음

<표> 문화시설의 공급 기준

분류	공급 기준	근거
도서관	인구 4만 5천 명당 1개소	제2차 도서관별전종합계획(2014~2018)
박물관/미술관	인구 15만 명당 1개소 (시단위 기초자치단체는 인구기준에 따라 건립하되, 추가 인구 50% 초과당 1개소를 추가 건립할 수 있음)	문화기반시설 확충계획(2005~2011)
문예회관	기초 자치단체 당 1개소	
공연장	별도의 시설배치기준 없음	

※ 자료원 : 이소영·박진경, 2014, 40~41쪽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 정책성과 및 한계

- 부천시의 3대 문화콘텐츠 산업 또한 그것이 지닌 의의에도 불구하고 도시민의 삶보다는 도시 자체를 지향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2013 부천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2012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1년간 부천시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대상자의 26.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특히 부천시의 3대 국제 축제는 높은 인지도에 비해 매우 저조한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음
- 이것은 부천시의 대규모 문화 행사가 ‘문화특별시 부천’이라는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역민의 문화적 삶과는 긴밀한 연관성을 구축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줌
-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부천시는 2014년 ‘생활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기관을 설치하며 문화 시설 연습 공간 조성 계획을 발표하는 등 생활문화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조례의 내용이나 지원 프로그램 등을 살펴보았을 때 문화적 마을보다는 마을의 문화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임. 다시 말하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마을의 구성보다는 문화예술 활동 자체에 대한 지원을 중점에 두고 있다는 것. 이는 ‘연습공간’이란 명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물론 주민들의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며 그러한 활동이 마을의 구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도 있지만, 부천시의 생활문화 지원 정책에서는 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이 두드러질 뿐 이들의 활동을 어떻게 마을의 구성으로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별로 보이지 않음

- 또한 문화시설의 지역 편차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부천시 2013 사회조사에 따르면 도서관 시설 및 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에서 오정구가 원미, 소사구에 비해 만족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특히 불만족이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도서관 시설 기준으로 원미구와 소사구가 9.1%인데 반해 오정구는 20.4%로 두 배가 넘었으며, 서비스 기준으로도 원미구와 소사구가 불만족 비율이 각각 8.4, 7.7%인데 반해 오정구는 13.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것은 부천시 내 문화시설 이용 측면에서 어떤 불균형이 존재함을 보여주며 이는 최소 기준 설정에 있어 지역 간 균형이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는 것을 의미함

□ 최소 기준

최소기준(안)	문화공간에 대한 최소기준은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부천시민이면 누구나 근거리에서 문화시설에 대한 물리적 접근이 용이하도록 한다.
---------	---

- 생활문화시설

- 최소 기준은 ‘부천 시민 모두가 이웃과 함께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 생활문화시설은 주민들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 설치되어야 함. 일반적으로 행정동 단위가 그 범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행정동 당 1개소를 적정기준으로 볼 수 있음
- 여기서는 2개 동당 1개소를 최소기준으로 설정. 부천시의 행정동이 36개소이므로 전체 숫자는 18개소가 됨

<표> 부천시 생활문화시설의 최소 기준

분류	최소 기준	세부 기준		비고
생활 문화 시설	부천 시민 모두가 이웃과 함께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최소 수량	18개소	1개소/2개 동

- 부천시의 ‘생활문화 진흥 조례’는 생활문화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시장이 해당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앞서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생활문화시설이 상업적 용도를 일부 포함할 수 있도록 한 운영 원리와는 배치되는 내용임
-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생활문화시설은 부천시 조례에서 정의하는 생활문화시설과는 성격이 다름.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후자의 생활문화시설은 문화예술 동아리의 연습공간의 성격이 강하고 전자의 경우는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그보다는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간임. 이러한 공간의 경우 주민들에 의한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상업적 이용을 일부 허용하는 것은 필요한 일로 판단됨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생활문화시설 조성 시 현 조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도서관

- 현재 부천시 내 도서관은 9개소(사립 도서관을 포함하면 11개소)이며 작은 도서관은 공립이 19개소,

사립이 65개소임

- **공공도서관**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에서 목표로 삼은 도서관의 인구 수 대비 공급기준은 4만 5천 명당 1개소임. 2015년 11월 현재 부천시 인구는 849,051명으로 현재 도서관 1개소당 인구수는 약 9만 4천명 수준(사립 도서관을 포함하면 약 7만 7천명 수준). 4만 5천 명당 1개소를 목표로 삼는다면 도서관의 숫자는 현재의 두 배가 되어야 함.
- 인구 백만 명당 도서관 수(부천시는 10.6개소)로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부산(9.09개소)보다는 높지만 경기도 평균(17.56개소)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도서관 숫자의 부족 외에 지역 간 편차 또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현재 부천시 공공도서관은 원미구에 6개소가 설치된 반면 소사구는 2개소, 오정구는 1개소에 불과함. 이는 인구 편차를 감안 하더라도 불균등한 것으로 나타남.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의 도서관 1개소당 인구수는 각각 73,758명, 111,66명, 184,174명으로, 도서관 1개소당 소사구는 원미구 대비 1.5배, 오정구는 원미구 대비 2.5배 가량의 인구를 감당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은 도시 지역에서는 1차 반경(1km) 내의 봉사대상인구가 도보로 10분 이내에 접근 가능해야 하고, 2차 반경(2km) 내에서는 도보로 2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해야 함. 이 기준을 따를 경우 오정구와 소사구의 원미구 대비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

<표> 부천시 도서관 현황

(단위 : 권, 명)

순번	설립주체	도서관명	주소	도서자료(권)(인쇄)	사서수
1	지자체	부천시립한울빛도서관	소사구 소사본동 317-98 (소사로 107)	76,942	3
2		부천시립심곡도서관	소사구 심곡본동 성무로 24	154,688	3
3		부천시립꿈여울도서관	오정구 작동 67-1 (까치로 103)	62,338	2
4		부천시립원미도서관	원미구 원미1동 15 (소사로 456)	211,801	14
5		해밀도서관	원미구 중2동 1118	52,007	4
6		부천시립상동도서관	원미구 상동 상이로 12	78,300	13
7		부천시립북부도서관	원미구 도당동 132	125,672	3
8		부천시립책마루도서관	원미구 중동 1192-3 (심증로 121)	81,156	2
9		부천시립꿈빛도서관	원미구 신흥로 275번길 19	166,133	4
10	사립	부천예술정보도서관 다감	원미구 상1동 394-2	29,396	1
11		동화기차어린이도서관	원미구 상1동 394-2	53,083	-

※ 자료원 : 『2015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 2015.

- **작은 도서관**

- 작은 도서관의 구별 현황을 살펴보면,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에 각각 5, 5, 9개소의 공립 작은 도서관이 있으며 사립을 포함하면 각각 23, 22, 39개소의 작은 도서관이 있음. 1개 동당 작은 도서관 개수를 살펴보면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에 각각 0.6, 0.7, 0.5개소의 공립 작은 도서관이 있으며 사립을 포함하면 각각 2.6, 3.1, 2.0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음.

- 사립 작은 도서관을 포함할 경우 1개동에 2개 이상의 작은 도서관이 있는 셈이지만, 사립 작은 도서관은 공립 작은 도서관과 달리 상호대차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음. 따라서 현재 부천시 내 모든 행정동에서 도서 대출 및 열람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기는 어려운 여건
- 그러므로 작은 도서관의 경우 상호대차 서비스가 가능한 시설의 동별 1개소 이상 확립을 우선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음

<표> 부천시 구별 작은 도서관 현황

(단위 : 개)

구분	동 개수	고로 (1개동 당 개소수)	사립 (1개동 당 개소수)	계 (1개동 당 개소수)
소사구	9	5 0.6	18 2.0	23 2.6
오정구	7	5 0.7	17 2.4	22 3.1
원미구	20	9 0.5	30 1.5	39 2.0

- 또한 작은 도서관의 경우 본래 지역의 사회운동 차원에서 생겨났고, 단순히 도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마을의 사통방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원은 하되 운영의 자율성은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도서관의 경우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구분하여 최소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도서관 설립의 최소 기준은 '부천시민 모두가 도보 10분 이내의 거리에서 독서 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 공공도서관의 경우 도서 대출 및 열람 서비스 제공 등에 중점을 두고, 작은 도서관의 경우 독서 문화 저변 확대를 통한 마을의 구성에 중점을 둠
- 공공도서관은 경기도 평균인 도서관 1개소 당 5만 7천 명을 최소 기준으로 설정하면 모두 15개소가 필요 하며 이는 현재 보다 6개소가 더 필요한 숫자임. 접근성 측면에서는 도보 20분 이내를 기준으로 함
- 공공도서관 공급 기준을 도보 20분 이내로 두고, 상호대차 서비스가 가능한 작은 도서관 공급 기준을 행정동 당 1개소 이상으로 두면 도보 10분 이내에서 적절한 도서관 서비스 이용이 가능

<표> 부천시 도서관의 최소 기준

최소 기준	세부 기준			비고
부천시민 모두가 도보 10분 이내의 거리에서 독서 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공공 도서관	최소 수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기준: 인구 5만 7천 명당 1개소 접근성 기준: 도보 20분(면경 2km) 이내 1개소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취약 지역을 우선 지원

3) 프로그램 기준

□ 범위와 접근방법

○ 개념 및 범주

- 문화적 권리 보장을 생산자(창작자) 권리와 수용자(일반시민) 권리로 구분하고, 문화마을 최소기준 설정 연구에서는 수용자 측면에서의 문화적 권리보장 방법 제시를 목적으로 함
- 프로그램 최소기준 설정은 시민의 문화적 권리 보장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함

○ 접근방법

- 지역별 문화수준 진단과 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한 연구들을 참조하여 문화마을 최소기준을 설정하고자 함
- 문화프로그램 관련 문화참여권 및 문화평등권 측면에서 최소기준 설정방법을 찾고, 부천시 추진 사업과 경기도 내 유사규모의 도시와 비교하고자 함

□ 정책성과와 한계

○ 문화교육권

- 유네스코 “문화적 권리 선언문 초안”(1997년)의 제6조에서는 문화 교육적 권리가 명시되어 있음
- 부천시는 2011년부터 학생 대상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부천아트밸리)을 추진하고 있으며, 96.7% 학교에서 시행중에 있음
- 시민 평생교육권 확대 관련하여 부천시 평생학습센터는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
 - 8개 분야에 대한 학습동아리 등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37개 동아리(428명)가 등록되어 있음

○ 문화접근권(퍼블릭액세스)

- 정보접근성에 대하여 특화 정보 제공 기관 필요하다는 응답(74.5%)이 매우 높았음

○ 문화평등권

- 사회적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는 통합문화 이용권(문화바우처)사업과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 등이 대표적임
- 4개 자치단체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 평균 예산은 196,898천 원이며, 성남을 제외하고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부천은 6개 세부사업에 152,490천원으로 조사 대상 자치체 중에서 사업 예산이 가장 적음

□ 자치구별 격차 검토

○ 도서관 및 주민센터 1관 당 평균 강좌 수는 13.6개이며, 오정구(9.4개)가 가장 낮게 조사됨

- 시설 수 및 강좌 수는 원미구(시설 : 25개, 강좌 : 388개) > 소사구(시설 : 11개, 강좌 : 174개) > 오정구(시설 : 8개, 강좌 : 75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1관 당 평균 강좌 수는 13.6개이며, 소사구(15.8개) > 원미구(15.5개) > 오정구(9.4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도서관 1관 당 평균 강좌 수는 29.5개이며, 오정구(29.5개)는 평균 보다 낮게 조사됨
 - 시설 수 및 강좌 수는 원미구(시설 수 : 5개, 강좌 : 165개) > 소사구(시설 : 2개, 강좌 : 69개)

- > 오정구(시설 : 1개, 강좌 : 21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1관 당 평균 강좌 수는 29.5개이며, 소사구(34.5개) > 원미구(33개) > 오정구(21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주민센터 1관 당 평균 강좌 수는 10.2개이며, 오정구(7.7개)는 평균 보다 낮게 조사됨
 - 강좌 수는 원미구(223개) > 소사구(105개) > 오정구(54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1관 당 평균 강좌 수는 10.2개이며, 소사구(11.7개) > 원미구(11.2개) > 오정구(7.7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부천시 권역별 문화 활동비 지출액은 전년대비 25.7% 증가한 7만 4천 원 이었음
 - 구별 지출액은 원미구(8.3만원) > 오정구(6.6만원) > 소사구(6.4만원) 등으로 나타남
 - 권역별 지출액은 송내권역(11.3만원)·상동권역(9.8만원)·중동권역(8.1만원) 등이 높은 그룹에 속했고, 역곡권역(5.1만원) 및 도당권역(6.3만원) 등이 낮은 그룹에 속함

□ [초]소기준

최소기준(안)	문화적 권리 보장 측면에서 부천시민 모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문화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여건을 보장한다.
---------	---

-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경제적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선을 설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문화영역에서도 상대적 문화 빈곤선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한 자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인간다운 삶의 최소한의 조건을 생계지원으로 설정하고 있음
 - 문화 빈곤은 상대적 박탈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향유는 절대적 기준보다는 상대적 인식이 강한 편임
 - 2014년 기준 부천 오락·문화비 지출액은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약 3배정도 높았으나, 전국 평균 지출액(146,814원)의 절반 수준(70,000원)에 그치고 있음
- 프로그램 최소기준(안)은 ‘문화참여권’과 ‘문화평등권’으로 나눠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함

<표> 프로그램 최소기준(안)

최소기준		기준(안)
문화참여권	문화교육권 보장	부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악기 1개는 다를 줄 알고, 태어나서 1번은 부천시립예술단(부천필) 공연은 한번 보게 한다
	문화접근권 보장	부천시민의 문화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을 위하여 수요자맞춤형 서비스 제공체계를 만든다
문화평등권	취약계층 문화적 지원	부천시와 유사한 도시규모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유사한 규모의 ‘찾아가는 문화 활동 예산’을 확보한다
	문화격차 해소	구 단위 문화기반시설 운영되는 프로그램 수 격차를 최소화 한다

□ 세부추진과제

- 프로그램 최소기준은 부천시 문화적 권리 보장 정책의 목표뿐만 아니라 보장기준으로서 의미를 가짐

- 문화권은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이나 유네스코 문화권 정의, 이후 문화권에 대한 선언문이나 권고안을 검토하였을 때 시민 복지 측면에서 '문화참여권, 문화평등권' 등이 관련성이 있음

<표> 프로그램 최소기준 세부추진 과제

최소기준	영역	사업명
문화참여권	문화교육권 보장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학교아트밸리▶시민아트밸리로 확대)
	문화접근권 보장	영역(교육+사회복지+문화)별 맞춤형 통합정보 제공
문화평등권	취약계층 문화적 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예산 증액 편성 - (수원성남고양부천 찾아가는 문화 활동 평균 예산 196,898천원/부천 152,490천원) 문화 활동의 상대적 빈곤 해소를 위한 "문화비"를 지원 (ex. 부천생활임금지원조례)
	문화격차 해소	[도서관+주민센터 1관당 강좌 수 전체평균 : 13.6개 / 소사구(15.8개) > 원미구(15.5개) > 오정구(9.4개)]

4) 예산기준

□ 범위와 접근방법

- 문화예산 개념 및 범주

- 광의의 의미에서 '문화예산'이란 문화영역에 소요되는 국가(지방정부)재원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한 국가가 문화영역에 지출할 목적으로 수립한 수입과 지출의 예정된 계획'으로 볼 수 있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2003년과 2008년에 이루어진 '주요 외국의 문화예산 비교 연구'(2003년 김세훈, 2008년 윤주)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앞서 연구를 기초로 체육 및 청소년을 제외한 영역을 문화예산의 범위로 설정하고자 함

- 접근방법

-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예산 최소기준 관련 지표는 도시적 차원 접근이 이루어져 있어, 구(동)단위 현황 파악에는 한계가 있음
- 문화예산 최소기준은 부천시와 유사한 도시규모(재정자립도, 인구규모, 재정규모 등)를 갖고 있는 지역과 비교를 통해 파악함
- 문화마을 관계 예산을 파악함에 있어 '거버넌스, 인력양성, 축제 및 행사, 사업 및 프로그램, 공간' 등에 대한 세부항목을 설정하여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정책성과와 한계

- 문화관계 예산 평균은 104,257,032천원이며, 문화마을 예산 평균은 3,734,593천원으로 나타남
 - 문화관계 예산이 평균 보다 높은 곳은 수원(182,976,050천원) 및 성남(130,316,979천원)이었으며, 문

화마을 예산이 평균 이상인 곳은 수원(4,454,120천원) 및 부천(3,825,366천원)으로 조사됨

- 문화관련 주민센터 평균 예산은 34,425천원이며, 성남(11,967천원)을 제외하고 평균보다 낮았음
- '거버넌스(0.6%), 인력양성(0.7%)' 예산 비중이 낮았고, '사업 및 프로그램'(0.4%) 비중은 높았음
 - 본청은 사업 및 프로그램(36.9%)>공간(32.3%)>축제 및 행사(29.5%)>인력양성(0.7%)>거버넌스(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구청은 사업 및 프로그램(54.5%) 예산 비중이 과반을 넘었고, 거버넌스 및 인력양성 예산은 없었음
 - 주민센터는 사업 및 프로그램(58.6%)과 축제 및 행사(41.4%)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 자치구별 격차 검토

- 문화마을 관련 예산은 본청(3,023,326천원)이 가장 많았고, 구 단위에서는 원미구 예산(856,510 천원)이 가장 많았음
 - 구 단위 문화마을 예산은 원미구(856,510천 원) > 소사구(528,980 천원) > 오정구(368,605천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평균값 비교에서 원미구의 '사업 및 프로그램' 예산(758,710천 원)을 제외하고 모두 구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부천시는 주민참여예산체를 통하여 2011~2014년까지 총 26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원미구 채택률이 가장 높았음
 - 구 단위별 채택률에서 원미구(50.0%) > 소사구(34.6%) > 오정구(15.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최소기준

최소기준(안)	만관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통한 문화마을 예산의 안정성 및 유연성 확보, 중장기적 계획 수립의 초석을 마련 한다.
---------	---

-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문화도시를 목표로 정책을 구상할 때 일(사업)을 계획하고, 배치하고, 수행하기 위한 행위(예산)를 동반하게 됨
 - 우리가 문화도시(마을)를 기억할 때 문화에 돈을 많이 쓰는 도시일 것이라 기대하나, 중요한 것은 정 책비전 아래 우선순위를 두고, 변화가 예산에 반영되어야 함
- 문화예술분야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편성 문화예술분야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함
- 부천시 1인당 문화관계 예산과 1인당 문화마을 관계예산 차이는 76.3천원 차이가 발생하였음
 - 부천시 1인당 문화관계 예산(77.2천원)은 비교 지자체 평균(104,0천원)보다 낮았고, 1인당 문화마을 평균(3.0천원)보다는 높았음(4.5천원)
 - 그러나 급간 격차는 평균 보다(101.0천원) 낮았으나(76.3천원) 마을단위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문화마을 예산 지자체 비교에서 수원(4,454,120천원) 및 부천(3,825,366천원)이 평균 예산(3,734,593천원) 보다 높았음
 - 거버넌스 관련하여 수원(272,200천원) 및 부천(17,200천원) 정도만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
 - 인력양성은 성남(60,300천원) 및 수원(35,000천원)이 평균 예산(33,825천원) 보다 많았음

● ● ● 문화마을 최소기준과 거버넌스 모델 구축

- 축제 및 행사는 부천(1,140,900천원)정도만 지자체 평균(570,758천원)보다 많이 예산이 많았음
- 사업 및 프로그램은 수원(3,585,270천원) 및 성남(2,377,785천원)이 지자체 평균(2,194,117천원)보다 예산이 많았음
- 공간 예산은 고양(1,650,074천원) 및 부천(1,084,468천원)이 지자체 평균 예산(863,543천원)보다 많았음
- 문화마을 예산 최소기준(안)은 관계예산의 안정성 및 유연성 확보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체계 확보와 마을단위 인력 관련 예산 확보에 두고자 함

<표> 문화마을 예산 최소기준(안)

최소기준		기준(안)
안전성	총액 예산제	문화도시(마을) 부문에 예산총액을 일괄 배정하는 방식 도입
	주민참여예산제	마을단위 문화사업 관련 채택률을 높인다
유연성	거버넌스 예산확보	공공영역(교육+문화+복지)과 관 영역(문화예술+마을 만들기+교육 등)간의 협력체계를 만들어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인다
	인력양성 예산확보	마을단위 기획 및 실행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시켜, 주체적으로 마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 세부추진과제

- 민선6기 정책은 스스로 소통하는 도시, 문화특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해 문화 분야 12개 공약을 선정하였음
- 2014년 개정된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문화도시(마을) 및 관련 예산 확보에 대한 지자체 책무를 강화하고 있음

<표> 문화마을 예산 최소기준 세부추진과제

최소기준	영역	사업명
안전성	총액 예산제	문화예술(산업)분야 예산 우선순위 설정 및 일괄 배정을 위한 '예산편성 실무협의회' 지속적 운영하며, 문화관계 예산 대비 문화마을 관련 예산은 최소 5.5% 이상 되도록 한다. 또한, 주민센터 문화관련 운영 최소예산은 34,425천 원 이상 되도록 한다 ※ 부천성남수원고양 주민센터 문화관련 운영 평균 예산 : 34,425천원 부천 거버넌스 관련 예산 : 6,778천원
	주민참여예산제	마을단위 문화사업 관련 사업 최소 채택률은 20.5% 이상 되도록 하며, 구 단위 채택률에서 과반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원미구(13개, 50.0%) > 소사구(9개, 34.6%), 오정구(4개, 15.4%)
유연성	문화마을 거버넌스 예산확보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 예산은 최소한 문화마을 예산의 1.6% 정도는 확보한다 ※ 부천성남수원고양 시 거버넌스 관련 평균 예산 : 1.6% 부천 거버넌스 관련 예산 : 0.4%
	문화마을 인력양성 예산확보	마을단위 활동인력 양성 및 교육을 위한 예산은 최소한 문화마을 예산의 0.9% 정도 확보한다 ※ 부천성남수원고양 시 인력양성 관련 평균 예산 : 0.9% 부천 거버넌스 관련 예산 : 0.5%

2015년 지역문화컨설팅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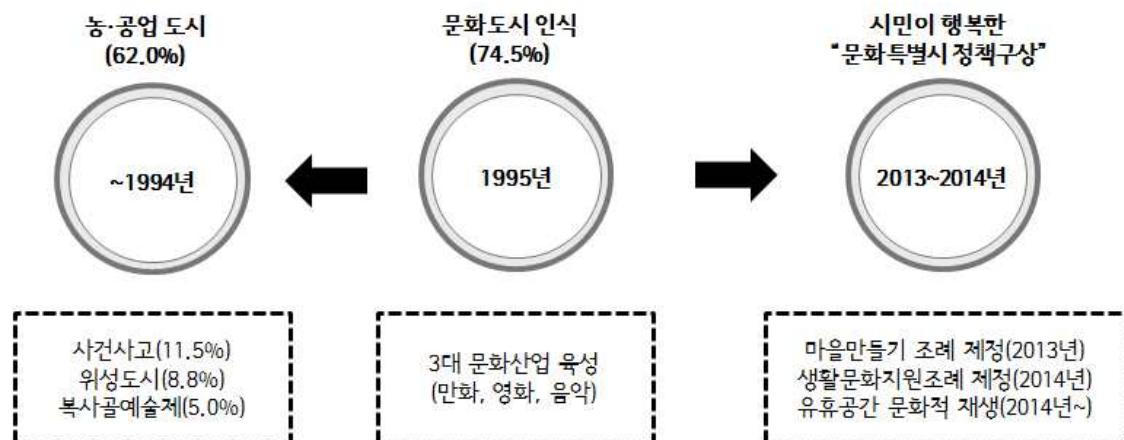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내부 환경 : 공장도시에서 문화도시로 변화

- 1994년 이전 : 농·공업 도시로 인식(62.0%)
 - 농촌·공업도시(62.0%), 사건·사고(11.5%), 위성도시(8.8%), 복사골예술제(5.0%)
- 1995년~ : 3대 문화산업(만화·영화·음악) 집중 육성, 문화도시로 인식(74.5%)되기 시작
 - 3대 국제축제(BiFan, BIAF, BICOF) 개최 및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 운영
- 시민이 행복한 '문화특별시'를 위한 정책구상
 - 2013년~2014년 : 생활밀착형 문화사업 및 유휴 공간 문화재생 사업 추진
 - 문화마을 :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제정(2013년) 및 지원센터 설립 예정
 - 생활문화 : 생활문화 지원조례 제정(2014년) 및 중간지원센터 설립 예정(2015년)
 - 유휴 공간 문화적 재생 : 삼정동소각장 미래문화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2014년~)



[그림1-1] 부천시 문화정책 구상에 따른 도시이미지 변화

- 지속적인 문화정책기조를 유지해 온 부천시의 의지에 비해 사업수행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여전히 불비함
 - 문화도시에 대한 비전의 내재화와 일상 속에서 시민 체감을 높일 수 있는 정책변화 필요
 - 문화예술행사 참여율은 26.1%, 그중 42.4%가 만족하고 있음(부천시 사회조사분석, 2013.)

- 지방정부 재정 악화에 따른 저비용·고효율의 문화도시 정책개발 및 추진 필요
 - 높은 문화관광 예산 비중(5.9%), 낮아지는 재정지출도(2012년 : 51.5%, 2013년 : 45.9%)
- 3대 문화콘텐츠산업 정책과 생활밀착형 문화사업의 연계 필요성 증대
 - 만화·영화·음악 등 문화산업 정책과 생활밀착형 문화사업(동아리, 공동체 사업)연계 미흡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컨설팅 제안서 참조(부천 생활문화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현실화 방안 연구, 2013.)

[그림1-2] 부천 형 문화도시 만들기 단계별 추진 계획 구조도

□ 외부환경

○ 문화마을 정책 부상

- 문화체육관광부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지역 문화 활성화 및 격차해소를 위한 문화도시(마을)관련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 2001년 들어서면서 문화관광부가 지역문화의 해를 선정, '문화 환경'을 강조하면서부터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문화환경가꾸기)이 시작됨
 - 2005년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예술과 디자인, 지역 문화 만들기 관점의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본격화됨
 - 2000년 후반 문화도시 및 마을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가치와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추진됨
 -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8개 부처 2개청에서 18개의 지역문화공동체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농식품부(5개)>문체부·문화체청(4개)>행자부(3개)>국토부·환경부·해수부·고용부·기재부·산립청(각 1개) 등의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문화적 권리 보장 측면에서의 '최소기준' 설정 움직임

- 대한민국헌법 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음
-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국민의 최저한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근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음
 -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기본선」보고서를 발간하였음. 이 보고서에서 국민복지기본선을 '최저선'(minimum standards)과 '적정선'(decent standards)으로 구분하고 최저선 뿐만 아니라 적정선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으며, 소득, 건강, 주거, 고용, 복지서비스의 최저선 및 적정선을 제시하였음
 - 2000년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National Minimum의 법적·제도적 근거가 확보되었음
 - 한국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최소기준의 추진방향 및 접근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2003년 6월) National Minimum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되, Minimum 수준은 (최저생계비] 계산과 같o]) 구체적 계산을 통해 정하지 않고, Standard적 관점에서 순위를 매겨 정하기로 한 바 있음(하위 10% 기준 등)
- 그러나 문화영역에서 문화적 권리 보장 측면에서 최소기준 설정에 대한 기초논의는 미진함

2 | 연구목적

○ 중간지원조직(공공+민간)현황 파악 및 역할정립

○ 문화도시 정책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

- 유관 정책 연계 : 3대 문화콘텐츠산업 정책+생활밀착형 사업 등
- 제도/기반 조성 : 마을단위 별 정책 및 사업지원에 대한 최소기준 설정, 계획 구상

○ 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문화실현 시범 프로젝트'개발 및 제안

- 주민자치위원회 등 기존조직 역할 재구성
- 주민 요구에 대한 마을단위 필수 시설 공급 방식 현황 진단
- 마을단위 행복한 삶을 위한 최소단위 삶의 조건 기준 설정(행복한 삶을 위한 최소기준)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및 범위

□ 연구내용

- 문화특별시 부천 문화도시 유관 정책 분석현상 분석
 - 3대 문화콘텐츠산업(만화·영화·음악)과 생활밀착형 문화사업
 - 대외적으로 알려진 문화도시로서의 부천의 특성화 사업과 일상생활 깊숙이 시민들이 문화도시에서 삶이 갖는 의미를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실행되고 있지 않음
- 시민을 위한 도시, 시민에 의한 도시, 시민의 도시가가 ‘문화특별시 부천’의 궁극적 지향점으로 보고 이를 위한 시민소통방식 등 시민성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 모색
 - 기존 운영되고 있거나, 설립 예정인 문화도시 관련 중간지원조직 간 연계 방식
 - 운영 : 평생학습센터, 자원봉사센터, 생활문화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립 준비(계약직 채용), 생활문화지원센터(계약직 3명 채용)
 - 예정 : 마을만들기지원센터(2016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2016년)
 - 문화마을 정책의 비전 수용·확산방법 연구
 - 공공차원에서는 마을단위 지원 최소기준 설정하고, 개인 문화 활동이 마을에서 도시로 확산 가능한 방법 찾기
- 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단위 별 지원의 최소 기준 설정 및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공공·민간 영역의 거버넌스 방법과 마을단위 정책 및 사업 지원 대한 최소기준 설정을 위한 방법 모색

□ 연구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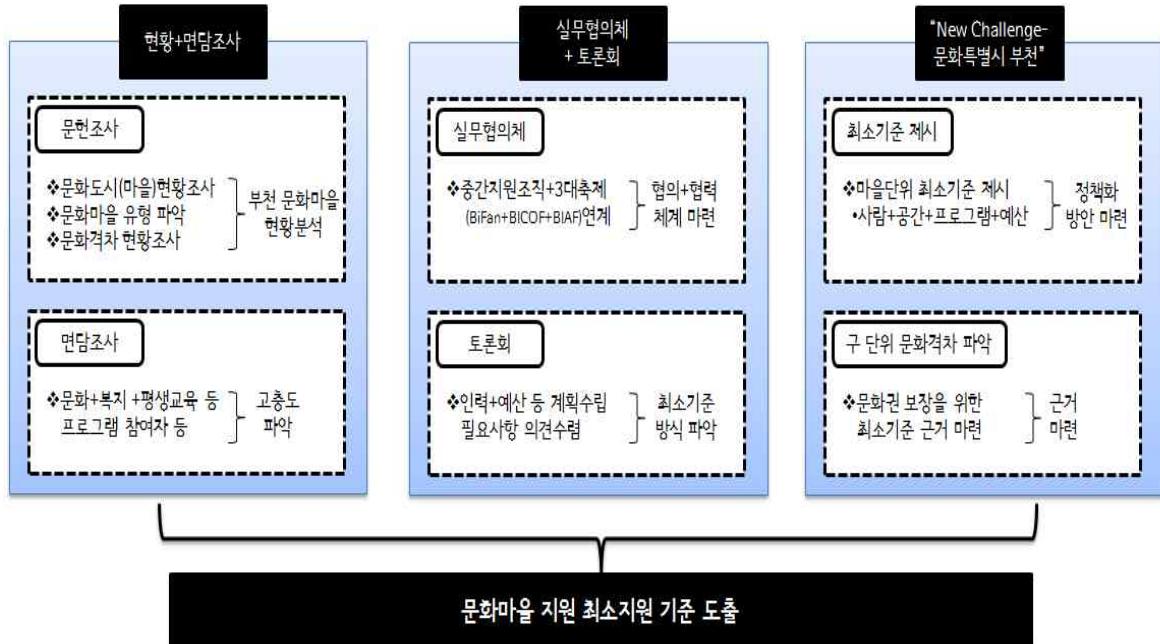
- 시간적 범위 : 문화도시(문화마을) 도약단계 설정을 위한 중·단기 계획(2017년)
- 공간적 범위 : 마을단위 계획을 중심으로



[그림 1-3] 문화도시(마을) 도약 단계별 구상

2 | 연구방법

□ 연구방법



[그림 1-4] 연구 방법

2015년 지역문화건설팅

제2장

문화마을 최소기준 개념과 목표

제1절.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제2절. 문화마을이라는 지향점

제1절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1 '지금' '현재'의 한국 사회에 대한 진단

□ 개인의 행복을 규정하는 요인 : 경제적 소득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의 변화

- 1인당 GDP가 20,000만 불에 도달하는 시점까지는 개인의 행복도 증가는 경제적 소득과 비례하지만, 1인당 GDP가 20,000불¹⁾을 상회하면 개인의 행복도 증가와 경제적 소득은 비례하지 않음
 -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처음에는 행복지수가 급속히 상승하지만,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행복지수가 별로 높아지지 않음
 - 소득수준이 높아지더라도 국민의 행복에 큰 변화가 없는, 즉 경제성장의 효력이 없어지는 영역으로, 양보다는 질이 중요시 됨
 - 이제 소득을 늘리기보다는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바꾸어야만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영역²⁾에 한국 사회는 도달하였음
- 상호 배려의 부족, 세대 간의 갈등 심화를 넘어서 '양여론' 혹은 '헬조선론' 담론의 등장은 이러한 배경을 반영하고 있음

□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유동성 증가, 무기력감 증가, 상호적대 증가

- **유동성 증가** - 리퀴드 모더니티(liquid modernity)의 사회(지그문트 바우만), 사회의 불안정성이 증가하여, 삶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의 유동성이 증가한 사회
- **무기력감 증가** - 뉴캐피털리즘(New Capitalism) 속 표류하는 개인(리처드 세넷), 증가한 사회의 불안정성에 대한 책임이 개인으로 환원되는 사회 속에서 개인들이 느끼는 무기력감이 증가하는 사회
- **상호적대 증가** - 태인과의 비교가 증대된 삶, 끝없는 비교를 통해 비교할수록 불행지는 악무한이 펼쳐지는 사회

□ 공통성의 파괴와 각자도생이라는 시대명령에 순응한 삶이 펼쳐지는 '지금' '여기'의 한국사회

- 퇴출 공포(specter of uselessness)에 의해 자배받는 삶: 변화의 외부 속도가 가속화되면서(스피드) 변화된 외부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삶(템포)의 위험성 증가
- 퇴물, 무용지물, 용도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진 삶과 그 삶에 대한 위기 반응
- 퇴출 공포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해법: 강한 자아. 경쟁력 있는 자아로 재구성

1) 이 기준은 학자에 따라 달리 추산되지만, 통상 1인당 GDP 15,000달러에서 20,000달러로 추계됨.

2) 이정진. 『우리는 행복한가』, 한길사, 2008, 41-42쪽 참조

2 최소기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

- 최소기준의 총족을 국가정책으로 적용하는 분야는 임금, 교육, 사회보장 등의 영역에서 복지 차원의 접근 이루어져 왔음
- 영국의 국가최소기준(NMS: National Minimum Standards)
 - 2000년 제정된 「보호기준법(Care Standards Act)」에 의해 2002년 4월부터 사회복지 서비스 및 독립 보건진료기관의 서비스 공급 기준을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음. 국가최소기준의 도입으로 민간부문, 자원봉사부문, 공공부문 서비스 공급자들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benchmark)를 갖게 되었으며, 전국에 걸쳐 동일한 수준으로 일관성 있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
- 일본의 National Minimum과 Civil Minimum
 - 일본 총리 산하 지방분권추진위에서 National Minimum과 Civil Minimum을 도출하고 있는데 Civil Minimum은 토목 등 인프라와 함께 상하수도 등 생활여건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2만 불 시대 이후 National Minimum 개념이 논의되었음
 - 1960년대 일본의 혁신 지자체의 정책입안에 있어서 가장 큰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 시빌미니멈론이며,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주민생활의 최저기준'이라고 할 수 있음. 시빌미니멈의 설정이란, 시민생활환경 기준의 과학화, 계획화에 의한 지자체 정책의 자율성의 회복을 바라는 것임
- 한국의 National Minimum
 - 대한민국헌법 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여 국민복지기본선의 사상이 이미 들어가 있음
 -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기본선」보고서를 발간하였음. 이 보고서에서 국민복지기본선을 '최저선'(minimum standards)과 '적정선'(decent standards)으로 구분하고 최저선 뿐만 아니라 적정선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으며, 소득, 건강, 주거, 고용, 복지서비스의 최저선 및 적정선을 제시하였음
 - 2000년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National Minimum의 법적·제도적 근거가 확보되었음
 - 한국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최소기준의 추진방향 및 접근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2003년 6월) National Minimum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되, Minimum 수준은 (최저생계비 계산과 같아) 구체적 계산을 통해 정하지 않고, Standard적 관점에서 순위를 매겨 정하기로 한 바 있음(하위 10% 기준 등)
- 최저기준에서 적정기준으로의 이동 (From Minimum Standards to Decent Standards)

- 북유럽 복지국가에서 1950년대에 보편적이고 평등한 정액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시스템 구축이라는 정책 목표가 1960년대를 기점으로 ‘적정한 급여 수준’(adequate benefit standards), 평등, 예방적 사회정책, 수급자격의 강화를 보장하는 쪽으로 이동했음(Esping-Andersen, 1985:155-165).
- ILO의 ‘사회보장 최저기준’ 업그레이드는 적정기준 설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임.
 - 고용재해급여에 관한 조약(1964), 의료 및 상병급여에 관한 조약(1969), 장애, 노령, 유족급여에 관한 조약(1967): 가령 연금의 경우 1952년 최저기준의 급여수준은 40%였으나 1967년의 조약에서는 60%로 상승

□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의 구분

- 1940년대와 50년대 서구 사회가 전통적 복지국가체제를 통해 성취하려 했던 ‘국민복지 최저기준(National Minimum)’ 이념을 수용하여 서울시민이 권리로서 최소한으로 누려야 할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의 5대 영역에서 최저기준을 우선적으로 설정하되, 최저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적정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여 서울시 복지정책의 준거가 되도록 함
- 적정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이유는 두 가지임. 첫째는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한 한국의 위상, 그리고 세계 20위권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는 서울시의 위상을 고려할 때 최저기준만으로는 한국 사회와 서울시가 이룩한 경제, 사회적 성과를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반영시킬 수 없기 때문임. 두 번째로 의료보장이나 보육서비스 같은 상대적으로 발전된 영역의 복지급여는 이미 최저수준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이 만들어져 서울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임³⁾

□ 개념 정의

- ‘서울시민복지기준’에서는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는 ‘최저기준’ minimum standards 외에 ‘품위 있는 삶의 질’을 강조하는 ‘적정기준’ decent standards 이 동시에 강조됨
- 최저기준
 - 서울시민복지 최저기준은 서울시민에게 ‘최저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준임
 - 사회복지의 최저기준은 시대별, 국가별로 상대성을 가지나 해당 사회가 발전시킨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발전의 최저한을 권리로서 보장해준다는 점이 공통됨
 - 최저기준의 설정을 위해 복지, 교육, 주거 등의 영역에서 이미 국제적으로 확립된 국제기구의 기준을 중요한 기준설정의 준거로 삼음
 - 궁극적으로는 주거, 교육 등 5대 삶의 영역에서 서울시의 발전수준을 고려하여 서울시민이 누려야 할

3) 1950년대에 들어와 복지국가체제를 구축한 서구사회는 1960년대부터 ‘적정기준’으로 복지정책의 초점이 이동해가게 됨.

최저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총족하지 못하는 시민에게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적정기준

- 서울시민복지 적정기준은 서울시민에게 ‘품위 있는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준임
- 기준의 중앙정부 그리고 서울시의 복지정책을 통해 일부 영역은 최저선을 어느 정도 총족하고 있기 때문에(예, 보육서비스) 최저선을 넘어 적정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적정기준은 ‘품위 있는 수준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준으로 정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표2-1> 국민복지기본선의 두 가지 유형과 원리

유형	국민복지최저선	국민복지적정선
수준	경제수준을 고려하여 최소한도로 제공 돼야 할 ‘최저수준’ minimum lever	‘적정 수준’ adequate level
책임 주체	국가 책임	국가, 기업, 개인이 공동 책임을 지는 사회적 공동 책임
재원의 부담	조세를 통한 국가부담	조세 외에 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회적 공동 부담
주요 적용 대상	빈곤층, 노동시장 탈락자나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중 저소득층	저소득층 이상의 계층 혹은 위험을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인 계층
권리의 성격	구체적 권리 (청구권의 성립)	추상적 권리 (청구권의 미 성립)
운영원칙	정책 결정 및 제도 운영에 있어서 기업자의 민주적 참여	
영역	소득, 건강, 주거, 교육, 보호 등 전 사회복지 영역	
예	· 「벼베리지보고서」 · ILO의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1952)	· ILO의 ‘고용자해급여에 관한 조약’(1964), ‘장애인·노령·유족급여 관한 조약’(1967), ‘의료 및 상병급여 관한 조약’(1969) 등

※ 자료원 : 김경혜 외, 「서울시민 복지기준 설정 연구」, 서울연구원, 2012, 10쪽 재인용.

3 현재의 논의로부터 발전을 다시 생각한다

□ 발전을 왜 재정의해야 하는가

- ‘지금’ ‘현재’의 한국 사회는 발전에 대한 재 정의를 요구한다. 즉 발전을 경제적 성장과 동일시하는 전략이 아니라 성장이 일어나도 개인의 행복도가 높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
- 이러한 맥락에서 발전(development)을 경제적 의미의 발전, 즉 성장(growth)이나 개발로 이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발전을 다른 전망에서 정의하려는 시도에 대한 이해는 매우 시사적임
- 발전의 개념에 대한 재정의 중에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아마데아 션이 제안하는 ‘자유로서의 발전

(development as Freedom'은 주목할 만한 제안

□ 발전의 궁극적 목적은 자유의 상태 도달이다

- 아마티아 센은 “발전을 부자유를 제거”(아마티아 센, 2013: 32)함으로써 자유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으로 해석
- 발전이란 “실질적인 부자유”(아마티아 센, 2013: 32)를 제거해 나가는 것
- 자유에 대한 협소한 관점은 “발전을 GNP의 성장이나 개인 소득의 증대, 혹은 산업화, 기술적 진보, 사회의 근대화 등과 동일시”(아마티아 센, 2013: 41)하지만, “자유가 발전을 통해 촉진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특정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바로 이 최상위의 목표(자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자유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발전을 바라보면 그 과정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는 몇몇 수단이 아니라 발전의 최종적 목표(인간 자유의 확장)에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아마티아 센, 2013: 41)

□ 자유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선 역량의 박탈이라는 사회적 배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 빈곤은 저소득이 아니라 자유로서의 발전이 부재한 상태, 즉, 자유로서의 발전을 지향하는 기본적 역량이 박탈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
- 틸빈곤=발전은 역량의 박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 역량의 박탈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형태로 나타남
- 틸빈곤=역량의 부재=사회적 배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발전의 궁극적 목적

□ 자유의 상태로서의 발전에 도달하기 위한 두 가지 전제조건

- 경제적 최소조건: 최저/최소임금(minimum wage), 기본소득론
- 문화적 최소조건: 사회적 최소조건(social minimum)

□ 사회적 최소조건

- 자유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사회적 최소조건을 개인의 자조로 환원될 수 없음. 신자유주의는 자유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사회적 최소조건을 능력 있는 자아, 성공한 자아로 환원시켜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는커녕 강화시키고 있음
- 자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람을 위한 발전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자유(Development For All)라는 개념이 필요함

- 개인의 자유는 사회적 자유를 전제로 함. “개인적 자유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산물이다. (1) 개인적 자유를 확장하는 사회적 제도배열과 (2) 각각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제도배열을 더욱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개인적 자유의 사용 사이에는 상호관계가 존재한다. 정의와 적절함에 대해 개인들이 갖는 관념은 개인이 자신들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러한 관념은 또한 사회적 관계에 달려 있기도 하다. 특히 그것은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공공의 인식과 문제와 해법에 대한 집단적 이해에 따라 달라진다”(아마티아 센, 2013: 76)

<표2-2> 아마티아 센의 자유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조건 및 선택수단

자유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	선택 가능한 수단
경제적 최소조건	최저임금/복지/기본소득
사회적 최소조건	문화마을을 통한 공통체

4 문화마을이라는 사회적 최소조건

□ 사회적 최소조건: 인간의 조건과 삶의 최소치

-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human condition)을 노동, 작업, 행위로 구분하였는데, 아렌트에 따르면 노동은 인간의 조건을 위한 출발점임. 노동은 자유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경제적 최소조건을 구성하는 요소이며 노동(labor)은 “인간신체의 생물학적 과정에 상응하는 활동” “신체의 자연발생적 성장, 신진대사와 부파는 노동에 의해 생산되어 삶의 과정에 투입되는 생명 필수재에 구속”(아렌트, 1996: 55)
- 인간의 조건에 대한 물음은 출발점이 되는 최소 기준이 아니라 최소기준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종착점에 대한 질문
- 아렌트는 노동으로 환원되어 있는 인간형인 호모 파베르의 전형적인 태도를 이렇게 정리 “세계의 도구화. 인공물을 만드는 제작자의 도구와 생산성에 대한 확신, 모든 영역에서 수단- 목적 범주의 신뢰, 모든 문제는 해결가능하고 인간의 동기들은 유용성의 원리에로 환원될 수 있다는 확신, 주어진 모든 것을 원료로 취급하고 자연 전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가 다시 갑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잘라낼 수 있는 광활한 옷감으로 간주하는 주권 … 인공물의 제작 특히 도구를 만들어내고 이것들의 제작을 무한히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도구의 제작을 위한 첫 단계로 간주될 수 없는 모든 사상에 대한 경멸. 제작과 행위의 동일시를 당연히 여김.(아렌트, 1996: 373)
- 현대인이 호모 파베르적 특성을 지니게 되면서 “제작자이자 세계 건설자로서 인간은 고정되고 영속적인 기준과 척도들을 박탈”당함(아렌트, 1996: 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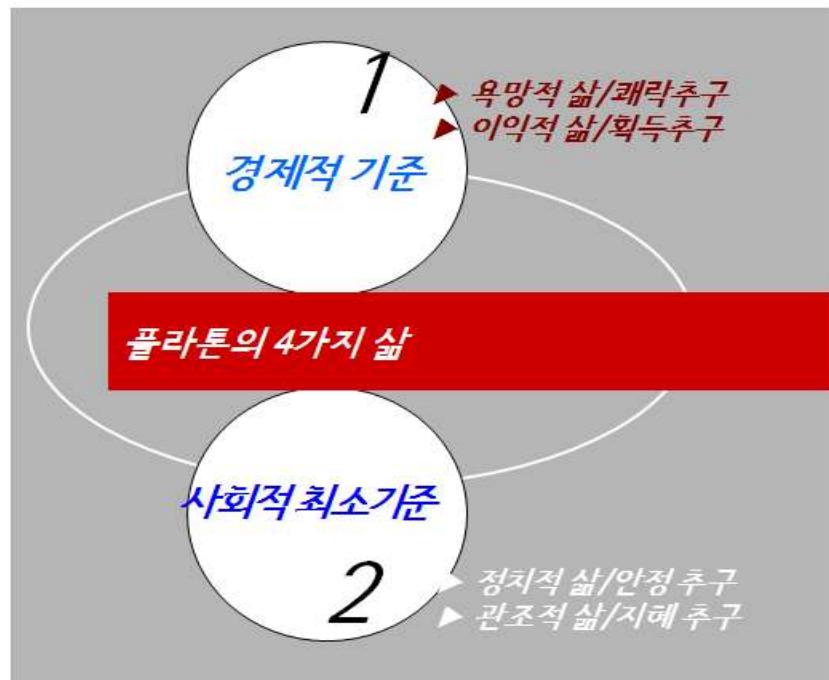
- 인간의 조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동과 작업으로 환원되지 않는 행위의 복원이 필요는데, 아렌트는 행위(action)는 “사물이나 물질의 매개 없이 인간 사이에 직접적으로 수행되는 유일한 활동”으로 “행위의 근본 조건은 다원성으로서 인간조건, 즉 보편적인 인간이 아닌 복수의 인간들이 지구상에 살며 세계에 거주한다는 사실에 상응”(아렌트, 1996: 56) 한다고 정의.
- 사람들은 자신을 그리고 타인을 도구화하지 않고, 자신과 타인에게 의미 있는 기여를 할 때 스스로를 쓸모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데, 퇴출(uselessness)가 강화될수록, 사람들이 스스로를 쓸모 있는 존재(use)로 느낄 수 있는 사회활동을 필요로 함
- 경제적 최소조건의 구비만으로 사람은 자유의 상태에 도달할 수 없음. 궁극의 자유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쓸모 있는 사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공통의 것에 기여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최소조건 또한 구비되어야 함

□ 사회적 최소조건과 5가지의 도구적 자유

- 아마트야 센이 제시하는 자유에 도달하기 위한 5가지의 도구적 자유 역시 경제적 최소조건과 사회적 최소조건을 모두 포함함
- (1) 정치적 자유: “누가 어떤 원칙으로 지배하는가를 결정할 기회를 밀한다. 또한 여기에는 당국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정치적 표현과 검열 없는 언론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서로 다른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아마트야 센, 2013: 87)
- (2) 경제적 용이성: “소비, 생산, 혹은 교환의 목적으로 경제적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 개인들이 누리는 기회”(아마트야 센, 2013: 87)
- (3) 사회적 기회: “사회가 교육, 보건 등을 위해 만들어놓은 제반 제도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개인의 실질적 자유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제도들은 개인적인 삶의 영위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활동에 더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아마트야 센, 2013: 88)
- (4) 투명성 보장: “투명성 보장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개방성의 필요와 관련 있다. 그것은 정보가 명료하게 공개되는 상황에서 티인과 교류할 수 있는 자유다. 그러한 신뢰가 심각하게 침해될 때, 많은 사람들의 삶의 개방성의 결여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아마트야 센, 2013: 88)
- (5) 안전 보장: “안전보장이란 사람들이 절망적인 비참함, 혹은 기아나 사망 때문에 고통을 겪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 안전보장의 영역은 실업 급여나 빈곤층에 대한 소득 보조와 같은 안정된 제도적 배열뿐만 아니라 기근 구제나 극빈층에게 소득을 제공하는 비상 공공근로와 같은 긴급 조치를 포함”(아마트야 센, 2013: 88-89)

□ 플라톤이 제시한 바람직한 삶의 4가지 형태

- 플라톤은 인간의 삶은 욕망적 삶, 정치적 삶, 이익적 삶, 관조적 삶의 4가지 목표를 지향한다고 함. 그에 따르면 인간의 삶은 4가지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
- 욕망적 삶과 이익적 삶이 경제적 최소기준과 연관되어 있다면, 사회적 최소기준은 인정을 추구하는 정치적 삶과 지혜를 추구하는 관조적 삶과 연결됨



[그림2-1] 플라톤의 4가지 삶

제2절

문화마을이라는 지향점

1

부정형으로 규정된 문화마을

□ 집합현상으로써의 문화

- 문화는 정의내리기 쉽지 않은 개념이지만, 개성이 한 개인의 특징을 의미한다면 문화는 집합체가 공유하고 있는 특징을 의미
- 문화는 집합체 현상이기에 문화가 발생하고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상호작용의 지구성을 요구로 함
- 문화는 집합체의 토대가 되는 일종의 인프라이지만, 물질적 인프라처럼 단기간에 형성되거나 탑다운 방식으로 보급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님
- 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의 지구성과 상호작용의 일상성을 모두 요구함

□ 사회) 자본으로써의 문화

- 문화는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데,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축적이 필요함
- 시간의 축적이란 마을 내 내재된 관계의 요소의 정체, 즉 머무름을 요구함(시정개발연구원, 2012: 13)
- 물질적 형태의 문화는 인공물(arte fact)로 존재하며, 좁은 의미의 문화 즉 순수예술(fine art) 역시 인공물의 형태를 취하거나 직업으로써의 문화예술인에 의한 생산물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폭 넓은 의미의 문화는 평범한 사람(common people)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평범한 것(ordinary)

□ 부정적으로 정의된 문화마을

- 긍정적으로(positive)하게 문화마을을 정의내리는 것은 쉽지 않기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마을을 부정적으로(negative), 즉 무엇이 아닌 것으로 정의내리고자 함
- 문화마을에 대한 부정적 정의(1) : 문화마을은 문화예술인이 모여 사는 마을이 아니다
- 문화마을은 직업적 전문가인 좁은 의미의 문화예술인이 모여 사는 마을이 아니라 하나의 지역 단위, 거주 단위에서 문화가 사회 자본이자 주민 개인의 역량 회복의 촉발제가 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함

- 문화마을에 대한 부정적 정의(2): 문화마을은 문화예술 향유가 단순히 높은 마을을 의미하지 않는다
 - 문화마을은 좁은 의미의 문화, 인공물로써의 문화가 공급되는 공간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자본이 재생되고 역량의 부재라는 의미에서의 빈곤이 해결되는 공간을 의미함
- 문화마을에 대한 부정적 정의(3) : 문화마을은 특별한 목적에 따라 모인 목적형 공동체 마을이 아니다.
 -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문화마을은 잘 알려진 마을 공동체인 성미산 마을이나 삼각산 재미난 마을과 같은 예외적인 마을과는 다름
 - 성미산 마을이나 삼각산 재미난 마을은 공동체의 공통의 목표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마을 공동체라면,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문화마을은 인위적인 재편이 아니라 다양한 목적으로 현재의 주거 공간에 살고 있는 ‘지금’ ‘현재’를 인정하고 ‘지금’ ‘현재’에서 가능한 문화마을을 구성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음
- 문화마을에 대한 부정적 정의(4) : 문화마을의 공간단위는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는다
 - 문화마을의 단위는 행정적 목표를 위한 시군부 구획 단위와는 관계없음
 - 문화마을의 기본 단위는 행정적 구획보다는 실제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사실상의 교통망/의사소통망(communication)의 형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 ‘마을’은 행정적 단위의 공통성이 아니라 의사소통망을 공유하고 있는 집합체가 자신이 속한 집합체에 부여하는 상징이자 공감의 단위
 -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공감이 형성되면 ‘마을’의 개념이 물질성을 획득하지만, 공감이 부재하면 ‘마을’이라는 기호는 공허함
 - 이런 맥락에서 인구이동이 빈번하고 이로 인해 상호작용의 시간적 역사와 상호작용 빈도와 강도가 관계로 축적되어 있는 공간에는 행정구역의 의미로서의 ‘동’은 존재하지만 문화적 의미의 ‘마을’은 존재할 수 없음
 -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문화마을에 대한 망어적 사례: 염리동 창조마을, 방학동 방아골 마을, 상도동 상대골 마을 등

2 기존 문화마을 정의

- 문화마을에 대한 일반개념⁴⁾
 - 문화마을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 정의 및 사전적 정의가 없는 상황이며 마을과 관련하

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도시 문화마을 선정 및 지원방안 연구」, 2013, 27쪽 참조.

여 추진된 각각의 사업들을 통해서만 간접적 의미로서의 문화마을에 대한 개념정의를 살펴볼 수 있음

- 관련된 사업 및 사례들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화마을의 일반적 개념은 대체적으로 마을주민의 공동체적 의식 및 사회정체성, 각 마을의 문화특색에 기인하는 문화다양성,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광의적 해석의 의미에서 이를 포괄하는 문화마을의 개념으로 마을주민의 공동체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 활동과 그에 대한 문화적 환경이 지속되는 마을 정도의 수준으로 일반적 개념으로서의 의미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표2-3> 문화마을에 대한 일반적 개념

구분	정의내용		비고
사전적 정의		현재 개념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개념정립이 필요한 상태임	정식화된 법적 사전적 정의 필요
법적 정의		마을의 문화·역사적 소재를 발굴·육성, 관광자원화하여 문화와 환경이 아름답게 조화된 자생력 있는 마을	정책 및 사업적 개념정의
사례적 정의	문화역사마을 가꾸기사업 (문체부)	마을가꾸기를 의미하는 사회일반적 개념 지역활성화시스템 만들기 및 인재육성 등 하드웨어로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포함하는 활동으로서 사회전반에 널리 사용되는 일반화된 의미	마치즈쿠리에 대한 일반화된 개념
	일본 마치즈쿠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주민의 집단적 활동으로 서로 협동하는 마음을 기르고 지역에 대한 환경이나 자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유지해야 하는가. 즉 주민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바탕으로 지역력(地域力)을 높이는 운동	마치즈쿠리에 대한 개념정의
학계 및 분야 정의	미야니시 유유시	농어촌 면면역의 중심(거점)마을에 집중 지원하여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농촌관광, 농촌체험활동, 소득증대사업 및 생 산기반 정비 사업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생활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농촌마을	농림부 농촌개발과 추진사업을 농촌문화마을로 파악하고 개념정의
	정건채		

□ 문화마을의 개념재정립을 위한 접근방법론 제시⁵⁾

- (문화도시) 문화마을의 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도시와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현상의 흐름 안에서 문화가치를 중심으로 이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통시적이며 거시적 접근이 선행되어야 함
- (문화도시) 문화마을의 개념정립에 있어 사회현상으로서의 가치속성을 바탕으로 한 개념정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일반적 지향가치로서의 개념정의(통시적 개념 - 정책비전)가 선행되고, 현재적 시점에서 이를 실체화하기 위한 동시대적 실현 목표로서의 개념정의(공시적 개념 - 사업추진목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음

5) 앞의 보고서, 37쪽.

□ 문화마을의 개념정의

- 마을의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의 문화 활동을 통해 마을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고 마을문화와 주민생활의 복합을 통한 사회효과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마을
- 문화마을의 핵심가치는 주민공동체 중심의 마을문화 구현을 통한 문화의식 고취와 마을자생력 강화

<표2-4> 문화마을의 정책적 개념정의⁶⁾

구분	문화마을	
정책비전 (가치정의)	정의	문화적 삶을 바탕으로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갖춘 도시와 마을
	핵심가치	사회적 장소로서의 도시와 마을에서 인간의 문화적 삶의 실현
개념정의 (사업목표)	정의	마을의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의 문화 활동을 통해 마을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고 마을문화와 주민생활의 복합을 통한 사회효과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마을
	핵심가치	주민공동체 중심의 마을문화 구현을 통한 문화의식 고취와 마을자생력 강화
	가치효과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의 올바른 사회가치 및 문화의식 고취 사회적 장소로서 도시와 마을의 문화정체성 발현 도시와 마을의 문화를 통한 사회경제 활성화에 기여

3 지향점으로써의 문화마을

□ 문화마을의 지향(1) -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써의 문화마을

- 각 마을 사업은 최소 10년 이상의 숙성기간을 필요로 함
- 성미산 마을은 공동육아활동이 마을 문화활동으로 나타나기까지 14년(1994-2008)이 소요됨
- 삼각산 재미난 마을도 공동육아에서 마을 문화 활동으로 이어지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됨(1998-2010)
- 즐거운가 또한 지역아동센터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발전하기 까지 10년 이상(1999-2010)
- 따라서 문화마을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기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사회 자본을 재생하는 중장기 과정이 절대적으로 요구됨

□ 문화마을의 지향(2) - 동질성에 기반을 둔 공동체(community)가 아니라 공통성에 기반을 둔 공동체(commonwealth)로써의 문화마을

6) 앞의 보고서, 40쪽.

- 문화마을은 사회적 악기가 연주되는 공간 : 문화마을은 익명의 존재였던 거주민들이 익명성을 벗고 인성 (character)을 획득하는 공간
 - “인성은 한 개인이 만인이 공유하는 사회적 악기-음악 텍스트에 해당하는 사회적 동류어는 법률, 의식, 언론, 종교적 신념의 규범, 정치적 교의 등이다-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는 것을 뜻한다”(리처드 세넷, 불평등 사회의 인간존중, 76)
 - 문화마을은 집단 동일성(identity)에 기반을 두지도 않으며, 또한 집단 동일성을 지향하지도 않는다. 동시에 문화마을은 개별화 또한 지향하지 않는다. 문화마을은 집단 동일성에 기반을 둔 과거의 공동체 모델과는 구별되는 집단 교류형식임
 - 문화마을은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동일성이 아닌 공통적인 것(the common)을 지향함
 - ‘공통적인 것’은 “물질적 세계의 공통적 부 - 공기, 물, 땅의 결실을 비롯한 자연이 주는 모든 것”에서부터 “사회적 생산의 결과물 중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및 차후의 생산에 필요한 것들 - 지식, 언어, 코드, 정보, 정동 등-”을 의미(안토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 2014: 16)
- 문화마을의 지향(3) - 강한 유대가 아니라 약한 유대(weak tie)에 의한 사회자본 재생
- 퍼트남의 사회자본 이론에 대한 재해석의 필요성
 - 퍼트남은 <나 홀로 불링>을 통해 사회자본의 쇠퇴 원인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을 제공
 - 퍼트남은 사회자본의 쇠락 원인을 가족 유대감의 약화 교회, 정당, 취미 집단에 대한 참여 감소라는 측면에서 분석함
 - 퍼트남은 강한 유대(Strong tie)를 사회자본의 원형이라 간주하고, 강한 유대의 감소와 사회자본의 쇠락을 동일시
 - 현대 사회에서는 강한 유대에서 벗어나 약한 유대 형태의 사회 자본을 지향하는 경향이 동시에 증가
 - 강한 유대에 의한 사회 자본은 소속감과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반면, 그만큼 새로운 참여자를 막고 진입 장벽을 세우며 혁신을 저체시킬 수도 있음
 - 전통적인 공동체가 집단 동질성에 기반을 두고 집단 동질성을 지향하는 강한 유대에 의한 개인과 개인의 교류 형식이라면, 강한 유대에 기반을 둔 공동체는 현대인의 취향과 맞지 않음
 - 현대사회의 주된 경향은 강한 유대에 대한 강한 실망, 이로 인해 강한 유대로부터 벗어나려는 강력한 반작용이 지배적임
 - “사람들은 퍼트남이 언급한 것과 같은 종류의 공동체적 연계는 거의 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그러한 공동체적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연구의 참여자들은 어느 정도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정하였지만, 공동체가 자신의 삶에 개입하거나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

다. 오히려 사람들은 필자가 명명한 ‘준 익명성’을 갈망하였다. 현대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은 강한 연대보다는 약한 연대를 선호한다”(리처드 플로리다, 도시와 창조계급: 48)

- 문화마을은 강한 유대에 의한 사회자본이 두텁게 형성된 거주단위가 아니라, 약한 유대에 의한 사회자본이 두터워진 공간을 지향함
- 유대가 강하고 전통적인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높은 장소는 내부자에게 장점을 제공하고 안정감을 높여 주는 반면, 네트워크가 느슨하고 유대가 약한 장소는 새로운 참여자에게 개방적이어서 결국 자원과 사고의 새로운 조합을 조성

□ 문화마을의 지향(4) 문화를 매개로 한 역량 회복

- 문화의 민주화가 특정 집단, 예술적 기호 및 문화자본에 의해 종속된 문화가 다수의 집단에게 보급되는 것을 의미한다면(문화향유증대), 문화민주주의는 모두에 의한 문화 창조를 의미
- 문화민주주의는 (1) 대중들을 공동체의 문화적 삶에 적극적인 참여 권장 (2) 대중들을 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 정책결정에 참여권장 (3) 사회구성원들의 문화적 권리 및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 증진 (4) 문화재원과 지원에 공평하고 균등한 접근 권장을 강조함(전병태, 2007)
- 리처드 세넷이 언급하는 존중의 조건: (1)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재능을 허비하는 사람은 존중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반면 재능은 좀 모자라지만 자신이 가진 능력의 한계까지 노력하는 사람은 존중을 불러일으킨다”(리처드 세넷, 불평등 사회의 인간존중, 88) (2) “자기애 대한 돌봄은 또한 타인에게 짐이 되지 않음을 의미할 수 있는데, 궁핍한 성인은 수치를 초래하는 데 반해 자급자족하는 사람은 존중을 받는다. 존중을 획득하는 이러한 방식은 기생적 삶에 대한 현대적 혐오에서 나온다”(리처드 세넷, 불평등 사회의 인간존중, 89)
- (3) “존중을 획득하는 세 번째 방식은 타인에게 무언가를 되돌려주는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야말로 한 사람의 인성을 존중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영원하며 깊은 원천일 것이다…자급자족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커다란 중요성도 갖지 못하는데, 그에게는 상호 연결도, 타인들에 대한 긴요한 필요성도 없기 때문이다. 교환이야말로 공동체에 무언가를 되돌려주는 사람의 인성에 생명력을 불어넣은 사회적 원칙인 것이다”(리처드 세넷, 불평등 사회의 인간존중, 89)
- 저소득이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기본적 역량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전히 빈곤한 상태라 할 수 있음
- 문화마을은 경제적 의미의 저소득에 대한 해법이 아니라, 기본적 역량이 회복된 상태를 의미
- 기본적 역량을 회복하기 위해 기본적 역량을 박탈시킨 요인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지는 공간을 우리는 ‘문화마을’이라 명명할 것임
- “소득의 관점에서 상대적 박탈은 역량의 관점에서 절대적인 박탈을 가져올 수 있다. 절대 소득이 세계적

기준에서 높은 편이라고 해도 부유한 나라에서 상대적 빈곤은 역량에서 매우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대체로 풍요로운 사회에서 동일한 사회적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상품을 구매하려면 더 많은 소득이 필요하다...현대적 장비들이 다소 보편적으로 보급된 지역에서는 공동체적 삶에 참여하기 위해 그러한 현대적 장비들(텔레비전, 비디오장치, 자동차 등)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들이 덜 부유한 나라의 사람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소득 수준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이 부유한 나라에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 장비들의 결핍은 실질적인 제약"(아마트야 센, 2013: 154)

□ 문화마을의 지향(5) 인간친화기능과 자기성찰 기능의 배양

-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과 문화마을
- 가드너는 인간의 지능을 음악지능(Musical Intelligence), 신체운동지능(Bodily-Knesthetic Intelligence), 논리수학지능(Logical-Mathematical Intelligence), 언어지능(Linguistic Intelligence), 공간지능(Spatial Intelligence), 인간친화지능(Interpersonal Intelligence), 자기성찰기능(Intrapersonal Intelligence)로 구별하는데 문화마을은 이 중 인간친화지능과 자기성찰 기능을 배양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에 해당됨
- 인간친화지능은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에 주목하는 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능
- 인간친화지능을 지니게 되면 사람들은 타인들의 기분, 기질, 동기와 의도의 차이를 간파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음
- 자기성찰지능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접근, 감정들을 구별하는 능력, 마지막으로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안내하는 수단으로서 한 개인의 내적 지식(가드너, 2007: 37)
- 자폐아는 자기 성찰 능력을 결여함. 하워드의 자기성찰 기능은 자폐적 사회에 대한 하나의 차방으로 가능할 수 있음
- 인간친화기능이 개인이 타인을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라면, 자기 성찰 지능은 개인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 문화마을의 지향(6) 취향의 공통체로써의 문화마을

- 마을은 노동과 직업에 의해 규정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펼쳐지는 공간이 아니라 비노동 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전개되는 공간
- 문화마을을 관통하는 원리는 노동의 세계를 관통하는 원리와 구별되는 별개의 원리가 작동되는 공간
- 문화마을은 취미의 영역이자, 자율적인 영역이며 동시에 호혜라는 상호작용을 통한 만족 도달을 목표로 삼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펼쳐지는 곳이어야 함
- 문화마을은 마을이라는 거주지로까지 확장되어 지배되고 있는 경제의 원리를 비노동의 원리로 전환시켜내는 움직임을 지향함

4 문화마을의 실현을 위한 방향성

- 문화마을 실현 가능성: 인구 흡입 요인과 배출 요인에 대한 해석
 - 거주지를 결정할 때 사람들은 경제적인 것과 라이프 스타일적인 사항을 중요하게 여김
 - 지역의 라이프 스타일적 측면이 지역의 어메니티를 규정하며, 어메니티의 매혹성의 차이에 의해 인구 흡입과 인구 배출이 이루어짐
 - 한 지역이 이른바 창조계급을 흡입하는 요인을 갖고 있는지, 배출하는 요인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문화마을의 실현 가능성은 달라짐
- 문화마을 실현 가능성과 창조계급 흡입
 - 창조계급의 핵심적 집단: “과학자와 엔지니어, 대학 교수, 시인과 소설가, 예술가, 연예인, 연기자, 디자이너, 건축가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의 사상적 지도자, 즉 비소설 작가, 편집인, 문화계 인물, 종합 연구소 연구원, 분석가 및 여타 여론 주도자”(플로리다, 2008: 53)
 - 창조계급은 핵심적 집단과 더불어 기타 전문직 종사자들을 구성되어 있는데, “하이테크 부문, 금융 서비스, 법률과 보건 관련 직업 비즈니스 경영과 같이 광범위한 지식 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는 창조적 전문직 종사자”(플로리다, 2008: 54)를 포함함
 - 플로리다에 따르면 창조계급을 흡입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음
 - (1) 창조계급은 전통적인 기업 공동체, 노동계급의 거점 그리고 많은 선벨트 지역들에서 벗어나 필자가 창조적 거점이라고 부른 장소들로 이동하고 있음
 - (2) 창조적 거점들은 우리 시대의 경제적 승자라는 경향을 가진다. 그곳은 창조 계급 사람들의 집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혁신과 하이테크 산업의 성장이라는 모습으로 창조 계층적 성과의 집중이 높게 나타남을 자랑 한다. 또한 이들 지역은 고용 증가와 인구의 증가와 같이 전체적인 지역 활성화의 징후가 강하게 나타난다.
 - (3) 창조적 거점들은 자원의 이용 가능성 혹은 간선 교통로와 같은 전통적인 경제적 요소 때문에 번성하는 것이 아니다. 지방 정부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파산할 정도로 세금 혜택과 다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번성하는 것도 아니다. 그곳은 대개 창조적인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번성하는 것이다.
 - (4) 창조적인 사람들은 전통적인 이유 때문에 이곳으로 이주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도시들이 주력하는 건설 부문, 즉 스포츠 스타디움, 도시 고속도로, 도시 쇼핑몰 그리고 테마공원과 같은 관광 및 위락 지구 등은 실제로 창조 계급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하거나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구하는 것은 풍부한 양질의 경험, 모든 종류의 다양성에 대한 개방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조적 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는 기회 등이다”(플로리다, 2008: 55)

□ 문화마을 모델 구현 장소의 특성에 대한 분석

- 통계학자 로버트 구성의 연구: 사회자본, 인적 자본 및 창조 자본에 대한 실증적 검증
- 쿠싱에 의한 4가지 지역 유형 구분



[그림2-2] 쿠싱의 4가지 지역구분

- 높은 사회자본 공동체는 사회적 고립과 안전 및 안정성에 강한 선호도, 가장 낮은 경제성장
- 높은 사회자본 공동체의 특징은 폐쇄성 정신 구조
- 창조적 거점은 다양성과 관용성의 정신구조(예- 게이 지수, 보헤미안 지수가 높음)

2015년 지역문화컨설팅

제3장

문화마을 최소기준 주요정책 현황

제1절. 문화도시(마을)정책현황

제2절. 문화마을 관련 최소기준 설정 현황

제1절

문화도시(마을) 정책현황

1

문화체육관광부

가. 개념논의

1) 문화마을의 정책적 개념에 대한 논의

- 사회·일반적 의미에서의 “문화마을”에 대한 개념 탐색
 - 사회·일반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화마을에 대한 법적·사전적 정의는 없음
 - ‘지역문화진흥법 제4장’에서 문화도시 법적 개념 정도만 언급되었을 뿐 문화마을에 대한 법적 정의는 이루 어지지 않았음
 -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과정에서 ‘문화도시·문화마을’에 대한 법적 정의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나, 지역의 큰 테두리를 정하는 정도의 문화도시 법적 개념 정도만 명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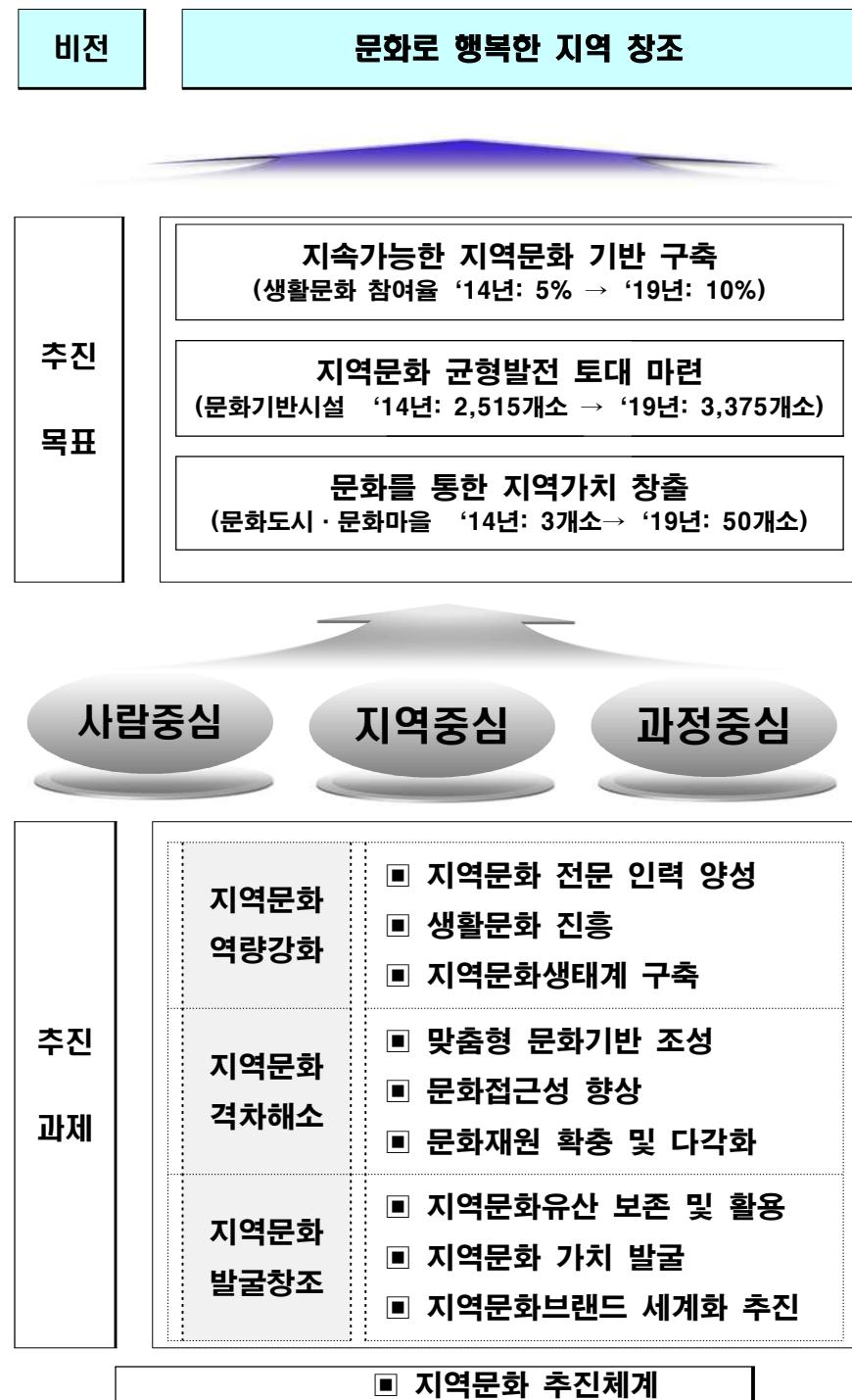
<표3-1> 사회·일반적 의미에서의 본 문화도시와 문화마을 개념탐색 비교

구분	문화도시	문화마을
사전적 정의	『국어사전』 문화적인 사적(史跡)이 풍부하거나 학문, 예술 따위와 같은 문화적 활동이 활발한 도시	사전적 정의 없음 개념적 정의 필요
법적 정의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정의 중』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법적 정의 없음 개념적 정의 필요

- 결론적으로 현재 사회·일반적 의미에서 법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정의된 ‘문화마을’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며 인과적 의미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는 문화마을의 최소기준을 정함에 있어 부천의 도시적 여건 및 지역상황에 맞게 부천 스스로의 문화마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부천시에서 일반화될 수 있는 문화마을의 개념 형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임

□ 지역문화진흥정책에서의 “문화마을”에 대한 개념 탐색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한 법정계획으로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비전으로 “문화로 행복한 지역창조”를 제시하고 있음
 - 비전에 따른 추진목표로서 지역문화기반 / 균형발전 토대 / 지역가치 창출을 위한 각각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비전 및 추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적 전략으로서 “사람중심” / “지역중심” / “과정 중심”을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선언하고 있음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추진과제로서는 지역문화의 역량강화 / 격차해소 / 발굴창조로 과제를 구분하고 각각의 구분에 따른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전제이자 기반으로서 지역문화 추진체계를 제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구조화하고자 함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비전 및 추진목표에서 그 중 “문화를 통한 지역가치 창출”의 목표에 대한 중요 내용으로 문화도시·문화마을을 제시하고 있으며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에 있어 ‘14년 기준 3개소 수준에서 향후 ‘19년까지 50개소 수준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추진과제에 있어서는 1-2 생활문화 진흥의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및 활동 지원’과 1-3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역문화사업 지원’, 3-3 지역문화브랜드 세계화의 ‘지역문화특화사업 추진’에 문화정책에서의 마을중심 또는 문화마을에 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1-2 생활문화 진흥의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및 활동 지원’에서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생활문화의 진흥 및 정착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바탕으로 정책 추진방향으로 가정, 직장, 마을 등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 세부과제로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및 활동 지원을 논의함
 - 1-3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역문화사업 지원’에서는 그 필요성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기반조성 추진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장소성에 기반 한 지역문화자원의 통합적 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으로 지역문화진흥정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역문화사업을 지원하고 마을 만들기 주도 등 주민들의 문화 활동을 확대하고자 함
 - 3-3 지역문화브랜드 세계화의 ‘지역문화특화사업 추진’에서는 지역문화자원의 미래가치 창출을 논의하면서 장소성, 생활권, 문화권 중심 선도사업의 개발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사업으로 지역문화특화를 위한 문화도시·문화마을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시하고 있음



[그림3-1]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구성 주요내용 ('15년 8월 기준)⁷⁾

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생활문화활동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2015, 17쪽.

<표3-2>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中 마을중심 및 문화마을 관련 정책계획 주요내용 정리

추진과제	필요성/추진방향/사업내용	마을관련 사업내용
1-2. 생활문화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문화의 진흥 및 정착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제고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상황과 밀착한 풀뿌리 지역문화 확산 및 진흥 가정, 직장, 마을 등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내용 생활문화 기본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및 활동 지원 문화지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및 활동 지원 주민 주도 자생적 생활문화 형성 및 활성화 지원 마을회관,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등의 생활문화공간화 지원 주민 주도 생활문화 커뮤니티 공간의 관리비(전기, 가스 등), 세제 혜택 지원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동체 연극·영화 등 자생적 커뮤니티아트(Community Art) 활동 지원 <p>※ 생활문화시설 : 문화시설,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지역 자치센터, 마을회관, 생활문화센터, 영상미디어센터, 지역 미디어시설, 지역문화예술창작공간</p>
1-3.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자체의 역량강화를 통한 종합적·유기적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기본조성 추진 필요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는 지역 문화생태계 조성 장소성에 기반 한 지역문화자원의 통합적 활용체계 구축 사업내용 지역문화진흥관련 법제도의 정비 지역문화 현황 조사를 통한 지역문화 실태 파악 도시 및 지역의 통합적 문화계획 수립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역문화사업 지원 지역문화 주체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역문화사업 지원 주민자치센터를 활용, 지역문화 네트워크 구축 마을 만들기 주도 등 주민들의 문화 활동 확대 문화체험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운영시설, 강사, 교재개발 등 기준 마련
3-3. 지역문화 브랜드 세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자원의 미래가치 창출을 통한 일자리, 문화산업, 지역경제 활성화 세계적인 지역문화 상품의 발굴 및 육성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유산, 지역문화원형 등 다양한 유형의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 지역 고유의 문화브랜드 정립을 위한 마케팅 방안 선도사업의 개발 (장소성, 생활권, 문화권 중심) 사업내용 국토 및 지역문화 브랜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지역문화특화사업 추진 문화도시 지정 및 확대 문화지구 지정 및 육성 지역문화브랜드 선정 및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 특화사업 추진 문화도시·문화마을 사업 지원 지역의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및 지역 자체가 고유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사업 위주 지원 도시형은 연간 7.5억 원을 5년간, 마을 형은 연간 2억 원을 3년간 지원 <p>※ '14년도 문화도시 1개소, 문화마을 2개소 → '15년도 문화도시 7개소, 문화마을 13개소</p> <p>※ 지역발전특별회계(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예산: 국비 40%, 지방비 6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연계 지원 문화예술 전문가, 현장관계자가 참여하는 컨설팅팀 구성,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등 종합 컨설팅 지원 성과가 우수한 문화도시에 대해 문화도시 지정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 정책 사업에서의 “문화마을”에 대한 개념 탐색

- 사회·일반적 의미에서 또는 법적으로 직접 정의하고 있는 ‘문화마을’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최근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마을과 관련하여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인 각각의 정책 사업들을 통해서는 직·간접적으로 문화마을에 대한 정책적 개념정의를 살펴볼 수 있음

- 정책 사업을 통해 탐색되어지는 ‘문화마을’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먼저 지금은 종료되었으나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했던 정책사업인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문화역사마을’에 대한 개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문화마을’의 개념을 유추할 수 있음
- 그리고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문화특화지역사업의 문화마을형 사업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화마을’의 개념을 통해 현재 중앙정부의 지역문화진흥정책 및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 생각하고 있는 ‘문화마을’의 정책적 개념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2)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에서의 문화마을 개념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사업 중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의 개념정의를 통해 기존 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문화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파악이 일부 가능함
-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은 잊혀 가는 우리 고유의 마을단위 전통문화 역사 자원을 개발하여 보존하고 이를 관광자원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원한 사업이었음
- 마을의 문화·역사적 소재를 발굴·육성, 관광자원화하여 문화와 환경이 아름답게 조화된 자생력 있는 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 소득증대 등 정주만족도 제고하고자 함
- 사업에서 문화역사마을의 개념은 마을고유의 전통문화 역사 자원을 개발하여 보존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문화와 환경이 아름답게 조화된 자생력 있는 마을로 정의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음

<표3-3>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에서의 사업 정의 및 목표

구분	내용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	사업정의	잊혀 가는 우리 고유의 마을단위 전통문화 역사 자원을 개발하여 보존하고 이를 관광자원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사업목표	마을의 문화·역사적 소재를 발굴·육성, 관광자원화하여 문화와 환경이 아름답게 조화된 자생력 있는 마을을 조성

3) 문화특화지역사업 중 문화마을형 사업에서의 문화마을 개념

- 문화특화지역사업은 현 정부 출범 당시 지역문화융성을 위한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추진된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의 예비단계 진행을 위한 정책 사업으로 문화도시형 사업과 문화마을형 사업이 구분되어 있으며

이 중 문화마을 사업에서 정책 기본개념에서 문화마을을 정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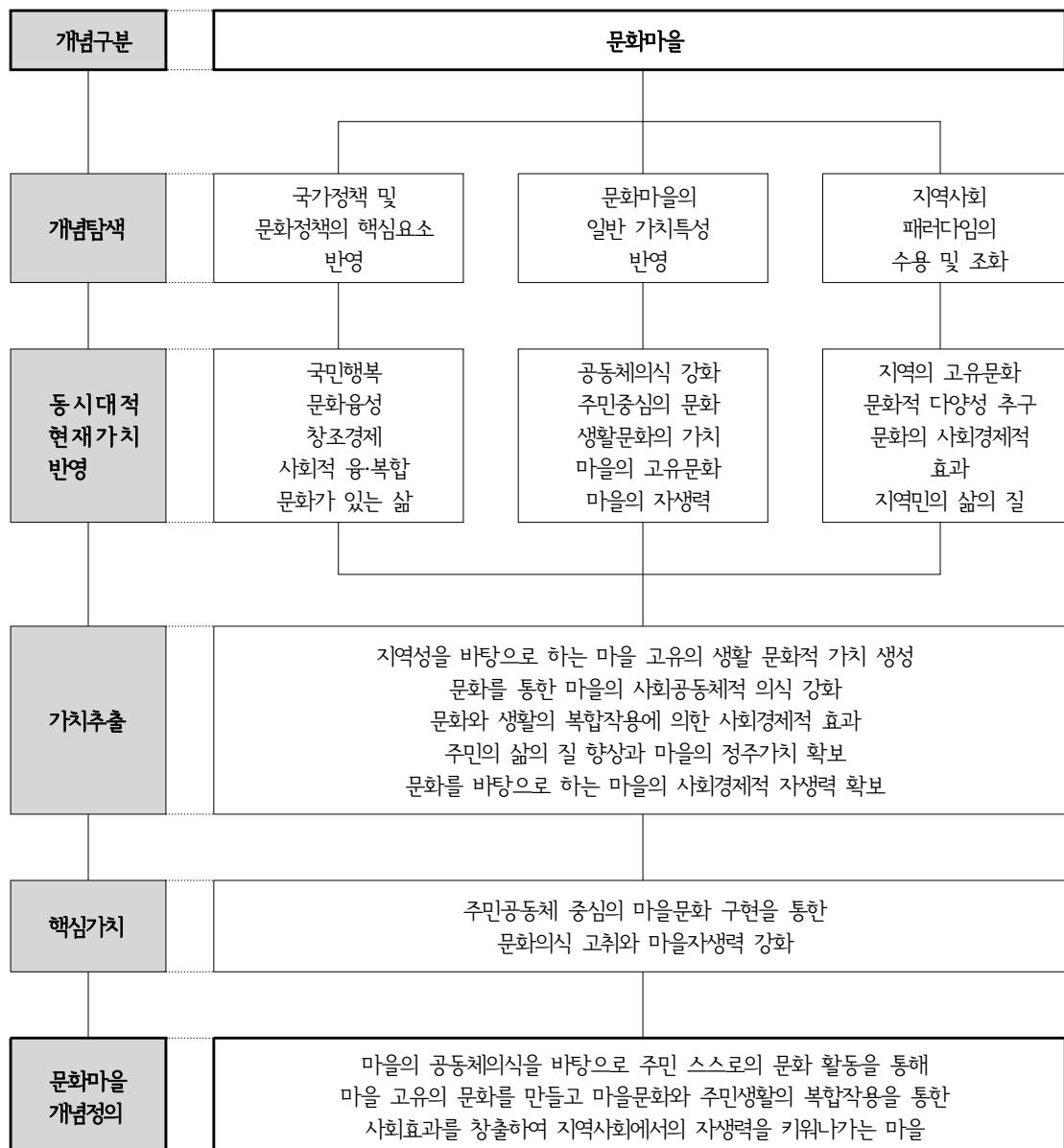
- 종합적으로 파악할 때 문화특화지역사업의 문화도시형사업과 문화마을형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 추진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문화도시·문화마을이 되며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 및 활성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또한 문화특화지역사업에서의 문화마을형 사업의 기본개념은 2013년 당시 사업추진을 위해 진행된 R&D 단계의 ‘문화도시 문화마을 선정 및 지원방안 연구’에서 제시한 “문화마을”의 개념을 바탕으로 문화마을의 개념이 정의되고 있음
-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도시 문화마을 선정 및 지원방안 연구’에서 제시한 ‘문화마을’의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상의 ‘문화마을’에 대한 개념과 문화특화지역사업에서의 ‘문화마을’에 대한 개념을 동시에 파악하고자 하며 현재 중앙정부 정책에서 파악되는 문화마을의 개념을 탐색 및 이해하고자 함
- ‘2013 문화도시 문화마을 선정 및 지원방안 연구’에서는 문화도시와 문화마을에 대한 정책적 개념 정의에 있어 도시와 마을이 추구하는 총체적인 정책비전으로서의 개념정의와 도시와 마을 각각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사업목표로서의 개념정의를 동시에 제시하고 이를 문화도시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정책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음
-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도시 문화마을의 정책적 개념정의는 다음과 같이 종합 제시됨

<표3-4> 문화도시 문화마을의 정책적 개념정의(종합)

구분		문화도시	문화마을
정책비전 (가치정의)	정의	문화적 삶을 바탕으로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갖춘 도시와 마을	
	핵심 가치	사회적 장소로서의 도시와 마을에서 인간의 문화적 삶의 실현	
개념정의 (사업목표)	정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에서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즐기는 그 도시만의 고유한 문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회현상 및 효과가 창출되어 발전과 성장을 지속하는 도시	마을의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의 문화 활동을 통해 마을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고 마을문화와 주민생활의 복합을 통한 사회효과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마을
	핵심 가치	도시문화 중심의 사회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의 도시발전 기반 마련	주민공동체 중심의 마을문화 구현을 통한 문화의식 고취와 마을자생력 강화
	가치 효과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의 올바른 사회가치 및 문화의식 고취 사회적 장소로서 도시와 마을의 문화정체성 발현 도시와 마을의 문화를 통한 사회경제 활성화에 기여	

* 자료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도시 문화마을 선정 및 지원방안 연구」, 2013년, 40쪽 인용.

- 이 중 문화마을에 대한 개념정의는 사회가치 및 패러다임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핵심가치를 도출하여 정책적 개념이자 사업추진 목표로서의 문화마을에 대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짐
- 문화도시 문화마을 선정 및 지원방안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개념정의 과정에 대한 결과로서 문화마을의 정책적 개념을 “마을의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의 문화 활동을 통해 마을의 고유한문화를 만들고 마을문화와 주민생활의 복합을 통한 사회효과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마을”로 정의하고 정책개념 및 사업개념의 기본 모델로 활용함



4) 문화마을에 대한 정책적 개념탐색 결과 종합

- 기본적인 개념파악에 있어 법적으로 또는 사회·일반적으로 정의된 문화마을의 개념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다만 정책 연구 및 관련 사업 등에서 필요에 따라 문화마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각각의 정책 및 사업이 다루고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문화마을의 개념을 맞추어 한정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 현재 관련 정책 및 사업의 개별 사례들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화마을의 일반적 개념은 대체적으로 마을주민의 공동체적 의식 및 사회정체성, 각 마을의 특색에 기인하는 문화적 고유성, 지역사회 및 경제의 활성화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포괄적으로 해석되는 광의적 의미에서 문화마을의 개념에 접근하게 되면 “마을 주민의 공동체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 활동과 그에 부합하는 사회적 환경이 지속되는 마을” 정도의 수준에서 문화마을의 정책적 일반개념이 해석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임
- 그리고 정책과 사업을 위한 단위로서의 문화마을에 대한 기본 범위는 최소 규모의 행정과 공공적 사회교류가 이루어지는 동·리 행정 단위를 기본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마을의 공간지리적 위치와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마을에 대한 인식범위 정도에 따라 이를 교합하는 수준에 한해 문화마을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특히 문화마을의 개념 설정에 있어 각각의 단위 정책 및 정책 사업에서 목적하는 바에 따라 개념적 범위가 구분되고 있어 광의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정책 사업을 통해 지향하고자 하는 마을에 대한 주민의 인식 및 활동 수준, 지역의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그 가치와 의미가 변화하는 개념인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부천의 문화마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함에 있어서는 부천 스스로의 문화마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도시적 여건 및 지역상황에 맞게 부천시의 문화마을 기준 및 범위, 수준을 정하고 최종적으로 부천시에서 일반화될 수 있는 문화마을의 개념을 형성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임
- 다만 이러한 부천의 문화마을 개념형성 과정에 대해 연구적 차원의 제언을 하자면 현재 정부 정책 및 사업에서 지향하는 문화마을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여 부천의 도시특성과 여건에 맞는 문화마을 개념을 효율적으로 정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됨
- 첫째, 현재 중앙정부의 정책사업 추진 차원에서 형성된 문화마을의 개념은 각각의 정책 및 사업이 지향하는 목적에 맞추어 정의되고 있는 측면이 강함 따라서 사업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지향성 마을을 구축하

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자칫 도시특성과 여건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사업적 추구 목표에 의해 마을의 성격이 규정되어버리는 한계를 나타낼 수 있음

- 따라서 도시 부천이 추구하는 문화도시로서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이에 부합하는 부천의 문화마을에 대한 정책적 개념정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 둘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 되는 문화마을은 앞서 2장의 도시의 특성 구분 및 마을에 대한 개념논의 시 언급되었던 도시 및 마을의 여러 가지 특성 중 강한 연결성(Strong Tie)을 가진 고전적 의미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마을 중심으로 개념이 형성된 측면이 강함
- 이는 도시 속의 마을보다는 공간 또는 지리적으로 도시와는 구별되는 지역 촌락으로서의 공간범위와 지리 범위를 가진 마을의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사회적 연대(지역구조·역사관계 등)가 매우 강한 독립적 형태의 고유한 마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견됨
- 부천의 경우 부천이라는 도시 안에 여러 개의 마을이 모여 있는 구조를 가진 지역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바 이러한 개념은 비도시에서는 적용되는 개념이나 도시 속의 마을에는 그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약한 연결성(Weaked Tie)을 바탕으로 문화적 연대감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로서의 마을 개념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임
- 이는 본 연구에서 중앙정부 정책 관점에서 탐색한 문화마을 관련 개념 중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 특화지역사업 중 문화마을형 사업에서 논의하고 있는 문화마을의 개념 중 마을 주민 서로의 상호적 유대감 정도의 수준에서 일부 공통성을 발견할 수 있는 정도인 것으로 파악됨
- 결국 중앙정부 정책의 관점에서 논의된 문화마을 개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개념적 정의를 포함하는 부천의 문화마을 개념 설정이 필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파악해 볼 때 현재 부천에서 추구해야 하는 정책적 개념으로서의 “문화마을”이라 함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정책 및 사업에서의 공동체로서의 문화적 특성을 일부 포함하는 정책개념으로서의 문화마을이되, 부천의 도시적 특성과 현황이 반영되어 고전적 공동체의 의미보다는 공동체로서의 약한 연결성과 유연성을 가진 의미로서의 도시 속에 존재하는 문화마을 개념을 보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임
- 이는 개념적으로는 도시 부천 안에서의 문화마을에 대한 개념 설정에 있어 참고 가능한 수준의 개념이 되며 “도시에 소속된 주민으로서 상호간 생성되는 사회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문화적 공동체(또는 공유 집합체)로서의 의식을 공유하거나 문화 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주민들이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모여 사는 곳(또는 사회범위)”이라는 정도의 의미로 그 개념이 포괄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임

<표3-5> 문화마을에 대해 일반화되는 정책적 개념 탐색 결과종합

구분	개념탐색 결과내용		비고
사회 일반적 개념	사전적 정의	현재 개념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개념정립이 필요한 상황임	정식화된 법적 사전적 정의 필요
	법적 정의		
정책 개념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지역문화진흥정책에 있어 지역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정책목표	정책목표로서의 문화마을 개념정의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	마을의 문화·역사적 소재를 발굴·육성, 관광자원화하여 문화와 환경이 아름답게 조화된 자생력 있는 마을	단위사업에 목적을 둔 개념정의
정책 사업적 개념정의	문화특화지역 사업의 문화마을형 사업	마을의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의 문화 활동을 통해 마을 고유의 문화를 만들고 마을문화와 주민생활의 복합작용을 통한 사회효과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마을	지역문화정책 기반 사업에 목적을 둔 개념정의



부천의 문화마을 개념정의 시 참고 가능한 수준의 정책개념 일반화 검토 결과

도시에 소속된 주민으로서 상호간 생성되는 사회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문화적 공통체(또는 공유 집합체)로서의 의식을 공유하거나 문화 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주민들이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모여 사는 곳(또는 사회범위)

나. 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관련 정책사업 주요 추진현황⁸⁾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조성사업 또는 간접적인 지원 방식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직접적인 조성사업은 지역문화진흥정책에서의 정책적 개념을 형성하고 있는 근간이 되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서의 문화특화지역사업 중 문화마을형 사업을 의미함
- 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간접지원 방식의 사업은 문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목적을 가진 사업은 아니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사업 중 마을을 중심 대상으로 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을 의미함
-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지역문화융성을 위한 정책 사업에 대해 지역을 중심에 두고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사업 및 활동을 지원 중에 있으며 그 중에서도 마을을 사업지원단위로 하거나 마을 안에서 전개되는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8) 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관련 정책사업 주요 추진현황은 기본적으로 각 사업 관련 홈페이지 및 정책사업 관련 자료의 내용을 참고 및 재구성 하였으며 이와 함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5)의 「생활문화활동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등에 서 제시된 내용을 재구성한 자료임

-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진흥정책이 추구하는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의 큰 테두리 안에서 그 중요 한 하나의 축을 지역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체감하고 삶에 투영되어 지역문화로 발현하는 마을문화에 두는 것이 되며 궁극적인 목표로서의 문화공동체 또는 사회적 의미로서의 마을문화를 가진 문화마을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임
- 종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논의된 바를 반영하여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 중인 마을 관련 사업 중 문화마을 조성과 관련되는 직접 지원 사업(문화특화지역사업 중 문화마을 사업)과 함께 마을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는 간접 지원 사업(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공동체, 마을예술프로젝트 등)에 대해 대 표적인 사례를 찾아 살펴보고 부천의 문화마을 최소기준 수립 및 조성사업 추진 등에 참고하고자 함

<표3-6> 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관련 정책사업 주요 추진현황

구분		사업추진 및 지원 방향	사업명
문화마을 조성 관련 정책사업	직접지원 사업	문화마을 조성	문화특화지역 사업 中 문화마을형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생활문화공동체사업 문화이모작사업
	간접지원 사업	생활문화 기반 지원	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 생활문화센터운영지원사업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사업
		예술문화 기반 지원	마을예술프로젝트 시시콜콜 사업

1) 문화마을 조성 관련 직접지원 사업

① 문화마을 사업(문화체육관광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정의

- 사회적 상호유대감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중심의 마을 고유문화를 통해 주민의 문화적 삶을 생활 속에서 실현하는 거주 장소로서의 문화마을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사업
 - 문화마을의 개념정의 : 마을의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의 문화 활동을 통해 마을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고 마을문화와 주민생활의 복합을 통한 사회효과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마을

○ 사업목적

- 주민중심의 마을문화 구축을 통한 공동체적 문화의식 고취와 마을자생력 강화
 - 문화마을 사업의 핵심 가치는 주민중심의 마을문화 구축을 통한 공동체적 문화의식 고취와 마을자생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문화마을 사업의 정책적 핵심 키워드를 ‘문화를 통한 주민의 정주가치 향상과 마을상생’으로 설정하고 각 마을의 문화적 가치효과 발현과 공동체의식 형성을 위한 정책 사업으로 추진
 - 사업유형 : 문화마을 사업은 각 마을의 문화적 지향목표 및 활동에 따라 사업 세부유형을 생활문화형 / 예술문화형 / 지역자산형 / 역사전통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을 부여함

○ 사업내용

- 사업의 추진주체로서 주민협의체(리더포함) / 문화기획자(또는 집단) / 주민 / 행정가의 상호 협력적 문화거버넌스 구조를 가진 협의체 구조를 구성하여 추진
- 문화마을 사업의 주요내용은 주민의 공동체적 가치의식 공유를 통한 문화가치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체적 문화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

<표3-7> 문화마을 사업 유형

구분	유형	목표	주요활동	기대효과
문화 마을 사업	생활 문화형	주민의 문화적 삶을 통한 마을 정주가치 향상	[생활문화 공동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중심의 생활 커뮤니티 주민참여 문화기획 프로그램 문화기반 주민생활형 경제활동 문화 나눔 및 기부활동 등 	문화적 공동체 의식 강화 ↓ 마을 고유의 문화가치 생성 ↓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정주가치 확보 ↓ 문화와 생활의 복합작용에 의한 사회경제적 효과 ↓ 마을의 문화·경제적 자생력 확보
	예술 문화형	예술가치의 공동체적 공유를 통한 마을문화의 새로운 가치발현	[예술창작 및 향유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과 문화예술인의 문화가치 사회공유 사업 및 프로그램 마을/지역 예술창작 및 향유 지원 프로그램 문화예술 기반 사회경제활동 	
	지역 자산형	지역 고유자산의 문화적 활용을 통한 마을문화 및 환경 특화	[지역단위 문화기반 경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생태적 문화 환경 가꾸기 고유자산콘텐츠 활용 문화기획 마을 자산 활용 기업 설립·운영 마을자산 체험프로그램 등 	
	역사 전통형	마을 공동체 중심의 지역문화 고유가치 구현 및 사회적 전승	[마을전통/역사가치 공유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문화예술 커뮤니티 활동 장인공방 / 기업 설립·운영 전통·역사자원 활용 마케팅 등 	

□ 추진현황

- 2014년 공주 상신마을과 부여 규암마을 2개 마을이 지역문화특화지역사업 문화마을 유형 사업으로 선정되어 최초 추진
 - 공주 상신마을 사업 :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이를 통해 주민이 마을문화를 알고 향유하게 하는 사업
 - 부여 규암마을 사업 : 규암마을의 장소와 거리를 기억의 장소에서 문화향유의 거점으로 재 활성화하는 사업
 - 2014년~2016년까지 3년간 각 마을 당 6억 원+a(국고 인센티브)의 사업비로 진행 중

<표3-8> 2014년 지역문화특화지역사업 中 문화마을사업 추진 현황

사업명	세부 사업명	사업유형	사업 추진 기간	사업비		
지역문화특화지역사업 (문화마을사업)	공주상신마을	역사전통형	2014년~2016년 (3년)	각 마을 당 6억 원 + a (연 2억 원)		
	부여 규암마을	지역 자산형				
주요 사업내용						
공주 상신마을	부여 규암마을					
달집태우기 행사 주민화합 척사대회 신야도원 영상 - 사계와 행사 용산9곡 제2곡 은용담 및 옥샘 정비 상여집 복원 상신웃다리농악 상설체험 및 연습장축조	마을협의회 지원 민속행사 전승 사업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개발·운영 주민주도 마을가꾸기 사업 가로환경 개선 사업 빈집·빈방 활용 소득사업 등					

- 2015년 문화마을사업으로는 현재 2014년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상신마을 및 규암마을을 포함하여 총 14 개 마을이 문화마을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표3-9> 문화특화지역사업 中 문화마을사업 추진 현황

구분	지역	사업명	사업비
2015년 사업 (2개소)	충남 공주	상신마을	각 마을 당 3년간 6억 원+a(국고 인센티브)
	충남 부여	규암마을	
2016년 사업 (12개소)	부산 수영	수영팔도 문화마을	
	대구 중구	역사전통 문화마을	
	경기 성남	문화마을	
	경기 양평	문화마을	
	충남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문화지원 고도화	
	충남 홍성군	고암예술마을	
	충남 예산군	대흥 옛 이야기 문화마을	
	세종시	평리 문화마을	
	전북 진안군	진안원강정문화마을	
	전남 여수시	증포 버스커 특화마을	
	경남 양산시	양산 문화마을	
	제주 제주시	제주시 문화마을	

② 문화마을 조성 관련 직접지원 사업

②-1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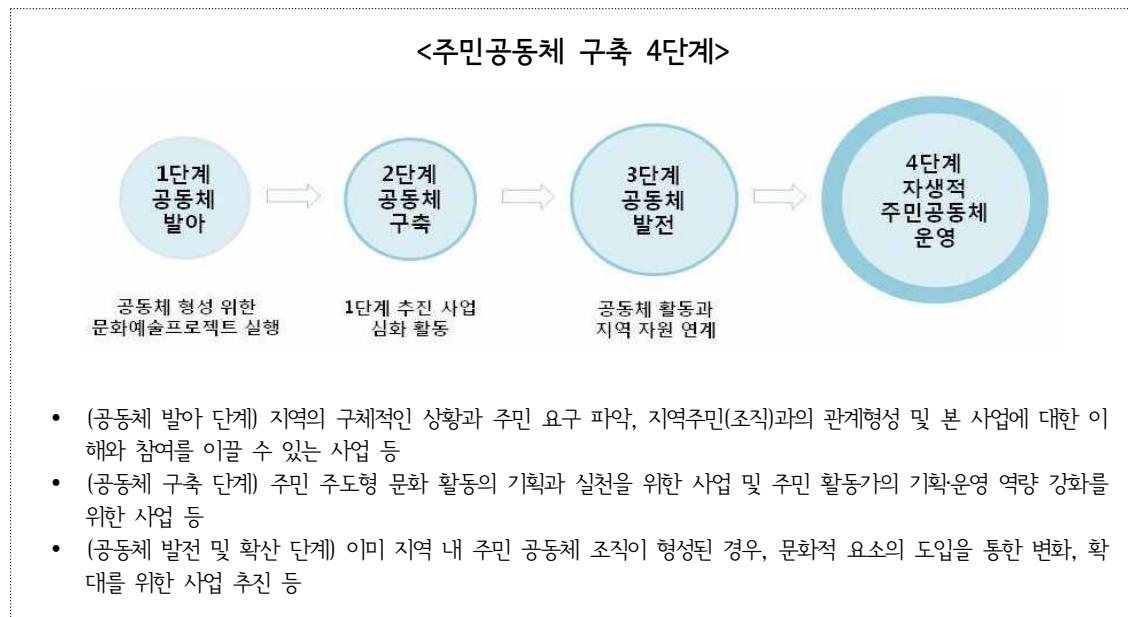
□ 사업개요

- 사업정의

- 21세기 우리 사회 새 마음, 새 문화운동으로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읍면동 단위에서 함께 만나고, 교류하며 지역 고유의 특색에 맞는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은 08년 주요 예술지원정책 개선방향에 따라 새롭게 추진된 사업으로,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쟁의 중심에 둔다.”는 국정지침에 따라 기획되었음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방향에 따라 정책의 생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일상생활과 밀착된 ‘생활밀착형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2009년 시작됨

○ 사업목적

-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공동체 문화 회복 및 지역의 변화 유도, 지역주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 제고 및 문화적 격차 해소
 - 단위지역 주민의 자율적 문화 활동 형성 및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문화향유의 객체에서 주체로의 변화를 기대
 - 문화를 매개로 한 생활문화공동체의 구축 및 발전을 위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타 지역으로 자발적 보급확산 기대
 - 지역의 역사, 사회적 현상과 문제에 대한 문화·예술적 접근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문화예술 창작 활동의 주체가 되어 개인의 삶을 풍부히 하고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여 지역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함
 - 지역주민의 자발적, 자생적, 자율적 문화 참여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일반인의 문화향수를 ‘관람’에서 ‘창작’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문화감수성 제고 및 문화예술에 대한 신규 수요를 창출하여 문화적,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함



[그림3-3] 주민공동체 구축 4단계

○ 사업내용

- 사업주관은 한국문화원연합회이며 대상 지역에 기반을 둔 단체·기관·시설 및 주민조직을 중심으로 지원
- 사업 지원 사항으로는 주민 간담회 및 수요조사, 운영전략 개발을 위한 사전 활동비 지원,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한 공동체 형성(기반) 활동 등을 지원

<표3-10>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내용

구분	사업내용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직 형태	문화소외지역 연극, 학창, 주민약단 등 문화예술단체
주요 목표	문화예술을 매개로 문화 격차 해소 및 공동체 문화 회복
주요 참여자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조직 범위	마을단위, 지역주민
지원 범위	주민이 직접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 활동비 30-50백만 원

- 공동체 조직을 형성하는 기반 구축 단계와 기 조직된 공동체를 바탕으로 지역 내 다양한 활동을 확산하는 단계 등을 구분하여 지원 범위 결정
-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자생적 주민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대 3년을 지원하여 문화예술기반 조성

<표3-11> 단계별 지원내용 및 범위(2015년)

단계	지원 내용	지원 범위(안)
공동체 기반 구축	주민공동체 조직 형성을 위한 주민 간담회 및 수요조사, 조직화전략 개발, 문화예술 매개 공동체 활동 등	20백만 원 ~ 60백만 원
공동체 활성화	기 조직된 주민공동체의 문화예술 매개 활동, 활동가 교육, 지속 운영전략 개발, 성과 확산을 위한 행사 등	20백만 원 ~ 60백만 원

○ 사업현황

- 2009년, 2010년도에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2년간의 준비과정을 마친 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함
- 현재 2009년 시작한 사업은 꾸준히 진행되어 24개 단체들이 3년간 지원을 받아 졸업함

<표3-12>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졸업 단체 현황(2014년 기준)

지역	수행단체	사업명	사업명
2009	충남 천안	천안 KYC	함께 만드는 양곡리 문화마을
~ 2011	충남 공주	충남교육연구소	농촌 생활문화공동체의 희망 찾기

지역	수행단체	사업명	사업명
2010 ~ 2012	대전 중구	극단 아낌없이 주는 나무	중촌 연극동아리, 사랑해요 우리 동네
	대구 남구	대구현대음악오케스트라	주민악단을 통한 문화마을공동체 만들기
			쌍쌍유촌 문화일촌
		(사)시민문화회의	섬마을에 웃음꽃이 활짝 피네
	광주 서구	극단 벽수골	월평, 예술로 물들다
	경남 통영	문화도시공동체 쿠카	
	제주 서귀포		
2011 ~ 2013	전남 영광	우동농악보존회	우평마을곳 축전
	인천 부평	자바로떼 인천지부	열 우물, 오래된 미래를 꿈꾸다
	경남 진주	진주 YMCA	365일 모두의 축제마을 진주강'남'
2012 ~ 2014	부산 북구	부산MBC 부설 (사)문화도시네트워크	구포창 선창가에 춤추는 길매기
	울산 울주	문화예술창작집단 울림	마을주민이 만들고 가꾸는 문화 사랑방 '소호마을 문화학교'
	충북 제천	예술과 마을네트워크	한밭들 까마귀물곳 마을 이야기
2012 ~ 2014	전북 완주	지역문화자원연구회	문화로 꽂피우는 달인문화 공작소
	서울 마포	우리동네나무그늘 /울림두레생협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공동체모임과 마을축제를 통한 공감마을 만들기
	서울 성북	함께사는성북마을문화학교	성북 커뮤니티스쿨 만들기
	경기 광주	너른고을생협	생활문화축제로 풀어가는 퇴촌남촌 세대공감
	강원 춘천	낭만골목추진위원회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낭만골목"
	강원 원주	성공회원주나눔의집	호맷골 생활문화공동체 상상 프로젝트 '마을에서 세상을 보다'
	부산 금정	금샘마을공동체	남산동, 꽃을 피우다
	울산 북구	농소1동주민자치위원회	홈골에서 호계역까지 동네 한바퀴
	경기 안산	커뮤니티 스페이스리트머스	바벨 디스코스
	경기 성남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숨	행복 봇들 '마을에서 놀자'
	인천 남구	우각로문화마을	어제는 앉은방이 내일은 기둥



[그림3-4] 제주 서귀포 - 월평, 예술로 물들다

※ 자료원 : 마을을 디자인하다 + The Magazine of Jeju Culture & Art Foundation - 월평, 예술로 물들다



[그림3-5] 강원 춘천 -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낭만골목'

※ 자료원 : 복권기금 문화나눔 홈페이지(<http://www.lotteryarts.or.kr>)

- 2015년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현재 총 27개 사업을 지원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3-13> 2015년도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선정단체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계
지원수	13개	7개	7개	27개
년차	지역	단체명	사업내용	
3년차	부산 해운대구	희망세상	지속 가능한 시끌벅적 마을 만들기 주민들이 문화예술 강사 되어 일상적인 문화재능나눔을 실시함으로 써 지속적인 문화공동체 형성	
	대구 수성구	만촌해피타운 운영협의회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형 도시공동체로의 발전 주민강좌 및 협동조합 활동 등 주민 자치활동 정립	
	전북 전주	학산종합사회복지관	주민 주도 동아리의 자립적 운영 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이웃지역의 문화 상품 및 지역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 명소화	
	충북 제천	간디공동체	주민문화예술 공동체 정착 및 마을박물관 주민 주도화 주민학교 운영, 주민강사를 통한 동아리 활성화 마을 백서 발간 마을청년 발굴을 위한 청년마을 살이단 운영	
	강원 원주	서곡생태마을	공생-마을을 누비는 주민활동가 마을대학의 인적네트워크 교류 활성화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계
	경기 안산	감골 주민회		마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 공동체 외연 확대 및 마을기업, 협동조합 설립
	경기 부천	부천문화재단 /송내동마을사랑방		공동체 발전 주민주체 역량 강화 및 조직기반 확대 송내동표 생활문화 생태계 조성
2년차	경남 하동	매계마을회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와 확산 홈스테이 민가를 확대 조성 및 운영을 통한 도시민 밭박 확보
	제주	신촌리새마을 작은도서관		이웃마을과 더불어 함께하는 우리 마을 이야기 책 발간 지속적인 협정단 공연과 마을페스티벌 확대
	부산 영도	영도문화원		주민조직 활성화 협동조합 등 마을공동체를 공식화 마을활동가 양성을 통한 마을 경제활동 모색
	전북 전주	한국무형유산 진흥 센터		공동체 운영 하드웨어 구축 및 자생시스템 마련 마을문화커뮤니티 운영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워크숍, 마을축제 등 문화행사 지속운영
	전남 보성	보성문화원		문화융성 공동체 구현 마을콘텐츠 활용을 위한 목화브랜드 제작 목동 문화단 예랑강회를 위한 생활문화디자인 기획
	경북 칠곡	마을과 문화		주민동아리의 활동 확대와 다양한 분화 주민강사와 청소년뮤지컬단의 활동력 제고 마을커뮤니티 공간 <꿈꾸는 세상>의 활동 거점화
	대전 대덕	대덕 문화원		생활문화공동체의 확산 및 정착 지역조사를 토대로 다양한 지역주민 및 소재발굴을 통해 동동마을 대학 운영 동네주민 유랑단 구성
1년차	부산 북구	(사)아지무스오페라단		콩딱 콩딱-어이야, 살맛나는 덕천문화마을공동체
	광주 광산	협동조합 상상창작소 봄		오순도순 문화발전소
	광주 동구	(사)우리문화예술원		행복이 따라오는 함께 사는 동네
	경기 양평	맥케이펄스		두물머리 자유 시장
	충북 보은	공간이노		소여리 <역사창고> 공동체 만들기
	전북 고창	구현골문화자치회		아홉고개 사람들의 문화마을 만들기 1517
	전북 익산	함라문화예술공동체, 익산목발노래보존회		함라인(人) 삼부자 안으로 (in) - 삼부자 커뮤니티 스쿨
	전남 화순	화순문화원		자세히 봄-세대공감 프로젝트
	전남 화순	도장리민속보존회		얼쭈! 좋다! 밭노래
	경북 칠곡	부영 새마을 작은 도서관		황금 자투리
	경북 포항	한국아이국악협회 포항지부		우리소리로 신명나는 봉좌마을
	경남 거창	거창 문화원		문화가 있는 원봉계 마을 가꾸기

※ 자료원 :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지원 사업 공식 블로그 인용 및 재구성(http://blog.naver.com/culture_wave)

②-2 문화이모작 사업9)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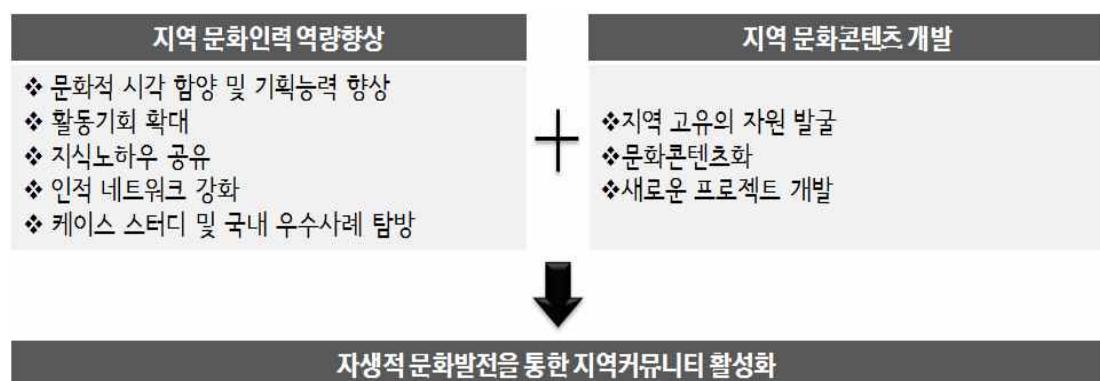
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생활문화활동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2015, 62쪽.

○ 사업정의

- 지역 고유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의 방향성을 가지고 전국 리·동 단위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문화적인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동협력 사업으로 추진된 『농어촌 마을 문화심기 시범사업』에서 시작

□ 사업목적

- 실천적인 생활문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지역에 대한 고민을 하고 문화의 가치를 접목시킨 프로젝트를 기획 및 실행할 수 있도록 함
- 마을마다 문화의 생산과 향유의 주체가 되는 주도적인 핵심인재를 세워 다양한 문화 활동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 지속되게 도와 지역문화의 선순환이 되도록 함



[그림3-6] 문화이모작 사업의 목적

□ 사업내용

- 문화이모작 사업의 대상은 마을리더 / 시민활동가 / 마을살이 준비자 / 인생이모작 준비자로 구성되고 있으며 이들을 마을의 핵심리더로 키우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진행

<표3-14> 문화이모작 사업대상

대상	세부내용
마을리더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 대표(추진위원장, 청년회장, 부녀회장), 일반 농산어촌 체험마을 주민
시민활동가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화 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활동가
마을살이 준비자	문화귀촌, 귀농을 통해 마을 살이를 꿈꾸는 청년, 문화예술인, 일반인 등
인생이모작준비자	문화를 토대로 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은퇴예정자, 은퇴자, 일반 회사원, 개인사업자, 학생 등의 예비문화인력

- 문화이모작 사업 프로세스는 기초과정→ 집중과정→ 기획사업→ 지식실행공동체(네트워크 모임) 4단계로 구성되며 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초과정 : 문화마을 만들기를 위해 필요한 지역문화, 문화콘텐츠 등 기초개념을 이해하는 교육과정으로 개념 및 사례강의, 참여토론, 문화마을 현장방문, 미션수행 등 다양한 형태로 지역에 맞는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향후 실행 가능한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
 - 집중과정 : 프로젝트 기획단계의 실무 기획능력 함양을 위한 집중과정으로 기획서 작성강의, 팀별 논의, 권역별 담임교수의 멘토링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발표하는 단계
 - 기획사업 :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획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행, 운영, 관리, 평가하는 역량강화 실습과정으로 전문가 멘토의 자문을 받아 수정, 보완하여 사업을 완성해나가는 실행단계
 - 지식실행공동체 :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조직해 동일한 관심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필요한 역량, 재능, 지원 등을 서로 협업하여 사업을 실행하는 학습모임



[그림3-7] 문화이모작 사업추진 프로세스 구성

□ 사업현황

-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MOU(2010.5.6) 체결로 공동협력 사업을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함
 - 이후 2011년부터 현재 2015년도까지 꾸준히 사업을 운영 중에 있음

<표3-15> 문화이모작 사업 연도별 추진현황

구분	추진사업내용	기획 및 실습사업 선정단체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교육과정 : 농어촌 문화마리더 양성과정 - 심화교육과정 : 농어촌 문화마리개인력 양성과정 - 실습교육과정 : 문화이모작 실습지원사업 - 컨설팅 지원 : 문화이모작 컨설팅 및 평가사업 	4개 권역 총 10개 단체 선정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경인권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height: 15px; margin-right: 10px;"></div> <div> 부평문화원 (인천시 부평구) “부평愛 길을 찾다”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충청권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height: 15px; margin-right: 10px;"></div> <div> 상봉리 반단마을 목공촌 협의회 (경기이천) “반단마을 목공촌 마을 공동 목공 교육장 건립 및 주민교육”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충청권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height: 15px; margin-right: 10px;"></div> <div> 양평미술치료센터 (경기도 양평군) “으라차차~!4·氣·총·전”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전라권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height: 15px; margin-right: 10px;"></div> <div> 창작극단 하다 (충북 수안보면) “수회리 엄마들은 배우다!”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전라권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height: 15px; margin-right: 10px;"></div> <div> 부수리 하얀 마을레 생태마을 (충북 보은군) “진(陳)들이 전통문화 보급사업”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제주권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height: 15px; margin-right: 10px;"></div> <div> 평촌 새마을회 (전북 진안군) “한마에 배움터 겨울학교”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제주권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height: 15px; margin-right: 10px;"></div> <div> 증궁마을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 (전북 진안군) “운장산 산신제 복원사업 - 구름 속 산신을 만나다”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제주권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height: 15px; margin-right: 10px;"></div> <div> 전남 고흥문화원 (전남 고흥군) “고흥 민초들의 창극”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제주권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height: 15px; margin-right: 10px;"></div> <div> 도장리 민속보존회 (전남 화순군) “발노래 마을 민요아카이브” </div> </div>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과정 : 문화이모작 리더양성 - 심화과정 : 문화이모작 매개자 양성 - 실습과정 : 문화이모작 기획사업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강원권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height: 15px; margin-right: 10px;"></div> <div> 춘천시 문화재단 (4개 사업)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강원권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height: 15px; margin-right: 10px;"></div> <div> “소각소통” (강원 평창군 미탄면)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강원권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height: 15px; margin-right: 10px;"></div> <div> “동산비치가 꿈꾸는 마을” (강원 춘천시 효자1동)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강원권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height: 15px; margin-right: 10px;"></div> <div> “해맞이 대해마을 주민음악 축제” (강원 춘천시 신촌리 해맞이 대해마을)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강원권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height: 15px; margin-right: 10px;"></div> <div> “박사마을의 사랑방 축제” (강원 춘천시 서면)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충청권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height: 15px; margin-right: 10px;"></div> <div> 충북문화재단 (3개 사업)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충청권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height: 15px; margin-right: 10px;"></div> <div> “오서산 주말 시골장터” (충남 흥성 오서산 억새풀 마을) </div> </div>

구분	추진사업내용	기획 및 실습사업 선정단체
2013	전라권	“호시탐탐 골목탐탐 자알놀았다람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일원)
		익산문화재단 (3개 사업)
		“옹포는 문화다” (전북 익산시 옹포면 25개 마을)
		“슬슬(slowslow)놀이터” (전북 익산시 금마 동고도리 활동)
		“비비정 마을탐사단” (전북 완주군 삼례읍 비비정 마을)
	경상권	부산문화재단 (3개 사업)
		“아!!!트랜스파머(ArTransFarmer)”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산리)
		“오륜에 사심” (부산 금정구 오륜동 오륜마을)
		“두둠두둠 곰play” (부산 기장군 정관면 주민자치회관)
		충북문화재단 (3개 사업)
2013	충청권	“회초리를 청하다” (충남 서산시 지곡면 중앙로[224])
		“부비고 프로젝트” (충북 청원군 낭성면 고드미 마을)
		“달빛산책, 월류봉에 들다” (충북 영동군 황간면 소재 월류봉)
		경남문화예술진흥원 (5개 사업)
		“힐마, 힐베 학교 갑시다!” (경남 거창군 웅양면 한기리)
	경상권	“마음1장 돌1장 옹기종기 돌담길” (경남 남해군 남면 홍현리)
		“우거리 사랑방 되살리기” (경남 함안군 범수면 우거리)
		“화산 경운기 투어” (경북 영천시 화산면 가상리)
		“마을대학, 영오리 캠퍼스” (경북 칠곡군 지천면 영오리)

구분	추진사업내용	기획 및 실습사업 선정단체
2014 - 2013년도와 동일	전라권	익산문화재단 (4개 사업)
		“난향에 물어나는 돌담길 이야기” (전남 구례군 광의면 운동리 난동마을)
		“동동마을 은빛 프로젝트” (전북 장수군 장계 동동마을)
		“문화도시락(文化都市樂)” (전남 순천시 일원)
		“용골메아리” (전북 김제시 용골마을)
	강원권	춘천시 문화재단 (6개 사업)
		“도시로 간 농부” (강원 춘천시 사북면 고탄리)
		“대풍아네 Living Library” (강원 춘천시 교동 대풍아네 현책방)
		“동고동樂” (강원 춘천시 효자2동 일대)
		“날아라, 청개구리!” (강원도 인제국 서화면 서흥리 404번지 주택)
		“문화예술 소통 놀이터” (강원 강릉시 사천해변)
		“사물놀이 추억 이야기” (강원 원주시 행구동 주민센터)
	경인권	인천문화재단 (7개 사업)
		“무지개 라디오” (경기 부평구 구미동)
		“マイ크 테스트” (인천 남동구 만수동)
		“우각로 신토통이 골목장”(인천 남구 송의동)
		“아화(和)하자” (경기 안산시 선부2동)
		“안녕하세요. 어서오시겨” (인천 강화군 강화읍)
		“공간애 프로젝트” (인천 남구 용현동)
	충청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4개 사업)
		“시가 만발이 있는 집” (충북 진천군 문백면)
		“문화가 있는 아파트 ‘삶의 향기’ 몇 점” (충북 청주시 분평동)
		“물안뜰 어르신 연극에 빠지다”

구분	추진사업내용	기획 및 실습사업 선정단체
경상권		(충북 진천군 백곡면) “돛자리 펴는 마을 프로젝트”(충남 서산시 해미면)
		경남문화예술진흥원 (4개 사업)
	경상권	“학교ing” (경북 군위군 소보면) “상봉 숲 도서관” (경남 밀양시 법흥리) “화이부동-귀농인 재능 네트워크” (경남 합천군 기회면) “빛나래 안동포 마을 가을 콜렉션” (경북 안동시 금소리)
		전남문화예술재단 (4개 사업)
		“세대공감 문화체험 200% 즐기기” (전북 김제시 금산면)
		“꽃청춘 문화신문” (광주광역시 일곡동)
		“별님달님 반짝반짝” (전남 신안군 증도면)
	전라권	“떴다! 사대” (전남 화순군 유미리)
		전남문화예술재단 (4개 사업)
		“세대공감 문화체험 200% 즐기기” (전북 김제시 금산면)
		“꽃청춘 문화신문” (광주광역시 일곡동)
		“별님달님 반짝반짝” (전남 신안군 증도면)

③-1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사업¹⁰⁾

□ 사업개요

○ 사업정의

- 지역 내 방치된 유휴시설 및 기존시설¹¹⁾의 전체 또는 일부 공간의 리모델링을 통해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

생활문화센터
『자율+공유+복합+재생+확산』 ⇒ 지역 생활문화 확산의 거점 시설

- (자율침여) 자율적 능동적 참여 공간 → 커뮤니티 공간, 주민 운영 참여
 (나눔공유) 지역 사회 문화 나눔 공간 → 발표 및 주민 교류 공간
 (복합문화) 다양한 장르와 프로그램 공간 → 복합문화 공간 기능
 (문화재생) 지역 유휴시설, 기존시설의 재생 공간 → 리모델링 건립
 (문화 확산) 지역 인적·물적 자원 간 네트워크 공간 → 생활문화 네트워크

1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생활문화활동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2015, 44쪽 참조.

11) 유휴시설이란 폐지 또는 기능 전환이 필요한 시설을 말하며, 기존시설은 주민센터, 마을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문예회관, 기타 공공시설 등을 뜻함

□ 사업목적

- 최근 국민소득의 증가, 100세 시대 도래, 주5일제 시행 등의 환경변화로 인해 문화예술 및 스포츠 등 여가 활동 참여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민의 다양한 문화, 여가활동 욕구를 충족해줄 수 있고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여가 인프라는 취약한 상황임
- 기존 문화시설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여가 참여 및 생활문화예술 참여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
- 지역민들에게 공존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함

□ 사업내용

- 신규 건립이 아닌 유휴시설 및 기존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한 생활문화센터 조성에의 건립비를 지원하는 사업
 - 국고 지원은 지역 유휴시설 및 기존 시설 대상 생활문화센터 조성 리모델링 사업비(리모델링 공사비), 기자재비 등) 일부를 지원
 - 지자체는 국고 지원 외의 리모델링 사업비 및 운영비 제공
 - 각 사업 당 지원규모는 최대 3억(생활권형) ~ 20억(거점형)으로 추진하며 연차별 약 30개소 조성 예정

<표3-16>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 사업 - 지원예산 및 규모

구분	2014년		2015년	
지원규모	20~30개 내외		20~30개	
지원예산	120억		120억(지자체 자본보조)	
	거점형	생활권형	거점형	생활권형
	15억	1억~3억	총 조성비 20억 내외	조성비 3억 내외
	국고 보조율 30% (조성규모에 따라 지원액 변경)			

□ 사업현황

- 2014년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사업을 통해 총 35개 사업을 지원함
- 현재('15.06 기준)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 고용복지+센터'와 충남 서산시 '서산 고용복지+센터' '부산 사하구 두송생활문화센터' 본 지원 사업 통해 센터 완공 후 개관

- 2015년도에는 31개 시설을 선정해 센터 조성을 지원 중에 있으며 연내 총 30개 시설이 추가로 문을 열 예정임

<표3-17>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지원 현황(2014년 기준)

연번	사도	사군구	지원 시설	개관 여부
1	경기	수원시	수원시민회관	
2	경기	수원시	지동마을 목욕탕	
3	경기	고양시	고양 아람누리 내 아람마을	
4	경기	고양시	호수공원 고양시청소년문화정보센터	
5	경기	양주시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구)페모텔)	
6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 고용복지+센터	개관 및 운영
7	강원	강릉시	(구)중앙동사무소	
8	강원	화천군	화천생태영상센터	
9	인천	남구	인천학산소극장	
10	대전	서구	둔산1동 주민센터	
11	충북	괴산군	괴산향토민속자료전시관	
12	충남	아산시	온양문화원	
13	충남	금산군	금산문화의집	
14	충남	서산시	서산 고용복지+센터	개관 및 운영
15	광주	광산구	광산문화원	
16	광주	서구	서구능성문화의집	
17	전북	전주시	인후문화의집	
18	전북	전주시	효자문화의집	
19	전북	전주시	진북문화의집	
20	전북	전주시	전주삼천문화의집	
21	전북	장수군	장수한누리전당	
22	전남	여수시	예술인촌	개관 및 운영
23	전남	해남군	(구)문화면사무소	
24	전남	화순군	화순문화원	
25	전남	화순군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26	대구	남구	대덕문화의전당	개관 및 운영
27	대구	북구	북구문화예술회관	
28	경북	상주시	(구)상주자전거박물관	
29	경북	포항시	포항승마장	
30	경북	영덕군	(구)영덕문화원	
31	경북	성주군	금수문화예술마을((구)금수초등학교)	
32	부산	부산진구	양정1동 주민센터	
33	부산	사하구	다대 목욕탕 (두송생활문화센터)	개관 및 운영
34	부산	수영구	수영구 문화센터	
35	경남	거창군	하성초등학교	

● ● ● 문화마을 최소기준과 거버넌스 모델 구축



서산 고용복지+센터 전경 및 내부



두송생활문화센터 전경 및 개관식

[그림3-8] 생활문화센터 현황

④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 사업개요

○ 사업정의

- 생활문화센터의 조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 개시에 맞춰 주민밀착형 생활문화공간으로서 입지, 환경, 주민 수요에 맞춘 공간구성, 운영 프로그램, 운영체계 등의 준비를 지원하는 사업

□ 사업목적

-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사전에 각 지역 여건에 따른 준비사업 지원으로 조기 운영 활성화 도모
- 생활문화동호회 및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생활문화센터 이용 자 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 기반 마련

□ 사업내용

- 생활문화센터가 지역특성에 맞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 조성 컨설팅단 운영 / 생활문화기획자 아카데미 및 네트워크 구축 /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지원 사업 / 생활문화

활성화 기반 구축 조사연구 / 생활문화정책 국민인식 제고 홍보를 사업을 통해 추진함

<표3-18>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지원 주요내용

제부사업	내용
생활문화센터 조성 컨설팅단 운영	입지·수요·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각 단계별 전문 심의, 컨설팅 및 정책 자문 기능 (공간 및 운영분야 생활문화 전문가로 구성)
생활문화기획자 아카데미 및 네트워크 구축	2014/2015년 생활문화센터 조성 시설 운영자 및 기획자 양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지원 사업	2014/2015 조성 단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사업 통해 생활문화센터 이용수요 확대 및 활성화 기반 형성 지역주민, 생활문화동호회 조사연구 및 참여 소규모 생활문화축제·행사 지원
생활문화 활성화 기반 구축 조사연구	체계적·종합적 생활문화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생활문화동호회 모집단 구축 조사 연구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사업 종합평가 연구를 통한 환류기반 구축
생활문화정책 국민인식 제고 홍보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정책의 브랜드화를 통해 생활문화에 관한 국민인식 제고 및 생활문화센터 이용확대 도모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브랜드화 및 정책 세미나 개최

□ 사업 추진현황

- 2015년 현재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중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원 사업은 기획프로그램 및 이용자 지원 프로그램 구분되어 지원되고 있음

<표3-19> 2015년도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지원 사업

구분	기획프로그램	이용자 지원 프로그램
사업기간	2015.6~9월	2015.6~9월
지원 대상	2014 생활문화센터 선정시설 중 ~ 2015.9월 개관(예정) 시설	2015 생활문화센터 신규선정시설
지원내용	생활문화동호회 및 주민 참여형 생활문화센터 개관 프로그램 생활문화동호회(인) 활동 및 발굴 프로그램	생활문화센터 조성 추진협의회 구성(주민, 생활문화동호회(인), 전문가) 및 활동 생활문화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간담회 및 수요조사 프로그램
지원액	각 시설별 15,000천 원 이내 * 심사를 통한 차등지원	각 시설별 10,000천 원 이내

- 2015년도 생활문화센터 기획프로그램은 상·하반기로 나눠 총 2차로 지원되며, 현재('15.06 기준)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지원 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3-20> 생활문화센터 기획프로그램 지원현황

번호	지역		시설명	위탁단체	프로그램명
	시도	시군구			
1	부산	사하구	두송 생활문화센터	사하문화원	두송생활문화센터 문화/예술 체험교육
2	대구	북구	대구북구 생활문화센터	대구북구 어울 아트센터	북구생활문화센터 개관기념 축제
3	광주	서구	농성문화의집	농성 문화의집	생활문화 매니지먼트(Life Culture Management) 와 함께하는 “와글와글 신나는 생활문화축제”
4	경기	수원시	수원시민회관	수원문화원	수원생활문화센터 개관 프로그램
5	경기	양주시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 (777생활문화센터)	일영1리 마을회	777생활문화센터 개관기념 동호회작품전지원사업
6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생활문화센터	동두천 문화원	행복누리, 행복나눔 생활문화센터
7	충남	아산시	온양문화원	온양문화원	제1회 아산시 생활문화 한마당
8	충남	금산군	금산문화의집	금산 문화의집	「금산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개관 생활문화축제
9	충남	서산시	서산생활문화센터	서산사랑 생활문화 나눔 동아리	지역사회 생활문화나눔 행사
10	전북	전주시	인후문화의집	인후 문화의집	춤추는 우리동네 생활문화
11	전북	전주시	효자문화의집	효자 문화의집	생활문화는‘행복’을 싣고
12	전북	전주시	진북문화의집	(사)한국 마을연구소	2015년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지원 사업
13	전북	전주시	삼천문화의집	삼천 문화의집	문을 열어라! 세내 생활문화센터!
14	전남	여수시	여수예술인촌	(사)한국 미술협회 여수지부	열린 미술, 문화예술과 소통하다.
15	전남	해남군	해남군 문내 면사무소 구청사	(사)문내면 발전협의회	문내 생활문화센터 기획프로그램 지원 사업
16	전남	화순읍	화순읍 생활문화센터	화순주민 자치센터	화순 문화 나눔 공동체

- 2015년도 생활문화센터 이용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3-21> 생활문화센터 이용자 지원 프로그램 지원현황

번호	지역		시설명	위탁단체	프로그램명
	시도	시군구			
1	부산	부산 진구	전포1동 주민센터	전포1동 주민자치회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지원 사업
2	대구	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재)달서 문화재단	2015년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
3	인천	-	인천아트플랫폼	(재)인천 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이용자 지원 프로그램
4	인천	동구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동구청소년 수련관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5	울산	울주군	울주군 두서면 구청사 (영남알프스)	(사)영남 알프스 천화	생활문화센터 이용자 지원 프로그램
6	울산	중구	중구전통 공예관	뉴미들 클래스	놀이와 문화로 생활문화센터와 친해지기
7	경기	용인시	(구)보정 임시역사	(재)용인 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진협의회 구성 및 수요조사
8	경기	화성시	화성종합경기타운	(재)화성시 문화재단	화성종합경기타운 생활문화센터 조성
9	강원	원주시	카나비생활문화센터	(재)원주 문화재단	원주시 생활문화 네트워크 구축사업 - 감성공유 프로젝트
10	충북	청주시	청주생활문화센터 동부창고36	청주시문화 산업진흥재단	청주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수요조사 및 컨설팅
11	충북	충주시	충주시 (구)교현동 사무소	충주문화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 수요조사 프로그램
12	충남	보령시	웅천읍 주민자치센터	보령시 웅천읍 사무소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지원 사업
13	전북	완주군	구이 생활문화센터	(사)생활 문화예술 동호회	구이생활문화센터 이용자 지원 프로그램 사업
14	전북	전주시	우아 문화의집	우아 문화의집	문화마을지기와 함께하는 “우아한 우리 동네 사용설명서”
15	제주	제주시	영평하동 알무드내 생활문화센터	영평하동 마을회	알무드내 사랑사랑 커뮤니티
16	제주	제주시	종달리 실버복지타운	종달리 세마을회	삼춘, 센터에 놀러가게 마을 (센터에 놀러갑시다!)

⑤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¹²⁾

□ 사업개요

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생활문화활동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2015, 59쪽 참조.

○ 사업정의

- 지역에서 생활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동호회를 지원하면서 생활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고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

○ 사업목적

-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 한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축제 지원을 통한 생활문화 활동 동기 부여 및 지역문화 자생력 강화
- 생활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역 문화 커뮤니티 형성 및 지역주민 문화 참여기회 확대
- 생활문화를 통한 지역 간 소통, 협력, 문화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한 생활권-권역-전국 단위의 단계적 생활문화 교류 기반 구축
- 다양한 생활문화 콘텐츠 발굴 및 홍보를 통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생활문화 참여 활성화

○ 사업내용 :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의 전체적인 사업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표3-22>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사업 내용

구분	내용
생활밀착형 문화 프로그램 지원	마을, 학교, 직장 등 생활권 내에서 지역주민, 학생, 직장인 등 생활·예술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교류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권역별 생활문화제 개최 지원	생활문화동호회 및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교류를 위한 권역별 생활문화동호회 축제 개최 지원
전국 생활문화제 개최	생활문화동호회 활동의 전국적 확산 계기가 마련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생활 속 문화체감 확산

- 이 중 본 연구에서 문화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사업은 생활밀착형 문화 프로그램으로 지원내용임

<표3-23> 생활밀착형 문화 프로그램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내용	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교류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원 예술기능 교육 위주의 강습, 강좌 프로그램이 아닌 주민의 자발적·주도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민 주도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 지향 지역 주민 참여,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교류 촉진 등 문화예술에 기반한 생활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지원
지원 대상	지역 생활예술인/동호회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며, 자체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가능한 마을권 생활문화시설 생활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지역 문화예술단체,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 등 지원 가능

□ 추진현황

-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은 프로그램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심사를 통해 1개 시설 당 10백만 원~15백만 원 사이의 차등 지원을 실시함
- 특히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중 2015년도에 처음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 37개 시설을 선정하여 지원 중임 그 지원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3-24>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지원현황

번호	지역		단체명
	시도	시군구	
1	서울	동작구	산대방1동주민자치센터 ((주)국제통합예술치유콘텐츠협회)
2		동작구	사당솔밭도서관(동작구시설관리공단)
3		종로구	성곡미술관
4	부산	중구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5	대구	남구	대덕문화의전당
6		남구	소극장 꿈꾸는 씨어터
7	인천	부평구	국악전용극장 친마당
8	광주	동구	동구문화원
9	울산	북구	농소3동주민자치센터
10		중구	중구문화원
11	경기	광명시	광명문화의집
12		군포시	군포문화재단
13		김포시	통진도서관(김포도시공사)
14		부천시	필봉농악보존회 부천전수관(생활문화예술협동조합)
15		양주시	양주2동주민자치센터(양주2동주민자치위원회)
16		양주시	남면주민자치센터(남면주민자치위원회)
17		양평군	양평군민회관((사)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양평지회)
18		용인시	용인문화원
19	강원	강릉시	강릉문화재단
20		영월군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
21		원주시	판부문화의집
22	충북	청주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23	충남	홍성군	홍성문화원
24		보령시	보령문화예술회관((사)한국예총보령지회)
25	전북	남원시	예기람미술관
26		완주군	완주문화의집(연품쌈지공방)
27		전주시	우아문화의집
28	전남	강진군	강진문화원
29		담양군	담양문화원
30	경북	영주시	새내마을회관(새내역사마을)
31	경남	거창군	거창문화원
32		김해시	내외문화의집(더문아트컴파니)
33		창원시	다호마을회관(문화예술협동조합 예술나무)
34		통영시	통영문화원
35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문화원
36		제주시	구좌읍주민자치센터(구좌읍주민자치위원회)
37		제주시	한림읍주민자치센터(한림읍주민자치위원회)

⑥ 마을미술 프로젝트

□ 사업개요

○ 사업정의

- 역사·문화·생태·정서적으로 분명한 특색을 가진 지역의 거점과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사업

□ 사업목적

○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기반으로 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민의 예술향유 기회 제공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

- 미술마을 조성과 일상공간의 예술적 재구성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공간 재창조
- 작가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공공미술 작가 육성
- 주민의 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및 자긍심 고취
- 미술을 통한 마을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대안 제시
- 공공미술의 선도 사례 구축

□ 사업내용

- 마을 단위의 공공미술 사업을 네 가지로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임
 - 행복 프로젝트 / 기쁨 두배 프로젝트 / 예술의 정원 / 자유제안
- 2009~2012년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지 중 우수한 곳을 연계하여 예술지도(Art Map)화하고, 지역의 타 문화예술 지원과 연계하여 예술여행(Art Tour)프로그램을 구성함
- 장기적인 관점에서 프로젝트의 확장성과 발전 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공공미술 명소로 부각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함

<표3-25>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방향 및 내용

사업방향	주요내용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	서민·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문화소외 지역을 예술적 공간으로 재조정 생활 반경 내에 설치된 작품을 통해, 주민들로 하여금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확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세스 아트(process art)를 통해 지역민 유대 및 귀속감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
예술가 일자리 창출	상대적으로 활동 기회가 제한된 지역 작가들에게 창작의 장 제공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 공간 활성화 등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부가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	역사자리·문화·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장소를 다각적으로 성찰하고 재창출하는 공공미술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성(locality)을 강화 지역성에 기반을 둔 독특한 볼거리로, 문화 관광수입 증대 사례 창출 예술을 통한 지역재생의 모델을 전국 지자체에 보급 및 확산
공공미술의 선도 사례 구축	지역의 역사, 문화, 생태적 조건을 적극 반영한 예술작품 제작·설치를 통해 지역의 문화관광 지원화 지역과 주민이 주체가 되는 프로젝트 실행을 통해 자생적·지속가능한 공공미술 모델 마련 종합적 기획을 통한 미술마을 조성, 발전가능성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사후지원을 통해 공공미술 프로젝트 파급력 확산
예술지도(Art map) 조성 및 여행로(路)를 발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우수 프로젝트를 연계한 공공미술 아트투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활성화 한국 국제공공미술 명소로 발전시켜 우수문화예술지원과 관광지원화

□ 사업 추진현황

- 2009년 최초 마을미술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현재 2015년까지 진행 중이며 2013년 기준 마을미술 프로젝트의 경우 전국 12개 마을에서 약 26억 원 규모로 각각 추진됨

<표3-26> 2013년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구성 및 추진현황

사업 구분	사업내용	사업대상지	사업예산		
			총예산	국비	지방비
행복 프로젝트	대규모 미술마을을 조성 하는 프로젝트	강원도 정선군	10억 원 이상	5억 원	5억 원 이상 (국비 대비 100% 이상)
기쁨 두배 프로젝트	09~12년 사업지 중 추가 지원 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 대되는 프로젝트	강원 영월군 충북 음성군 전남 화순군 제주 서귀포시	4억 원 이상	0.5억 원 /1곳	0.5억 원/1곳 (국비 대비 100% 이상)
예술의 정원	주제1	마을아이가 프로젝트	경기 양평군 강원 양양군	0.5억 원 /1곳	0.5억 원 /1곳 (국비 대비 100% 이상)
	주제2	예술적 외관 조성 프로젝트	전북 순창군 대구 달성군 부산 수영구 포항 북구	-	-
	주제3	생태미술프로젝트	-	-	-
자유 제안	장소, 테마, 사업형식 등 자유 로운 사업으로 새로운 공공미 술 모델제시	경기 남양주시	3억 원 이상	1.5억 원	1.5억 원 이상 (국비 대비 100% 이상)

⑦ 시민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 사업 '시시콜콜'13)

□ 사업개요

○ 사업정의

- 학교, 복지기관, 특수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넘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면하는 삶의 문제를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

○ 사업목적

-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맞추어 주민 일상에서 문화예술 참여자의 폭을 확대하고자 함
-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 참여대상의 확대 및 지원구조를 다변화하고자 함

□ 사업내용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며 문화예술교육 운영 주체로서의 시민조직을 발굴하고 이들의 성장을 지원함
- 사업을 지원하는 유형은 시작기와 성장기로 구분하며 지원유형에 따라 선정 심사기준 및 지원내용을 차별화하고 각각 시민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함

1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생활문화활동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2015, 68쪽.

<표3-27> 시시콜콜 사업 지원

구분	시작기	성장기
신청조건	조직구성 단계 혹은 형성초기 단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단계	조직구성 완료 후 확장 단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발전단
중점 지원내용	조직형성 및 약량강화 활동비 프로그램 개발 및 파일럿 운영비 등	조직역량 강화 및 확대 활동비 공간조성, 프로그램 확산 운영비
지원방법	5백만 원~1천만 원	5백만 원~3천만 원
지원방법	단년(당해)지원	연장지원
비고	시민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아이디어 실험, 파일럿 운영이 필요한 단계 지원	기존 활동경험, 실험 등을 바탕으로 시민문화예술 교육활동을 확장하기 위한 단계지원

- 지역청년과 청소년들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부터 마을 주민을 문화예술교육강사로 발굴하는 문화 복덕방, 사회복지사, 교사 등이 지역사회 소수자를 위해 만든 **자조모임**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문화예술교육으로 해결해보기 위한 조직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지원대상이 선정되면 조직 및 **프로그램** 운영, 공간운영 등의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지원함

<표3-28> 시시콜콜 사업 지원내용

지원항목	세부내용	비고
조직 운영	내부인력 역량 교육, 전문 인력 채용, 네트워크 활동 등	-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기반 콘텐츠 개발과 실험(파일럿) 운영 등	-
공간 운영	공간 기능 개선(리모델링, 기기구입 등)	성장기만 신청가능. 전체예산의 50% 까지 책정 가능
기타	홍보, 마케팅, 자원조사 및 아카이빙, 축제, 세미나 등 신청단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자율 제안	-
프로그램 뱅크	사업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용도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중 일정 비율을 예비비로 책정 가능	신청예산 중 최대 30% 까지 책정 가능

□ 사업 추진현황

- 2011년부터 시민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을 3년 간 진행하였으며 2014년부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의 일상적인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시콜콜'이라는 사업 명을 내걸고 본격적으로 시작함
- 2014년 본격사업은 27개 사업이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으며 현재 2015년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됨

<표3-29> 2014년도 시시콜콜 사업 선정 단체

연번	지역	단체명	사업명
1	서울	하모니	마을을 짓는 음악놀이터
2	서울	얼티즌허브 협동조합	청년문화대학 'NOSE'
3	충남	도적골교육농장	'열려라~~~참깨!'
4	인천	신포살롱	쉼터를 만드는 청년들
5	경남	마재고개13	하나 더 한마디 더 한걸음 더 '더더더 프로그램'
6	강원	세순가락	제2회 세순가락 프로젝트
7	광주	지역교육네트워크 화월주	청소년이 꿈꾸는 동안(童顏)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8	서울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봉제문화학교와 생산제작기지
9	인천	마을n사랑	우리동네 문화 복덕방
10	충남	송악번디불이지역아동센터	송악마을 골목예술제
11	전북	미술공감 채움	우리 삶의 어시스턴트
12	서울	중랑마중물	시시한 출판사
13	서울	생활연극 네트워크	'보는 연극에서 하는 연극으로'
14	서울	청소년전문극단 진동	재미난 커뮤니티 마을극장
15	서울	오늘 공작소	마을 활력 발전소
16	대구	나래피오	엄마와 어린이가 함께하는 재활용축제 '모아'
17	서울	마을N도서관	마을연문화예술학교
18	울산	울산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	엄마들의 시시콜콜 달빛방
19	부산	희망세상	문화예술로 '모이고 떠들고 꿈꾸다'
20	대구	풀인뮤지컬	퇴근 후 옥상 프로젝트
21	강원	동네방네 협동조합	청춘 반상회 '가능성의 씨앗'
22	광주	꿈꾸는 엄마들 협동조합	'일곡마을배움청'
23	경기	서월모꼬지	세월 마을 문화예술장터 '딜장'
24	서울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마성의 다정촌 프로젝트
25	제주	서귀포귀농귀촌협동조합	서귀포귀농귀촌마을방송국 제주살래
26	경기	부천시노동복지회관	'오정희망문화마을'
27	서울	전환학교	발생론적 구성주의적 전환학교

2 | 타 부처

- 지역기반 문화예술 커뮤니티 사례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民間에서부터 시작되었음¹⁴⁾
-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마을 만들기 정책은 1970년대부터 은평구(구파발), 문화촌(서대문구 홍은동), 예술

14) 서울문화재단, "예술마을만들기사업 전략 연구", 2015. 40~42쪽 참조.

촌(사)당동 예술인 마을) 등에서 살펴볼 수 있음

- 1990년대 들어서 본격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민간 영역에서 등장하였고, 강북구 미아3동 북촌한옥마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시도됨
-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발전한 계기는 2001년 문화관광부가 지역문화의 해를 선정하며 ‘문화 환경’을 강조하고, ‘문화환경가꾸기’사업을 추진하면서 부터임
- 2005년 이후 복권기금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투입되고, 지역문화 및 공공공간에 문화가 강조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예술과 디자인, 지역문화만들기의 관점에서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본격화 됨
 - 예술분야(공공예술프로젝트-Art in City), 디자인(공공디자인 시범거리,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대만민국공간문화대상), 지역문화화만들기(재래시장의 전통문화시장화 ‘문전성시’프로젝트) 등이 추진됨
 - 문화관광부 내 공간문화과, 지역문화과, 문화예술교육과 등이 신설되었고, 문화정책 비중이 점차 공공성과 지역성, 교육 등을 중심으로 옮겨가기 시작함
- 2000년 후반 들어서면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가치와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문화도시 및 마을 관련 사업이 추진됨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관련 대표적 사업은 문화도시(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와 문화마을(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 등이 있음
-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을 문화적 성격에 따라 특화 발전시켜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의 문화적 이미지 강화와 함께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려는 취지의 사업임
 - 5개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11.9조원(2013년 기준)의 사업 예산이 투여되었음
 - 중앙주도형 :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 지방중심-중앙지원형 : 부산 영상문화도시, 경주 역사문화도시, 전주 전통문화도시,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은 마을 문화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지속가능한 마을로 가꾸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 2004~2009년까지 총 13개 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고, 239억의 예산이 투여되었음
- 또한, 지역 생활권 공동체를 중심으로 추진된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사업 등도 있음
 - 2009년부터 지역주민들의 생활문화 향유기회를 증대시켜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06개 지역에서 사업이 진행되었음(2013까지)
-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문화마을)조성 사업은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 지역 자체를 브랜드화 하여 지역문화 활성화 및 지역문화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음

- 문화적 자산이 풍부하고 중장기 문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창조도시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형’과 주민협의체를 통한 문화적 사회활동이 활발하거나 잠재적 문화역량이 높은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형’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음
- 2015년은 총 예산은 28억 원이며 도시형(7개)과 마을형(13개) 등 20개 지자체를 선정하였음

<표3-30>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사업(2015년)

(단위: 천원)

연번	지자체명		지원규모(개)		국비지원액	비 고
	광역	기초	문화도시	문화마을		
1	대구	본청	1	-	300,000	
2		중구	-	1	80,000	
3	부산	수영구	-	1	80,000	
4	경기	성남시	-	1	80,000	
5		양평군	-	1	80,000	
6	충남	공주시*	-	1	40,000	계속
7		부여군*	-	1	120,000	계속
8		천안시	1	-	300,000	
9		당진시	-	1	80,000	
10		홍성군	-	1	80,000	
11		예산군	-	1	80,000	
12	전북	군산시	1	-	60,000	
13		남원시*	1	-	300,000	계속
14	전남	여수시	1	1	380,000	
15	경북	구미시	1	-	200,000	
16	경남	양산시	-	1	80,000	
17	제주	서귀포	1	-	300,000	
18		제주시	-	1	80,000	
19	제종	제종	-	1	80,000	
합 계			7	13	2,800,000	

*자료원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참조.

□ 현재 8개 부처 2개청에서 18개의 지역문화공동체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사업성격에서 지역공동체기반(14개)>단순지역개발(4개)>지역 및 단순지역개발 혼합(1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부처별 사업은 농식품부(5개)>문체부·문화재청(4개)>행자부(3개)>국토부·환경부·해수부·고용부·기재부·산림청(각 1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문체부(문화재청) 및 농식품부는 지역공동체 기반 사업이 많았고, 산림청 및 환경부는 지역공동체 및

단순지역개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3-31> 부처별 지역문화공동체 활성화 사업 유형

(단위 : 개)

구분	사업수	유형		
		지역공동체기반	단순지역개발	지역공동체+단순지역개발
행자부	3	2	1	-
국토부	1	1	-	-
농식품부	5	4	1	-
환경부	1	-	1	-
해수부	1	1	-	-
고용부	1	1	-	-
기재부	1	1	-	-
문체부&문화재청	4	4	-	-
산림청	1	-	-	1
합계	18	14	3	1

※자료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4), 「선진형 지역공동체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29쪽 내용 재구성.

○ 각 부처(청)별 지역문화공동체 관련 정책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행자부는 마을기업 육성, 정보화마을 조성, 평화생태마을 조성 등 3개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역공동체 기반 관련 사업(2개)이 단순지역개발 사업(1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농식품부는 색깔 있는 마을, 전원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어촌마을리모델링, 농촌공동체활성화 사업, 공동체회사 육성사업 등 5개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환경부는 농·산 어촌을 대상으로 자연생태 우수마을 및 자연생태복원 우수마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순지역개발의 특성을 갖고 있음
- 고용부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지역공동체 기반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기재부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협동조합의 모델 발굴 및 성장 지원을 위하여 민간 조직과 연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문체부는 지역공동체 기반 문화마을 조성사업, 관광두레 시범사업, 문전성시 프로젝트 등 3개의 정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표3-32> 중앙부처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현황 및 주요내용¹⁵⁾

부처명	사업명	주요내용	대상	근거법	사업예산	성격
행자부	마을기업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육성	전국	-	190억 원 (국비 95억 원, 지방비 95억 원)	공동체
	정보화마을	정보화를 통한 소득증대 및 정보격차 해소	농산 어촌	전자정부법	'09년 이후 지자체예산 마을별약정원 (도비+시·군비)	공동체
	평화 생태 마을	접경지역의 생태·녹색 관광 등 다양한 소득원 발굴	접경 지역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5개소 *연평균 6.25억	지역개발
국교부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	도시활력증진 지역의 기초상활수준 보장 및 발전	도시	도시재생특별법 국가균형 발전특별법	도시재생 200억 원, 도활사업 1,000억 원	공동체 (도활: 행정주도)
농식 품부	색깔 있는 마을	유·무형의 마을자원을 활용한 농어촌 활력제고	농산 어촌	-	자체예산 없음	공동체
	전원마을	농촌지역 인구유입 유도를 위한 주거기반 확충	농산 어촌	농어촌 정비법	규모차등 36억 원 내 (국비 70%, 지방비 30%)	공동체 (일부 행정주도)
	녹색농촌 체험마을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 기반 구축	농산 어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법	103개소 *2009년 13년	공동체
	농어촌 마을 리모델링	노후·불량한 주택개량, 취약계층 복지시설 설치	농산 어촌	농어촌 삶 의 질 향상법	9,449백만 원 ('14년 현재)	지역개발
	농촌 공동체 회사 육성	마을 주민 또는 단체가 참여하여 마을의 환경 개선	농산 어촌	농어촌 삶 의 질 향상법	600백만 원 ('13년)	공동체
환경부	자연생태 우수마을	자연환경 및 경관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 지원	농산 어촌	자연환경 보전법	43개소* 30백만 원 (14년)	지역개발
해수부	어촌특화 발전역동화	마을화단 가꾸기, 마을자원 발굴, 자원지도 만들기	어촌	어촌특화발 전지원특별법	300백만 원 (10개 마을 국고 100%)	공동체
고용부	사회적기업	사회적 사업가 중심의 취약계층 고용	전국	사회적기업 육성법	-	공동체
기재부	협동조합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등 경제적 활동	전국	협동조합 기본법	3억 원('14년)	공동체
문화부	문화마을 조성사업	주민 참여형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사업	전국	지역문화 진흥법	2개마을*2억 원('14년)	공동체
	관광두레 시범사업	지역주민 주도형 지역 관광 사업 창출 및 경영 활성화	전국	-	400백만 원 (13년 현재)	공동체
	문화성시 프로젝트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전국	-	250백만 원 (13년)	공동체
산림청	산촌 종합개발	산촌지역의 산림 및 휴양자원을 활용한 산촌마을 개발	산촌	임원 및 산 촌진흥촉진법	-	지역개발 (일부 공동체)
문화 재청	문화재 행복 마을가꾸기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한 지역발전 및 문화향유 제고	전국	문화재 보호법	-	공동체

15)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4), 「선진형 지역공동체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29쪽 인용.

3 거버넌스 구축

가. 경기도 따복공동체

1) 공동체 환경

- 행자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전국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 수는 5,885개, 광역 평균 사업 수는 346.2개로 나타남
- 16개 광역 시·도 중 경기도(14.7%) 및 전라북도(12.7%) 공동체 사업 비중이 높았고, 광역 시·도 평균(346.2) 보다 높은 곳은 경기(863개)>전북(750개)>경북(539개)>경남(534개)>서울(528개)>강원(421개)>부산(363개) 등이었음

<표3-33> 마을공동체 사업의 현황¹⁶⁾

(단위 : 개, %)

구분	공동체 사업 수	비중
서울	528	9.0
부산	353	6.0
대구	198	3.4
인천	184	3.1
광주	190	3.2
대전	285	4.8
울산	104	1.8
세종	14	0.2
경기	863	14.7
강원	421	7.2
충북	204	3.5
충남	256	4.4
전북	750	12.7
전남	339	5.8
경북	539	9.2
경남	534	9.1
제주	123	2.1
합계	5,885	100.0
평균	346.2	

- 경기도 32개 시·군의 59.4%가 마을 만들기 지원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음
- 경기도 마을 만들기에 대한 지자체 지원은 최근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경기도 32개 시·군의 59.4%

16) 행정자치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길라잡이」, 2015, 8쪽.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조사됨

- 수원시(마을르네상스센터) 및 안산시(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등은 마을 만들기 지원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설립 및 운영되고 있음
- 수원시는 마을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역량 향상을 위한 마을학교, 도시대학 등의 교육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음
- 안산시는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주축이 되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리더교육, 마을 코디네이터 교육, 마을포럼 등을 통해 주민 참여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표3-34> 경기도 마을 만들기 관련 조례 제정 현황

(단위: 건, %))

구분	합계	도	시	군
시·군 현황	32	1	29	3
조례건수	19 (59.4%)	1 (100.0%)	17 (58.6%)	1 (33.3%)

※ 자료원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참조

- 경기도 관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는 19건이며, 2010년 이후 제정 건수가 급증하였음

- 총 조례건수(19건)에서 2000년 이후 제정된 조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89.5%(17건)로 조사됨

<표3-35> 경기도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 현황(201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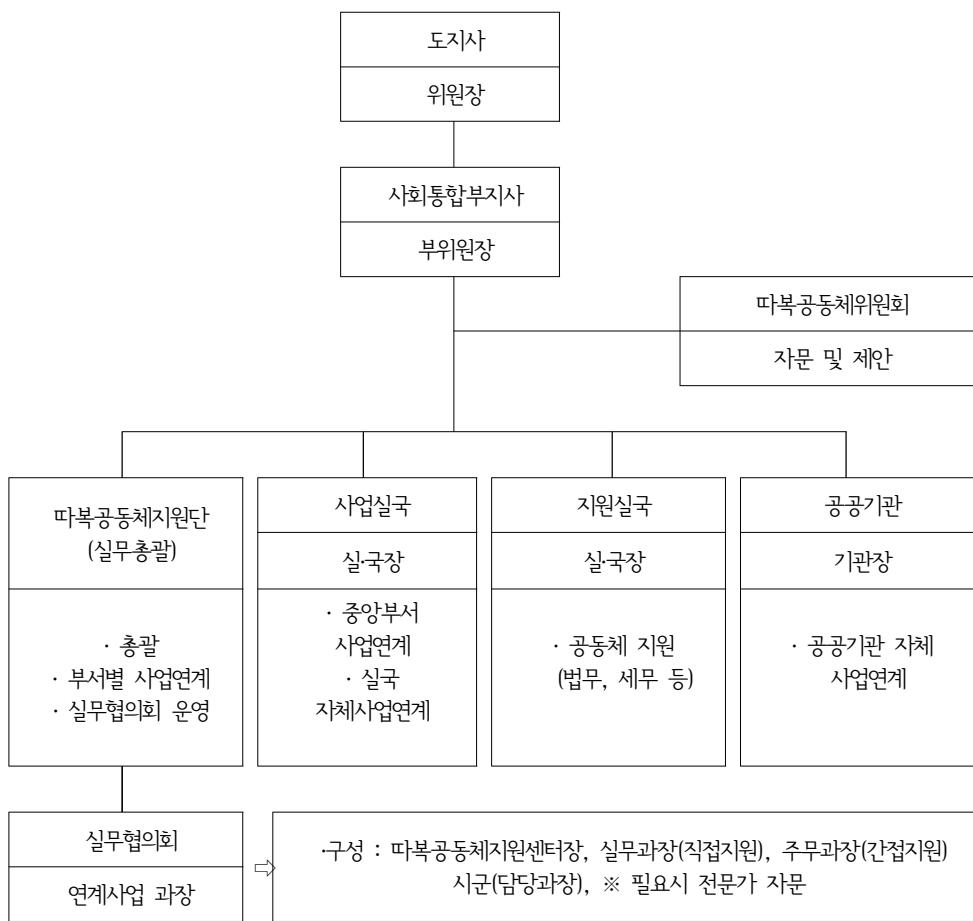
(단위 : 개)

지역	조례명	제정년도	소계
안산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조례	2007	1
양주	양주시 행복마을만들기조례	2008	1
수원	수원시 좋은마을만들기조례	2010	2
시흥	시흥시 희망마을만들기조례		
하남	하남시 살기 좋은마을만들기지원조례	2011	1
화성	화성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조례		
경기도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2012	3
오산	오산시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지원조례		
부천	부천시 행복한마을만들기지원등에관한조례		
의왕	의왕시 살기 좋은마을만들기지원조례		
김포	김포시 살기 좋은마을만들기조례	2013	4
안양	안양시마을 공동체만들기 지원 조례		
광명	광명시 마을 공동체만들기 지원 조례		
남양주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	2014	2
포천	포천시마을만들기지원조례		
가평	가평군 희망과 행복이 있는마을만들기지원조례		
성남	마을 공동체만들기 조례		
구리	구리시 살기 좋은 마을만들고 가꾸기 지원 조례		
용인	용인시 마을 공동체만들기 지원 조례		
합계			19

※ 자료원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참조.

2) 추진체계

- 광역차원에서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2012)를 제정, 2015년 따복공동체지원센터를 설립함(마을과사회적경제 수탁)
- 민선6기에서 사회적 경제 및 마을 만들기 분야에 대한 융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목표로 중간지원조직인 ‘따복공동체지원센터’를 설립함
- 사회적 경제(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와 마을 만들기 사업의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함



[그림3-9] 따복공동체 행정부문 거버넌스 구축(안)

3) 주요사업

- 따복공동체에서 제시하는 마을의 유형은 6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 문화마을, 관광마을, 마을학교, 유류공간재생, 조합, 사회적 기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표3-36> 따복공동체 모델 유형17)

유형	마을명	성과	시사점
문화 마을	수원 조원동 대추동이 문화마을	마돈나돈까스 운영 수익으로 마을환경 개선, 복지, 주민교육 등 활발한 활동	협동조합인 마돈나돈까스를 운영 하여 사회적 경제를 통한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확보
관광 마을	남양주시 능내1리 연꽃마을	주민주도로 하천 및 유류부지가 연꽃 테마 단지로 변화(연매출 4억 원) 전국마을만들기콘테스트, 도시부문 수상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활동과 행정기관의 지원으로 규제 극복, 소득 창출 기반 마련
마을 학교	시흥 하중동 참여이슬 평생학습 마을학교	주민들의 이해·소통 마련 전국 최초의 평생학습 마을이자 국내 외 벤치마킹 대상으로 자리매김	삶의 질에 대한 고민을 하는 마을리더와 열정과 의지를 가진 주민의 만남이 성공적인 공동체 활동
유류 공간 재생	시흥 정왕동 참새방앗간	방치 공간이 400여명 주민이 만나서 대화하고 공부하며 활동하는 공간으로 변화	초기에는 비판적이던 세대도 점차 모여들어 전체 아파트 활동 확산 재능기부, 취미교실 생산품 수익으로 수익금 창출
조합	화성 풀 향기 영농조합	연 매출 1억 2천만 원 전국 마을기업 박람회 매출액 1위 달성 마을 노인의 일자리 창출	원주민과의 소통과 나눔을 통한 마을 공동체 농산물 직거래 판매로 일자리 창출 민농민 소득 증가
사회적 기업	화성시 사회적 기업 (주) 컴원	취약계층에 PC 기증 '14년도 매출 20억 원 직업 28명 중 18명이 취약계층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신감과 희망 제공 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과 사회나눔 활동으로 선순환 경제 가능성 제시

○ 따복공동체 지원센터 사업의 특징은 융합적 사업 추진과 민관 거버넌스 구축에 있음

- 따복공동체 사업은 사회적 경제 전반과 마을 만들기 등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 분야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표방하므로, 정책운영의 핵심은 연대와 협력에 기초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에 있음
 - 공동체 지원에 요구되는 모든 자원을 따복공동체 사업으로 집적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 분야와 연결 가능한 네트워크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따복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은 네트워크 이론 상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¹⁸⁾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경기도 전반과 지역사회에 산재한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결시키는 통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17) 따복공동체 공식 카페(<http://cafe.daum.net/ddabok/bQ3Z/2>) 참조.

18)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이란 서로 연결되지 않는 행위자(집단)들 간에 존재하는 구조적 빈틈을 의미한다. A, B, C 3자가 있을 때, A-B, A-C가 각각 관계를 맺고 있고, B와 C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A, B, C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구조에서 공백이 생기게 된다. 이때, B, C와 유일하게 접촉하고 있는 A가 구조적 공백 위치가 된다 (정명호 · 오홍석, 2005).

<표-37> 경기도 기준 정책과 따복공동체 사업의 비교 현황

구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만들기	따복공동체
근거 법령	중앙	사회적 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	-
	광역	경기도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내용		육성지원	설립근거 마련	지원 사업 선정	통합지원체계마련
중간 지원 조직	중앙	사회적기업진흥원		-	-
	광역	경기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기초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정책초점		대상사업 중심			통합지원체계
추진주체		부서별 개별사업			행정협의회를 통한 융합추진
추진방식		정부주도의 하향식 지원			주민중심 상향식 지원
활동영역		대상사업 중심의 제한적 지원			영역 제한 탈피
이해관계자		사업영역에 국한된 제한적 참여			다양한 주체의 융합

□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역량강화

○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사업지원

- 근거 :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기간 : 2015. 3월~12월

<표3-38> 2015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선정결과 현황

사업명	예 산 액 (백만 원)			접수현황 (건수)	선정결과 (건수)	비고
	계	도	시·군			
계	900	684	216	315	178	
공간조성 사업	360	252	108	102	31	18개 시·군
공간활동 사업	360	252	108	97	84	26개 시·군
새싹지원 사업	180	180		116	63	25개 시·군

<표3-39> 2015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시군별 현황

시군별	총계		공강조성지원		공강활동지원		새싹활동지원	
	신청	선정	신청	선정	신청	선정	신청	선정
경기도 평균	10.1	5.7	3.3	1	3.1	2.7	3.7	2
수원시	26	13	9	3	7	6	10	4
성남시	8	7	1	1	5	5	2	1
고양시	17	10	4	1	8	6	5	3
부천시	9	7	2	0	5	5	2	2

<표3-40> 부천시 공모사업 선정모임 현황

연번	사업종류	모임명	제인사업명
1	공간활동	도당동 수요일가든파티 운영위원회	도당동 수요일가든파티
2	공간활동	상2동 주민자치위원회	상2동『주민대학』운영
3	공간활동	상2동 하안마을 부녀회	하안마을『열린 창조대학』운영
4	공간활동	백송마을 상동자이 부녀회	꿈과 행복이 넘치는 자이교실
5	공간활동	오정희망마을센터	오정희망마을센터 활성화를 위한 브랜드 마케팅
6	새싹활동	약대꼽이마을방송국	마을주민과 함께 어울리는 마을방송
7	새싹활동	덕유꽃사랑	‘마을의 소리’ (부제: 덕유마을 주민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다.)

□ 따복공동체 현장컨설팅 사업

○ 추진방향

- 단계별 마을자원 발굴, 발전계획수립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전조사(컨설팅희망분야, 마을자원 등) 결과에 따라 대상구분(심화일반)

○ 지원 대상 : 현장컨설팅을 희망하는 공동체

- 공동체 형성 초기단계로 마을자원발굴 등 공동체 활성화 의지가 있는 마을
- 기존 사업의 보완 · 발전계획 수립중이거나 애로사항 발생 등 문제해결이 필요한 공동체

○ 컨설팅지원팀 구성 : 전문가* + 행정지원**

- 공동체 컨설팅 분야에 따라 수시 구성 ** 따복공동체지원단 팀별 담당시군 지정

○ 주요내용

- 공동체의 이해, 지원 및 테마 발굴, 비전 설정
- 우수사례 벤치마킹(사례연구), 기능 · 유형별 주민조직

-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 활동의 효율적 접목방안 제안
- 운영방식 :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활용한 주민참여가 가능한 토론식 운영

□ 따복사랑방 조성 공모사업

- 지원 대상
 - 소통·휴식 공간, 문화·복지시설 및 공동작업장 등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사회적 취약 계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재개발해제 지역 등 우선지원
- 사업비 : 600백만 원(도비 100% / 자치단체자본보조)
- 사업량 : 20개 내외(1개 사업별 3천만 원 이내)
- 사업방식 : 주민공모

□ 경기도 시군지자체 따복공동체 지원 사업

- 사업방식
 - (역량강화) 시군이 계획 수립 후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시군과 지원센터가 함께 주민활동 지원
 - (인큐베이터) 전문가가 4~10개 공동체 또는 사업단위로 지속적으로 순회하면서, 대면지도, 전화상담, 코칭 등을 통해 공동체 활동 역량강화

<표3-41> 2015 시군지원 공모사업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건)

사업명	사업비			선정 결과	선정 시·군
	계	도시	시·군비		
계	360,000	292,500	67,500	11	
역량강화	225,000	225,000	-	5	화성, 김포, 부천, 시흥, 안성
인큐베이터	135,000	67,500	67,500	6	고양, 연천, 양평, 과천, 안산, 가평

- 2015년 따복공동체 예산은 5,869,469천원으로 경기도 전체 세출예산 대비 0.0396% 수치이며, 문화마을 관계 예산 항목으로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과 따복공동체 지원단 예산을 합산할 경우, 경기도 전체 예산에 1.7% 비중임

<표3-42> 2015년 경기도 문화마을 관계예산 규모19)

(단위: 천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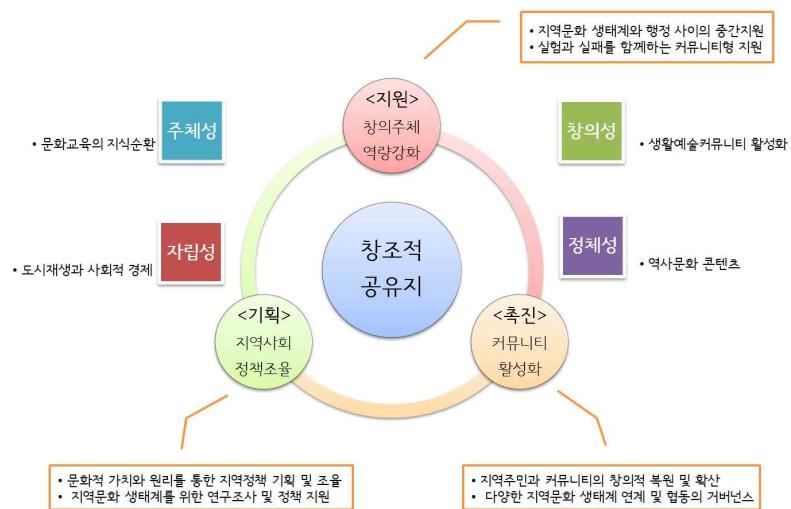
구분	경기도 전체 세출예산	문화마을 관계 예산	
		따복공동체 지원단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14,811,132,410	5,869,469	249,731,472
비중	-	0.0396	1.686
전체 예산(전체비중)		255,600,941(1.7)	

*도표주)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종무과, 체육과, 문화유산과, 콘텐츠산업과, 관광과 예산 포함

나.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생태계만들기, 공유성복원탁회의

□ ‘공유성복원탁회의’의 제안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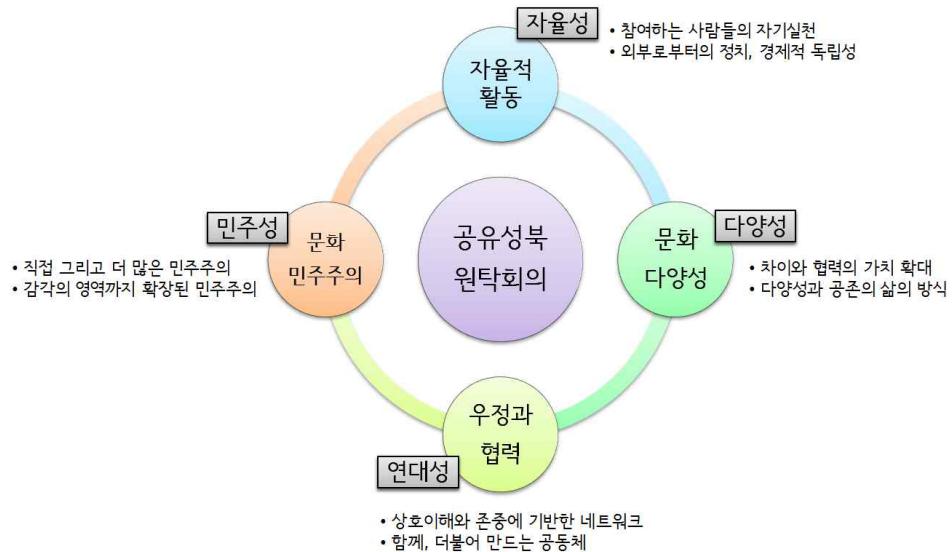
- 지역문화생태계 형성으로서 성북 지역문화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유지” 조성
- 창의적인 거버넌스 실험으로서 지역문화 주체들 사이의 능동적인 거버넌스에 기반을 둔 “커뮤니티 예술” 활성화
 - 지역문화를 둘러싼 문화적 가치와 권리의 확대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
 - 다양하고 창의적인 “민+민”, “민+관” 거버넌스 시스템(성북문화공간운영위원회, 성북마을축제위원회, 성북문화콘텐츠공유 협동조합, 성북문화예술창고 등)을 실험하고 성과를 공유
- 중장기적이고 생태계의 관점에서 협력 및 지원
 -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 성북구 마을 및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성북구내 다양한 중간지원조직 등을 비롯하여 지역 내 공공영역과 자율 활동 사이의 연계성 및 관계 확장



[그림3-10] 창조적 공유지로서의 혁신 거버넌스 : 기능과 역할 및 구성요소

19) 자료원: 경기도홈페이지>조세/법무/행정>행정>세입세출예산서>2015세입세출예산서
(URL: <http://www.gg.go.kr/2015-세입세출-예산서>, 검색일자: 2015년 11월 23일)

□ 공유성북원탁회의 운영 원리



[그림3-11] 공유성북원탁회의의 운영 원리

□ 공유성북원탁회의 운영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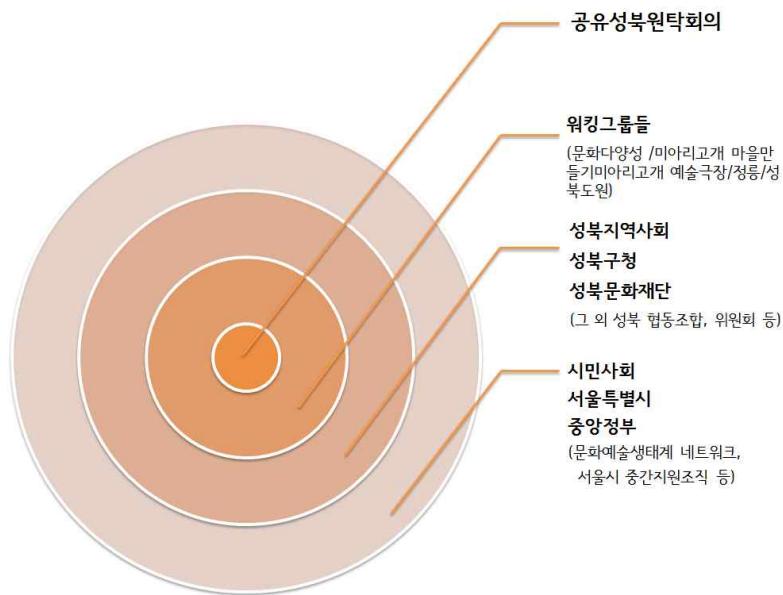
- 회의의 활성화를 위해 전체모임, 운영위원회 등을 운영
 - 공유성북원탁회의의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결정은 전체모임에서 합의
 - 운영위원회는 공유성북원탁회의의 일상적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 회의의 활성화를 위해 촉진자로 운영위원장, 운영촉진위원 등을 선정할 수 있음
 - 운영위원장은 전체모임에서 선정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함

<표3-43> 공유성북원탁회의 구성

구성주체	성격	참여 인원	참여(선발) 조건
전체모임	대표성이 부여된 최종 의사결정	약 300명 ('15년 9월)	성북 활동에 관심이 있는 단체· 개인 모두 참여가능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활동을 계획·추진하며 일정적인 운영	약 20명	전체회의에서 스스로 운영위원 활동을 신청한 사람
촉진 자들	공동운영 위원장	운영 전반 총괄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명: 신뢰에 기반을 두어 선발 • 1명: 우연성에 기반을 두어 선 발
	운영 촉진위원	운영위원회 보다 조금 더 활성화를 추진 약 5명	운영위원 중에서 구성

□ 공유성복원탁회의 구조

- 실질적인 활동들이 진행되면서 활동 의제별로 5개의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운영
- 5개의 워킹그룹은 각각 원하는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구성하고, 모인 사람들이 해당 워킹그룹의 활동 방향 및 운영 방식을 토론하고 결정하여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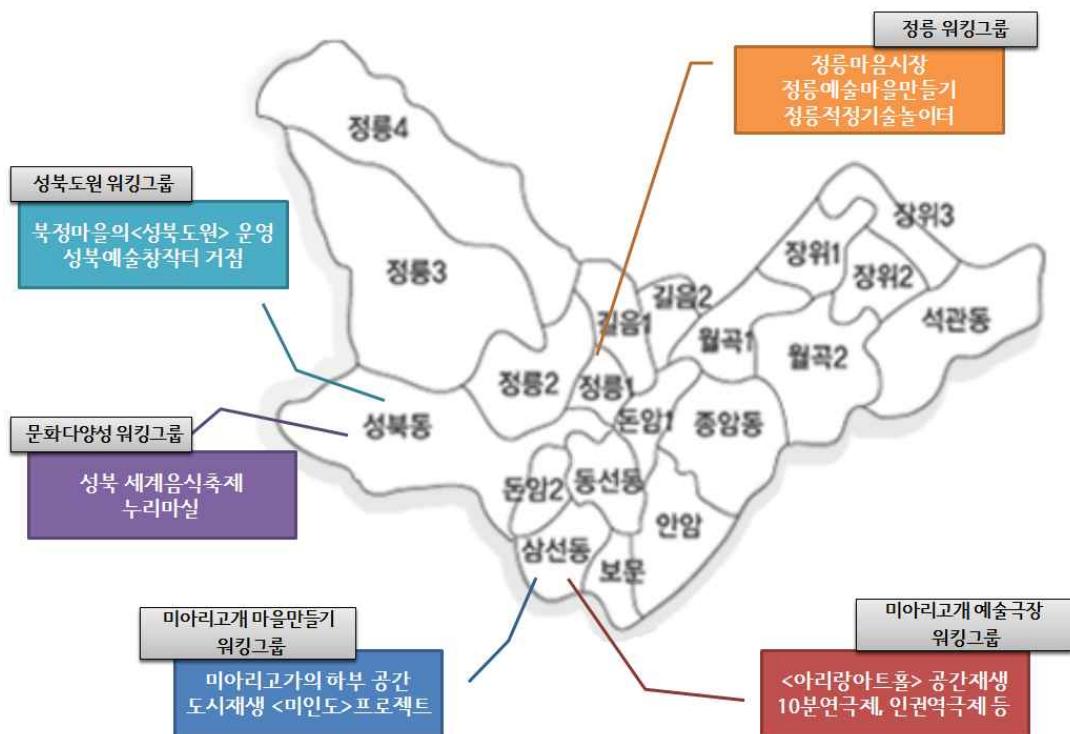


[그림3-12] 공유성복원탁회의의 거버넌스 구조

□ 5개 워킹그룹 활동 현황

<표3-44> 공유성복원탁회의 워킹그룹 활동현황

워킹그룹	성격	사업명
정릉	초기에는 서울시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인 <정릉마음 시장>을 공유성복원탁회의 차원의 거버넌스 모델로 사업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시작되었음	정릉마음시장 정릉예술마을만들기 정릉적정기술놀이터
미아리고개 마을 만들기	미아리고가의 하부 공간을 도시 재생하는 <미인도> 프로젝트 사업 진행	미인도
미아리고개예술극장	아리랑아트홀 공간을 문화재생하고 그 이후 다양한 공연 작품 진행	아리랑아트홀 공연재생, 변방예술제, 10분 연극제, 인문연극제
문화다양성	성북문화재단과 성북구청과 연계하여 활동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성북도원	무허가 식당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생 작가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전시 진행	성북예술창작터



[그림3-13] 공유성북원탁회의 워킹그룹 활동 지형

제2절

문화마을 관련 최소기준 설정 현황

- 지역문화 발전 방향과 변화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측정도구로서 지수 및 지표 등을 개발하고 있음
 - 문화지표 관련 개념으로는 문화통계와 문화지수 등이 있으며, 각 개념은 상호보완적 특징이 있음
 - 지수는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활용되며, 지표는 특정분야나 부문 또는 측면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는데 활용되고 있음
- 현재 문화마을 최소기준 설정을 위한 지표 및 지수, 통계는 생산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일부 도시 차원의 지표 및 지수, 통계 등이 생산되고 있으나, 마을단위 측정 도구는 부재한 상황임
 - 도시 차원의 진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표 및 지수, 통계 등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문화관련 지표 및 평가 관련 연구는 지표 자체 설정, 지표체계를 활용하여 지자체별 비교분석 위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지표 자체 설정을 목적으로 한 연구는 ‘문화통계 및 지표체계 연구’(1986), ‘문화지표 체계 개선 연구’(1995), ‘등의 연구가 대표적 사례임
 - ‘문화통계 및 지표체계 연구’(1986)는 1983년 유네스코 권고시안²⁰⁾을 토대로, 6개 분야, 13개 영역, 350개 지표로 구성하여 제시함
 - ‘문화지표 체계 개선 연구’(1995)는 1986년 연구 틀을 유지하면서 민간차원의 문화예술 활동 포괄하고자, 기존 3가지 분류(창조-유통-소비)를 6단계(창조자, 생산자, 창조물, 생산물, 유통자, 유통물, 행사, 수용자, 수용실태)로 세분화함
 -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비교평가 연구는 ‘서울시 문화지표 설정 및 측정에 관한 연구’(1995), ‘충청북도 문화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2009), ‘지역문화지표’ 등의 연구가 대표적 사례임
 - ‘서울시 문화지표 설정 및 측정에 관한 연구’는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문화 활동, 전통문화자원, 문화행정 등 5가지 관심영역을 설정한 후 91개의 개별지표 선정
 - ‘충청북도 문화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는 지역 간 문화격차를 파악, 문화지표를 3분류 체계로 나누고 일반 환경과 문화 인프라, 문화의 향수 및 수요, 지역문화정책 평가 부문 등으로 나누어 지표 구성
- 최근 ‘지역공동체행복지표’ 등 주민들의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 활발해지고 있음

20) 유네스코 권고시안(1983년)은 문화매체(문화적 유산, 인쇄물 및 문예, 음악, 무대예술, 조형예술, 영화 및 사진, 방송, 사회문화적 활동, 스호츠와 게임, 자연과 환경 등 10개 영역), 문화 활동(창작과 생산, 전달과 보급, 수용과 소비, 보호와 기록, 참여 등 5단계) 등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역문화지표개발과 시범적용 연구, 23쪽 참조)

- ‘지역공동체행복지표’는 3개 영역, 88개 세부지표를 구성하여 읍·면·동 마을자원 현황, 지역공동체 역량, 주민 삶의 질 현황을 담은 지표를 개발하였음

<표3-45> 문화도시(마을)진단지표 분류 항목

작성기관 (연구명)	문화지표 관련 공통요소		
	문화정책	문화시설	문화 프로그램
문화통계 및 지표체계 연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6)	-	문화유산	대중매체, 여가활동, 문학예술, 사회적문화활동
문화지표체계개선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5)	-	문화유산	대중매체, 여가활동, 국제문화교류, 문학/예술, 사회적문화활동
서울시 문화지표 설정 및 측정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5)	문화행정인력, 문화재정, 문화홍보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전통문화자원, 문화활동
국민문화지수체계개발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0)	-	문화유산	여가활동, 대중문화, 문학/예술, 사회적문화활동
대구경북개발원 (문화도시 대구, 현주소와 발전방향, 2003)	문화예술예산, 행사참여도, 문화지수, 문화인식도	문화예술인프라, 문화기반시설현황, 역사문화자원	향토문화축제, 예술단운영현황
문화도시 부산을 위한 전략과 정착방향 연구(부산발전연구원, 2009)	인적자원, 문화활동, 문화지수	전문문화시설, 생활문화시설, 여가시설, 전통문화자원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건설교통부, 2006)	지역문화정책 유무 및 정책 조례 수립 건수, 문화예술 관련 공무원수, 문화역사자원의 보전을 위한 지구지정 및 단위시설 지정	지역문화시설 확충정도, 지역문화시설 이용실적, 옥외공간문화 조성 건수 및 면적	지역문화행사 실적, 지역문화교실 교육실적,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
충청북도 문화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충북발전연구원, 2009)	지역문화정책평가	문화인프라, 문화향수 및 수요, 일반현황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대상 (건설교통부, 2007)	지역문화정책 및 관련조례 제정 건수, 문화예술관련 예산 및 공무원수, 문화역사자원 보전을 위한 지구지정 면적 및 단위시설 지정건수	지역문화시설 확충도, 지자체소유 문화예술단체 및 시설외 접근성 향상도	지역문화행사 건수 증가, 지역내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시설의 이용향상도,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개선도
서울 커뮤니티 재생지표 (서울연구원, 2011)	-	-	자생력(마을가꾸기) 활동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 (농촌경제연구원, 2012)	-	삶의 여유공간(문화시설, 체육시설)	-
마을문화지표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	문화시설 불만족도	-
인천발전연구원 (인천광역시 문화지표 설정 및 조사에 관한 연구, 2013)	공공지원(인력, 재정), 민간지원(문화예진흥기금지원액)	문화향수 및 수요, 문화산업, 인문사회환경시설, 문화자원	향토문화축제, 예술단운영현황
국민 삶의 질 지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	-	여가시간 및 활용, 문화활동
경기도 미래지표 (경기개발연구원, 2014)	-	도서관당 인구수	국민문화향유율
서울형 행복지표 (서울연구원, 2015)	-	-	문화여가시간, 삶의 균형
지역행복지수 (지역발전위원회, 2015)	-	천명당 도서관 수, 천명당 문화시설 수	문화여가만족도
지역문화지표 (문화체육관광부, 2015)	정책수립(종합계획), 정책실행(조례 등), 정책예산, 문화활동(단체수, 활동인력 등)	문화유산, 문화기반시설, 문화시설활용, 문화자원(축제, 일인당 장서수 증가율)	문화복지(문화향유, 문화복지-문화프로그램 건수 등)
지역공동체행복지표 (행정자치부, 2015)	공동체 역량(인력)	마을자원 영역(역사 및 관광자원 수), 삶의 질 영역(문화기반시설 수 및 이용률)	공동체역량(중간지원 조직 등 공동체 기반 현황, 프로그램 등 공동체 과정)
공통요소	문화관련 조례 및 예산	문화재수, 문화기반시설현황	지역문화행사, 문화교실
추가요소	문화활동 인력	문화시설 이용실적(인구수/시설), 문화시설 만족도	공동체 중간지원 조직

□ 문화적 환경 및 인프라 지원 정책에서 문화적 권리 보장 측면의 접근 필요

- 기존 문화정책 연구는 주로 문화 환경이나 인프라를 지원하는 정책이 주를 이루어, 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한 ‘문화마을 최소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준으로 설정하기에는 특성화되어 있지 못함
- ‘문화권 NAP 수립을 위한 기초 현황 실태조사와 정책연계 방안’(2004,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에서는 문화권 정의 및 범주화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음
 - 4개영역(문화자유권, 문화평등권, 문화 참여권, 문화 환경권)과 18개 세부 분야를 설정하고 있음

<표3-46> 문화권의 주요 범주 설정

문화권	분야별	세부영역
문화 자유권	표현의 자유	정치적 이념 표현의 자유
		성표현의 자유
		정보통신 활동의 자유
	학술사상의 자유	학술사상 주장의 자유
		학술사상 출판의 자유
		학술사상의 교육의 자유
		학술사상 단체활동의 자유
	종교 활동의 자유	종교적 표현의 자유
		종교적 문화 활동의 자유
		양심적 병역거부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언론 취재의 자유
		언론 취재원의 보호
문화 평등권	양성 문화평등	양성표현의 자유
		양성표현의 출판 및 제작의 자유
		양성문화 차별의 금지
		양성문화 평등의 사회적 실현
	성적소수자 문화 평등	성적 소수자 표현의 자유
		성적 소수자 출판 및 제작의 자유
		성적 소수자 문화 활동의 자유
		성적 소수자 문화차별의 제한
	이주 노동자 문화평등	이주 노동자 문화적 차별 금지
		이주 노동자 자녀 교육권 확대
		이주 노동자 문화적 자유
		이주 노동자 문화 다양성 확대
	탈북자 문화평등	탈북자의 문화적 차별 금지
		탈북자 자녀 교육권 확대
		탈북자 문화적 적응지원
	장애인 문화평등	장애인의 문화차별 금지
		장애인의 문화 접근권 확대
		장애인의 교육권 확대
	청소년 문화 활동	청소년 문화차별의 제한
		청소년 문화격차의 해소

문화 참여권	퍼블릭 엑세스	시민의 공공문화참여 기회 확대
		시민의 방송제작 참여 기회 확대
	문화교육권	시민의 평생교육권의 확대
		학생들의 문화교육권
		대안적 문화교육권의 확대
	문화공공서비스권	공공문화기반시설 이용 권리
		공공문화장소의 가격할인
		문화정보 서비스권
	문화행정 시민참여권	공공 문화행정 감시권의 확대
		공공 문화축제의 시민참여권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재 보호의民間 참여확대
		문화재 정책의 시민 참여확대
문화 환경권	주거 문화권	쾌적한 주거환경의 권리
		주거환경 보호의 권리
		녹지보존의 권리
		주거 균린공원 향유의 권리
	보행권	보행권
		사회적 약자의 보행권의 확대
	문화영향평가제도	난개발로 인한 문화 환경 침해 제한의 권리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의무화
	문화재 향유권	문화재 보호의 권리
		문화재 향유의 권리
		문화재 교육의 권리

※ 자료원 : 국가인권위원회, “문화권 NAP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 및 실태파악 정책연계 방안”, 2004, 65~66쪽 인용.

- “문화복지 기준설정에 관한 기초연구”(장세길, 2012)에서는 ‘필수품’을 최저의 품위기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합의된 품목으로 정의하고 있음
 - 최저 품위기준은 ‘기본적 욕구가 충분히 충족된 상태’, ‘부탈감을 느끼지 않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음
 - 보건사회연구원(2004)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에서는 최저생계비 아래 <표>와 같이 품목별 최저 생계비를 품목별로 정의한바 있음
 - 최저 교양오락비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지난 최소한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문화 복지 기준설정 측면에서 ‘상대적 문화 빈곤선’설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표3-47> 최저생계비의 생필품 항목

구분	정의
최저 식료품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양학적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실제 많이 소비되고 있는 식료품을 중심으로 구성한 식단을 유지하는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 최저 식료품비는 가족 전체 혹은 일부가 가정에서 식사하는 비용만 가정식 비용과 외부에서 식사하는 외식비로 구성됨 식료품비=가정식 비용+가장의 외식비+학생의 학교 급식비
최저 주거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저 주거기준에 맞는 시설이 갖추어진 주거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최저 주거비=(전기)임대료+관리비+이사비+복비+수리비+도배비
최저 광열수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열수도비란 국민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건환경 유지, 취사활동, 체온 유지 비용과 일상적인 활동 및 노동력 재생산과 사회문화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의 조명 및 전자제품 사용 비용 전기요금=기본요금(A)+사용량요금(B)+부기기기세(A+B)*10%+전력산업기기세(A+B)*3.7%
최저 가구집기 가사 용품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저 가구집기 가사용품비란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가구구입 및 수리비용, 가사 돌봄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서비스 비용 최저 가구집기 가사용품비는 일반가구, 가정용가구, 식기 주방용품, 가사잡화·소모품, 침구 및 직물, 가사서비스 6개의 중분류 기준 내 하위품목 가격들의 합으로 구성
최저 피복·신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저 피복·신발비란 신체보호, 적정 체온유지, 보건위생 측면의 청결유지 등의 기본적인 필요와 노동재생산에 필요한 수준 및 최소한의 체면유지를 위한 비용을 고려한 수준으로 정의 최저 피복·신발비는 외의, 스웨터·셔츠, 내의, 직물실, 기타 피복, 신발, 피복 및 신발서비스 총 7개의 중분류 기준 내 하위품목 가격들의 합으로 구성
최저 보건의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저 보건의료비란 질병 치료와 예방, 건강회복을 위한 의약품, 보건의료용품 및 서비스 이용을 말함. 그러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저 혹은 적정 보건의료비를 산출의 어려움 상존 이 때문에 보건의료용품을 욕구개념에 입각하여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이 기본적·규범적 욕구 충족을 위한 비용을 최저 보건의료비로 파악 이런 맥락에서 최저 보건의료비는 보건의료서비스, 의약품비, 보건의료용품비에 미충족욕구의 50%를 합산한 것으로 구성
최저 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위해 지출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
교양·오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저 교양·오락비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지난 최소한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용'
교통·통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저 교통·통신비는 출퇴근, 외출 등 일상적인 경제·사회활동을 수행하고, 친지와의 교류와 의사소통 등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기타 소비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주요 항목 이외에 그 사회의 성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 수준

※ 자료원 : 장세길, “문화복지 기준설정에 관한 기초 연구”, 전북발전연구원, 2012, 89쪽 인용

□ “서울시민 복지기준 설정연구”(2012)에서는 사회권의 적극적 수용, 보편주의 복지원리 수용, 최저기

준과 적정기준의 구분, 복지영역의 포괄적 설정, 시민참여의 강화 등 다섯 가지 원칙을 설정하였음

-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영역 등 5개 세부 영역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음²¹⁾
 - 최저기준 설정은 서울시민에게 ‘최저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준으로 설정하여, 주거 및 교육 등 5대 삶의 영역에서 서울시의 발전수준을 고려하여 시민이 누려야 할 최저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시민에게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적정기준은 서울시민에게 ‘품위 있는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5대 생활영역에서 적정기준은 서울시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시와 개인, 공동체, 기업 등 복지 주체의 공동책임을 전제로 설정 함

<표3-48> 서울시민 복지기준 설정(안)

구분	목표
소득보장 기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민 모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최저생계비)를 보장한다 • 적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민의 소득이 서울시 전체가구의 중위소득 50%(국제적 빈곤선기준)수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 서울시민의 소득이 서울시 표준생계비의 ()%이상이 되도록 한다
주거 기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적으로는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한뼘장을 자거나, 거주에 부적합한 곳에서 살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비중이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며, 「주택법」상의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 한다 • 적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정책을 통해 4인 표준가구 기준으로 54m² 정도의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료의 비중이 소득의 25% 수준이 되도록 함
돌봄 기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이 필요한 시민은 가구 소득 10% 이내의 1지출로 공공책임 하에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할 수 있다 • 적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민에게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는 10분 거리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돌봄 인력의 수와 자격, 처우 등 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OECD 평균 수준이 되도록 한다
건강 기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민이 경제적, 지리적 장벽과 무관하게 예방 및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돈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는 서울’을 목표로 함 • 적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민의 건강 수준을 OECD 국가 평균 또는 그 이상으로 향상시키고, 지역별 건강격차를 해소 하여 ‘모두가 건강한 서울’을 지향하도록 함
교육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교육 기본권의 보장(시민은 누구나 원하는 수준의 학교교육 기회를 보장받음) • 적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에 걸친 질 높고 균등한 교육경험 보장

※ 자료원 : 서울연구원, “서울시민 복지기준 설정 연구”, 2012. 125~538쪽 내용 요약.

21) 서울연구원, “서울시민 복지기준 설정 연구”, 2012. 83~84쪽 참조.

2015년 지역문화컨설팅

제4장

부천시 문화마을 진단

제1절. 부천시 정책 및 사업 현황

제2절. 부천시 문화마을 진단

제1절 부천시 정책 및 사업 현황

1 일반현황

□ 공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 변화하기 위한 문화정책

- 부천은 시 승격(1973년) 이후 공업도시로 성장 발전
 -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인구팽창 등은 시민 삶의 질 저하 및 베드타운으로 전락
 - 도시 외형은 성장하였으나, 약한 정체성과 정주의식 부재는 해결되지 못함
- 1980년대 후반 지가 및 임금 상승 압박으로 중·소 업체 이전하면서 공동화 현상 초래됨
 - 도시 정체성을 만들고 자족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 직면함
- 도시이미지 개선과 도시의 재구성 전략(1990년대)에 따라 ‘만화·영화·음악’을 핵심 콘텐츠화 함
 - 판타스틱 영화제,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만화정보센터(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건립, 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개최 등
- 2007년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기초 사군(160개) 삶의 질 실태 분석하기 위한 종합진단지표를 개발하여 조사하고 있음
- 생활서비스·지역 경제력·삶의 여유 공간·주민활력 등 세부 지수를 통해 지역 진단을 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표4-1> RDI 지수의 구성 지표

지수	부문	지표	데이터 설명
생활 서비스	기초 생활 여건	주택신규화	(준공 30년 초과 주택 수/총 주택 수)×100
		식수보급	(급수인원/주민등록인구)×100
		하수처리	
	교육여건	공교육	1㎢당 학교 수
		사교육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

보건·복지 여건	의료인 수 의료시설 아동복지 노인복지	인구 천 명당 의료인 수	
		인구 천 명당 병상 수	
		아동인구(5세 미만) 천 명당 보육시설 수	
		1km ² 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지역 경제력	산업기반 경제 활성화 고용기회	사업체기반	총 사업체 수
		경제 활성화	연평균 사업체 증감률
		고용기회	15세 이상 인구 대비 총 일자리 수
	소득수준 지자체 재정	소득수준 재정기반	지방소득세액/인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일반회계 세입)×100
삶의 여유 공간	녹색휴양	휴양 공간	(도시공원면적/인구)×1,000
	녹지기반	녹지 확보율	(녹지면적/토지면적)×100
	문화체육 기반	문화시설	인구 천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체육시설	인구 천 명당 마을체육시설 수
주민 활력	인구변화	인구증가율	연평균 인구 증가율
	인구구조	고령화율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
	인구활력	출생률	해당연도 중앙인구 1천명 대비 출생자 비율

- 종합지수는 높았으나(10위), 생활서비스 지수(1위)를 제외한 나머지 지수는 평균 이하로 조사됨

- 생활서비스 지수(기초생활여건, 교육여건, 보건·복지 여건 등)는 높은 인구밀도·시설의 집약성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지역 경제력 지수(산업기반, 소득수준, 재정 등)는 경기도(0.438)·상우 50개 시·군(0.426) 평균 보다 낮게 나타남(0.411)
- 삶의 여유 공간 지수(녹색휴양, 녹지기반, 문화체육 기반)는 상우 50위권 순위에 포함되지 못함
- 주민활력지수(인구변화, 인구구조, 인구활력 등)는 경기도(0.583)·상우 50개 시·군(0.578) 보다 낮게 나타남(0.513)

<표4-2> 지역 발전 지수(2014년)

구분	2014	
RDI 종합지수	상위 50개 시·군	0.413
	경기도	0.415
	부천시	0.451(10위)
생활 서비스 지수	상위 50개 시·군	0.426
	경기도	0.448
	부천시	0.596(1위)
지역 경제력 지수	상위 50개 시·군	0.433
	경기도	0.438
	부천시	0.411(29위)
삶의 여유 공간 지수	상위 50개 시·군	0.368
	경기도	0.355
	부천시	-
주민 활력 지수	상위 50개 시·군	0.578
	경기도	0.583
	부천시	0.513(39위)

- 부천시민의 10명 중 7명은 가족들과 함께 문화 활동(공연, 전시, 영화감상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한다 : 73.6%)
- 문화 활동을 하는 이들 중 72.5%는 ‘부천지역’내에서 하고 있으며, 서울(20.4%) 및 기타(4.2%) 등의 순으로 조사됨
- 문화 활동에 있어 부천 의존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서울 의존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단위 : %)



[그림4-1] 부천시 문화 활동 유무 및 방문지역 22)

- 평소 가족들과 문화 활동을 ‘한다’는 상동권역(89.0%) 및 송내권역(85.5%)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문화 활동 장소로 ‘부천지역’을 선택한 경우는, 중동권역(84.1%) 및 심곡권역(83.0%), 30대 이상에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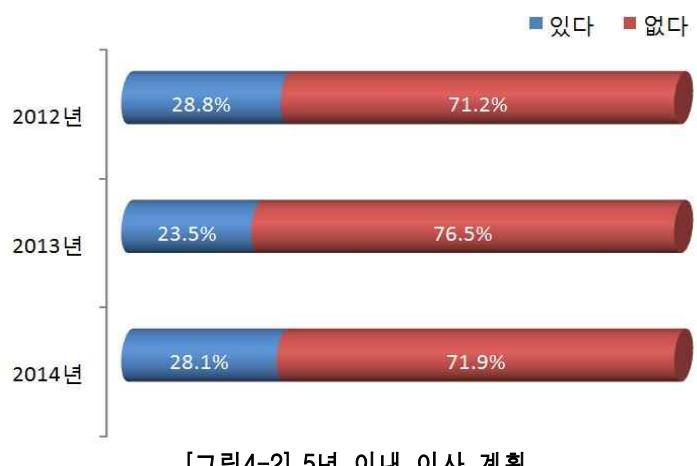
<표4-3> 부천시민 주말 문화 활동 유무 및 방문지역

(단위 : 명, %)

		사례수	한다				하지 않는다
				부천지역	서울지역	기타지역	
전체		1,000	73.6	75.3	20.4	4.2	26.4
권역	도당권역	94	72.3	75.7	18.1	6.2	27.7
	원종권역	84	66.8	56.5	38.8	4.7	33.2
	중동권역	141	73.0	84.1	14.0	1.8	27.0
	상동권역	91	89.0	81.4	15.1	3.6	11.0
	송내권역	124	85.5	78.2	16.8	5.0	14.5
	심곡권역	163	73.0	83.0	13.8	3.2	27.0
	소사권역	74	67.6	77.0	13.7	9.3	32.4
	역곡권역	129	66.7	70.7	26.2	3.2	33.3
연령	20대 이하	6	83.3	50.0	49.0	1.0	16.7
	30~39세	88	89.8	70.6	24.6	4.8	10.2
	40~49세	236	85.6	77.0	19.7	3.3	14.4
	50~59세	364	78.8	75.9	19.9	4.3	21.2
	60세 이상	306	53.3	75.4	19.4	5.2	46.7

※자료원 : 부천시 · 부천상공회의소, “2014년 부천시경제지표조사”, 2014, 129쪽 참조.

- 향후 5년 내 이사 계획이 ‘있다’는 28.1%였으며, 이사 희망 지역으로는 ‘부천 내로 이사할 것이다’는 의견이 56.2%로 응답되었음



22) 부천시 · 부천상공회의소, “2014년 부천시경제지표조사”, 2014. 129쪽 참조.

- 향후 5년 이내 이사 계획이 ‘있다’는 상동권역(42.9%), 30대 이하, 월평균 가구소득 200~300만 원 미만(35.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향후 5년 이내 이사 계획 이유로 ‘더 큰집에서 살기 위해’는 원종권역(38.1%) 및 역곡권역(38.7%), 40대(32.9%), 월평균 가구소득 100~200만원 미만(34.4%) 및 400만 원 이상(30.3%)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4-4> 향후 5년 이내 이사계획 및 이사계획 이유

(단위 : 명, %)

구분		있다	큰집	삶의질	직장	건강	집값	교육	교통	기타	무등급	없다	무등급
구	권역												
전체		28.1	27.4	24.6	17.8	15.3	14.2	12.5	8.5	0.7	1.1	71.6	0.3
구	원미	25.0	24.2	24.2	21.9	17.2	14.8	13.3	5.5	1.6	0.8	74.8	0.2
	소사	30.8	36.2	24.6	8.7	11.6	11.6	14.5	14.5	0.0	0.0	69.2	0.0
	오정	31.8	25.0	25.0	19.0	15.5	15.5	9.5	8.3	0.0	2.4	67.4	0.8
권역	도당	19.1	16.7	27.8	5.6	11.1	11.1	22.2	22.2	0.0	0.0	80.9	0.0
	원종	34.2	38.1	22.2	14.3	15.9	12.7	12.7	9.5	0.0	0.0	65.8	0.0
	중동	18.4	23.1	30.8	15.4	15.4	19.2	3.8	7.7	0.0	0.0	80.9	0.7
	상동	42.9	28.2	20.5	20.5	15.4	17.9	20.5	5.1	0.0	2.6	57.1	0.0
	송내	31.5	15.4	15.4	23.1	17.9	23.1	7.7	5.1	0.0	5.1	68.5	0.0
	심곡	28.2	26.1	37.0	15.2	13.0	10.9	6.5	8.7	4.3	0.0	71.8	0.0
	소사	25.7	15.8	31.6	31.6	15.8	15.8	10.5	15.8	0.0	0.0	73.0	1.4
	역곡	24.0	38.7	16.1	19.4	16.1	3.2	19.4	3.2	0.0	0.0	75.2	0.8
성	남성	28.4	28.6	22.5	17.7	16.5	13.9	13.4	9.5	0.9	0.9	71.5	0.1
	여성	26.9	22.0	34.0	18.0	10.0	16.0	8.0	4.0	0.0	2.0	72.0	1.1
연령	20대 이하	50.0	0.0	0.0	66.7	0.0	0.0	0.0	0.0	33.3	0.0	50.0	0.0
	30~39세	43.2	31.6	13.2	31.6	7.9	7.9	28.9	7.9	0.0	0.0	56.8	0.0
	40~49세	36.0	32.9	28.2	15.3	11.8	16.5	25.9	5.9	1.2	0.0	63.6	0.4
	50~59세	28.0	27.5	22.5	14.7	18.6	12.7	2.0	11.8	0.0	2.9	71.7	0.3
	60세 이상	17.3	17.0	32.1	15.1	20.8	18.9	0.0	7.5	0.0	0.0	82.4	0.3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6.4	0.0	60.0	20.0	0.0	20.0	0.0	0.0	0.0	0.0	92.3	1.3
	100~200만원 미만	21.0	34.6	23.1	11.5	11.5	15.4	7.7	15.4	3.8	0.0	79.0	0.0
	200~300만원 미만	35.1	22.0	28.8	13.6	18.6	15.3	13.6	5.1	0.0	1.7	64.9	0.0
	300~400만원 미만	34.3	24.7	28.8	17.8	15.1	17.8	15.1	8.2	1.4	0.0	65.3	0.5
	400만 원 이상	27.7	30.3	19.3	20.2	16.5	10.1	11.0	10.1	0.0	1.8	72.1	0.3

※자료원 : 부천시·부천상공회의소, “2014년 부천시경제지표조사”, 2014, 129쪽 참조.

2 부천시 문화마을 정책현황

가. 추진체계

- 부천시 문화마을 관련 부서는 4국(2개 기획 및 사업단) 6과 9개 팀이 관련성 있음

- 복지국(1개): 복지운영과(복지운영팀, 무한돌봄팀)
- 행정지원국(2개): 참여소통과(주민자치팀), 평생교육과(평생학습운영팀)
- 문화기획단(2개): 문화예술과(문화팀, 예술진흥팀), 문화사업과(영상문화팀)
- 균형발전사업단(1개): 원도심지원과(마을만들기팀)

<표4-5> 부천시 문화마을 관련 정책 현황²³⁾

구분	주요업무		
복지국	복지운영과	복지운영팀	지역사회복지협의체(회) 운영
			동 복지협의체 운영
		무한돌봄센터	부천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문화사업과	무한돌봄센터 운영	복지공동체
		주민자치팀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총괄
행정 지원국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운영팀	부천아트밸리사업
			평생학습협의회 운영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부천시 평생학습축제
			시민교육과정 운영
문화 기획단	문화예술과	문화팀	부천시립예술단 운영
			부천문화재단 운영 지원·관리
		예술진흥팀	시민 어울림한마당 등 축제 지원
			복사골예술제, 청소년예술제
		문화시설팀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관리
			문화시설(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등) 확충 및 건립
			공연장 관리

23) 부천시청 홈페이지 부서별 업무 재구성(검색일: 2015년 10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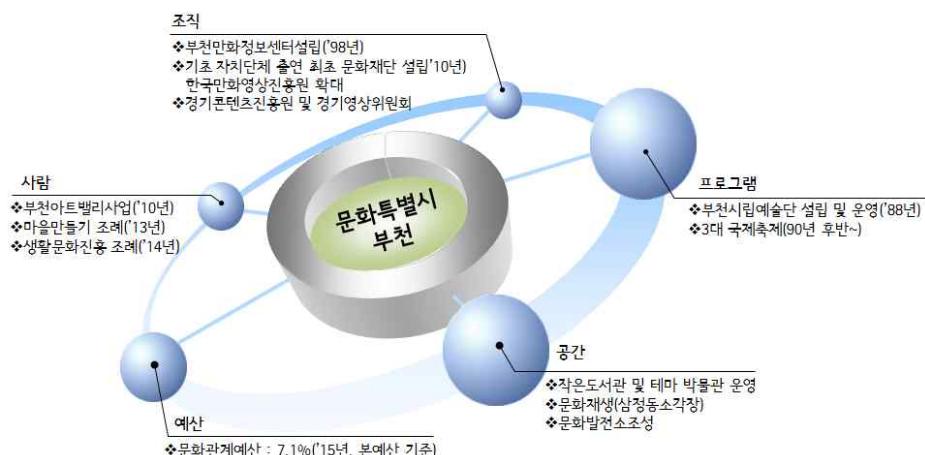
문화산업과	영상문화팀	문화·예술분야 가치법규 운영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 지원	
		부천 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지원	
		부천 국제만화축제 지원	
균형발전 사업단	원도심지원과	마을만들기팀	리딩 프로젝트 시범사업
			마을학교 운영
			계릴라 가드닝
			마을리더 양성교육
			주민제안 및 공모사업
			마을 만들기 컨설팅 및 지원 발굴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준비
			사업 관련 견학 및 사례 연구

나. 주요사업

- 만화·영화 등 3대 국제행사와 음악을 통해 문화도시로써의 정체성 구축
-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1997년)를 통한 지역이미지 메이킹
 - 판타스틱이라는 도시로 이미지 메이킹 및 활기찬 이미지 확산시킴
 - 세계 40개국(220편 상영) 교류 및 20개국과 아시아판타스틱영화제작네트워크(NAFF) 구축
- 부천 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통한 문화도시이미지 홍보
 -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수준 고양
 - 밀러시리즈(1989~2003년) 호암상 수상(2005년) 및 교향악축제(1990~1998년) 추진 등 시정 차원 지속적 투자
-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을 통한 만화도시 이미지 홍보
 - 30개국(200편 상영)교류(40만 명 참여), 애니메이션 창작인력 육성 및 시민(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차별화된 행사 개최[24]
-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통한 만화산업 활성화
 - 부천만화정보센터(1998년)를 전신, 만화문화의 발전과 만화산업 육성을 목표로 설립
 - 만화산업 기반 육성, 만화창작 역량강화, 만화문화 인프라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과 교류 활성화 사업 추진

24) 부천시 내부자료(2014 동아시아문화도시 공모신청서)참조.

- 부천국제만화축제 개최를 통해 프랑스 앙굴렘 등 세계 3대 축제로 성장(20개국과 교류)
-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연중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고 구현되는 문화도시 구현
 -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 까지 예술의 대중화 정책 구현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
 -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생활문화·예술이 자연스럽게 구현될 수 있도록 '1인 1기'사업 추진
 -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5년째 '부천아트밸리'사업 추진(126개)²⁵⁾하고 있으며,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제도(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2014년) 마련 등의 시책을 강구하고 있음
-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2013년)'를 근거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 부천시는 2014년 6월 민선6기 시정목표 및 3개 중점과제를 발표함
 - 회복력이 강한 지속가능 공동체 만들기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 마을 만들기 주민공모를 통해 2014년~2015년까지 34개 공동체 지원을 하였음



[그림4-3] 문화특별시 부천 정책 추진 현황

3 공간 및 프로그램

가. 문화기반시설

- 공·사립 및 작은 도서관(홀씨도서관 포함)²⁶⁾포함하여 총 74개 도서관이 운영 중이며, 작은 도서관(63개)이

25) 부천시 시정메모(2015.11.6)

공·사립 도서관(11개)에 비해 5.7배 더 많음

- 공·사립 도서관은 운영주체에 따라 공립도서관(8개)>사립도서관(2개)>사회복지법인(1개) 등으로 구분됨
- 작은 도서관은 사립(30개)>공립(19개)>홀씨(독서 문화공간, 14개) 등이 운영되고 있음
- 공·사립 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모두 원미구(34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공·사립 도서관은 원미구(8개)>소사구(2개)>오정구(1개) 등의 순으로 운영되고 있음
 - 작은 도서관은 원미구(26개)>오정구(20개)>소사구(17개) 등의 순으로 운영되고 있음
- 공·사립 도서관 1관 당 인구 및 소장 자료 수 등에 있어 지역편차 발생함
 - 1관 당 인구수는 원미구(55,330명)를 제외한 모든 구(오정구 : 186,548명, 소사구 : 113,200명)에서 부천시 전체 평균(77,781명) 보다 많음
 - 1관 당 소장 자료는 오정구(51,473권)만 부천시 평균(86,093권)보다 적음
 - 1관 당 이용자 수는 원미구(518,483명)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부천시 평균(497,439명)보다 적음

<표4-6> 부천시 도서관 1관 당 현황

(단위 : 명, 권)

구별	도서관수	인구수	소장 자료	도서관 1관 당			
				인구수	소장 자료	이용자수	이용 책 수
원미구	8	442,638	732,774	55,330	91,597	518,483	171,748
소사구	2	226,400	214,248	113,200	107,124	487,776	196,683
오정구	1	186,548	51,473	186,548	51,473	348,410	180,191
합계	10	855,586	947,022	77,781	86,093	497,439	177,049

※ 자료원 : 문화체육관광부, “2014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532쪽 재가공.

- 작은 도서관 평균 면적($93.0m^2$)에서 오정구($80.86m^2$)는 평균 이하, 평균 좌석 수(32.2석)는 소사구를 제외하고 평균 이하로 나타남
 - 평균 시설 수(21개)는 원미구(26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는 낮음(오정구 : 20개, 소사구 : 17개)
 - 평균 면적은 원미구($101.5m^2$)>소사구($96.54m^2$)>오정구($80.6m^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평균 좌석 수는 소사구(39.9석)만 평균보다 높았고, 원미구(29.1석) 및 오정구(27.5석)는 평균 이하로 나타남

26) 부천시 작은 도서관 홈페이지(www.bcs1.go.kr).

<표4-7> 부천시 작은 도서관 및 흘씨도서관 현황

(단위: 개, m^2)

구별	운영 형태	도서관 수	평균 면적	평균 좌석
원미구	공립	9	179.97	32.7
	사립	10	90.22	25.6
	흘씨도서관	7	34.38	-
	합계 / 평균면적·좌석	26	101.5	29.1
소사구	공립	5	190.58	56.4
	사립	10	76.546	23.5
	흘씨도서관	2	22.5	-
	합계 / 평균면적·좌석	17	96.54	39.9
오정구	공립	5	108.4	27.2
	사립	10	74.119	27.7
	흘씨도서관	5	60.07	-
	합계 / 평균면적·좌석	20	80.86	27.45
평균		21	93.0	32.2

※ 자료원 : 부천시 작은 도서관 홈페이지(www.bcs1.go.kr).

- 도서관 이용에서 '거리 및 원하는 콘텐츠'부족 등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
 - 거리가 멀어서(31.1%)>원하는 책이 없어서(21.2%)>시간이 없어서(19.0%) 등의 순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²⁷⁾
- 거주지 근거리에 도서관이 생긴다면 이용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43.7%)이 높았음²⁸⁾

<표4-8> 도서관 이용 의사 응답률

(단위: %)

년도	계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013	100.0	26.6	20.1	20.7	19.8	12.8

- 부천시는 11개 박물관²⁹⁾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미구(8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 761,206명이 이용하는 박물관은 원미구(8개)>오정구(2개)>소사구(1개) 등의 순으로 운영됨
- 2000년 이후 테마 박물관이 집중 건립되었고, 평균 부지면적은 6,303 m^2 임
 - 부지 평균 면적(6,303 m^2)은 원미구(8,182 m^2)를 제외하고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소사구 : 3,209 m^2 , 오정구 : 1,365 m^2)
 - 연 평균 관람자 수는 69,201명이며, 일평균 관람자는 207명임(원미구 : 86,157명, 소사구 : 18,902명, 오정구 : 26,524명)

27) 부천시(2013), 『2013년 제5회 사회조사 보고서』, 158쪽.

28) 앞의 보고서, 159쪽.

29) 미등록 박물관(부천향토역사관, 물 박물관)포함한 수치임.

<표4-9> 부천시 내 박물관 운영현황

(단위 : m², 명)

위치	시설명	설립년도	부지면적	연 관람	일평균 관람
원미구	부천교육박물관	2003	673	21,390	71
	유럽자기박물관	2003	528	19,150	64
	부천수석박물관	2004	608	14,543	48
	부천활박물관	2004	812	18,121	60
	한국만화박물관	2009	26,541	281,470	923
	부천로보파크전시관	2005	25,490	85,082	276
	자연생태박물관	2000	2,620	236,595	800
	부천향토역사관	2000	-	12,905	-
소사구	펄벅기념관	2006	3,029	18,902	63
오정구	부천옹기박물관	2011	2,130	30,119	100
	물박물관	2001	600	22,929	63
평균			6,303	69,201	247

※ 자료원 :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240쪽.

- 101개 민·관 시설이 시민 문화편의 증진을 위하여 개방 정책에 참여하고 있음
 - 지역에 따라 원미구(59개)>소사구(26개)>오정구(16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운영주체에 따라 공공기관 참여(60개)가 가장 높았음(학교 : 16개, 종교기관 : 15개, 민간기관 : 10개)
 - 용도에 따라 공연(39개) 및 전시(6개) 등 문화 분야에 대한 개방의사(44.6%) 가장 높음

<표4-10> 민관 문화국간 개방시설 현황

지역	시설 수					사용 용도				
	총계	공공기관	민관기관	학교	종교기관	강당	교육관	공연장	전관	체육관
원미구	59	32	9	6	12	8	15	28	3	5
소사구	26	14	1	9	2	5	3	8	2	8
오정구	16	14	-	1	1	7	4	3	1	1
합계	101	60	10	16	15	20	22	39	6	14

※ 자료원 : 부천시청 홈페이지(공공데이터 광장>부천시 문화국간 개방시설 현황), 2015년 10월 기준.

- 도서관 및 박물관(미술관) 등 주요문화기반시설 전국 평균(0.5개)보다 낮음
 - 주요 문화시설 비교에서 부천시는 0.3개소, 경기도는 0.4개소, 전국 0.5개로 타 도시에 비해 인구 1만

명 평균 문화시설 부족

- 특히, 2010년 이후 시설 수에서 일부 개선이 되었으나, 2014년 전국 평균과 격차(0.2개)는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4-11> 인구 1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단위: 개, 명)

구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 화관	문화원	합계	인구수	시설수 /만명
14년	전국	931	809	202	232	229	2403	51,327,916	0.5
	경기	217	143	44	35	31	470	12,357,830	0.4
	부천	11	11	0	1	1	24	855,586	0.3
13년	전국	628	740	171	214	229	1982	51,141,463	0.4
	경기	184	127	36	28	31	406	12,234,630	0.3
	부천	11	11	0	1	1	24	863,720	0.3
12년	전국	786	694	154	209	229	2072	50,948,272	0.4
	경기	169	119	31	28	31	378	12,093,299	0.3
	부천	11	11	0	1	1	24	869,944	0.3
11년	전국	759	655	145	192	228	1979	50,734,284	0.4
	경기	163	109	31	26	31	360	11,937,415	0.3
	부천	10	10	0	1	1	22	872,452	0.3
10년	전국	2,030	630	141	182	227	3210	50,515,666	0.6
	경기	143	106	28	26	31	334	11,786,622	0.3
	부천	9	10	0	1	1	21	875,204	0.2
09년	전국	644	579	128	167	223	1741	49,773,145	0.3
	경기	130	97	26	24	31	308	11,460,610	0.3
	부천	9	10	0	1	1	21	869,944	0.2
08년	전국	607	511	115	161	225	1619	49,540,367	0.3
	경기	117	80	23	24	31	275	11,292,264	0.2
	부천	7	10	0	1	1	19	867,678	0.2
07년	전국	572		534	155	-	1261	49,268,928	0.3
	경기	99		109	22	-	230	10,906,033	0.2
	부천	6		10	1	-	17	860,020	0.2

※ 자료원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2007년~2014년) 재정리
국가통계포털(주민등록인구수).

나. 축제 및 여가프로그램

- 부천은 3대 국제축제 등 총 29개의 축제를 개최되고 있음³⁰⁾
 - 국제축제(3개)³¹⁾, 지역축제(5개)³²⁾, 동축제(21개) 등이 운영되고 있음

30) 부청시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문화관광 >부천의 축제 참고.

- 동 축제는 소사구(10개)>원미구(6개)>오정구(5개) 등의 순으로 개최 건수에 차이가 있음

<표4-12> 부천시 동 축제33)

구	동	행사명	기간
원미구 (6)	도당동	도당동 벚꽃축제	매년 4월
	심곡1동	진말몽당축제	매년 5월 중순
	역곡1동	춘덕산 복승아꽃축제	매년 4월
	중4동	별산한마당축제	격년 5월 하순
	춘의동	원미산 진달래 축제	매년 4월초
	원미1동	원미동 사람들의 문학의 밤	격년제
소사구 (10)	고안동	고안리 한마음 축제	매년 10월 초
	소사본동	산새공원 한여름 문화의 밤 축제	매년 8월 중순
	소사본3동	소새울 민속축제	격년 10월 중순
	송내1동	소사 복승아축제	매년 7월말~9월 초
	송내2동	송학골 소리축제	짝수년도 10월
	심곡본1동	깊은구지 도당제	격년 홀수 해, 10월 초순
	옥길동	에코힐 축제	4월~10월 (소규모 축제)
	범박동	정겨운 이야기 포토 페스티벌	매년 9월경
	소사본동	윗소사 대동산신제	홀수년도 (격년제)
	소사본동	느티·은행나무 기원제	격년 10월말
오정구 (5)	고강본동·고강1동	고리울 선사문화제	매년 10월경
	성곡동	까치울축제	홀수년도 (격년제)
	오정동	한마음 대축제	짝수년도 10월경
	원종2동	거칠개 주민대축제	격년제 가을
	원종1동	먼마루 도당우물 대동제	매년 음력 3월/7월 초

- 부천시 축제 행사 평균 인지도는 62.7%가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했음

-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59.1%)을 제외한 나머지 축제는 평균 인지(62.7%)도 보다 높음
-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80.3%) 및 복사골예술제(80.2%)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31)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BIFAN), 부천국제 학생 애니메이션축제BISAF), 부천국제만화축제(BICOF)

32) 복사골예술제, 복사골 청소년예술제, 기업 사랑한마당 축제, 시민여울림한마당, 펄벅문화축제,

33) 부천시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문화관광 >부천의 축제>동 축제 참고.

<표4-13> 부천시 축제 행사 인지도(2013년)³⁴⁾

(단위: %)

구분	합계	들어본 적 있음	들어본 적 없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100.0	80.3	19.7
부천국제학생 애니메이션 축제	100.0	59.1	40.9
복사골예술제	100.0	80.2	19.8
벚꽃축제	100.0	77.1	22.9
복숭아꽃축제	100.0	68.5	31.5
진달래꽃축제	100.0	79.4	20.6
평균	100.0	62.7	37.3

○ 부천 시민의 23.4%가 축제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됨

- 참여한 적 없다(76.7%)가 가끔 참여 포함한 경험이 있다(23.4%)는 응답 보다 매우 많았음
- 진달래 축제(36.3%) 및 벚꽃 축제(34.5%) 참여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4-14> 부천시민 축제 참여율³⁵⁾

(단위 : %)

구분	소계	거의 매번 참여	가끔 참여	참여한 적 없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100.0	1.1	15	84
부천국제학생 애니메이션 축제	100.0	0.7	8.5	90.7
복사골예술제	100.0	2	20.2	77.9
벚꽃축제	100.0	4.6	29.9	65.4
복숭아꽃축제	100.0	2.4	19.4	78.2
진달래꽃축제	100.0	4.5	31.8	63.7
평균	100.0	2.6	20.8	76.7

34) 부천시(2013), 『2013년 제5회 사회조사 보고서』 150쪽.

35) 부천시(2013), 『2013년 제5회 사회조사 보고서』 150쪽.

- 도서관 및 주민자치센터에서 637개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시설 평균 14.5개의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오정구(9.4개)는 평균보다 낮음
 - 시설 평균 운영 프로그램은 원미구(8.8개)>소사구(4.0개)>오정구(1.7개) 순으로 나타남

<표4-15> 도서관 및 주민센터 프로그램 현황

(단위 : 개)

구분	합계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시설수	강좌수	시설수	강좌수	시설수	강좌수	시설수	강좌수
도서관	8	255	5	165	2	69	1	21
주민센터	36	382	20	223	9	105	7	54
합계	44	637	25	388	11	174	8	75
1관/프로그램		14.5		15.5		15.8		9.4

※ 자료원 :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http://www.bcl.go.kr>) 문화교실 참조.
부천시 주민자치센터(<http://www.bucheon.go.kr/site/main/index008>) 홈페이지 참조.

- 공립도서관은 255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미구(64.7%) 비중 가장 큼
 - 구 단위 문화프로그램 운영 비중은 원미구(64.7%)>소사구(27.1%)>오정구(8.2%) 등의 순임
 -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비중 가장 많았고, 원미구는 성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비중이 높음
 - 1관 당 프로그램 운영 건수는 원미구(33.0개)>소사구(21.7개)>오정구(21.0개) 등의 순으로 운영되고 있음

<표4-16> 부천시 공립 도서관 문화교실 프로그램 현황(2015년)36)

(단위: 개)

지역	도서관	대상						총 계
		유아	초	중	고	성인	전 연령	
원미구	꿈벗	5	8	-	6	18	-	37
	북부	5	10	1	-	4	-	20
	상동	5	13	2	-	13	3	36
	원미	2	15	13	9	9	1	49
	책마루	10	6	-	-	5	2	23
	소계	27	52	16	15	49	6	165 (64.7%)

36)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문화교실 참(2015년 1월~12기준).

	1관 당 /프로그램	5.4	10.4	3.2	3.0	9.8	1.2	33.0
소 사 구	심곡	3	3	1	-	7	-	14
	한울빛	9	29	7	-	10	-	55
	소계	12	32	8	0	17	0	69 (27.1%)
	1관 당 /프로그램	6.0	16.0	4.0	0.0	8.5	0.0	34.5
오 정 구	꿈여울	3	15	-	-	2	1	21
	소계	3	15	-	-	2	1	21 (8.2%)
	1관 당 /프로그램	3.0	15.0	0.0	0.0	2.0	1.0	21.0
합 계	프로그램	42	99	24	15	68	7	255 (100.0%)
	1관 당 /프로그램	5.3	12.4	3.0	1.9	8.5	0.9	31.9

-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총 382개 강좌 프로그램 운영 중이며, 건강·체육(41.1%) 및 취미·예술(35.7%) 강좌 비중이 높음

- 주민자치센터 1곳당 평균 10.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오정구(7.7개)는 평균 보다 낮게 조사됨

<표4-17>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교육 강좌 수(2015년)³⁷⁾

지역		프로그램 및 분야								합계
구	동	취미 /예술	건강 /체육	컴퓨터	외국어	사회 교육	교양	청소년	어린이	
원미구 (20)	심곡1동	4	3	1						8
	심곡2동		6		4					10
	심곡3동	4	1	1	1	2		1		10
	원미1동		7					1		8
	원미2동	6	1		1	1	1	1		11
	소사동		2				1			3
	역곡1동	2	9						9	20
	역곡2동		6		1					7
	춘의동		6				1			7
	도당동	3	3				1			7
	악대동	2	5							7

37) 부천시 주민자치센터(<http://www.bucheon.go.kr>) 참고

	중동	3	8		1			1		13
	중1동	3	5					1	1	10
	중2동	5	6		2				1	14
	중3동	4	2	1	1		1			9
	중4동	3	4		1		1		8	17
	상동	2	10				1			13
	상1동	11	7		1					19
	상2동	10	4		2				1	17
	상3동	6	4					3		13
	소계	68	99	3	15	3	7	8	20	223
	1관 당 프로그램수	3.4	4.95	0.15	0.75	0.15	0.35	0.4	1	11.15
소사구(9)	심곡본1동	1	4					2	1	8
	심곡본동	3	2		3					8
	소사본동	3	4				1			8
	소사본3동	4	7				1			12
	범박동	6	6		1					13
	고안동	7	1			1		1		10
	역곡3동	4	5						1	10
	송내1동	6	7		1		3	2	2	21
	송내2동	7	4			1	1	1	1	15
	소계	41	40	0	5	2	6	6	5	105
	1관 당 프로그램수	4.6	4.4	0.0	0.6	0.2	0.7	0.7	0.6	11.7
오정구(7)	성곡동	3	2				2	2		9
	원종1동	2	4						1	7
	원종2동	2	4				1			7
	고강본동	7	2							9
	고강1동	2	2						3	7
	오정동	5	3					1		9
	신흥동	4	1				1			6
	소계	25	18	0	0	0	4	3	4	54
	1관 당 프로그램수	3.6	2.6	0.0	0.0	0.0	0.6	0.4	0.6	7.7
전체	합계	134 (35.7%)	157 (41.1%)	3 (0.8%)	20 (5.2%)	5 (1.3%)	17 (4.5%)	17 (7.6%)	29 (7.6%)	382
	1관 당 프로그램수	3.7	4.4	0.1	0.6	0.1	0.5	0.5	0.8	10.6

다. 시사점

- 인구 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에서 부천은 전국 및 경기도 평균보다 낮았고, 지역 간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음
 - 2014년 인구 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는 전년보다 전국(0.2개)·경기도(0.1개)로 격차 확대
 - 도서관 1관 당 평균 인구수는 소사구(186,548명)가 가장 많았고, 원미구(55,330명)가 가장 낮았음
 - 도서관 1관 당 평균 자료수는 오정구(51,473권)가 부천시 평균(86,093권)보다 매우 낮았음
 - 박물관 1관 당 평균 면적(62,303m²)은 오정구(1,365m²)가 가장 낮았음
- 도서관·주민자치센터에서 637개 강좌가 운영 중이며, 시설평균 운영 강좌 수는 14.5개로 나타남
 - 소사구(15.8개)>원미구(15.5개)>오정구(9.4개) 순으로 조사됨
- 도서관 1관 당 강좌 수는 오정구(21.0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원미구(33.0개) > 소사구(21.7개) > 오정구(21.0개) 순으로 조사됨
- 주민자치센터 1관 당 평균 강좌 수는 10.6개, 오정구(7.7개)는 평균보다 낮음
 - 소사구(11.7개)>원미구(11.2개)> 오정구(7.7개) 순으로 조사됨

<표4-18> 부천시 공간 및 프로그램 지역 간 격차 현황

구분		내용	
공간	문화기반시설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경기) 평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 0.5개, 경기: 0.4개, 부천: 0.3개)
	도서관 (1관 당)	인구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편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 평균(77,781명) > 소사구(186,548명)·오정구(113,200명)
		자료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정구 부천 평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 평균(86,093권) > 오정구(51,473권)
	박물관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미구(8,182m²) 부천시 평균(65,303m²) 이상 • 원미구(8,182m²)>소사구(3,209m²)>오정구(1,365m²)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주민자치센터 637개 프로그램 운영, 시설평균 14.5개로 조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사구(15.8개)>원미구(15.5개)>오정구(9.4개) 순임 • 도서관 1관 당 강좌 수 : 오정구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미구(33.0개) > 소사구(21.7개) > 오정구(21.0개) • 오정구(7.7개) 주민자치센터 강좌 수 부천 평균(10.6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사구(11.7개)>원미구(11.2개)> 오정구(7.7개) 	

4 예산현황

가. 개요

- 분석목적 : 문화마을 최소기준 설정을 위한 관계예산 현황 파악 및 시사점 도출
- 대상 부서

<표4-19> 부천시 예산분석 관련 대상부서

구분	소관부서
본청	문화기획단 : 문화예술과+문화산업과 균형발전사업단 : 원도심지원과
구청	3개 구청(원미구+소사구+오정구)
주민센터	총 36개동(원미구 20개+소사구 9개 + 오정구 7개)

- 대상기관 : 2015년 본예산
- 기초자료 : 부천시정 홈페이지 참조
- 코드분류 체계
 - 분류항목 : 13개
 - 코드항목 : 문화 및 관광(정책 : 6, 단위 : 30, 세부 : 40), 일반 공공 행정 및 기타 영역 각 1), 국토 및 지역개발 2)

<표4-20> 부천시 문화예산 분류코드

기능별	정책	단위	세부
1. 문화 및 관광	1. 문화예술	1. 정책개발	1. 문화예술정책개발
		2. 프로그램	1. 문화예술 활동 지원 2. 문화예술 행사 지원 3. 문화예술 기관(단체)지원
		3. 홍보/교류	1. 홍보 2. 지역단체 등 네트워크 3. 국내/국제교류
		4. 공간	1. 문화예술기반시설 건립 2. 문화예술기반시설 운영
		5. 사람	1.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지원
	2. 문화재	1. 정책개발	1. 문화재 정책개발
		2. 프로그램	1. 문화재 보존 프로그램
		3. 홍보/교류	1. 문화재 홍보/교류

	4. 공간	1. 문화재 공간지원
	5. 사람	1.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지원
3. 종무	1. 정책개발	1. 종무 정책개발
	2. 프로그램	1. 종무 프로그램
	3. 홍보/교류	1. 종무 홍보/교류
	4. 공간	1. 종무 시설 지원
	5. 사람	1.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지원
4. 문화산업	1. 정책개발	1. 문화산업정책 지원
	2. 프로그램	1. 문화산업 활동 지원 2. 문화산업 행사지원 3. 문화산업 기관(단체) 지원
	3. 홍보/교류	1. 홍보 2. 지역단체 등 네트워크 3. 국내/국제교류
	4. 공간	1. 문화산업기반시설 건립 2. 문화산업기반시설 운영
	5. 사람	1.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지원
	1. 정책개발	1. 관광정책개발
	2. 프로그램	1. 관광 프로그램 지원
	3. 홍보/교류	1. 관광 홍보/
	4. 공간	1. 관광 공간지원
	5. 사람	1.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지원
5. 관광	1. 정책개발	1. 체육 정책개발
	2. 프로그램	1. 체육 프로그램 지원
	3. 홍보/교류	1. 체육 홍보/교류
	4. 공간	1. 체육 공간 지원
	5. 사람	1.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지원
6. 체육	1. 정책개발	1. 일반 공공행정
	2. 프로그램	7. 일반 공공
	3. 홍보/교류	8. 공공질서및안전
	4. 공간	9. 교육
	5. 사람	10. 환경보호
	1. 정책개발	11. 사회복지
	2. 프로그램	12. 보건
	3. 홍보/교류	13. 농림해양수산
	4. 공간	14. 산업중소기업
	5. 사람	15. 수송및교통
2. 일반 공공행정	1. 일반 공공	1. 일반 공공
	2. 공공질서및안전	1. 공공질서및안전
3. 교육	1. 교육	1. 교육
	2. 환경보호	1. 환경보호
4. 사회복지	1. 사회복지	1. 사회복지
	2. 보건	1. 보건
5. 보건	1. 보건	1. 농림해양수산
	2. 농림해양수산	1. 산업중소기업
6. 농림해양수산	1. 농림해양수산	1. 수송및교통
	2. 산업중소기업	1. 국토및지역개발
7. 산업중소기업	1. 수송및교통	1. 국토및지역개발 2. 마을만들기
	2. 국토및지역개발	1. 예비비
8. 수송및교통	1. 예비비	1. 기타
	2. 기타	1. 기타

나. 주요내용

- 총예산(936,504,123천 원)대비 문화예산(66,068,955천 원)비중(7.1%)은 높게 나타남
 - 자체예산(지방채+시비)+구·동비)대비 외부재원(국·도·지특·기금 등) 비중은 6.0%인 것으로 조사됨
 - 문화예산의 자체예산 확보비중은 94%(62,329,127천 원)로 매우 높았고, 외부재원(3,739,828천 원)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음(6%, 3,739,828천 원)

<표4-21> 부천시 총예산(일반회계) 현황(2015년)

(단위: 천원)

구분	합계	국비	지특	기금	도비	지방채	시비	구·동비
본청	889,975,529	253,213,107	17,802,954	10,649,732	47,970,059	22,500,000	537,788,217	0
구청	38,426,003	155,690	144,797	0	104,724	0	0	38,020,792
주민 센터	8,102,591	0	0	0	0	0	0	8,101,591
합계	936,504,123	253,368,797	17,947,751	10,649,732	48,074,783	22,500,000	537,788,217	46,122,383
문화	66,068,955	1,610,294	1,279,000	263,572	586,962	7,300,000	54,713,765	315,362
비 문화	870,433,168	251,758,503	16,668,751	10,386,160	47,487,821	15,200,000	483,074,452	45,807,021
합계	936,502,123	253,368,797	17,947,751	10,649,732	48,074,783	22,500,000	537,788,217	46,122,383

- 총 예산(936,502,123천 원) 대비 문화예술분야 예산(32,825,071천 원) 비중은 3.5%이며, 구 단위에서는 오정구(81,952천 원) 예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본청예산(32,636,819천 원) 비중(99.4%)이 구청 예산(188,252천 원) 비중(0.6%)보다 매우 큼
 - 구 단위 문화예술분야 예산은 오정구(81,952천 원)>소사구(63,400천 원)>원미구(42,900천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4-22> 부천시 문화예술분야 예산(2015년)

(단위: 천원)

구분	합계	국비	지특	도비	시비	지방채	구·동비
본청/ 구청	본청	32,636,819	585,294	1,266,000	208,253	23,277,272	7,300,000
	구청	188,252	0	0	0	0	188,252
	합계	32,825,071	585,294	1,266,000	208,253	23,277,272	7,300,000
구 단위	본청	32,636,819	585,294	1,266,000	208,253	23,277,272	7,300,000
	원미구청	42,900	0	0	0	0	42,900
	소사구청	63,400	0	0	0	0	63,400
	오정구청	81,952	0	0	0	0	81,952

- 총 예산(936,502,123천 원) 대비 문화재분야 예산(71,700천 원) 비중은 0.01%이며, 구 단위에서는 오정구(5,500천 원)정도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4-23> 부천시 문화재분야 예산(2015년)

(단위: 천원)

구분		합계	도비	시비	구동비
본청 /구청	본청	66,200	1,200	65,000	0
	구청	5,500	0	0	5,500
	합계	71,700	1,200	65,000	5,500
세부	본청	66,200	1,200	65,000	0
	오정구청	5,500	0	0	5,500

- 총 예산(936,502,123천 원) 대비 종무분야 예산(24,500천 원) 비중은 0.003%이며, 본청 중심으로 관련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표4-24> 부천시 종무분야 예산(2015년)

(단위: 천원)

	합계	국비	광특	지특	분권	기금	도비	시비	지방채
본청	24,500	0	0	0	0	0	0	24,500	0

- 총 예산(936,502,123천 원) 대비 문화산업분야 예산(9,697,618천 원) 비중은 1.03%로 나타났음
 - 자체예산(8,897,618천 원) 비중(99.1%)이 국비 등 외부재원(800,000천 원) 비중(0.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4-25> 부천시 문화산업분야 예산(2015년)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국비	시비	구동비
본청 /구청	본청	9,659,567	800,000	8,859,567	0
	구청	38,051	0	0	38,051
	합계	9,697,618	800,000	8,859,567	38,051
구	본청	9,659,567	800,000	8,859,567	0
	원미구청	27,660	0	0	27,660
	오정구청	10,391	0	0	10,391

- 총 예산(936,502,123천 원) 대비 관광분야 예산(140,400천 원) 비중은 0.01%인 것으로 조사됨
 - 자체예산(140,400천 원) 비중(89.8%)이 지특 등 외부재원(13,000천 원) 비중(10.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4-26> 부천시 관광분야 예산(2015년)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지특	시비
본청	140,400	13,000	127,400

- 총 예산(936,502,123천 원) 대비 체육 분야 예산(23,309,666천 원) 비중은 2.5%인 것으로 조사됨
 - 자체예산(22,443,585천 원) 비중(96.1%)이 외부재원(866,081천 원) 비중(3.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구 단위 예산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4-27> 부천시 체육 분야 예산(2015년)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국비	기금	도비	시비	구·동비
본청 /구청	본청	23,226,107	225,000	263,572	377,509	22,360,026
	구청	83,559	0	0	0	83,559
	합계	23,309,666	225,000	263,572	377,509	22,360,026
구 단위	본청	23,226,107	225,000	263,572	377,509	22,360,026
	원미구청	31,000	0	0	0	31,000
	소사구청	29,559	0	0	0	29,559
	오정구청	23,000	0	0	0	23,000

- 부천시 문화예술분야 예산(32,825,071천 원) 대비 문화정책개발 예산(90,738천 원) 비중은 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4-28> 문화예술분야 예산 대비 문화정책개발 예산 비중(2015년)

(단위 : 천원, %)

구분	문화예술분야 예산	문화정책개발 예산	비중
본청	32,825,071	90,738	0.3

- 부천시 문화예술분야 예산(32,825,071천 원) 대비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예산 비중은 43.3%인 것으로 나타남

- 자체예산(13,524,189천 원) 대비 외부재원(682,971천 원) 비중은 5.05%였으며, 본청 예산(14,065,460천 원) 대비 구 단위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예산(141,700천 원) 비중은 1.0%인 것으로 나타남
- 구 단위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예산은 소사구청(63,400천 원)>원미구청(42,900천 원)>오정구청(35,400천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4-29>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예산(2015년)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구비
본청 /구청	본청	14,065,460	566,394	116,577	13,382,489
	구청	141,700	0	0	141,700
	합계	14,207,160	566,394	116,577	13,382,489
구 단위	본청	14,065,460	566,394	116,577	13,382,489
	원미구청	42,900	0	0	42,900
	소사구청	63,400	0	0	63,400
	오정구청	35,400	0	0	35,400

- 부천시 문화예술분야 예산(32,825,071천 원) 대비 문화예술분야 홍보 및 교류 예산 비중은 0.2%(61,592 천 원)로 나타남
 - 홍보 및 교류 예산은 오정구청(39,592천 원)이 본청(22,000천 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4-30> 문화예술 분야 홍보 및 교류 예산(2015년)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시비	구비
본청 /구청	본청	22,000	22,000	0
	구청	39,592	0	39,592
	합계	61,592	22,000	39,592
구 단위	본청	22,000	22,000	0
	오정구청	39,592	0	39,592

- 부천시 문화예술분야 예산(32,825,071천 원) 대비 문화예술 공간 지원 예산 비중은 56.3%(18,465,581 천 원)로 나타남

- 자체예산(17,089,005천 원) 대비 외부지원(1,376,576천 원) 비중은 8.1%로 나타남

<표4-31> 문화예술 공간 지원 예산(2015년)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국비	지특	도비	시비	지방채	구비
본청 /구청	본청	18,458,621	18,900	1,266,000	91,676	9,782,045	7,300,000	0
	구청	6,960	0	0	0	0	0	6,960
	합계	18,465,581	18,900	1,266,000	91,676	9,782,045	7,300,000	6,960
구 단위	본청	18,458,621	18,900	1,266,000	91,676	9,782,045	7,300,000	0
	오정구청	6,960	0	0	0	0	0	6,960

- 부천시 문화예술분야 예산(32,825,071천 원) 대비 문화예술 활동지원 예산 비중은 3.9%(1,280,784천 원)로 나타남

- 문화예술 활동지원 예산(1,280,784천 원) 대비 외부지원(632,971천 원) 비중은 49.4%로 나타남

<표4-32> 문화예술 활동지원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구비
본청 /구청	본청	1,272,784	566,394	66,577	639,813	0
	구청	8,000	0	0	0	8,000
	합계	1,280,784	566,394	66,577	639,813	8,000
구 단위	본청	1,272,784	566,394	66,577	639,813	0
	소사구청	8,000	0	0	0	8,000

● ● ● 문화마을 최소기준과 거버넌스 모델 구축

- 부천시 문화예술분야 예산(32,825,071천 원) 대비 문화예술 행사지원(962,220 천 원) 예산 비중은 2.9%로 나타남

- 구 단위 소사구청(55,400천 원)>원미구청(42,900천 원)>오정구청(35,400천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4-33> 문화예술 행사지원 예산(2015년)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도비	시비	구비
본청 /구청	본청	828,520	50,000	778,520
	구청	133,700	0	133,700
	합계	962,220	50,000	778,520
구 단위	본청	828,520	50,000	778,520
	원미구청	42,900	0	42,900
	소사구청	55,400	0	55,400
	오정구청	35,400	0	35,400

- 부천시 문화예술분야 예산(32,825,071천 원) 대비 문화예술 기관(단체)지원 예산 비중은 36.4%로 나타남

<표4-34> 문화예술 기관(단체)지원 예산(2015년)

(단위 : 천원, %)

구분	문화예술분야 예산	문화예술 기관(단체) 지원	비중
예산	32,825,071	11,964,156	36.4

- 부천시 문화예술분야 예산(32,825,071천 원) 대비 문화예술기반시설 건립 지원 예산 비중은 (29.7%)로 나타남

- 문화예술기반시설 건립 지원 예산에서 외부지원(1,266,000천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3.0%인 것으로 나타남

<표4-35> 문화예술기반시설 건립 지원 예산

(단위 : 천원, %)

구분	합계	지특	시비	자방채
예산	9,751,000	1,266,000	1,185,000	7,300,000

- 부천시 문화예술분야 예산(32,825,071천 원) 대비 문화예술기반시설 운영 예산 비중은 26.5%로 나타남
 - 문화예술기반시설 운영 예산에서 자체예산 비중은 98.7%로 외부재원 비중 1.3% 매우 높게 나타남

<표4-36> 문화예술기반시설 운영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구비
본청/구청	본청	8,707,621	18,900	91,676	8,597,045
	구청	6,960	0	0	6,960
	합계	8,714,581	18,900	91,676	8,597,045
구 단위	본청	8,707,621	18,900	91,676	8,597,045
	오정구청	6,960	0	0	6,960

- 부천시 국토및지역개발 예산(58,566,224천 원) 대비 마을 만들기 예산(132,120천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0.2%인 것으로 나타남

<표4-37> 국토및지역개발 예산 대비 마을 만들기 예산 비중(2015년)

(단위 : 천원, %)

구분	국토및지역개발 전체예산	마을만들기	비중
예산	58,566,224	132,120	0.2

다. 시사점

- 총예산 대비 '문화 및 관광예산' 비중은 전체 평균(6.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영역 예산은 2013년부터 예산 비중이 전체 평균(29.2%) 보다 높게 나타남
 - 그러나,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수송및교통, 예비비' 등은 예산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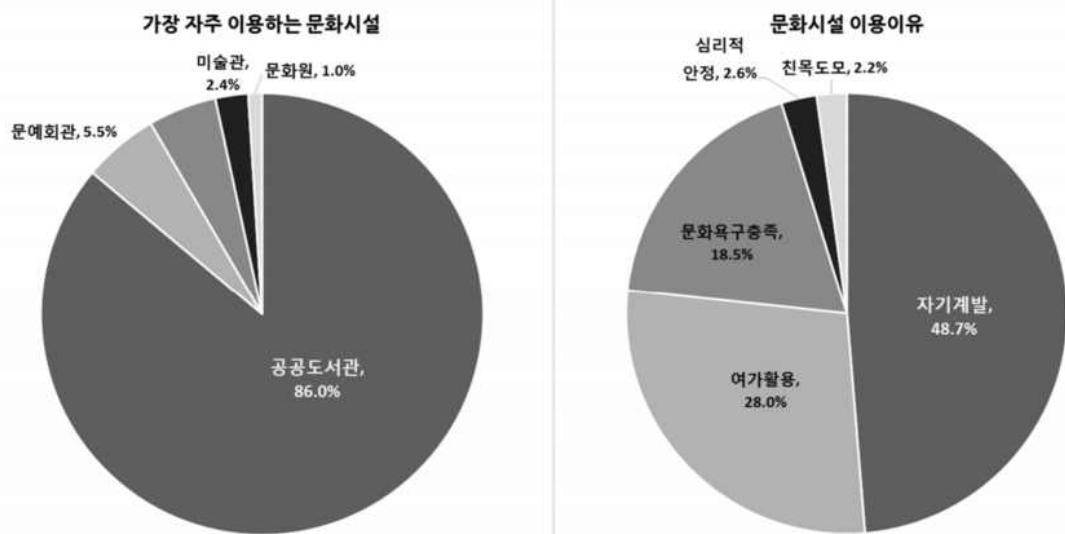
<표4-38> 부천시 총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대비 기능별 예산비중(08년~15년)

(단위 :%)

구분	평균	15년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09년	08년
일반공공행정	7.6	4.9	7.0	9.3	8.6	8.4	7.2	5.7	9.6
공공질서및안전	0.8	1.3	1.1	1.2	1.2	0.4	0.3	0.6	0.4
교육	2.9	4.3	4.7	4.5	3.4	2.6	1.1	1.2	1.7
문화및관광	6.6	6.5	5.7	6.1	5.8	6.0	7.4	7.5	7.7
환경보호	6.0	5.8	6.3	6.4	4.9	5.9	5.2	6.3	7.2
사회복지	29.2	37.8	36.1	32.5	26.0	28.6	24.9	24.6	23.4
보건	1.5	2.0	1.9	2.0	1.4	1.4	1.2	1.1	1.1
농림해양수산	0.8	0.9	0.7	0.7	0.7	0.6	0.4	1.8	0.6
산업·중소기업	2.1	2.1	1.9	1.7	1.6	2.4	2.5	2.3	2.2
수송및교통	20.5	10.9	12.1	11.4	25.7	21.9	30.0	27.5	24.3
국토및지역개발	5.9	6.8	5.8	6.7	6.2	6.6	5.3	4.6	5.2
예비비	1.7	1.2	1.4	1.3	2.2	1.4	2.0	2.6	1.8
기타	14.3	15.5	15.3	16.0	12.4	14.0	12.7	14.2	14.8

제2절 부천시 문화마을 진단

1 도서관 도서 대출의 지리적 분포(도서대출 GIS 분석의미)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공공문화기반시설 운영실태 분석 및 평가연구, 2012>

구분	연간 운영비 (백만원)	시설수	면적 (m ²)	시설당 평균운영비 (원)	면적당 운영비 (원)	시설당 평균 이용자수	면적당 이용자수
합계	287,355	406	1,126,864	707,770,936	255,004	119,494	45.49
박물관	68,869	119	297,712	578,731,092	231,328	131,473	54.32
미술관	7,403	13	26,871	569,461,538	275,501	52,058	25.19
도서관	71,045	151	282,735	470,496,689	251,278	148,154	90.13
문화예관	129,532	88	468,313	1,471,954,545	276,593	80,060	1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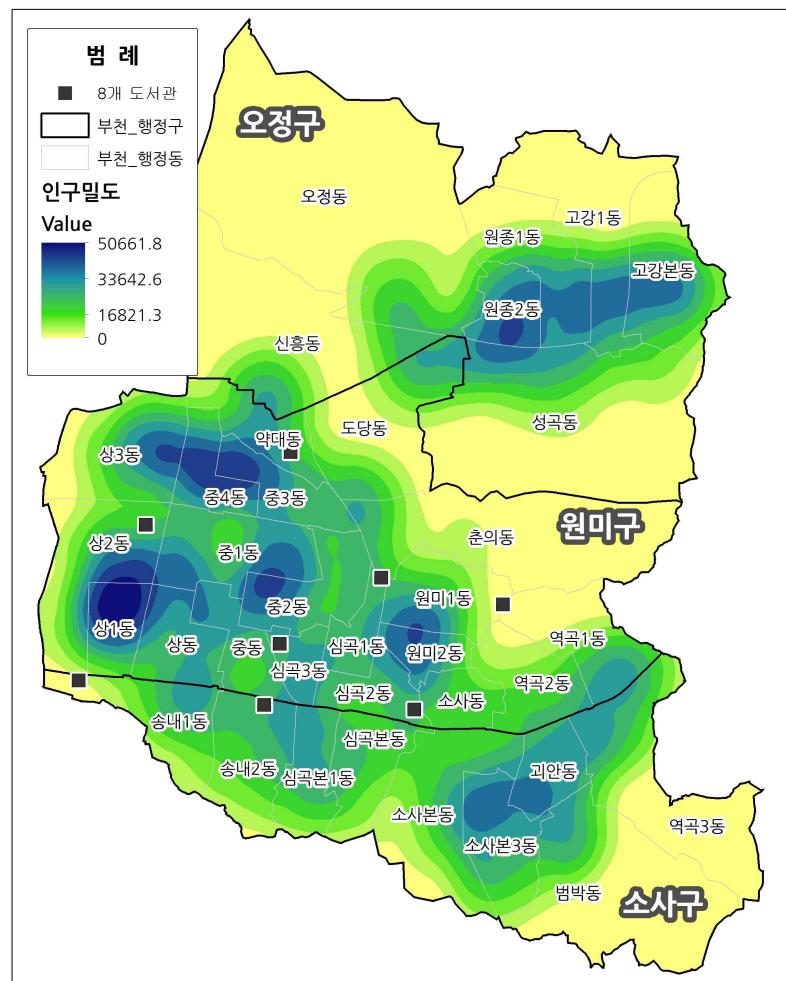
출처: 문체부, 지역 공공문화기반시설 운영실태 분석 및 평가연구, 2012

[그림4-4] GIS 분석의 의미

-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애용하는 문화시설은 공공도서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보고서의 설문 응답자의 86%의 비율을 보임. 도서관은 문화시설 중에서 시설의 면적당 평균 연간 이용자수가 가장 많은 시설로 전체 문화시설 평균(45.49명)의 2배에 해당되는 90.13명이 이용하고 있음
- 시민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이 없고 다른 문화시설에 비해 생활권 가까이 분포하고 있어 다른 문화시설에 비해 이용객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가 넓어 문화향유의 지역적 격차를 분석하는 데 용이함
- 부천시 소재 8개 공공도서관의 도서대출 총 443만 건을 지리정보로 전환하여 '빅데이터' 수준의 분석 작업을 통해 문화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 인구분포와 도서대출 분포를 교차 분석하여 부천시 내부의 문화시설 이용의 지리적 격차를 살펴보고 향후 정책논의를 과학적으로 진행하는 데 근거를 제공함
- 특히, GIS 분석은 문화격차와 문화향유의 소외지역 또는 취약지역을 분석하는 데 유리한 데이터 시각화 도구임

1) 인구밀도



[그림4-5] 부천시 인구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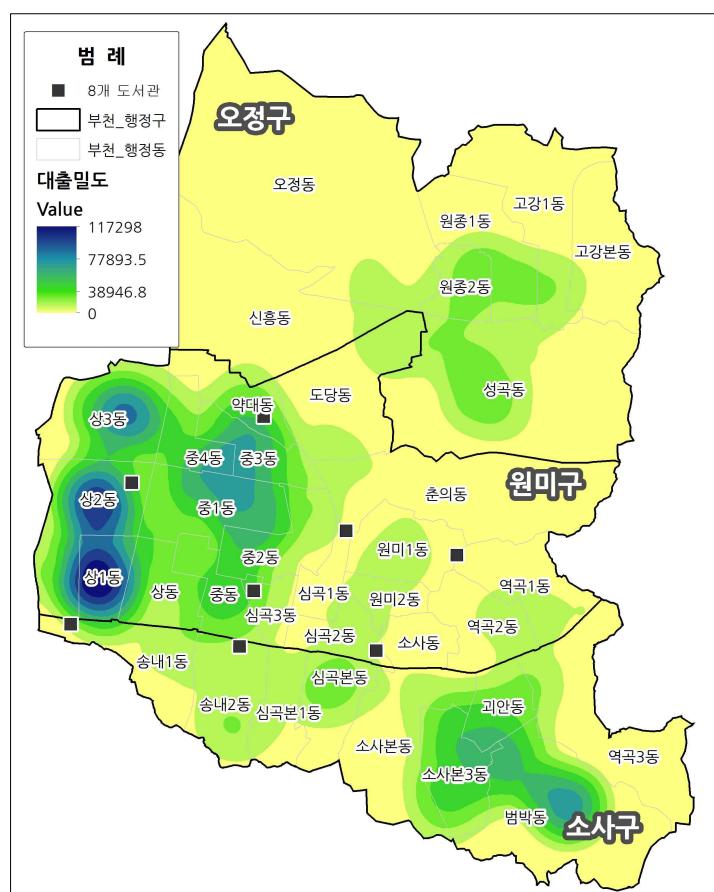
- 부천시 인구분포를 소지역까지 공간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은 통계청이 제공하는 GIS 집계구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주민등록인구 정보가 행정동 단위로 제공되는 조건에서는 미세한 지역분석이 어려움
- 통계청 집계구 GIS 데이터는 인구주택 총조사의 결과를 반영하기에 5년 단위로 갱신되며 본 연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는 2010년 자료를 근거로 분석함. 부천시는 36개 행정동으로 구성되며 집계구 데이터는

1495개 단위로 분할되어 총 830,951명의 인구가 공간연산에 의해 밀집도로 표현됨

- 36개 행정동의 최근 주민등록인구 데이터를 사용하는 대신 2010년 1495개 통계청 집계구를 선택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행정동 단위보다 41배 정밀한 소지역별 인구동향과 문화관련 시민들의 향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임. 향후 2015년 기준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가 다시 집계구 수준으로 공개된다면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2) 공공도서관 도서 대출의 공간분석

① 2012년 - 100만 건 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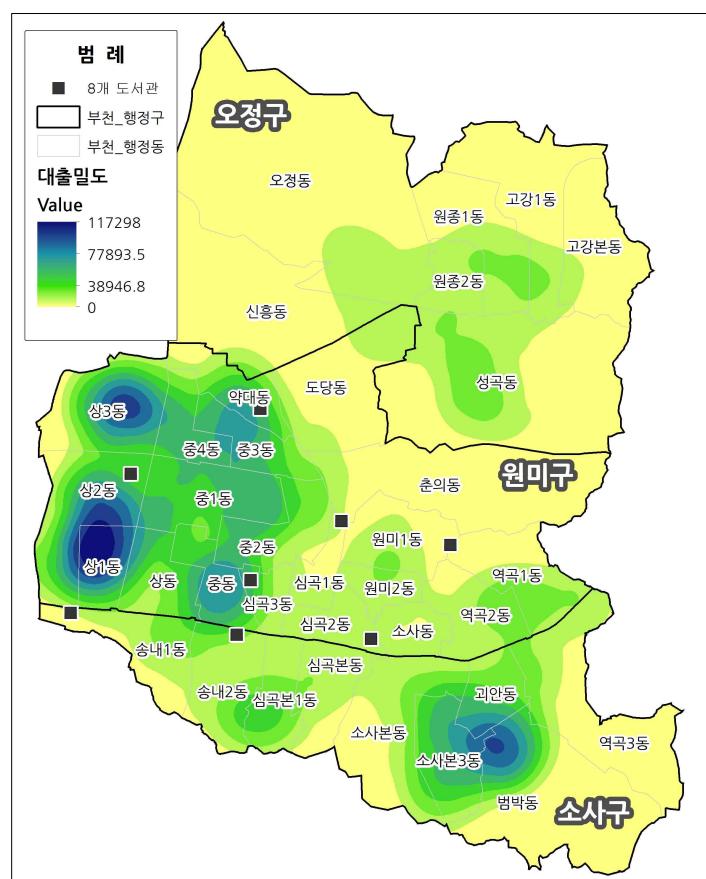
[그림4-6] 부천시립도서관 도서대출 분석(2012년)

- 개요: 2012년 기준 부천시 8개 공공도서관에서 대출한 도서를 행정자치부가 지정한 '국가기초구역'에 기반을 두어 다시 데이터를 재 집계함. 8개 도서관은 꿈빛(원미·중동), 꿈여울(오정·작동), 북부(원미·도당동), 상동(원미·상동), 심곡(소사·심곡본동), 원미(원미·원미동), 책마루(원미·중동), 한울빛(도서관(소사·소사본동))

동)으로 GIS 지도에 표시됨

- 분석단위: 부천시 전체 지역을 377개 행자부의 국가기초구역 단위로 도서대출 데이터를 재집계하여 총 981,080건을 밀집도로 표현함
 - 자리적 분포: 부천시 원미구에서만 총 579,208건의 도서 대출이 몰려 전체 대출건수의 59%가 집중되었고 상1~3동의 밀집도는 더욱 두드러짐. 8개 도서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소사구의 범박동 일대에 뚜렷한 대출밀도가 형성되어 오정구 지역과 비교됨

② 2015년(1~9월) - 110만 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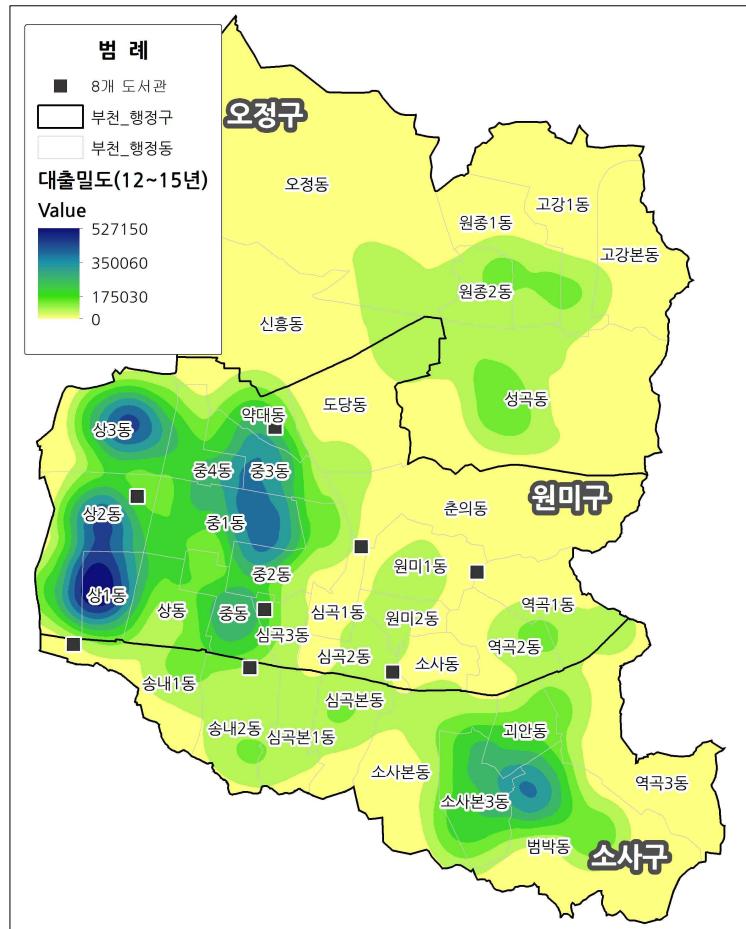


[그림4-7] 부천시립도서관 도서대출 분석(2015년)

- 행정구별 분포: 행정구별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도서대출 110만 건 중에서 원미구 653,732건(59%), 오정구 151,703건(14%), 소사구 298,068건(27%)로 구성됨. 이는 행정구별 인구비율 – 원미구 52%, 오정구 22%, 소사구 26%를 고려할 때 오정구는 인구비율에 비해 대출비율이 8%포인트 낮고, 소사구는 유사하며 원미구는 인구비율(52%)에 비해 대출비율(59%)이 7%포인트 더 높게 형성됨

- 지리적 분포: 2015년 부천시에서 대출된 110만 건의 이용객 주소지를 우편번호 수준에서 지도에 입력하고 이를 행정자치부 기준 '국가기초구역' 377개로 재집계할 때, 원미구 상동지역에 가장 강력한 이용밀도가 형성되었으며 소사구의 소사본3동 지역에 중간밀도, 원미구의 중동지역에 약한 밀도가 형성됨

③ 2012~2015년 - 443만 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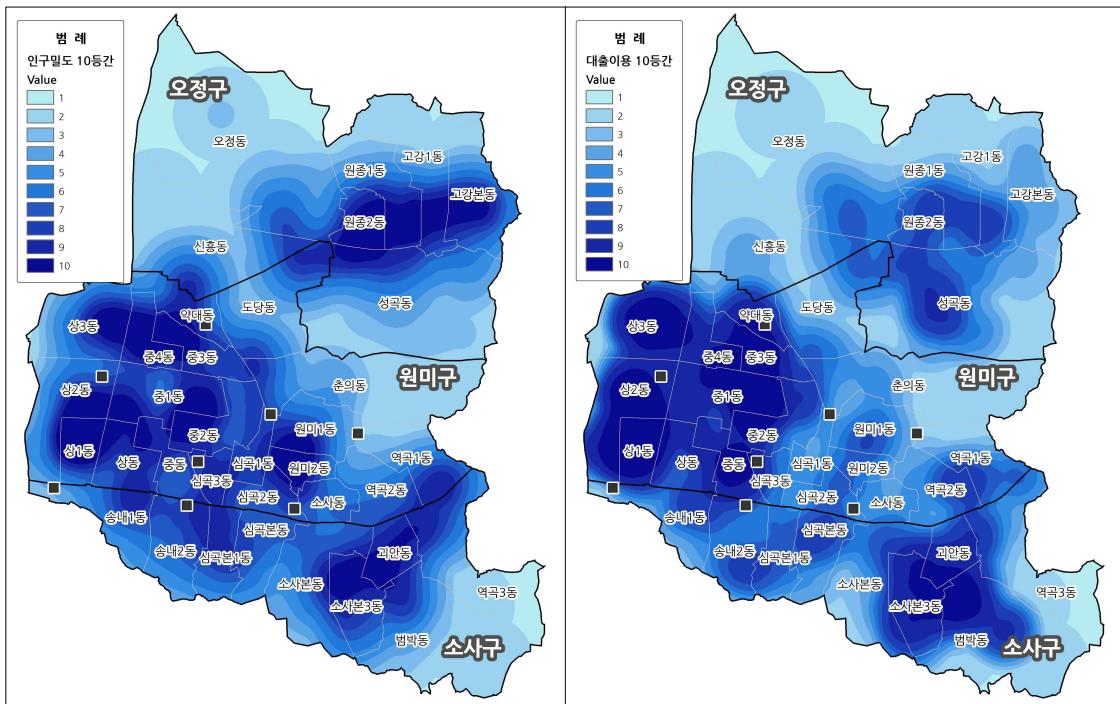


[그림4-8] 부천시립도서관 도서대출 분석(2012~2015년)

- 부천시 8개 공공도서관에서 2012년부터 2015년 9월까지 도서대출한 443만 건을 한 장의 GIS 지도에 압축하면 4개의 이용객 밀집지역이 도출됨
- 부천시 전체 면적 중에서 1) 원미구 상동지역, 2) 원미구 중동지역, 3) 소사구 소사본3동지역, 4) 오정구 원정·성곡동지역이 고밀도를 형성함
- 과거 2010년 부천문화재단에서 수행한 공공도서관 대출이용객, 공연 관람객, 문화교육 프로그램 참여 객에 대한 GIS 공간분석에서도 거의 동일한 패턴이 드러남

3) 교차분석

① 지리적 10등간 처리



[그림4-9] 지리적 10등간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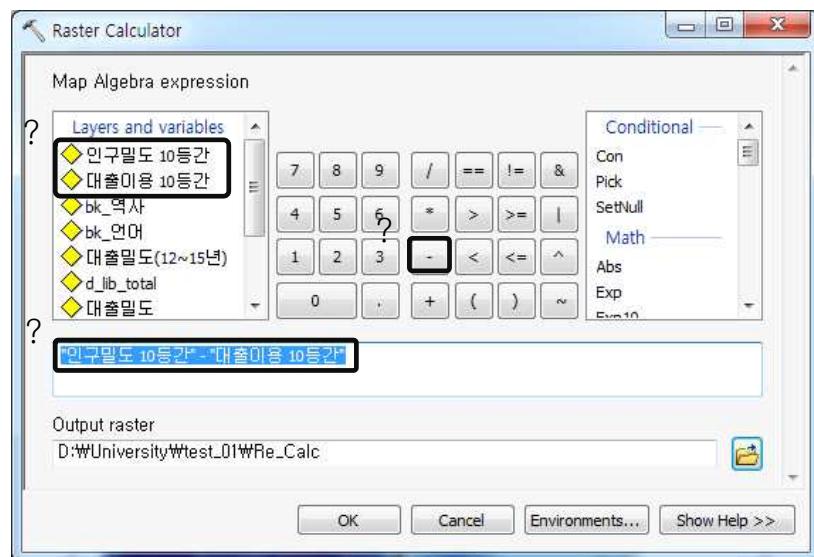
- 문화정책 입안자 입장에서는 인구가 많은 곳에서 도서관 이용객도 많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질 수 있음. 부천시 공공도서관 8개에서 시민들에게 대출된 443만권의 책은 인구분포와 상관성이 높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함
- 인구의 밀도와 도서 대출의 밀도가 부천시 전체에서 합치되는 곳과 불일치되는 지역이 있다면 그곳은 추가 진단이 필요한 지역임
- [왼쪽 지도]는 부천시 83만 명의 지리적 분포를 표현한 GIS 인구밀도 지도이며, [오른쪽 지도]는 2012~2015년 사이 시민들이 대출해간 443만권의 지리적 밀도를 표현함
- GIS 기능 중‘지도 계산기(Map Calculator)’를 이용하면 서로 다른 지도에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등 정량적 계산을 지도상에서 수행할 수 있음
- 부천시에서 인구는 많지만 도서 대출이 미약한 지역과 인구는 적지만 도서 대출이 활발한 지역을 자리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이를 통해 문화향유 활성화 지역과 비활성화 지역을 구분할 수 있으며 문화시설 또는 문화 활동 취약지역을 분별해내는 작업이 가능함
- 하지만, [왼쪽 지도]와 [오른쪽 지도]에 반영된 통계 값의 크기가 서로 다름. [왼쪽 지도]는 입력 데이터의

크기가 83만 명이고, [오른쪽 지도]는 443만 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2장의 지도를 공간연산하면 애초 정책 입안자가 살펴보고 싶은 객관적인 문화향유의 지리적 패턴을 파악할 수 없음

- GIS에서 서로 다른 통계 값을 새로운 10등급의 값으로 처리하여 공간 연산하는 기법을 ‘지리적 재설정 (Reclassify)’라고 하는데, 인구밀도와 대출밀도를 각각 10등급으로 처리하여 부천시 전역에 [인구밀도]를 1점부터 10점까지, [대출밀도]도 1점부터 10점까지 상대적 통계 값으로 재설정함
- 이런 재설정 작업의 가치는 인구가 가장 밀집한 10점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도서 대출의 상대적 이용점수도 10점대를 형성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음.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는 인구밀도의 상대적 등급 점수는 10점대로 부천시에서 가장 과밀한 지역이지만, 도서 대출의 상대적 등급은 1점대로 9등급의 격차를 보이는 곳이 어디인지 관찰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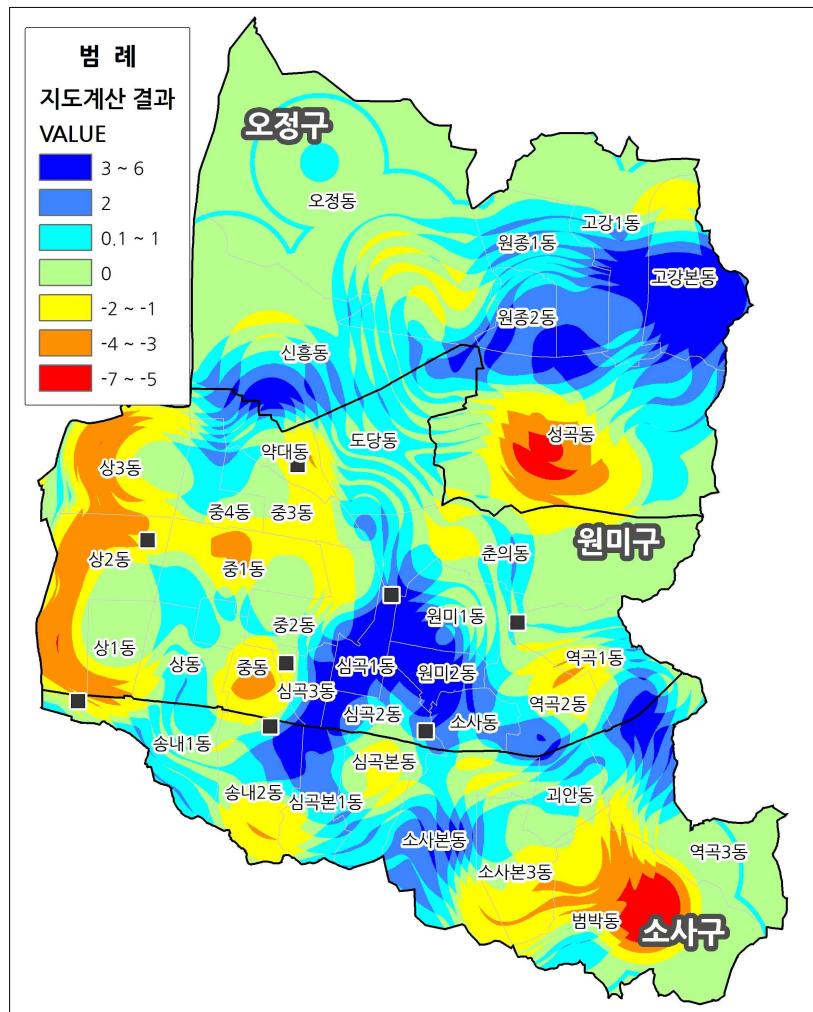
② 지도계산기 적용

- GIS에서 서로 다른 2장의 지도에 대한 정량적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GIS 소프트웨어 중의 하나인 ArcGIS가 제공하는 ‘래스터 계산기 (Raster Calculator)’를 적용함
- 위의 이미지화면 ‘Raster Calculator’ ①번에서 ‘인구밀도 10등간’이라고 작업된 GIS 지도 데이터와 ‘대출 이용 10등간’이라고 작업된 GIS 지도 데이터 선택한 후 ②번에서 ‘뺄셈’ 기능을 적용하여 ③번의 수식 ‘[인구밀도 10등간] - [대출이용 10등간]’을 생성함
- ‘지도계산기’를 적용하면 부천시 전역에서 ‘인구밀도’와 ‘대출밀도’의 ‘일치지역’과 ‘불일치지역’이 계산되어 지도에 표현됨



[그림4-10] 지도계산기 10등간 처리

③ 지도계산 결과



[그림4-11] 부천시립도서관 대출현황 10등간 처리결과

- 색깔의 구분으로 해석해보면, 부천시 전체에서 ‘파란색 지역’은 인구밀도는 높지만 도서 대출은 미약한 지역으로 오정구의 ‘고강본동’의 경우 인구밀도는 ‘10등급’ 중 가장 높은 ‘10점’지역인 반면, 도서 대출은 4등급에 해당하는 ‘4점’지역이라 ‘인구밀도 점수’에서 ‘대출밀도 점수’를 빼기하면 +6점이 나온 것임
- 원미구 상동의 ‘연초록’ 지역은 인구밀도의 점수와 대출밀도의 점수가 똑같은 곳으로 ’상1동‘의 중심에 표현된 ‘연초록’지역은 부천시 전체에서 ‘인구밀도 10점’지역이면서 동시에 ‘대출밀도 10점’지역이라는 의미임. 인구도 가장 많고 도서대출도 가장 활발한 지역임
- ‘빨간색 지역’은 인구밀도 대비 도서 대출이 매우 활발한 지역이며 ‘파란색 지역’은 미약한 지역임. 해당지역에 대한 세부적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구, 가구, 소득 등에 관한 진단이 병행되어야 함

2 문화예술 프로그램

1)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지리적 분포

① 원본 데이터의 공간 정보화

□ 문화 프로그램 데이터 수집

◎ 주민자치센터&구청 프로그램(2011~현재)											
1	연번	번호	년도	교육기관	분야	대상	프로그램명	수강료	시작일	종료일	
2852	2839	5715	2014	중2동	건강/체육	성인	탁구2반	60,000	2014.10.01	2014.12.26	
2853	2840	5714	2014	중2동	건강/체육	성인	탁구1반	60,000	2014.10.01	2014.12.26	
2854	2841	5724	2014	중2동	외국어	성인	중국어반	54,000	2014.10.01	2014.12.26	
2855	2842	5720	2014	중2동	건강/체육	성인/어르신	자유탁구	15,000	2014.10.01	2014.12.26	
2856	2843	5731	2014	중2동	외국어	성인	일어초급반	45,000	2014.10.01	2014.12.26	
2857	2844	5730	2014	중2동	외국어	성인	일어고급반	54,000	2014.10.01	2014.12.26	
2858	2845	5733	2014	중2동	취미/예술	성인	요가1반	54,000	2014.10.01	2014.12.26	
2859	2846	5734	2014	중2동	외국어	성인	영어교실	54,000	2014.10.01	2014.12.26	
2860	2847	5727	2014	중2동	건강/체육	어린이	어린이탁구	30,000	2014.10.01	2014.12.26	
2861	2848	5728	2014	중2동	취미/예술	성인	미술성인반	45,000	2014.10.01	2014.12.26	
2862	2849	5732	2014	중2동	건강/체육	성인	댄스스포츠	54,000	2014.10.01	2014.12.26	
2863	2850	5723	2014	중2동	취미/예술	여성/성인	꽃꽂이	54,000	2014.10.01	2014.12.26	
2864	2851	5722	2014	중2동	교양	성인	기타A반	54,000	2014.10.01	2014.12.26	
2865	2852	5721	2014	중2동	교양	성인	기타1반	54,000	2014.10.01	2014.12.26	
2866	2853	5725	2014	중2동	취미/예술	여성/성인	가야금반	54,000	2014.10.01	2014.12.26	
2867	2854	5726	2014	중2동	취미/예술	여성/성인	가야금(초급반)	54,000	2014.10.01	2014.12.26	
2868	2855	5717	2014	중2동	건강/체육	성인	탁구B반	60,000	2014.10.01	2014.12.26	
2869	2856	5757	2014	상동	건강/체육	전체	탁구(3부)	45,000	2014.10.01	2014.12.31	
2870	2857	5756	2014	상동	건강/체육	전체	탁구(2부)	45,000	2014.10.01	2015.01.28	
2871	2858	5755	2014	상동	건강/체육	전체	탁구(1부)	45,000	2014.10.01	2014.12.31	
2872	2859	5754	2014	상동	교양	전체	웃음교실	30,000	2014.10.01	2014.12.31	
2873	2860	5753	2014	상동	취미/예술	전체	요가(2부)	66,000	2014.10.01	2014.12.31	
2874	2861	5752	2014	상동	건강/체육	전체	요가(1부)	66,000	2014.10.01	2014.12.31	

[그림4-12] 문화 프로그램 데이터 수립 현황

- 부천시 소재 공공기관에서 2011년부터 2014년 말까지 진행된 다양한 문화, 교육, 복지 프로그램의 기본 데이터를 취합함
- 공공기관은 시청, 구청, 동주민센터와 도서관 등 문화시설, 복지기관과 교육시설에서 진행된 각종 프로그램을 분야별로 수작업으로 분류하여 구분함

□ 프로그램 위치별 데이터 집계

-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문화예술 등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공간을 파악하여 주소를 확보하고 이를 GIS 지도에 입력함

□ 문화 프로그램 종합

<표4-39> 문화프로그램 종합

Table

부천_구청&주민센터_분야별프로그램수

FID	대분류	중분류	기관명	주무부처	주소	1_건강/	1_교양	1_기타	1_문화/	1_사회
5	복합	주민센터	상1동주민센터	원미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1동 396-2	24	3	0	0	0
49	문화	도서관	부천시립빨마루도서관	부천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92-3	0	36	1	0	0
47	문화	도서관	부천시립원미 도서관	부천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원미1동 15	0	34	12	0	0
12	복합	주민센터	중4동주민센터	원미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4동 1032	16	17	4	0	0
10	복합	주민센터	중2동주민센터	원미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2동 1192-2	31	8	0	0	0
44	문화	도서관	부천시립중여2동도서관	부천시	경기 부천시 오정구 까치로 103	0	23	0	0	0
95	복지	다목적복지회관	실크복복지회관	(사)기교대한길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 9번길 54	0	29	4	0	27
24	복합	주민센터	송내1동주민센터	소사구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1동 328-2	12	24	0	0	0
97	복지	노인여가복지시설	부천시소사노인복지관	사회복지법인기독	경기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38	7	0	14	0	4
50	문화	도서관	부천시립풀빛도서관	부천시	부천시 원미구 중9동 1051-87	0	25	2	0	10
94	복지	다목적복지회관	고강복지회관	(학)기율학원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리홀로 79	2	3	7	1	3
72	문화	박물관	부천을기박물관	(재)부천문화재단	경기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318	0	0	0	0	0
83	문화	지방문화원	부천문화원	경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60번길 40 2	0	0	0	0	0	0
96	복지	노인여가복지시설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	사회복지법인연꽃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424번길 25	16	1	3	2	7
74	문화	박물관	부천한박물관	(재)부천문화재단	경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	0	3	0	0	5
150	복지	아동시설	1318happyzone우리자역아	(사)나눔과설길	원미구 원미로 143번길 39(원미동)	2	6	18	0	0
97	복지	종합사회복지관	부천종합사회복지관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1동 328-2	0	6	15	0	0	0

부천_구청&주민센터_분야별프로그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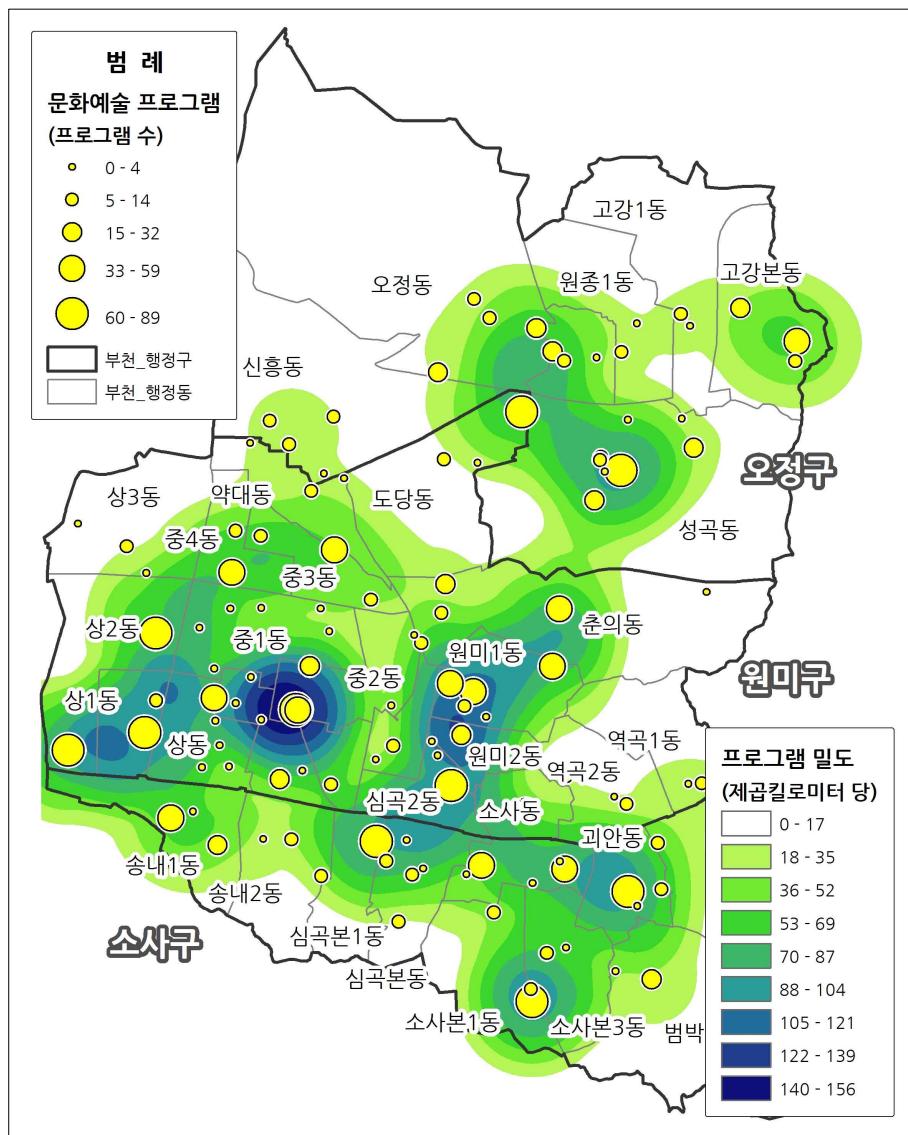
공간 분류	공간수	건강/체육	교양	문화/여가	사회교육	외국어	취미/예술	청소년주	컴퓨터	자격증	소계
총합계	159	315	471	15	97	160	510	25	137	4	1,909
주민센터	36	256	106	0	2	45	217	25	7	2	672
도서관	28	0	266	0	31	89	37	0	0	0	448
노인여가복지시설	3	24	1	2	12	12	48	0	6	0	123
아동시설	22	14	21	6	0	2	40	0	0	2	121
다목적복지회관	3	3	32	3	32	9	25	0	0	0	120
시·구청	4	0	0	0	0	0	0	0	119	0	119
종합사회복지관	8	7	15	1	9	3	27	0	3	0	96
박물관	12	0	12	0	5	0	62	0	0	0	82
장애인 이용시설	7	4	9	3	1	0	15	0	1	0	44
청소년시설	7	2	3	0	2	0	13	0	0	0	36
지방문화원	1	0	0	0	0	0	21	0	0	0	21
근로자복지시설	2	5	4	0	1	0	2	0	1	0	16
가정(여성)복지시설	16	0	2	0	2	0	1	0	0	0	9

- 부천시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공공기관의 각종 문화 프로그램은 모두 159개 장소 총 1909 개 프로그램이 제공됨
- 시민의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지리적 위치가 선택의 출발점이 될 것임으로 원본 데이터를 공간적으로 분류하여, 주민센터, 도서관, 노인여가복지시설, 아동시설, 복지회관, 시·구청, 박물관, 장애인시설, 청소년시설 등으로 구분함
- 프로그램은 건강 체육, 교양, 문화여가, 사회교육, 외국어, 취미예술, 청소년주부, 컴퓨터, 자격증 등으로 나누어 분류함

- 데이터 한계: 각 프로그램별 참가자의 성별, 연령대별, 주소지별 기본 데이터를 균등하게 입력하기 어려워 공간별로 참여자의 특성과 지리적 분포를 분석하는 한계가 있었음

2) GIS 분석

□ 문화프로그램의 지리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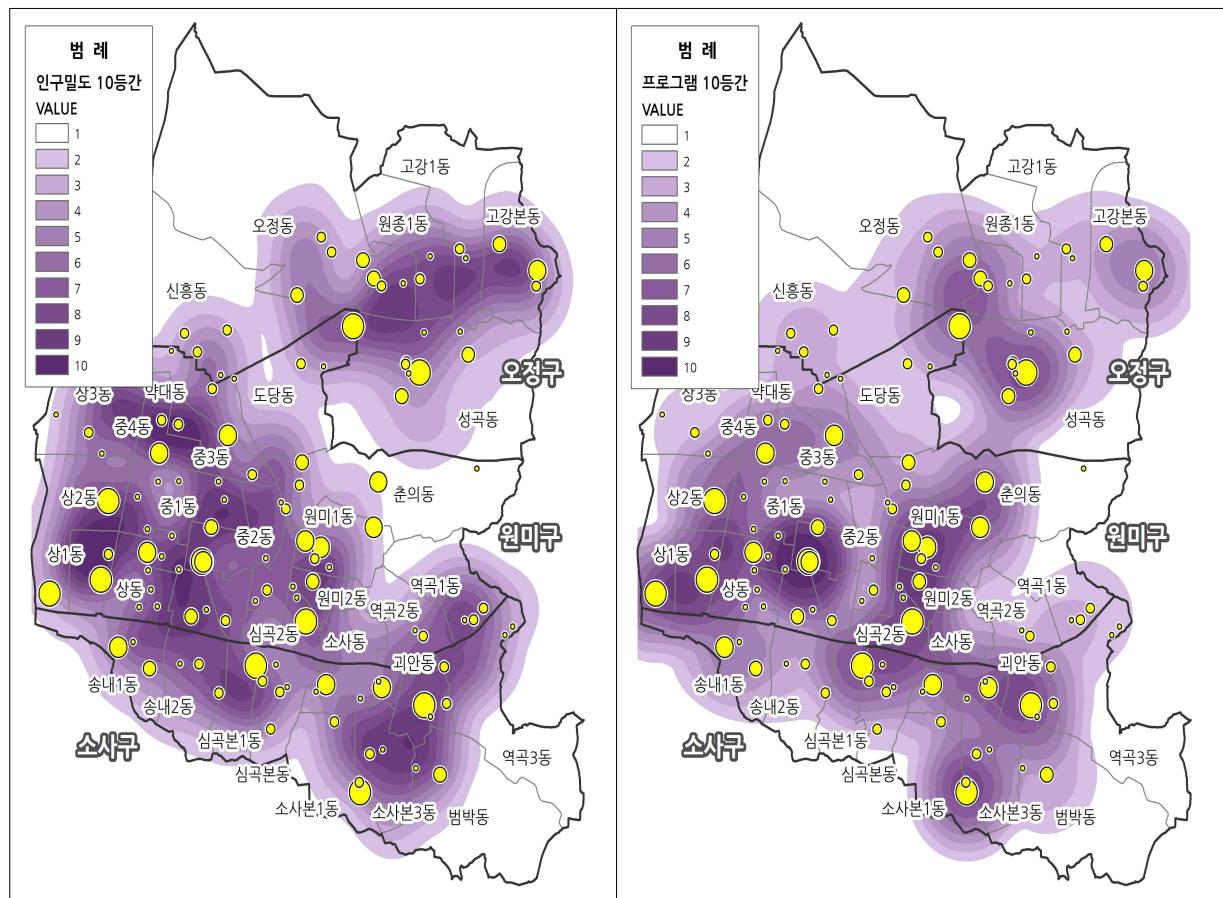
[그림4-13] 부천시 문화프로그램의 지리적 분포

- 부천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59개 장소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제공된 1909개 문화 프로그램의

지리적 분포를 2가지 시각화 방법으로 GIS 지도에 표현함

- 장소별 프로그램 수: 159개 공공기관의 프로그램 운영공간을 노란색 동그라미로 표현했으며 각각의 위치별 프로그램수를 최대 89개까지 5단계로 등급화 하여 프로그램이 많을수록 노란색 동그라미가 정비례하여 크게 확대되도록 시각화함
- 밀집도 분석: 부천시 전체에 대해 문화 프로그램이 지리적으로 어떤 분포를 가지고 제공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GIS 밀도분석(Kernel Density)를 수행하여 제곱킬로미터(km2) 면적 당 프로그램의 제공수를 시각화함

□ 수요·공급 편중현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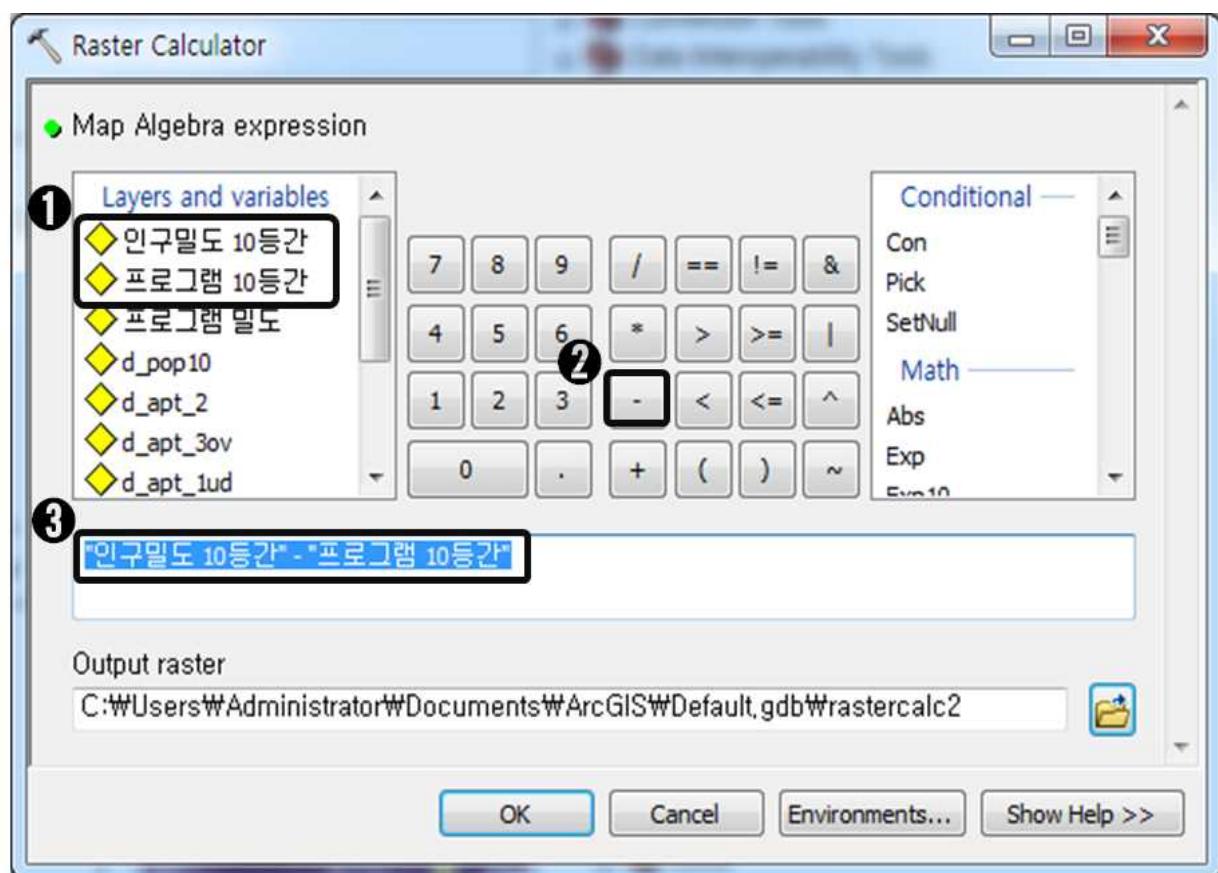


[그림4-14] 부천시 문화프로그램 수요·공급 편중 현상

- 앞서 도서관 분석에서 시도한 지리적 10등간 재분류 작업을 문화 프로그램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때, [왼쪽 지도]는 부천시 2010년 통계청 집계구 기준의 인구분포를 나타내며 원본 GIS 데이터를 10등급화 하여 부천시 전체를 1점~10점까지 상대적 정량 값으로 재분류함

- [오른쪽 지도]는 부천시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공급된 1909개 문화 프로그램을 159개 운영 위치별로 GIS 밀집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를 다시 1점~10점으로 재분류함
-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방법, 데이터, 알고리즘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나, 이번 연구에서는 인구를 기본 '수요'로 전제하고 문화 프로그램 제공수를 '공급'이라고 가정하여 분석함
- 앞서 진행된 도서관의 대출밀도에 관한 GIS 분석처럼, 부천시 전체 인구밀도 대비 문화 프로그램의 제공패턴이 공간적으로 합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정책수립의 의미 있는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음

□ 지도 계산기 적용



[그림 4-15] 부천시 문화프로그램 지도계산기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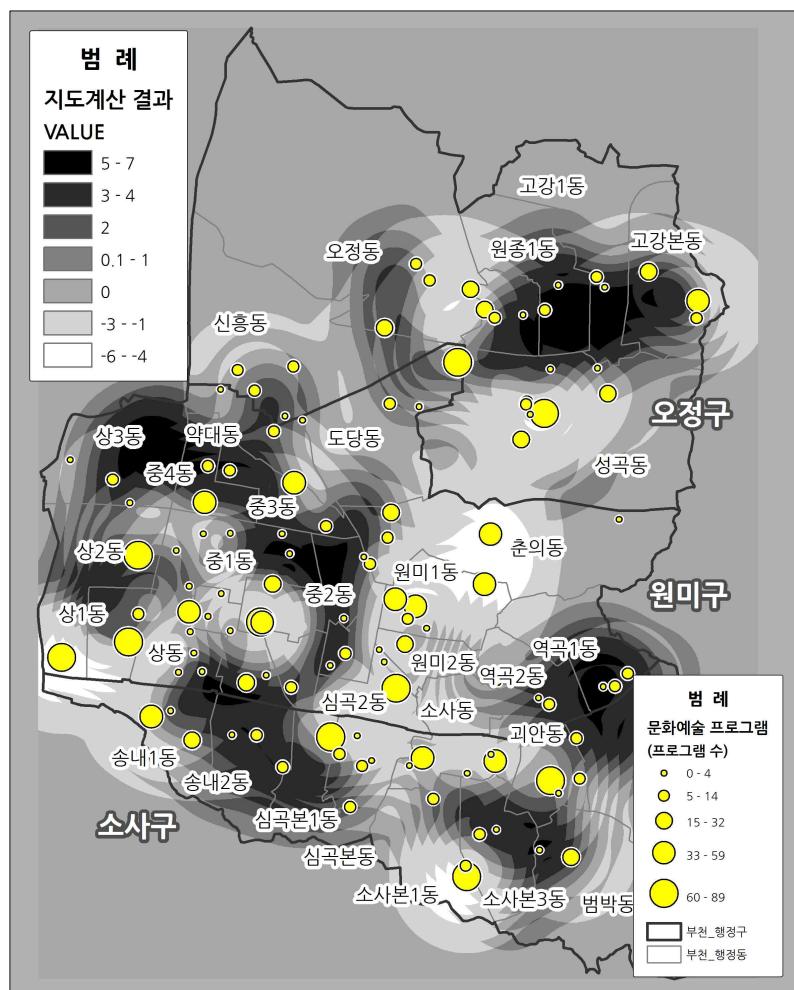
- 인구밀도를 10등간으로 처리하여 1점부터 10점까지 지리적으로 값이 입력된 GIS 지도를 [인구밀도 10등

간]이라 부르고, 부천시 공공기관이 제공한 문화 프로그램의 공간 밀집도를 1점부터 10점까지 지리적으로 처리한 GIS 지도를 [프로그램 10등간]이라고 지정함

- [인구밀도 10등간] 지도에서 [프로그램 10등간] 지도를 ‘지도 계산기’를 이용하여 공간연산을 실행함

3) 지리적 편중현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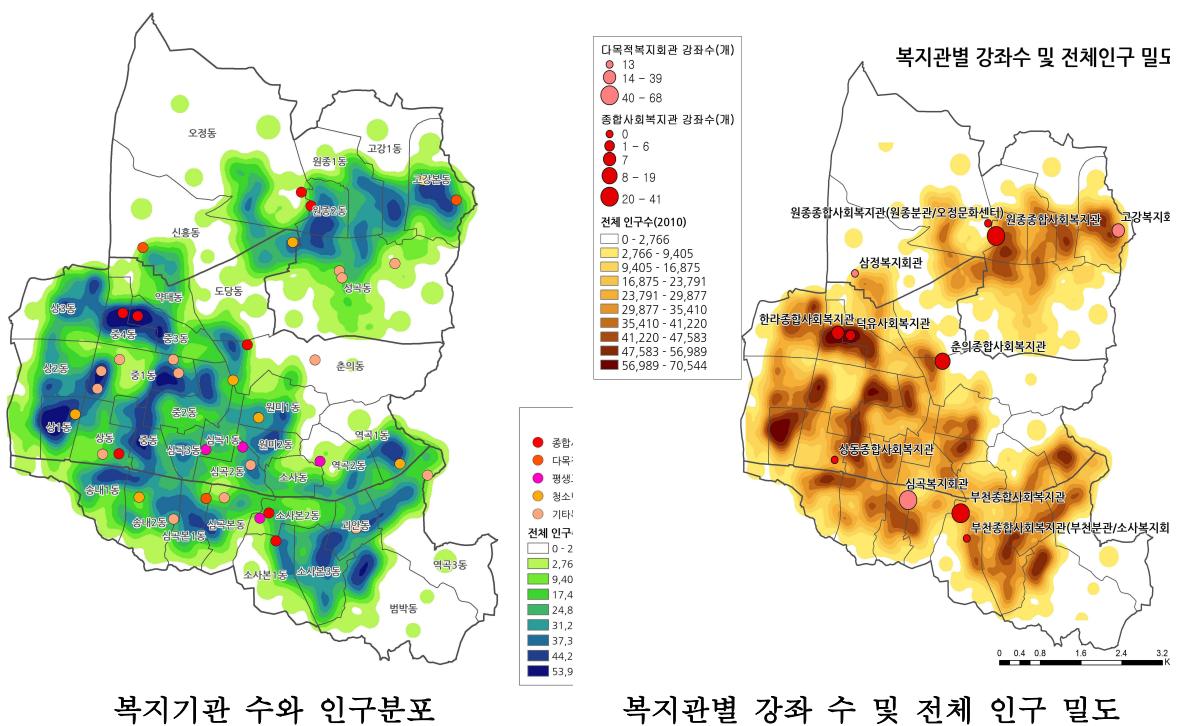
① 문화 프로그램 공급의 편중현상



[그림4-16] 부천시 문화프로그램 공급의 편중현상

- GIS 지도계산기의 공간연산을 이용하여 ‘인구밀도’ 대비 ‘문화 프로그램’ 공급의 지리적 격차를 살펴보면, 바로 위의 GIS 지도와 같음
- 이 지도는 값이 클수록 검은색의 농도가 진하게 표현되었는데, 이는 인구밀도는 높지만 문화 프로그램 공급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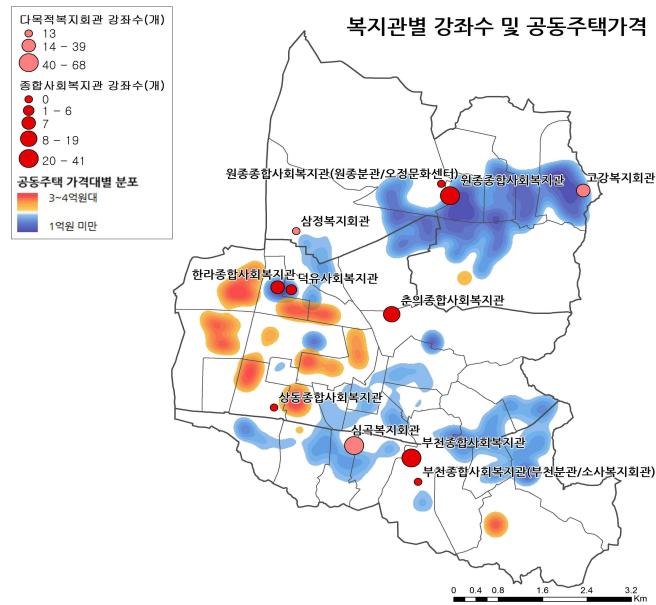
- 예를 들어, 오정구의 진한 검정지역은 인구밀도는 10점대로 높지만 문화 프로그램의 상대적 공급점수는 3점 수준에 불과하여 ‘인구점수’에서 ‘프로그램 점수’에 뺄셈을 적용하면 ‘7’값이 나왔다는 것으로 공급이 불균형하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원미구의 춘의동 지역은 바탕이 흰색으로 인구밀도에 비해 문화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복지시설 위치와 인구분포는 비례관계를 보이지 않으며, 당초 복지시설 건립은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건립하였기 때문임
 - 복지시설의 강좌 수와 부천시 인구분포는 어느 정도 비례 관계를 보임

[그림4-17] 복지시설 수와 강좌, 인구분포³⁸⁾

- 복지관별 강좌 수와 공동주택가격(소득수준)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임
 - 1억 원 미만 대 공동주택가격 지역과 강좌 수는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음
 - 원종동, 춘의동 등 차상위계층이 많이 밀접한 지역은 강좌수가 많았고, 상동 등 공동주택가격이 3억 내외인 지역은 강좌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38) 부천문화재단, “부천 생활문화복지서비스전달체계현실화 방안”, 2014, 115쪽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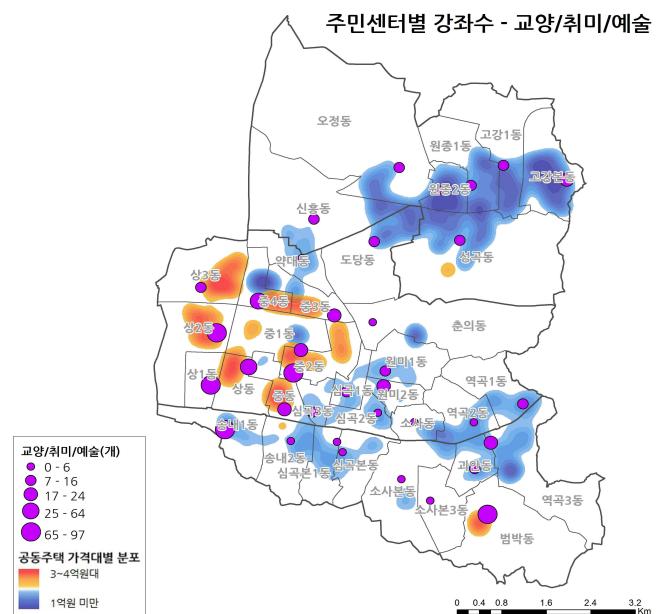
● ● ● 문화마을 최소기준과 거버넌스 모델 구축



[그림4-18] 복지관별 강좌 수 및 공동주택가격 비교

○ 주민자치센터 강좌 수와 경제력은 상관관계를 보임

- 중상동 지역은 교양/취미/예술 등 강좌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력과密切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임



[그림4-19] 주민센터 강좌 수와 공동주택가격 비교

○ 문화시설별 강좌 현황 및 대리지표와의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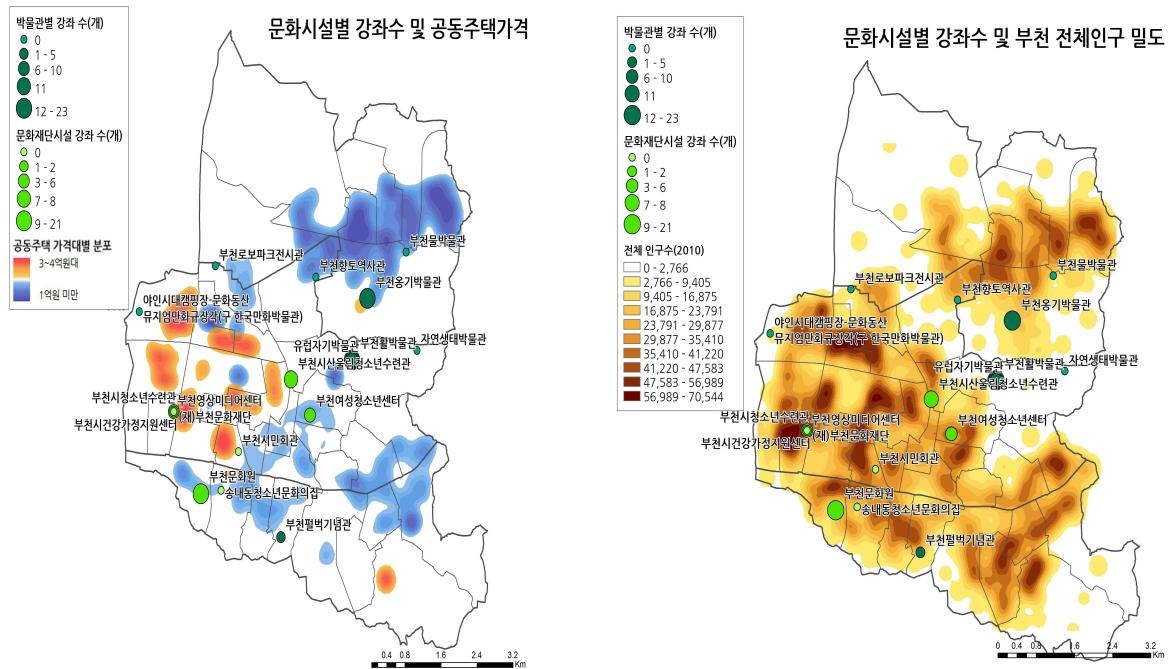
- 문화시설 분포(분야별)와 강좌 내용

<표4-40> 문화시설 분포(분야별)와 강좌 내용

(단위 : 개)

문화	건강/체육	교양	기타	사회교육	외국어	취미/예술	합계
도서관	0	295	29	58	97	37	516
문화원	0	0	0	0	0	0	21
문화재단	1	3	10	2	0	6	22
박물관	0	14	3	5	0	66	88
합계	1	312	42	65	97	130	647

- 부천시 인구분포 및 주택가격과 문화시설별 강좌 수는 상관관계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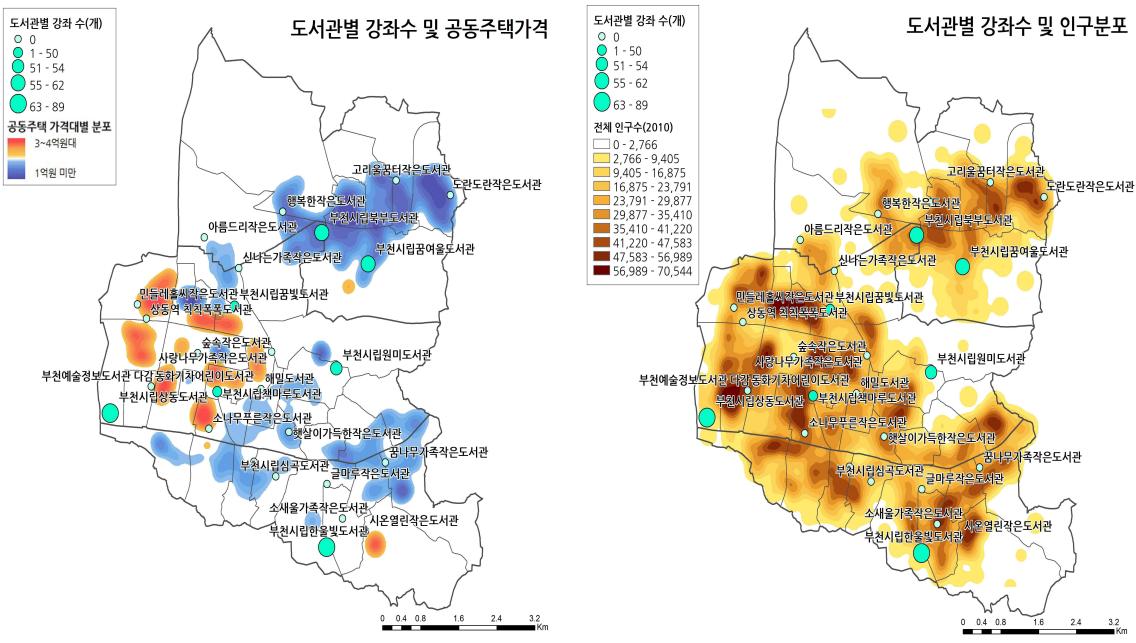


[그림4-20] 문화시설 강좌 수와 경제력과 인구밀도 관련성

○ 부천시 인구분포·주택 가격과 도서관 강좌 수는 일부 관계성이 있음

- 도서관 강좌 수와 공동주택가격 비교에서 일부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원종동 및 소사동 지역 도서관의 경우 1억 미만인 경우 강좌 수가 높음
- 그러나, 인구분포와의 관계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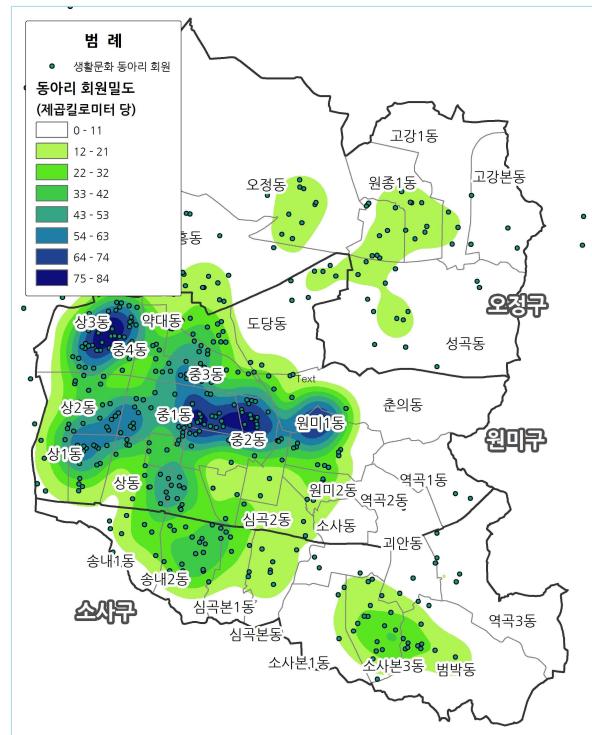
● ● ● 문화마을 최소기준과 거버넌스 모델 구축



[그림4-21] 도서관 강좌수와 인구분포, 공동주택가격 비교

② 생활문화활동의 지리적 편중

□ GIS 밀도분석



[그림4-22] 부천시 생활문화활동의 지리적 편중

- 부천시에 등록된 생활예술 동아리에 등록된 회원 중 주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898명을 GIS의 공간정보로 전환하여 분석함
- 부천시 거주 740명 회원은 음악부문이 559명이며 합창(408명), 밴드(49명)과 악기연주(국악 – 사물, 기타, 색소폰 등)가 주를 이루고, 무용부문에서 134명이 참여하고 있음
- 지리적 분포를 살펴보면 원미구 지역에 521명이 거주하고 있어 부천시 거주 회원의 70%에 해당하는 압도적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음. 원미구 내부에서는 주로 상동과 중동 지역에 고밀도를 형성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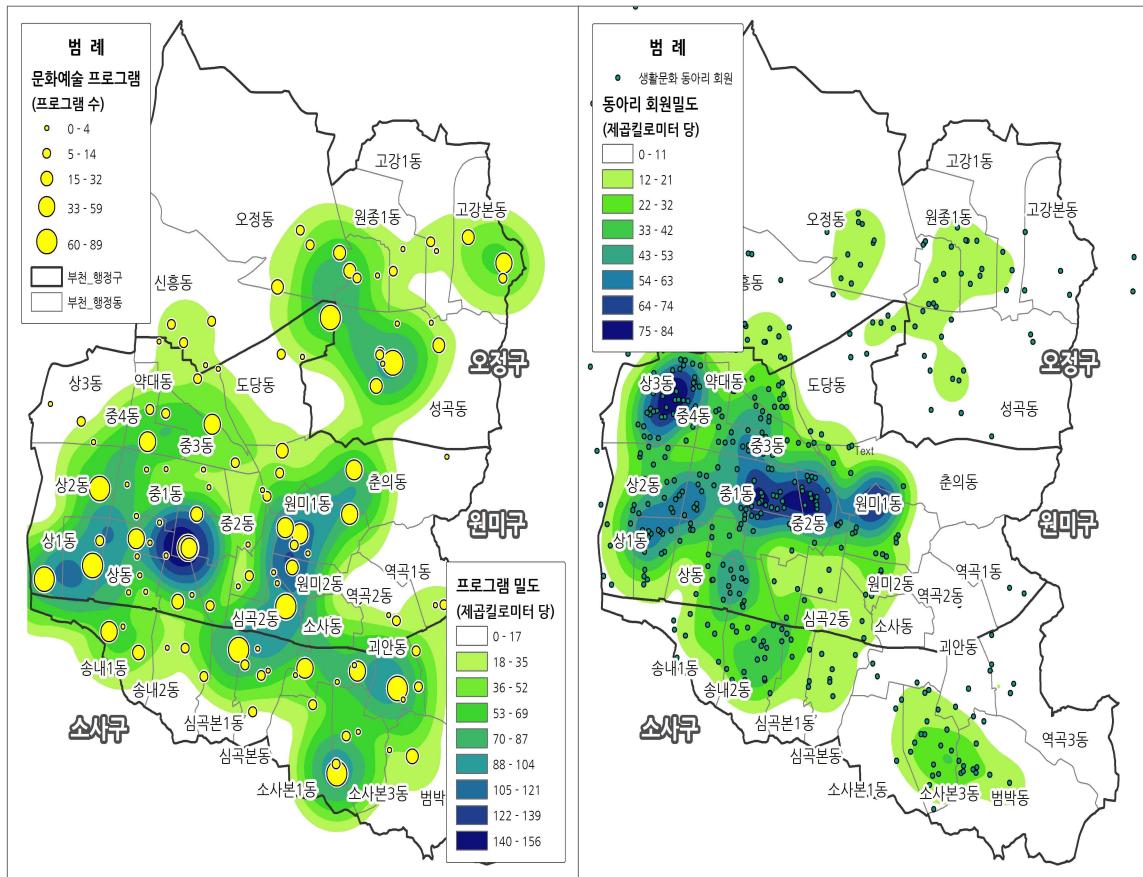
□ 생활예술 동아리 회원의 지역별 분포

<표4-41> 생활예술 동아리 회원 지역별 분포

구분	무용	미술	연극	음악	소계	비율
경기	12			23	35	4%
부천	134	34	13	559	740	82%
서울	5			30	35	4%
세종				2	2	0.2%
인천	10	3		73	86	10%
합계	161	37	13	687	898	100%

중분류	경기	부천	서울	세종	인천	소계
국악	4	22	6		6	38
기타		11				11
난타	2	29				31
무용/댄스	12	134	5		10	161
미술/문화/공예		34	0	0	3	37
밴드	5	49			9	63
색소폰		22				22
악기		5				5
연극/뮤지컬	0	13	0	0	0	13
클래식	5	13	1		9	28
합창	7	408	23	2	49	489
총합계	35	740	35	2	86	898

□ 교차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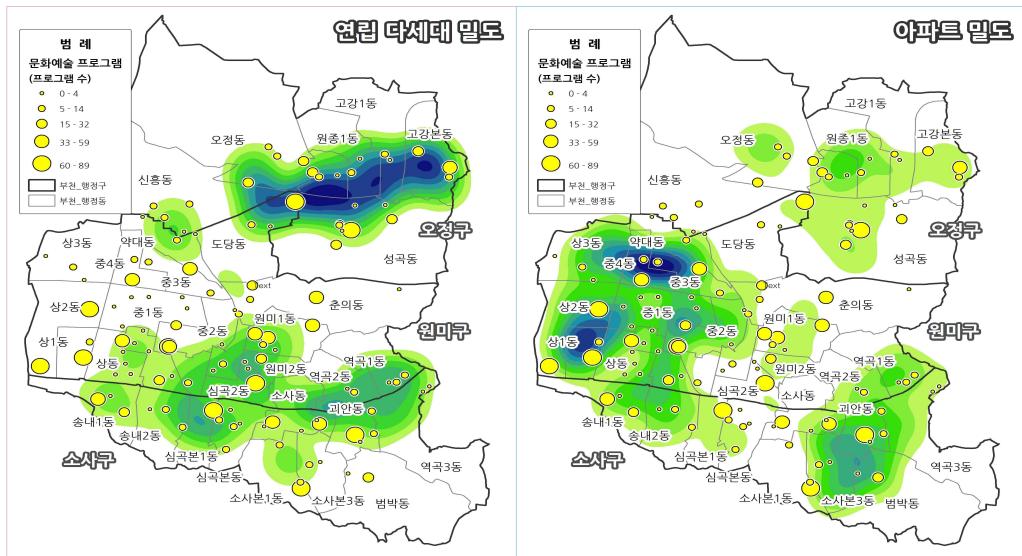


[그림 4-23] 부천시 문화예술프로그램 및 생활문화예술동아리 교차분석

- [왼쪽 지도]는 부천시 공공기관에서 운영한 1909개 문화 프로그램의 지리적 분포이며, [오른쪽 지도]는 부천시 소재 문화예술 동아리의 회원 분포도임
- [오른쪽 지도]인 회원분포도는 실제 활동 중인 회원을 전수 추적한 것이 아니라 주소정보가 있는 한정된 데이터에 기반을 두어 신뢰도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그럼에도 도서관 도서 대출과 유사한 패턴이 드러나며 동시에 문화 프로그램 공급에 직간접적인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예를 들어, 원미구 원미1동 지역은 도서관 대출밀도는 상대적으로 미약했지만 문화 프로그램 제공기관과 제공 프로그램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문화예술 동아리 회원의 분포도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됨
- 이와 같은 추정이 실제 현실에서 증명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동아리 회원들에 대한 별도의 면접조사나 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배경을 연구하면 상관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견됨

② 인문 사회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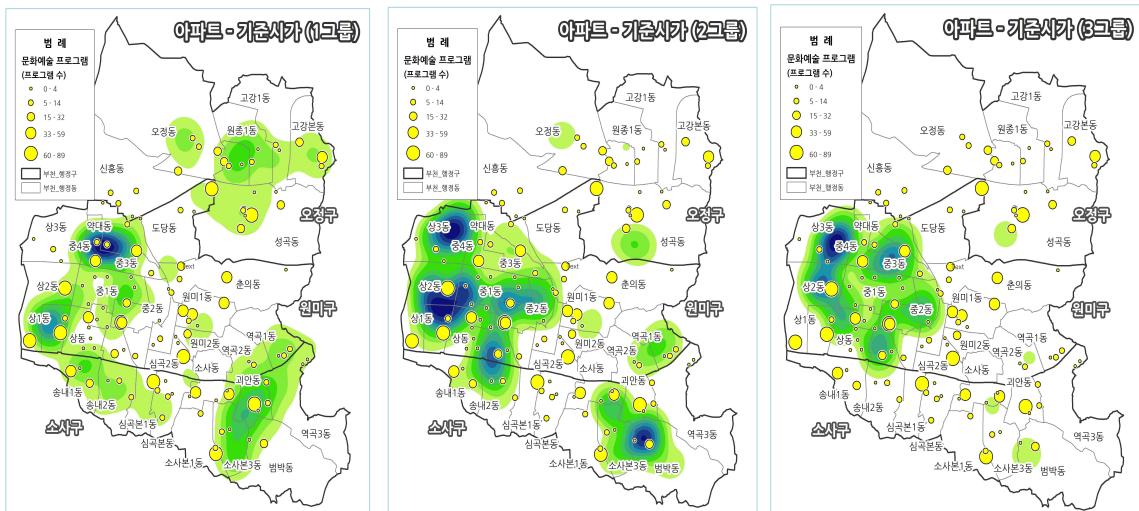
□ 주택유형



[그림4-24] 부천시 주택 유형 현황

- 부천시 소재 2014년 기준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아파트(134,344 세대), 연립·다세대(80,476 세대) 총 21만 세대의 주택 데이터를 GIS 지도에 시각화함.
- 연립·다세대 주택은 오정구 지역에 강력한 밀집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아파트 세대수는 원미구 중동과 상동을 중심으로, 소사구에서는 소사동 일대에 중밀도를 형성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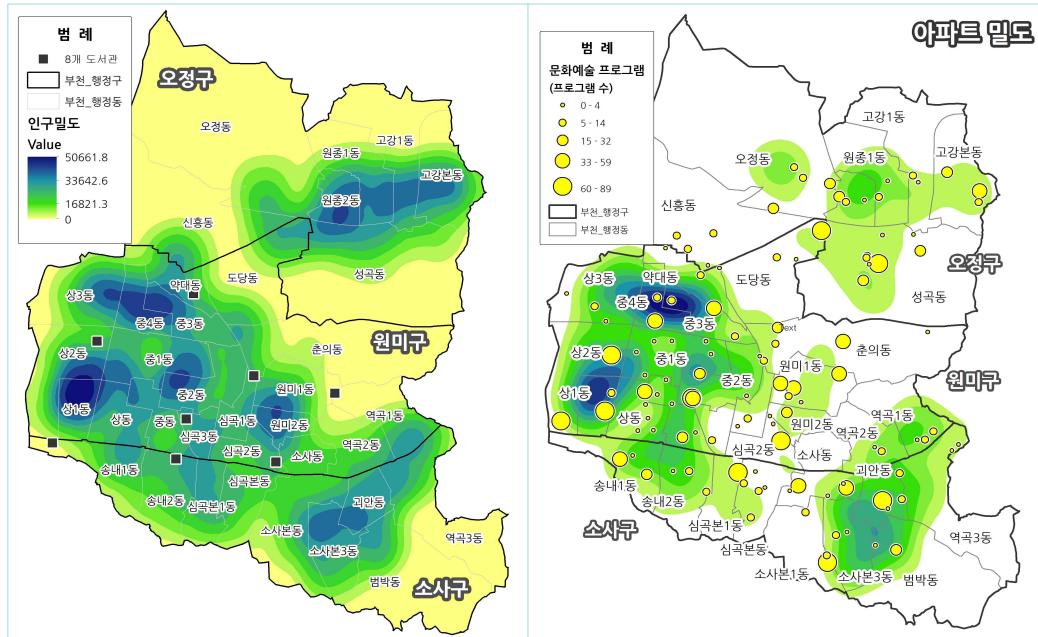
□ 아파트 기준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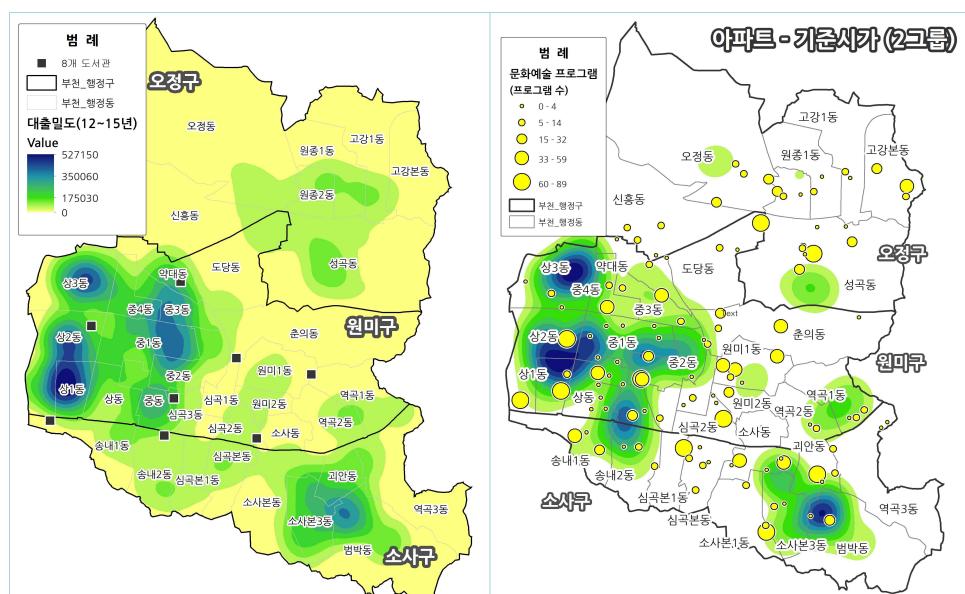
[그림4-25] 부천 아파트 기준시가를 활용한 소득수준 분포도

- 국토교통부가 2014년에 발표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천시 소재 아파트의 가격대를 상·중·하로 구분하여 각각 세대 상 1억 단위로 나누어 3개 그룹으로 분포도를 살펴봄
- 1그룹은 부천시 전체에서 분포가 확인되며, 2그룹은 오정구 일부, 원미구 상당지역, 소사구 일부에서 분포가 있고, 3그룹은 원미구 중동 신도시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임

□ 문화향유와 주택요인



[그림4-24] 부천시 문화향유와 주택요인(아파트 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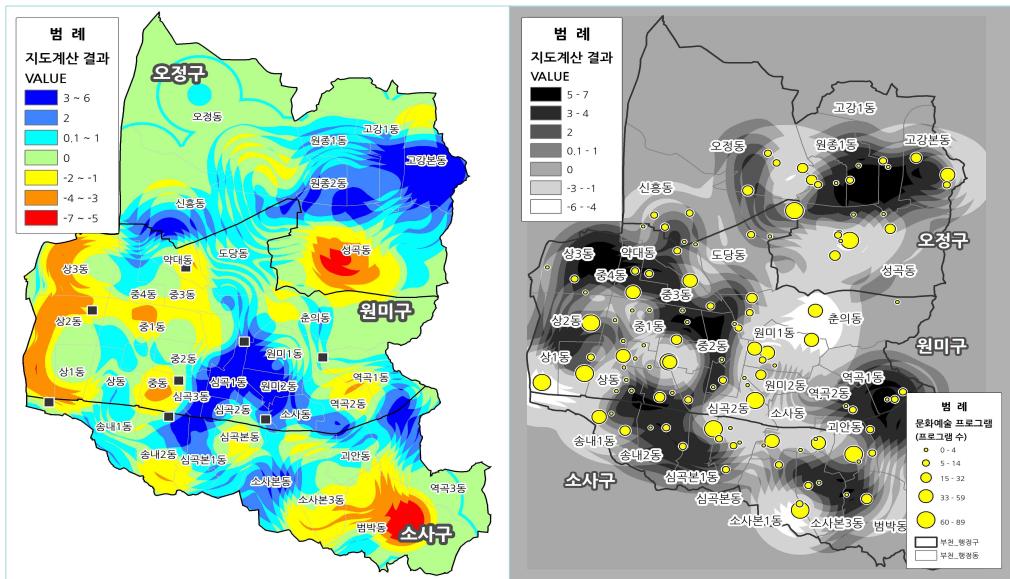


[그림4-26] 부천시 문화향유와 주택요인(아파트 기준시가/2그룹)

- 총 4장의 GIS 지도 중에서 상단 왼쪽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① 부천시 인구밀도 ② 부천시 아파트 세대수 밀도 ③ 부천시 도서관 도서대출 밀도 ④ 부천시 기준시가 중간가격대 아파트 세대수 밀도
- 부천시에서 2012년부터 2015년 9월까지 도서관 대출도서 443만권의 지리적 패턴과 가장 유사한 지도는 아파트 전체 세대수와 중간 가격대를 형성한 세대수 지도임

3 소결

□ 향유와 공급의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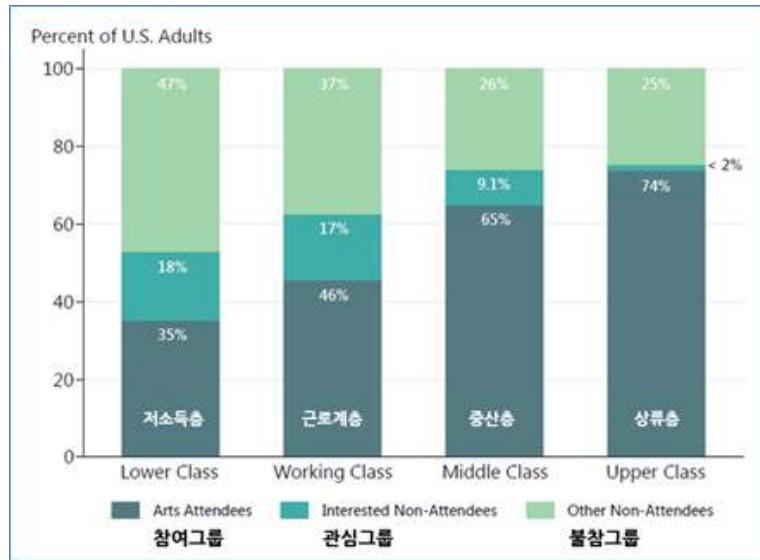


[그림 4-27] 향유와 공급의 격차

- 문화향유와 문화정책의 공급은 지리적으로 불균등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불균등의 내용, 양상, 정도에 대한 진단이 필요함
- 부천시의 경우, [왼쪽 지도]가 표현하고 있는 인구밀도와 도서관 대출이용과의 격차현상, [오른쪽 지도]가 표현하는 인구밀도 대비 1909개 문화 관련 프로그램 공급의 격차는 상당지역에서 반복되고 있음
- 예를 들어, 오정구의 고강본동과 원종동 지역, 원미구 심곡동과 역곡동 지역, 소사구의 송내동과 소사동 일부 지역이 두드러짐
- GIS 분석은 그 자체로 문제해결의 효능을 가지지 못하고, 진단적 기능에 그치나 향후 부천시 문화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지리적 초점을 결정하는 시각화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음

□ 정책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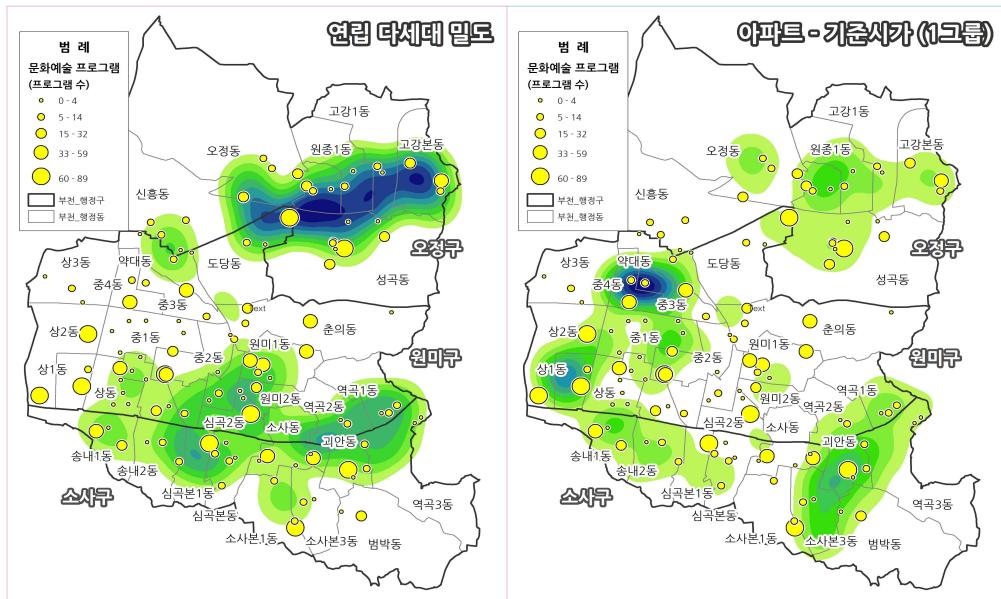
- NEA 연구의 시사점 고려



[그림 4-28] NEA 문화예술 관람 장벽과 동기에 대한 그룹 비교

- 미국립문화예술진흥기금(NEA) 『문화예술 관람의 장벽과 동기에 관한 연구』에서 밝힌 바 있듯이 문화예술에 관한 3가지 행동유형별로 섬세한 정책수립이 필요함
- 문화향유 그룹을 참여그룹, 관심그룹, 불참그룹으로 구분하고 정책의 초점을 ‘관심그룹’의 ‘참여그룹’으로 전환에 맞춘다면 그 구체적 대상이 부천시에는 어느 집단, 어느 지역인지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필요함

□ 주택 데이터 분석의 시사점



[그림 4-29] 부천시 주택데이터 분석 시사점

- NEA가 주목한 대상 집단은 문화예술 관람에 관심은 있으나 실제 지난 1년 동안 참여한 적은 없는 집단이었음. ‘관심은 있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집단’의 현실적 고충은 ① 시간부족, ② 비용부담, ③ 동반자 부재, ④ 지리적 접근성이었음
- 서울시 성북구의 도서관 빅데이터 연구에서 상대적 소득상위 그룹은 접근성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이용에서 구민전체 평균을 상회하고 연립·다세대 지역은 지리적 접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바 부천시에도 유사한 전제를 적용한다면, [왼쪽 지도]에 표현된 ‘연립·다세대 지역’과 [오른쪽 지도]에 표현된 ‘아파트 가격대’ 중 상대적 하위그룹이 집중된 곳에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2015년 지역문화컨설팅

제5장

문화마을 최소기준 설정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구상

제1절. 문화마을 최소기준 설정 방향

제2절. 문화마을 최소기준 구성

제3절. 문화마을 거버넌스를 위한 구상

제1절 문화마을 최소기준 설정 방향

가. 개념적 검토

□ 문화 마을에서의 문화

- 문화마을 최소 기준은 문화마을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문화마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됨
- 기존 연구에서 문화마을은 “주민의 문화적 삶을 생활 속에서 실현하는 거주 장소”, “마을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의 문화 활동을 통해 마을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고 마을문화와 주민생활의 창조적 복합을 통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창출하여 이를 통한 사회·문화적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마을”³⁹⁾, “지역을 단위로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으로서 마을공동체를 표현하는 하나의 행동유형”⁴⁰⁾ 등으로 정의되고 있음
- 여기서 문화는 개인의 수준에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또는 향상된 삶을 의미하는 목적 —“문화적 삶”—으로 나타나며, 마을의 수준에서는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수단이자 경제적 가치의 기반으로 나타남. 이렇게 문화는 경제적 발전을 뛰어넘는 어떠한 위치로 —‘삶의 질 향상’과 같은— 설정되면서도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나타남
- 요컨대 문화마을에서 언급되는 문화는 두 가지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첫째는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영역으로서의 문화임. 여기서 문화는 다른 사회적 영역과 기본적으로 분리된 채 존재하는 예술 장르와 같은 것으로 인식됨. 둘째는 사회의 전 영역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윤리로서의 문화임. 여기서 문화는 가장 폭넓게 이해하면 특정한 삶의 양식으로 볼 수 있음
- 이렇게 문화마을에서의 문화는 두 가지 수준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첫 번째 수준의 문화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적 성격이 강하다면, 두 번째 수준의 문화는 그 자체가 목적으로 제시됨. 달리 말하면 전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을의 문화이며, 후자에서는 문화적 마을이라고 할 수 있음
- 마을의 문화에서 문화는 다른 사회적 영역과 분리된 것으로 설정됨. 때문에 마을의 문화는 특정한 시설을 적정 수준으로 공급함으로써 향상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쉽게 설정될 수 있음. 가령 인구수에 비례해서 도서관, 문예회관 등을 지은 다음, 강좌를 개설하고, 공연을 기획하면 마을의 문화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
- 이것은 도시 정부가 문화를 하나의 정책 대상으로 삼을 때 손쉽게 채택할 수 있는 관점임. 무엇보다 문화라는 것을 몇 개의 양적 지표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 도시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양적 지표가

39) 조광호, 「문화도시 문화마을 선정 및 지원 방안 연구(안)」, <문화도시 문화마을 심포지엄> 자료집, 문화체육관광부, 2013.10.18.

40) 박수현 외, 「문화마을 만들기에서의 공동체의식 형성요인 연구 - 성남시 「우리동네문화공동체 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5권 제5호, 2013.12/25(5): 207~230쪽.

지난 장점은 예산을 투여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고, 다른 지역과의 비교가 가능해진다는 것

- 그러나 이 장점은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것은 양적 지표가 사람들의 삶과 유리된 순수한 숫자로만 남을 수 있다는 것. 가령 적정 기준에 따라 문화시설이 공급되더라도 개인의 노동 조건이 개선되지 않는다 면 ‘문화적 삶’의 꿈은 요원할 수밖에 없음. 또한 다른 지역과의 비교 수단으로 이용되는 양적 지표는 도시 간 경쟁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삶보다는 도시라는 껍데기에 집중하는 정책을 낳을 수 있음. 다시 말하면 문화적 삶은 문화 시설의 적절한 공급만으로는 이를 수 없는 것
- 반면 문화적 마을에서의 문화는 다양한 사회적 영역을 가로지르는 원리이자 정신적, 물질적으로 향상된 삶 자체를 지칭. 즉 기본적인 주거 여건과 소득, 노동과 여가의 균형 이외에도 적절한 환경, 안전, 의료 등을 포괄적으로 갖춘 상태를 의미

□ 문화 마을에서의 마을

- 여기서는 ‘마을’이 지닌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함. 문화적 삶이 만일 적절한 시설의 공급만으로 달성될 수 있다면 굳이 마을의 문제를 다룰 필요는 없을 것임. 국가최소기준 같은 서비스 공급 기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임. 따라서 문화적 삶에 있어 마을이 지닌 의미와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마을은 특정한 경계로 구획된 공간이라기보다는 삼리 지리학적 공간 범주⁴¹⁾. 즉 마을은 선을 통해 그려지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집합적 활동이 구성하는 공간임. 마을이 있어서 사람들의 활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활동이 마을을 만들어 내는 것. 이렇게 볼 때 ‘마을을 만든다’는 의미는 결국 사람들의 집합적 활동을 촉진하고 매개한다는 의미. 그렇다면 집합적 활동이 지닌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고립된 삶과 새로운 관계성

- 집합적 활동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이들의 삶이 충분히 사회화되지 못했다는 것. 여기서 사회화되지 못했다는 의미는 살아가며 만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개인의 자기계발을 통해 서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불안이 일상화된 삶을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유일한 해결책 이란 노동력 상품으로서의 자기를 계발하는 것으로 귀결되며, 이는 고독한 개인, 고립된 삶으로 이어짐
- 그러나 불안이 일상화된 삶은 살아가기 위해 기존의 질서를 받아들이게도 하지만 거꾸로 모든 것을 물음 속으로 던지게 하는 계기로도 작동할 수 있음. 도미야마 이치로는 “폭력의 구체적인 작동에 한발 앞서

41) 부천시의 마을 만들기 사업 조례에서도 유사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조례에 따르면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015.02.16.)).

방어태세를 취하고 있는 겁쟁이들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관계성”⁴²⁾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새로운 관계성”이란 고립된 삶으로부터의 탈피, 집합적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음. 1907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런던 대공습, 9·11 테러 등을 겪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보여준 연대를 우리는 새로운 관계성의 사례로 이해할 수 있음.⁴³⁾ 또한 정책으로서의 마을 만들기 사업 이전부터 활발하게 전개 되어온 공동 육아를 비롯한 다양한 마을 활동 역시 자기계발의 고독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관계성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들임

- 신자유주의 사회는 교육, 의료, 주거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차원들을 직접적인 축적지점으로 전환시켜 그 차원들을 개인의 비즈니스로 치환함. 가령, 과거 노동력을 양성하여 다시 사회에 환원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공간,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었던 공간은 직접적인 축적의 공간으로 전환됨. 자본이 대학을 인수하여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고,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까닭이 그것임. 학생들이 높은 등록금을 감당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일이 되었는데, 자기 기업가로서 학생 개인이 대학을 다닌다는 것은 이제 더 나은 삶을 위한 하나의 비즈니스요, 투자이기 때문임

□ 공유지로서의 네트워크

- 마을의 새로운 관계성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하나의 단초는 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예를 살펴보면,
- 하나의 직업군으로서 예술가들이 다른 직업군과 변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이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임금노동 외부에 처한 경우가 많다는 점. 이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기대고 있는 임금노동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재생산을 위해 스타 예술가가 되거나 다른 무언 가에 기대야 함.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실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숫자 또한 매우 적음. 때문에 대다수의 예술가들은 다른 무언가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음. 예술가 네트워크가 그 전부는 아니라 해도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임
- 임금노동 외부에 있는 예술가들에게는 비정기적인 일거리를 얼마나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임. 예를 들어 디자인 작업을 받아오거나,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각종 기금을 받는 등의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계속해서 작업을 할 수 있음.
- 이러한 일들을 지속하는 데 있어 예술가 네트워크는 절대적임. 예술의 사회적 영향 프로젝트(SIAP)에서 발간한 필라델피아 지역 예술가들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지역 예술가들은 다른 소위 창조적 직업 전문가들에게 있는 제도적 환경에 대한 대안으로 기능하는 비공식 네트워크를 활발하게 유지하고 있음. 그 보고서는 예술가 개인들 간의 접촉은 아주 중요한 반면 공식적인 제도는 예술가들에 의해 활성화

42) 도미야마 이치로, 『폭력의 예감』, 손지연·김우자·송석원 옮김, 그린비, 2009, 10쪽.

43) 리베카 솔닛, 『이 폐허를 응시하라』, 정해영 옮김, 펜타그램, 2012 참조.

되는 네트워크에 비해 부차적이라는 것을 보여줌

- 보고서의 응답자들은 창조과정, 개인적 지원, 전문적 역량 계발, 물질적 필요에 대한 지원이나 조언을 구하기 위해 (공식적인 제도가 아니라) 다른 예술가와 접촉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음. 일상적 지원 네트워크의 핵심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들 자신인 것임⁴⁴⁾
- 이러한 일들은 서울 문래동의 예술가 네트워크에서도 비슷하게 확인됨. 좁은 지역에 밀집해 있는 이들에게 예술가 네트워크는 예술 활동을 가속화하는 동력으로 작동함. 또한 이들은 필요한 장비나 공간을 공유하거나, 일상을 재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즉, 요리, 세면, 빨래 등을 위한 공간을 공유해 왔음
- 이렇게 예술생산의 동력이 된다는 점, (비록 큰 액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일상적 삶의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공간을 공유하는 시도들이 꾸준히 이어졌다는 점은 예술가 네트워크를 하나의 공유지(the commons)⁴⁵⁾로 바라볼 수 있게 함. 이 공유지는 공유토지 같은 물질적 형태보다는 비물질적인 형태를 띠면서 그 자체로 하나의 부(富)를 이루고, 앞서 이야기한 연대의 한 사례로 기능하고 있음

□ 네트워크의 작동 원리로서의 집합적 감각

- 이러한 예술가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힘은 무엇인가? 그것은 물론 그 네트워크가 예술가 개인의 예술 창작과 자기 재생산에 있어 유리한 환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임. 그러나 네트워크의 작동에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함께 있다는 혹은 함께 한다는 느낌과 같은 감각적인 것으로서, 무언가를 함께 할 때 그 과정에서 생성되며 교환되는 에너지와 같은 것
- 메이커(maker) 문화에 대한 자신의 글에서 제인 암스트롱(Jayne Armstrong)은 DIY 페미니즘은 여성 억압에 대한 공유된 믿음으로 결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함. 그것은 오히려 독립적이고 탈 전문화된 문화적 생산성이 지니고 있는 정동 적이고, 감정적이며, 활력 화하고,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한 공유된 투자를 통해 결속되어 있음. ‘생산하고, 만들고, 창조하고, 즐기는’ 것에 대한,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열정적인 표현이 바로 DIY 페미니즘의 문화 정치를 이해하는 열쇠인 것.⁴⁶⁾

44) Susan C. Seifert, Mark J. Stern, and Mehreen Zaman, *Artists and their Social Networks*, Metropolitan Philadelphia, 2004, University of Pennsylvania October 2005(<http://www.sp2.upenn.edu/SIAP>).

45) 공유지(the commons)는 본래 봉건시대에 농민들이 공유하면서 공동 경작했던 토지를 가리킨다. 피터 라인보우(Peter Linebaugh)는 『마그나카르타 선언』에서 인클로저 이전 공유지에 기반을 둔 생활과 이를 뒷받침한 <삼립헌장>의 역할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18세기만 해도 잉글랜드의 들판은 대체로 개방되어 있었고 자작농, 아이들, 여성들이 공동하기(commoning)를 통해 삶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인클로저에 의해 이러한 삶의 양식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공유지는 공유 토지라기보다는 비물질적인 형태로서 사람들에게 어떤 이득을 제공할 수 있는 상호작용, 네트워크 그 자체를 가리킨다. 중요한 것은 공유지가 어떤 재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공유지 연구자 데이비드 볼리어(David Bollier)에 따르면 공유지란 “자원 + 공동체 + 일련의 사회적 규약”을 뜻한다(데이비드 볼리어,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배수현 옮김, 갈무리, 2015, 40쪽). 문화마을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 다룬 공통체(commonwealth) 또한 이러한 주체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유지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46) Armstrong, Jayne. 2009. *DIY Feminism: A Dialogical Account*. PhD diss., University of East London(Chidgey, Red. “Developing Communities of Resistance? Maker Pedagogies, Do-It-Yourself Feminism and DIY Citizenship”, *DIY*

- 이와 유사하게 예술가 네트워크의 작동에는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보다는 함께 함으로써 얻는 에너지, 감각이 어쩌면 더 중요함. 문래동의 예술가들을 사례로 보면, 이들은 특정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며, 문래동 창작촌은 각자가 아는 사람의 소개로 혹은 소문을 듣고 모여들면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지역임. 이렇게 아무런 목적 없이 개별적으로 모여든 이들로 하여금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함께 협력하게 하는 것은 특정 가치에 대한 추구나 물질적 이해관계보다는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함께 생산하고, 창조하고, 즐기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감각임. 이 집합적 감각은 새로운 관계성의 기반을 이루며 결국 네트워크를 결속시키고 유지시키며 확장하는 힘이 되는 것임
- 지역 예술가의 사례를 요약하면 첫째, 새로운 관계성=예술가 네트워크가 하나의 공유지로 작동하면서 네트워크에 참여한 개인들에게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이 되고 있다는 것. 둘째, 이들을 결집시키는 것은 어떤 대의나 이념이 아니라 함께 하면서 발생되는 집합적 감각이라는 것. 우리는 이 집합적 감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공간을 마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임

□ 문화적 마을과 최소 기준

-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시 문화적 마을로 돌아가면, 문화적 마을이란 사회적인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고립되지 않은 개인들의 집합적 활동이 구성하는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문화마을을 이렇게 문화적 마을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 문화마을 최소 기준은 공유지로서의 집합적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함. 앞서 마을의 문화에서 언급한 문화시설의 공급 문제도 이러한 관점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비록 문화시설의 공급만으로 문화적 삶을 이룰 수는 없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풍부할수록 사람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이 강화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임. 또한 사람들의 집합적 활동을 유지하는 힘이 사람들이 공유하는 집합적 감각이라고 할 때 예술장르로서의 문화 활동은 이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은 또한 특정한 물리적 시설과 프로그램을 필요로 함
- 따라서 중요한 문제는 문화시설·사람·프로그램·예산을 문화적 마을의 확장이라는 틀 안에서 공급하고 운영하는 일임. 즉 문화마을 최소 기준은 공유지로서의 집합적 활동 활성화라는 틀 속에서 설정되는 분야별 기준 즉, 사람, 공간, 프로그램, 예산에 관한 최소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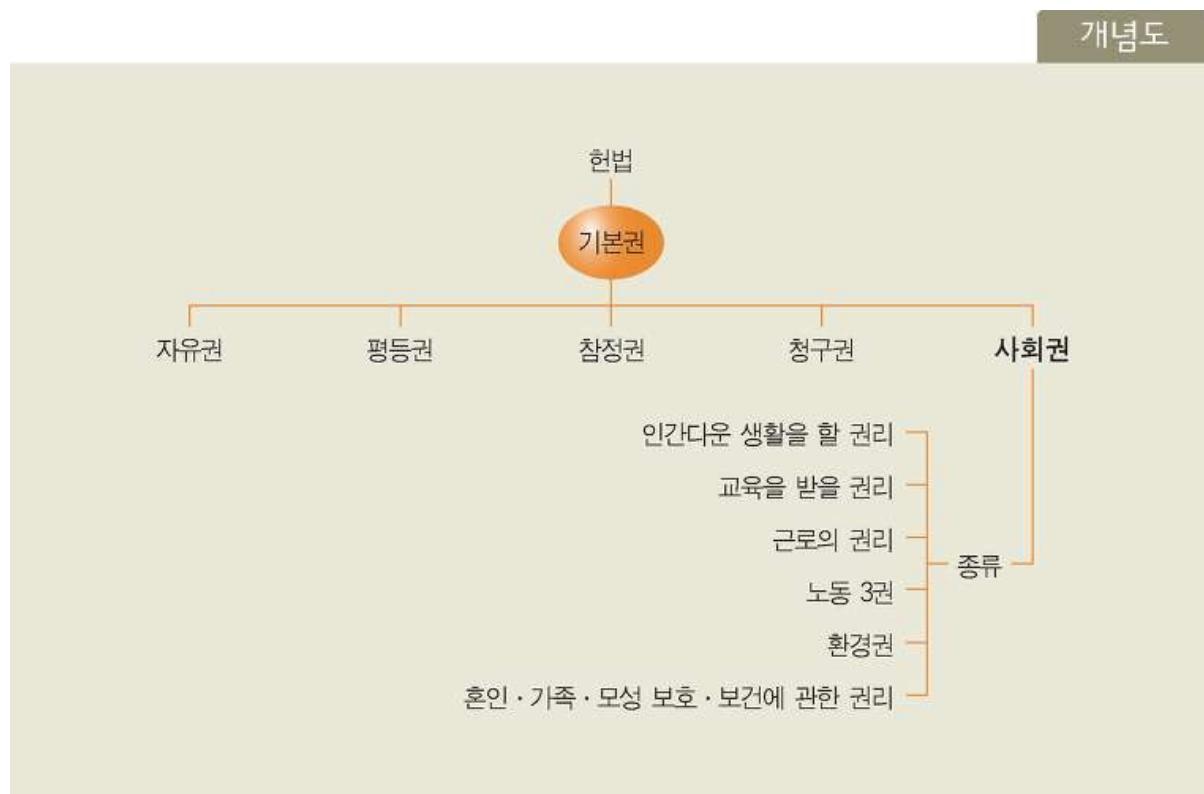
나. 최소기준 설정 원칙

□ 문화마을 최소기준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설정하고자 함

Citizenship: Critical Making and Social Media (MIT Press, 2014)에서 재인용).

○ 첫째, ‘사회권’의 적극적 수용

- 사회권은 교육권, 노동권, 건강권, 복지권을 포함하는 포괄적 내용이며, 연령, 소득, 장애, 사회경제적 위치와 상관없이 공동체가 발전시켜온 경제·사회·문화적 성과를 시민들이 공유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권임⁴⁷⁾



[그림5-1] 사회권 개념도⁴⁸⁾

○ 둘째, ‘문화권’의 적극적 수용

- 원칙을 설정함에 있어 자유권·평등권·참여권·환경권으로 나눠 설정하며, 수단으로는 사람·공간·프로그램·예산으로 구분하여 방법을 찾아감

○ 셋째, 수용자(일반시민)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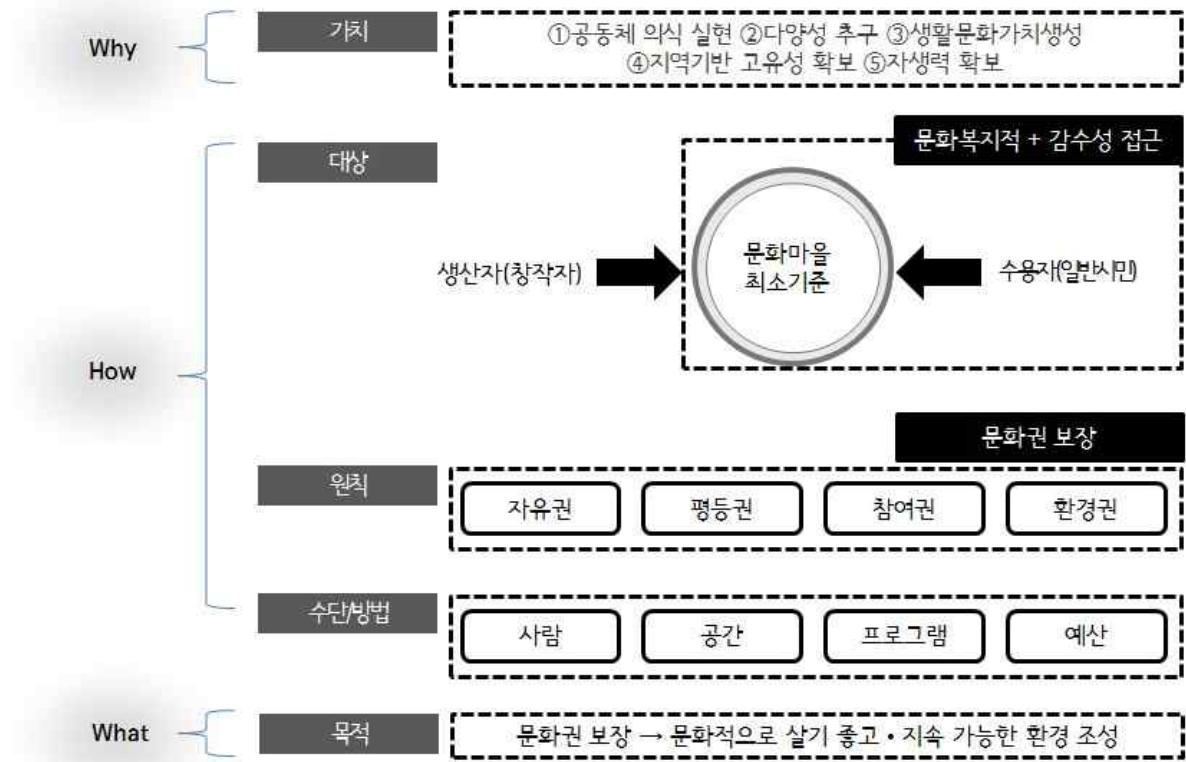
- 문화 복지적 접근 및 감수성 접근 차원에서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의 보장을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함

○ 넷째, 도시 전사적 차원이 아닌, 마을단위를 기준으로 설정함

- 외연적으로 성장한 도시에 거주하는 마을단위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는 높지 않아, 체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준설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47) 서울연구원, “서울시민 복지기준 설정 연구”, 2012, 81쪽 인용.

48)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39XXX8600099>



[그림5-2] 문화마을 최소기준 설정 원칙 및 방향

제2절

문화마을 최소기준 구성

1 사람기준

가. 범위와 접근 방법

-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문화적 마을을 고립되지 않은 개인들의 집합적 활동이 구성하는 공간으로 이해한다면, 사람 기준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작동하는 네트워크라 할 수 있음
-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예술가의 역할임. SIAP의 보고서는 “문화 브로커”, 즉 매개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예술가들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음
- 그 보고서에 따르면 “예술가 네트워크는 ‘위계적인’ 구조보다는 ‘기업가적’ 구조의 특징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기업가적 네트워크는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접속들로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개인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구조의 형식”을 가리킴. “브로커 네트워크로도 불리는 기업가적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기업가’로 불리는 개인들이 구축하는 것
- “예술 분야, 문화, 전문 분야, 그리고 정책 영역을 가로지르며 빌언하고 계획하는 기술을 가진” “문화 브로커들”(매개자들)은 네트워크를 창조하고 지속시키는 데 있어 필수적임
- 예술가들의 경우 제도화된 노동 환경이 거의 부재하기 때문에 예술과 비예술을 가로지르는 다양한 영역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음. 이렇게 “일자리를 얻고 그 일을 하기 위해 다양한 사람, 프로젝트, 장소 들 사이를 헥해해야”하는 예술가들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들이 교차하는 ‘마디’로 기능하며, 그리하여 도시 커뮤니티와 메트로폴리탄 지역 내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 그래서 “예술가들은 의도했던 그렇지 않든, 개인들과 장소, 조직, 또는 커뮤니티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함. 다시 말하면 “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그 작용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예술가들의 사회적 자본은 “공동체 구축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스플로버 효과를 갖는다”는 것⁴⁹⁾
- 따라서 사람 기준에서는 우선 매개자로서의 예술가의 역할에 주목하여 이들의 활동 기반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함
- 다른 한편으로 전문 인력에 대한 기준도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마을 수준에서의 문화시설로 생활문화시설과 도서관을 설정하였으므로(다음 절) 이들 시설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다루도록 하겠음
- 두 시설 중 특히 생활문화시설이 예술가들의 활동 기반을 확장할 수 있는 곳으로 보임. 부천시에는 3대 콘텐츠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만화·영화·음악을 중심으로 그동안 축적된 문화 자원이 있으므로 이들을 생활

49) Susan C. Seifert, Mark J. Stern, and Mehreen Zaman.

문화시설과 연결하는 것이 필요함

- 실제로 부천시의 아트밸리 사업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아트밸리 사업이 주민/청소년에게 질 좋은 예술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여기서는 예술가와 주민의 접속을 마을의 구성으로 이어지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함
- 그러기 위해서는 예술가와 주민이 이미 기획된 프로그램에서 주어진 역할 -강사와 수강생과 같은- 을 수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두 주체가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최소기준 역시 이러한 방향 속에서 설정되어야 할 것

나. 정책 성과와 한계

1) 아트밸리 사업의 사례

- 부천시가 청소년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아트밸리 사업은 전문 강사를 학교나 동아리에 파견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
- 특히 청소년 아트밸리의 경우 2015년 현재 부천시 전체 초·중·고 120개교에서 213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약 94%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2012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공모에서 유품행정수상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음⁵⁰⁾
- 아트밸리 사업은 부천시의 생활문화 활성화 비전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일반 시민과 청소년의 예술 체험 기회 확대, 예술 교육의 질적 개선 측면에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소수의 스타 예술가 양성이 아닌 예술의 저변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아트밸리 사업은 분명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 또한 예술가들이 청소년 그리고 일반 시민과 접촉할 수 있는 경로를 개설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치가 있음
- 그러나 아트밸리 사업은 생활문화 활성화라는 비전에서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구성이라는 본 연구의 방향과는 다소 다른 결을 드러내고 있음. 본 연구의 문화마을이 문화 활동 자체 보다는 그것을 통한 마을 공동체의 구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아트밸리 사업은 문화예술 활동 자체에 뚜렷이 집중하는 차이가 있음
- 아트밸리 사업이 부천시의 생활문화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부천시의 생활문화 정책 방향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문화마을의 방향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생활문화 확대와 문화마을 구성은 보조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두 사업의 방향을 조율하는 것이 향후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전문 인력의 부족

- 부천시 공공도서관의 총 사서 수는 48명으로 사서 1인당 대상 인구수는 17,689명에 달함. 이는 전국 평균

50) '아트밸리 5년... 나도 예술인', 부천포커스, 2015.11.16.

(13,482명)보다 높은 숫자일 뿐 아니라 서울시(12,314명), 경기도 평균(14,694명)보다도 높은 숫자임

- 사서 1인당 대상 인구수와 관련하여 국제도서관연맹(IFLA)는 최저 2,500을 제시한 바 있음.⁵¹⁾ 이 수준까지는 무리가 따른다 하더라도 타 시도와의 격차, 부천시 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최소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다. 최소 기준

□ 기준설정

최소기준(단)	지역 문화매개인력(주민-매개자-예술가)을 양성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며, 문화기반시설 내 문화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주민 서비스 편익을 도모 한다.
---------	--

- 앞서 논의한 최소 기준의 범주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음. 하나는 매개자-예술가들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이들과 주민들을 연결하기 위한 기준이고 또 하나는 다음 절에서 다룰 마을 수준의 문화시설에 필요한 전문 인력에 대한 기준임
- 마을 수준의 문화시설 중 생활문화시설이 매개자-예술가와 주민 간 교류를 위한 공간으로 적합하므로 첫 번째 최소 기준은 생활문화시설에 필요한 매개자에 대한 기준으로 설정하며 두 번째 기준은 나머지 문화시설, 즉 도서관에 필요한 전문 인력(사서)의 기준으로 설정함

1) 생활문화시설 관련 사람 최소 기준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술가와 주민 간 위계가 설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아트밸리 사업은 예술가와 주민의 관계가 강사와 수강생으로 설정됨
- 이러한 사업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예술가는 “상상력과 창조적 아이디어의 원천”이고 주민은 그것의 수혜자라는 것. 그러나 상상력 혹은 창조성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회적 과정의 산물로 이해되어야 함⁵²⁾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예술가 네트워크와 주민 네트워크가 어울리면서 진화하는 과정이며 생활문화시설은 그것의 기반이 되어야 함
- 따라서 여기서 다룰 매개자는 생활문화시설에서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협업할 수 있도록 만남을 조작하는

51) 이상구, 「복지국가와 도서관 정책」, 『2014 서울시 도서관 발전 정책토론회』 발표문, 18쪽.

52) “오늘날, 예술의 사회적 좌표들은 근본적으로 다시 사유될 필요가 있다. 21세기의 출발점에서, ‘대중들에게 창조성을’이라는 슬로건에 의거한 모든 아방가르드 유토피아는 완전히 극복되었다. 벤야민의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을 뛰어넘어, 사회는 이제 ‘사회적 복제 시대의 예술가들’을 환영한다.”(맛떼오 파스퀴넬리, 『동물흔』, 서창현 옮김, 갈무리, 2013, 36쪽). 파스퀴넬리의 논의를 따를다면 사회적으로 복제된 예술가들이 편재하는 이 시대에 예술가와 주민이라는 구분 혹은 위계 설정은 무의미하거나 주의를 요하는 것이다.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이는 특정 개인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영역의 구성원들이 함께 만나는 회의 형태가 바람직. 즉 (가칭)네트워크 회의가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

- (가칭)네트워크 회의에는 부천시 3대 문화 콘텐츠 사업 만화·영화·음악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지역 예술가와 지방 문화원, 부천시 생활문화지원센터, 지역 주민(생활문화시설 참여 주민)이 참가하여 생활문화시설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총족될 수 있도록 협의

<표5-1> 생활문화시설 관련 사람 최소 기준

분류	최소 기준	세부 기준	
생활 문화 시설	부천시 내 예술가와 주민들이 협업이 생활문화시설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 한다	예술가와 주민 간의 관계	생활문화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수평적 협력자
		(가칭)네트워크 회의	지역 예술가 2인, 지방 문화원 1인, 생활문화지원센터 1인, 지역 주민 2인

2) 도서관 관련 사람 최소 기준

- 여기서 다룰 것은 도서관 사서에 대한 최소 기준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천시 공공도서관의 사서 숫자는 인구수 대비로 볼 때 경기도나 서울시,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임
- 또 하나의 문제는 부천시 내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것. 가장 도서관이 많은 원미구의 경우 사서수도 가장 많으며 사서 1인당 대상 인구도 11,064명으로 가장 낮음. 그러나 소사구는 사서 1인당 대상 인구가 37,055명, 오정구는 92,087명으로 이는 원미구의 3.3배, 8.3배에 달하는 숫자임
- 또한 도서관 1개소 당 사서 숫자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함. 원미구의 경우 도서관 1개소 당 평균 사서 숫자가 6.7명이나 소사구는 3명, 오정구는 2명에 불과

<표5-2> 부천시 공공도서관 사서 현황

(단위 : 개, 명)

지역	인구	도서관수	사서수	사서 1인당 대상 인구
원미구	442,546	6	40	11,064
소사구	222,331	2	6	37,055
오정구	184,174	1	2	92,087
부천시	849,051	9	48	17,689

※ 자료원 : 문화체육관광부, 『2015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2015를 바탕으로 정리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에서 목표로 삼은 사서 1인당 대상 인구는 7,600명이나 부천시의 현재 여건 상 이를 최소 기준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음. 2015년 현재 부천시 인구가 약 85만이므로 1인

당 대상 인구가 7,600명이 되려면 112명이 필요하며 이는 현재 사서 수의 두 배가 넘는 숫자임

- 따라서 최소 기준은 현재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즉 부천시 평균에 미달하는 소사구와 오정구의 사서 수준을 경기도 평균 수준(14,694명)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최소 기준으로 함
- 이를 위해서는 소사구의 사서 수가 현재보다 9명 늘어난 15명이 되어야 하며 오정구는 11명이 늘어난 13명이 되어야 함. 그러면 부천시 전체 사서 수는 지금보다 20명이 늘어난 68명이 되며 사서 1인당 대상 인구는 현재보다 5,200여명이 줄어 든 12,486명으로 개선될 수 있음
- 이것은 다음 절에서 다룰 공공도서관 공급 기준과 함께 진행되어야 함

<표5-3> 부천시 공공도서관 사서 최소 기준

분류	최소 기준	세부 기준		비고
공공 도서관	사서 1인당 대상 인구 개선 으로 부천시 내 지역 간 도 서관 서비스의 불균형 해소	사서수	소사구: 6명 → 15명 오정구: 2명 → 13명 원미구: 현행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시 전체 사서 1인당 대상 인구를 현행 17,689명에서 12,486명으로 개선 • 공공도서관 공급 기준과 결합하여 진행

라. 세부 추진 과제

- 부천시가 생활문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여전히 문화예술 활동 자체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문화마을 방향과는 차이가 있음.
- 따라서 우선 필요한 일은 부천시의 현 생활문화 정책의 방향을 문화마을의 구성으로 끌어오는 일임. 그럴 때 부천시가 관심을 두고 있는 또 다른 분야인 마을 만들기 사업과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시민 대상 아트밸리 사업을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생활문화시설과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함
- 부천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 및 정책 방향 재검토. 본 연구의 문화마을 방향 그리고 부천시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
- 부천시에서 계획 중인 연습 공간 조성을 생활문화시설 조성으로 대체. 물론 생활문화시설은 일방적 공급이 아닌 본 연구의 최소 기준에 따라 설치
- 현재 진행하는 아트밸리 사업을 유지하되 활동 공간을 생활문화시설로 이전
- 장기적으로 아트밸리 사업 자체를 생활문화시설에서 자율적으로 기획·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환

2 공간기준

가. 범위와 접근 방법

1) 문화시설의 범위

- 현행 법률에서 정의하는 문화시설의 정의를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함
- 그 외 「문화예술진흥법」을 기본으로 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시설이 있음
- 지역문화복지시설의 경우는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 수련 시설이 포함되며, 각기 다른 법률에 의해 기능 및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음⁵³⁾

<표5-4> 문화시설의 정의

구분	내용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1항3호)	「공연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도서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을 의미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6호)	공공·문화체육시설은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설치하는 시설로서 「공연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시설,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 제3조)」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문화산업진흥법(제2조 제12, 13호)」에 의한 문화 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 「과학육성법(제2조 제 1호)」규정에 의한 과학관 등을 의미

※ 자료원 : 김효정, 『문화시설 배치 및 기능조정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15쪽.

- 한편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에서는 생활문화시설과 창작공간을 강조하고 있으며, 시설 설치 방법 측면에서 는 신규 공간보다 지역 내 유휴 시설 및 공간 등을 활용한 문화공간 설치를 강조함
- 아래 <표 2>의 생활문화시설은 “생활문화가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 정의되어 있으나 실제로 언급하는 시설은 위 <표 1>의 문화시설과 큰 차이가 없음

53) 김효정, 『문화시설 배치 및 기능조정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16쪽.

<표5-5> 생활문화시설의 정의 및 조성 방안

구분	내용
생활 밀착형 문화 시설 조성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2항),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안)
	문화용성정책-생활 속 문화 공간조성 등 지원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유휴 시설 및 공간 활용	지역문화 진흥법 (제3조 3,4항)
	문화용성정책-문화용복합창작 공간조성 등

※ 자료원 : 김효정, 2014: 29를 바탕으로 보완

- 그러나 본 연구에서 중요한 문화시설이 마을 수준에서 이용 가능한 시설임을 고려해 볼 때,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강조는 필요함. 이소영·박진경(2014)은 위계별로 공공문화체육시설의 공급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마을 수준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시설은 도서관, 실내체육관, 청소년문화의집 순으로 나타남

<표5-6> 위계별 공공문화체육시설 공급기준

구분	저위서비스	중위서비스	고위 서비스	최고위 서비스
1순위	문화시설	도서관	문예회관	박물관
2순위	체육시설	실내체육관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3순위	청소년시설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야영장

※ 자료원 : 이소영·박진경, 『지역맞춤형 기초생활시설 공급방안:문화·체육·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147쪽.

- 이 공급기준은 실제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그러나 체육시설과 청소년 시설을 제외하면 일반 주민이 마을 수준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시설로 도서관만 남게 되는 문제가 있음. 물

론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도서관의 성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시설의 특성상 활용 방안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도서관을 마을 수준의 유일한 문화시설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문화시설을 도서관과 함께 마을 수준의 문화시설로 설정함

2) 접근 방법

- 최근 문화시설의 변화 흐름을 살펴보면 시설의 형태면에서는 종합형 대규모시설에서 중소규모의 전문시설로 변화하고 있으며, 시설의 기능면에서는 발표/전시시설에서 창작/제작 관련 시설로, 설치 단위는 거점시설에서 생활권 문화시설로 다양화되고 있음⁵⁴⁾
- 이는 도시 발전 전략으로서의 문화보다는 생활문화에, 문화 소비자로서의 주민보다는 참여자로서의 주민에 방점을 두는 흐름이며,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문화시설의 기능 또한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음
- 이러한 문화시설과 유사한 사례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마을예술창작소를 들 수 있음
- 마을예술창작소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지역단위의 마을을 매개로 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문화 활동 공간”
- 공공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공간이 아닌, 주민이 주도하여 운영하는 공간
- 다만 시가 선정하며 운영을 지원함
- 기존 문화시설이 관람이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습 등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다면, 마을예술창작소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공간⁵⁵⁾

<표5-7> 기존 공공문화시설과 마을예술창작소의 비교

구분	기존 공공문화시설	마을예술창작소
운영목적	문화서비스 제공	주민 자치의 문화예술 창작
운영형태	전문가(강사, 예술가 중심)	마을 주민 중심
시설형태	교육 및 행사 중심 공공시설 공간 (공연장, 강습실 등)	마을문화 창작활동을 위한 사유시설 공간 (카페, 연습실 등)
운영주체	공공기관	마을주민

※ 자료원 : 라도삼, 2015, 7쪽.

- 마을예술창작소의 중요한 운영원칙은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것. 이 원칙은 마을예술창작소가 문화 활동

54) 김효정, 2014, 31쪽.

55) 라도삼, 「2014년 마을예술창작소 모니터링 및 평가 용역」, 서울연구원, 2015.

자체보다는 이를 매개로 한 마을 공동체 구성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문화시설의 기능을 문화예술 활동 자체보다는 문화적 마을의 확장에 두고 있음. 이는 고립된 개인이 문화시설을 통해 마을 단위에서 서로 관계 맺는 집합적 활동이 확대될 때, 문화적 삶의 가능성 또한 커진다는 사고에 기초하고 있음
- 이것은 문화를 소비의 대상, 향유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함께 하기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임. 따라서 문화시설 또한 대리인(공공 또는 민간 기관)에 의해 기획되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운영하는 형태를 갖출 필요가 있음
-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 시설의 양적 기준뿐 아니라 질적 기준 또한 함께 제시하고자 함. 양적 최소 기준이 문화적 마을을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 마련을 위한 것이라면 질적 최소 기준은 그 시설의 운영 원리로 이해할 수 있음

나. 정책 성과와 한계

- 지금까지 문화시설 배치와 관련된 정책은 어떻게 문화 시설을 적절한 위치에 적정한 수량으로 공급할 것인가의 문제로만 다루어져 왔음. 물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서 문화시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임
-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문화시설에 있어 물리적 시설을 우선한다는 문제가 있음. 다시 말해 언제나 물리적 시설을 전제하기 때문에 문화 활동은 그것의 부수적인 효과가 될 수밖에 없는 것
- 물리적 시설이 문화 활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잠재하는 주민들의 욕망과 비공식적으로나마 실재하는 활동을 우선 인식하는 일임. 그러므로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문화시설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주민들의 욕망과 활동에 문화시설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함
- 여기서는 마을 수준에서 적절한 최소 기준 설정을 위해 우선 기존의 문화시설 공급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음

1) 문화시설의 공급 기준

- 문화시설 중 도서관은 시설공급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음. 도서관법 제14조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매5년마다 도서관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담은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이 마련되어 있음. 공공도서관의 지속적 확충을 목표로 2018년까지 1,100개관을 건립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는 인구 4만 5천 명당 도서관 1개관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은 것임

- 또한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여 공공도서관의 입지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도서관 입지는 인구가 밀집된 곳에 위치해야 하며 1차 반경(1km) 내의 봉사대상인구가 도보로 15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고, 2차 반경(1.5km) 내에서는 20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박물관/미술관 및 공연장의 경우 현재 별도의 시설배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며, 2004년 수립된 문화기반시설 확충 계획(2005~2011)에서 제시된 시설 공급기준이 원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 계획의 경우 박물관/미술관은 인구 15만 명당 1개소를 공급기준으로 삼고 있음. 또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인구기준에 따라 건립하되, 추가인구 50% 초과당 1개소를 추가 건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적용함
- 문예회관의 경우 기초 자치단체(시군구)당 1개소를 기준으로 삼고 있음⁵⁶⁾

<표5-8> 문화시설의 공급 기준

분류	공급 기준	근거
도서관	인구 4만 5천 명당 1개소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박물관/미술관	인구 15만 명당 1개소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인구기준에 따라 건립하되, 추가 인구 50% 초과당 1개소를 추가 건립할 수 있음)	문화기반시설 확충계획(2005~2011)
문예회관	기초자치단체 당 1개소	
공연장	별도의 시설배치기준 없음	

※ 자료원 : 이소영·박진경, 2014, 40~41쪽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2) 정책성과 및 한계

- 고도 성장기를 지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문화시설에 대한 정책적 노력 또한 증대되었음. 이 시기의 문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중심에는 언제나 문화 인프라의 양적 구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중앙정부의 문화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은 일차적으로 부족한 문화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두어졌고, 이에 따라 서울을 중심으로 대규모 문화시설들이 건립되기 시작하였음⁵⁷⁾
- 이러한 경향은 문화 활동이 전개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나름의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

56) 이소영·박진경, 『지역맞춤형 기초생활시설 공급방안:문화·체육·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40~4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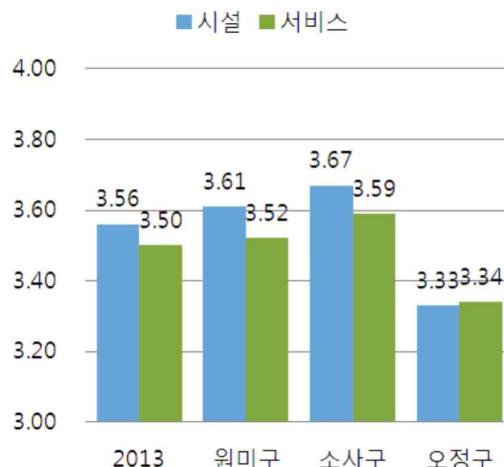
57) 이원태, 『전국문화기반시설 최소기준수립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4쪽.

- 그러나 양적으로 증가한 문화기반시설들이 주민생활권과 고리되어 있고, 기존 시설과의 중복건립이 이뤄지 는가 하면, 인구 및 행정구역 단위의 천편일률적인 건립으로 사후 활용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 되었음. 또한, 시설확충계획 단계에서 건립될 시설의 규모 및 유형, 운영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에 대한 예측 및 조달방법이 적절하지 않아 통합적 시설 발전계획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았음⁵⁸⁾
- 이러한 공급 기준의 한계는 인구 대비 시설의 수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인구 변수 외에 주민 수요, 접근성 등을 함께 고려하기도 하지만 그것 역시 시설의 적정 숫자 혹은 위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 음. 물론 정책 집행자의 입장에서는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나, 문화시설을 단순히 문화서비스 공급 시설 이 아닌 마을 공동체 활성화의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한다면 문화시설의 공급 방식 또한 기존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될 필요가 있고, 공급 기준 또한 단지 수량의 문제만은 아니어야 할 것임
- 또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겨나는 새로운 문제도 있음. 전통적인 산업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적 차원에서 문화는 신 성장 동력으로 인식되기 시작 함. 일반적으로 문화도시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흐름들은 시민의 창조성, 문화 향유 기회 증진 등을 내세웠지만 시설 측면에서 보면 특이하고 거대한 대규모 건축물을 조성하고 대규모 축제, 이벤트를 개최하 는 것으로 나타남
- 문제는 이러한 메가 프로젝트들이 시민의 삶과는 무관한 도시 간 경쟁의 수단으로 귀결되기 쉽다는 것. 하비(David Harvey)는 「지대의 기술(The art of rent)」이란 글에서 집합적 상징자본의 힘, 즉 "어떤 장소 에 특별한 차별성을 부여하는 행동이 갖는 힘"에 대해 이야기함. 이것은 특정한 공간을 유일무이한 매력을 지닌 곳으로 조성하여 자본의 흐름을 이끌어내며 그 결과 독점 지대를 누리는 힘을 가리킴. 가령 특별한 품질의 와인을 생산하는 포도원,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장소 등이 독점지대가 발생하는 상황임
- 하비는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무역장벽이 낮아져 독점력이 사라짐에 따라, 독점지대의 기반인 집합적 상 징자본을 둘러싼 투쟁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함.⁵⁹⁾ 다시 말하면 지구화가 가져오는 도시 간 경쟁은 서로 더 특별해지기 위한 경쟁인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자연·역사·문화 자원들을 어떻게든 쥐어 짜내거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독특한 건축물을 짓고, 그것들을 포장하는 수사들이 경쟁적으로 펼쳐지는 것. 이러한 도시 전략에서 배려의 대상은 도시 내의 다종다양한 삶이라기보다는 도시 그 자체가 됨
- 부천시의 3대 문화콘텐츠 산업 또한 그것이 지닌 의의에도 불구하고 도시민의 삶보다는 도시 자체를 지향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2013 부천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2012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1년간 부천시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대상자의 26.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특히 부천시의 3대 국제 축제는 높은 인지도에 비해 매우 저조한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음⁶⁰⁾

58) 위의 글, 4~5쪽.

59) 데이비드 하비, 「지대의 기법」, 『반란의 도시』, 한상연 옮김, 에이도스, 2014.

- 이것은 부천시의 대규모 문화 행사가 ‘문화특별시 부천’이라는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역민의 문화적 삶과는 긴밀한 연관성을 구축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줌
-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부천시는 2014년 ‘생활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기관을 설치하며 문화 시설 연습 공간 조성 계획을 발표하는 등 생활문화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임.⁶¹⁾ 그러나 조례의 내용이나 지원 프로그램 등을 살펴보았을 때 문화적 마을보다는 마을의 문화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임. 다시 말하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마을의 구성보다는 문화예술 활동 자체에 대한 지원을 중점에 두고 있다는 것. 이는 ‘연습 공간’이란 명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물론 주민들의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며 그러한 활동이 마을의 구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도 있지만, 부천시의 생활문화 지원 정책에서는 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이 두드러질 뿐 이들의 활동을 어떻게 마을의 구성으로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별로 보이지 않음
- 또한 문화시설의 지역 편차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부천시 2013 사회조사에 따르면 도서관 시설 및 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에서 오정구가 원미, 소사구에 비해 만족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음



[그림5-3] 부천시 도서관 시설 및 서비스

※ 자료원 : 부천시, 2013.11: 152

- 특히 불만족이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도서관 시설 기준으로 원미구와 소사구가 9.1%인데 반해 오정구는 20.4%로 두 배가 넘었으며, 서비스 기준으로 원미구와 소사구가 불만족 비율이 각각 8.4, 7.7%인데

60)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경우 인지도는 80.3%로 조사되었으나 84%가 참여한 적이 없다고 답변(부천시, 『2013년 제5회 부천시 사회조사 보고서』, 2013.11, 150쪽.)

61) “(부천)시는 생활문화협의회 발족을 계기로 2015년을 생활문화 원년으로 ‘생활이 즐거운 문화특별시 부천’에 걸맞게 전 시민이 일상의 삶 속에서 생활문화를 향유 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실제 시는 오는 2017년까지 생활문화동호인 10만 명 확보, 문화시설 연습 공간 100개소 조성, 경기 및 전국 생활문화페스티벌 개최 등을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부천시 생활문화의 메카로 만든다’, 새부천신문, 2015.2.4).

반해 오정구는 13.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것은 부천시 내 문화시설 이용 측면에서 어떤 불균형이 존재함을 보여주며 이는 최소 기준 설정에 있어 지역 간 균형이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는 것을 의미함

다. 최소 기준

□ 기준설정

최소기준(안)	문화공간에 대한 최소기준은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부천시민이면 누구나 근거리에서 문화시설에 대한 물리적 접근이 용이하도록 한다.
---------	---

- 여기서 다를 시설은 앞서 언급한 바대로 마을 수준에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문화시설 즉, 생활문화시설, 도서관, 청소년 시설임
- 최소 기준은 네 가지 방향(마을성, 공통성, 자율성, 지속성)과 최소 수량을 함께 고려하되 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 또한 최소 수량의 경우 부천시 내 지역 균형을 감안하여 설정함
- 시설의 공통 운영 원리⁶²⁾
 - 마을성: 생활문화시설은 문화 활동 자체보다는 마을의 구성에 중점을 두어야 함. 즉 문화 활동을 통한 주민들 간의 새로운 관계 형성이 목적
 - 공통성: 생활문화시설은 주민 공통의 공간이어야 함. 공통의 공간이라 함은 마을 주민 누구나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 자율성: 생활문화시설은 주민 조직에 의한 자율적 운영, 관리를 원칙으로 함
 - 지속성: 생활문화시설은 예산과 조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해야 함. 이를 위해 상업적 용도를 일부 포함할 수도 있음

1) 생활문화시설

- 최소 기준은 ‘부천 시민 모두가 이웃과 함께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 수량 기준
 - 생활문화시설은 주민들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 설치되어야 함. 일반적으로 행정동 단위가 그 범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행정동 당 1개소를 적정기준으로 볼 수 있음

62) 네 가지 운영 원리는 라도삼(2015)을 바탕으로 수정한 것임.

- 여기서는 2개 동당 1개소를 최소기준으로 설정⁶³⁾ 부천시의 행정동이 36개소이므로 전체 숫자는 18 개소가 됨

<표5-9> 부천시 생활문화시설의 최소 기준

분류	최소 기준	세부 기준		비고
생활 문화 시설	부천 시민 모두가 이웃과 함께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최소 수량	18개소	1개소/2개 동

- 부천시의 ‘생활문화 진흥 조례’는 생활문화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시장이 해당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앞서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생활문화시설이 상업적 용도를 일부 포함할 수 있도록 한 운영 원리와는 배치되는 내용임
-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생활문화시설은 부천시 조례에서 정의하는 생활문화시설과는 성격이 다름.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후자의 생활문화시설은 문화예술 동아리의 연습공간의 성격이 강하고 전자의 경우는 문화 예술 활동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그보다는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간임. 이러한 공간의 경우 주민들에 의한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상업적 이용을 일부 허용하는 것은 필요한 일로 판단됨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생활문화시설 조성 시 현 조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도서관

- 현재 부천시 내 도서관은 9개소(사립 도서관을 포함하면 11개소)이며 작은 도서관은 공립이 19개소, 사립이 65개소임⁶⁴⁾
- 공공도서관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에서 목표로 삼은 도서관의 인구 수 대비 공급기준은 4만 5천 명당 1개소임. 2015년 11월 현재 부천시 인구는 849,051명⁶⁵⁾으로 현재 도서관 1개소당 인구수는 약 9만 4천명 수준(사립 도서관을 포함하면 약 7만 7천명 수준). 4만 5천 명당 1개소를 목표로 삼는다면 도서관의 숫자는 현재의 두 배가 되어야 함
 - 인구 백만 명당 도서관 수(부천시는 10.6개소)로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부산(9.09개소)보다는 높지만 경기도 평균(17.56개소)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63) 서울시 마을예술창작소의 경우 총 233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대략 2개동 당 1개소에 해당함(서울시의 행정동은 모두 423개).

64) 문화체육관광부(2015), 부천시 작은도서관 홈페이지(<http://bcslib.go.kr>).

65) 부천시 통계 홈페이지(<http://stat.bucheon.go.kr>).

- 도서관 숫자의 부족 외에 지역 간 편차 또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현재 부천시 공공도서관은 원미구에 6개소가 설치된 반면 소사구는 2개소, 오정구는 1개소에 불과함. 이는 인구 편차를 감안하더라도 불균등한 것으로 나타남.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의 도서관 1개소당 인구수는 각각 73,758명, 111,66명, 184,174명으로, 도서관 1개소 당 소사구는 원미구 대비 1.5배, 오정구는 원미구 대비 2.5배가량의 인구를 감당하고 있음
- 이러한 도서관 숫자의 격차는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며, 접근성을 고려할 때 그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이는 도서관의 인구 대비 숫자 외에 접근성 또한 중요한 문제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은 도시 지역에서는 1차 반경(1km) 내의 봉사대상인구가 도보로 10분 이내에 접근 가능해야 하고, 2차 반경(2km) 내에서는 도보로 2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해야 함.⁶⁶⁾ 이 기준을 따를 경우 오정구와 소사구의 원미구 대비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
- 현재 부천시의 공공도서관은 지역 간 편중이 심하므로 인구수와 함께 접근성을 최소 기준에 함께 반영 할 필요가 있음

<표5-10> 부천시 도서관 현황

(단위 : 권, 명)

순번	설립주체	도서관명	주소	도서자료(권)(인쇄)	사서수
1	지자체	부천시립한울빛도서관	소사구 소사본동 317-98 (소사로 107)	76,942	3
2		부천시립심곡도서관	소사구 심곡본동 성무로 24	154,688	3
3		부천시립꿈여울도서관	오정구 작동 67-1 (까치로 103)	62,338	2
4		부천시립원미도서관	원미구 원미1동 15 (소사로 456)	211,801	14
5		해밀도서관	원미구 중2동 1118	52,007	4
6		부천시립상동도서관	원미구 상동 상이로 12	78,300	13
7		부천시립북부도서관	원미구 도당동 132	125,672	3
8		부천시립책마루도서관	원미구 중동 1192-3 (심중로 121)	81,156	2
9		부천시립꿈빛도서관	원미구 신흥로 275번길 19	166,133	4
10	사립	부천예술정보도서관 다감	원미구 상1동 394-2	29,396	1
11		동화기차어린이도서관	원미구 상1동 394-2	53,083	-

* 자료원 : 『2015 전국문화기반시설 종람』, 문화체육관광부, 2015.

○ 작은 도서관

- 작은 도서관의 구별 현황을 살펴보면,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에 각각 5, 5, 9개소의 공립 작은 도서관

66)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2013, 28쪽.

이 있으면 사립을 포함하면 각각 23, 22, 39개소의 작은 도서관이 있음. 1개 동당 작은 도서관 개수를 살펴보면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에 각각 0.6, 0.7, 0.5개소의 공립 작은 도서관이 있으며 사립을 포함하면 각각 2.6, 3.1, 2.0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음

- 사립 작은 도서관을 포함할 경우 1개동에 2개 이상의 작은 도서관이 있는 셈이지만, 사립 작은 도서관은 공립 작은 도서관과 달리 상호대차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음. 따라서 현재 부천시 내 모든 행정동에서 도서 대출 및 열람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기는 어려운 여건
- 그러므로 작은 도서관의 경우 상호대차서비스가 가능한 시설의 동별 1개소 이상 확립을 우선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음

<표5-11> 부천시 구별 작은 도서관 현황

(단위 : 개)

구분	동 개수	공립	사립	계
		(1개동 당 개소수)	(1개동 당 개소수)	(1개동 당 개소수)
소사구	9	5	18	23
		0.6	2.0	2.6
오정구	7	5	17	22
		0.7	2.4	3.1
원미구	20	9	30	39
		0.5	1.5	2.0

- 또한 작은 도서관의 경우 본래 지역의 사회운동 차원에서 생겨났고, 단순히 도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원은 하되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도서관의 경우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구분하여 최소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도서관 설립의 최소 기준은 ‘부천시민 모두가 도보 10분 이내의 거리에서 독서 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 공공도서관의 경우 도서 대출 및 열람 서비스 제공 등에 중점을 두고, 작은도서관의 경우 독서 문화 저변 확대를 통한 마을의 구성에 중점을 둠
- 공공도서관은 경기도 평균인 도서관 1개소 당 5만 7천 명을 최소 기준으로 설정하면 모두 15개소가 필요하며 이는 현재 보다 6개소가 더 필요한 숫자임. 접근성 측면에서는 도보 20분 이내를 기준으로 함
- 공공도서관 공급 기준을 도보 20분 이내로 두고, 상호대차 서비스가 가능한 작은 도서관 공급 기준을 행정동 당 1개소 이상으로 두면 도보 10분 이내에서 적절한 도서관 서비스 이용이 가능

<표5-12> 부천시 도서관의 최소 기준

최소 기준	세부 기준			비고
부천시민 모두가 도보 10분 이내의 거리에서 독서 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된다.	공공 도서관	최소 수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기준: 인구 5만 7천 명당 1개소 접근성 기준: 도보 20분(면경 2km) 이내 기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취약 지역을 우선 지원
	작은 도서관	최소 수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동 당 상호대차 서비스가 가능한 시설 1개소 이상 	

라. 세부 추진 과제

-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마을 수준에서의 문화시설, 즉 생활문화시설과 도서관은 주요 타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공급 수준이 낮게 나타나며 부천시 내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나타나는 등 이중 격차에 놓여 있음. 다시 말해 전체적인 공급 현황도 낮지만 지역 간 불균형 또한 나타나고 있는 것
-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시설의 공급으로 해결할 수는 없음. 그것은 본 연구에서 설정하는 마을 문화 시설의 성격 상 시설의 공급 보다 중요한 것이 문화적 마을의 구성이며 그것은 주민들의 자율적인 활동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
- 그러므로 시설의 공급에 앞서 주민들의 잠재하는 욕구와 활동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작업이 추가로 진행되어야 함. 본 연구에서는 이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함

1) 지역 자원 조사

- 지역 자원 조사의 목적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주민들의 잠재하는 욕구와 활동을 파악하는 것
- 이를 위해 주민 대상 수요 조사와 비공식적 모임 및 활동을 파악하는 일이 필요. 비공식 모임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역 활동가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향후 시설 조성에 대비하여 부천시 내 활용 가능한 빈 공간에 대한 조사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

2) 민관 워크숍

- 지역 자원 조사를 통해 파악된 지역 모임과의 민관 워크숍을 통해 지역 모임의 활동, 비전을 공유하고 필요를 확인
- 실제 시설이 건립되기 이전 워크숍 단계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기획, 실행

3) 문화시설의 운영

- 문화시설의 조성은 신규 건축을 지양하고 최대한 기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동단위 주민센터, 빈 공간 등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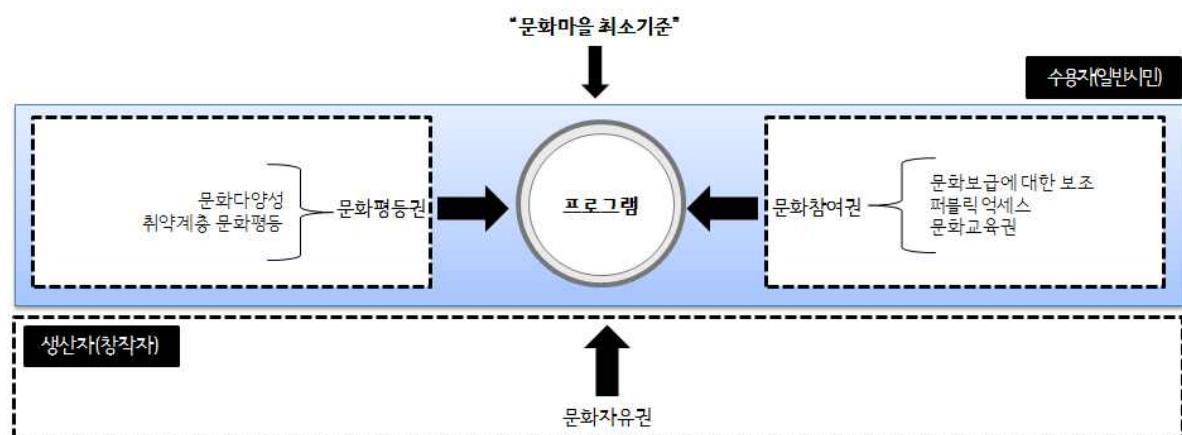
- 앞서 다루었던 (가칭)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문화시설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네트워크 발굴
- 개별 생활문화시설 참여자들 간의 모임 운영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주민들이 공간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함

3 프로그램 기준

가. 범위와 접근방법

□ 개념 및 범주

- 문화적 권리 보장을 생산자(창작자) 권리와 수용자(일반시민) 권리로 구분하고, 문화마을 최소기준 설정 연구에서는 수용자 측면에서의 문화적 권리보장 방법 제시를 목적으로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산자(창작자)에게 문화적 자유권을 보장해야하고, 수용자(일반시민)에게는 문화평등권 및 참여권 보장을 해야 함을 근거로 최소기준을 설정하고자 함
- 프로그램 최소기준 설정은 시민의 문화적 권리 보장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함
 - 문화 평등권 : 누구든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문화적 차별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함
 - 문화 참여권 : 모든 시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을 위하여 자치단체가 적극적 문화육성 및 진흥 정책을 펴야함을 의미함



[그림5-4]문화마을 프로그램 최소기준 설정 구조도

□ 접근방법

- 지역별 문화수준 진단과 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한 연구들을 참조하여 문화마을 최소기준을 설정하고자 함

- 문화수준 진단 관련하여 “지역문화지표 개발 및 시범적용 연구”(2012년)에서는 ‘인구 천 명당 지역 축제 수, 지역별 문화예술 프로그램 수’ 등을 제시하였음
- 문화적 권리 보장 관련하여 “문화권 NAP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 실태조사와 정책연계방안”(2004) 연구에서는 ‘문화자유권, 문화평등권, 문화참여권, 문화 환경권’ 등을 설정하였음
- 문화프로그램 관련 문화 참여권 및 문화평등권 측면에서 최소기준 설정방법을 찾고, 부천시 추진 사업과 경기도 내 유사규모의 도시와 비교하고자 함

<표5-13> 프로그램 관련 지역 문화지표

분류	세부지표	의의와 활용효과
자원지표*	인구 천 명 당 지역축제 수	지역문화자원으로써 지역 축제는 지역민의 문화 활동 및 향유와 밀접한 소재이므로 축제 수를 인구수와 대비시켜 전 지역을 같은 수준에서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함
	지역별 문화예술 프로그램 수	지자체에서 고유성을 반영한 문화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구축하고 있는지와 시민들의 실질적 문화향유정도를 파악할 수 있음
문화권** 설정 영역	문화다양성 측면 문화평등 관련 프로그램 수	문화적 적응 및 문화 다양성 확대를 위한 노력
	장애인 문화평등 관련 프로그램 수	장애인의 문화접근권 확대 및 교육권 확대를 위한 노력
	퍼블릭 억세스	시민의 공공기회 참여 확대 등
	문화교육권	시민의 평생교육권 확대, 학생들의 문화교육권 확대, 대안적 문화교육권 확대 등 문화예술교육 기회가 인구 대비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측정하여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문화공공서비스권	공공문화기반시설 이용 증대를 위한 노력, 공공문화장소의 가격할인, 문화정보 서비스권 확대 등

* 도표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역문화 지표개발 및 시범적용 연구”, 2012, 64쪽 참조.

** 국가인권위원회, “문화권 NAP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 실태조사와 정책연계 방안”, 65~67쪽 참조.

나. 정책성과와 한계

□ 문화참여권

○ 문화교육권

- 유네스코 “문화적 권리 선언문 초안”(1997년)의 제6조에서는 문화 교육적 권리가 명시되어 있음
 - 교육권의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혼자이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에 속해 있는 간에 모든 사람들은 그 또는 그녀의 삶의 과정 속에서 문화 다양성의 관점에서 볼 때, 얼마간은 그 또는 그녀의 문화적 정체성이 자유롭고 충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받을 권리가 부여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음

- 부천시는 2011년부터 학생 대상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부천아트밸리)을 추진하고 있으며, 96.7% 학교에서 시행중에 있음
 - 4개 영역(음악, 시각예술, 무용, 연극·영화) 영역 14개 장르(합창, 기악합주, 악기, 밴드, 풍물, 미술, 도예, 사진, 만화 및 애니메이션, 무용, 실용무용, 연극, 영화, 뮤지컬)의 프로그램을 운영
 - 부천아트밸리사업은 문화예술교육격차해소 및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였음

<표5-14> 학교아트밸리 연도별 사업 규모

(단위 : 개, 억 원)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률	2013년	증감률	2014년	증감률
학교 수	65	97	49.2	115	18.6	119	3.5
프로그램 수	73	128	75.3	195	52.3	205	5.1
예산액	14.1	15.1	7.1	21.2	40.4	18.9	-10.8

※ 자료원 : 부천문화재단, “부천 아트밸리 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2015, 50쪽 재구성.

- 부천아트밸리 프로그램별 참여 인원은 평균 30명 내외 정도이며, 프로그램 당 참여인원 수는 증가추세임

<표5-15> 학교아트밸리 학교 급별 프로그램당 인원 수

(단위 : 명, 개)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평균
2012	학생 수	2,561	1,081	30	35	926.75
	프로그램 수	83	42	1	2	32.00
	평균 인원	30.9	25.7	30	17.5	26.02
2013	학생 수	3,703	1,517	501	50	1,442.75
	프로그램 수	115	58	19	3	48.75
	평균 인원	32.2	26.2	26.4	16.7	25.38
2014	학생 수	3,863	1,453	815	40	1,542.75
	프로그램 수	113	58	32	2	51.25
	평균 인원	34.2	25.1	25.5	20	26.20

※ 자료원 : 부천문화재단, “부천 아트밸리 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2015, 80쪽 재구성.

- 시민 평생교육권 확대 관련하여 부천시 평생학습센터는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
 - 8개 분야⁶⁷⁾에 대한 학습동아리 등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37개 동아리(428명)가 등록되어 있음

<표5-16> 부천평생 학습센터 학습동아리 등록 현황(2011~2012년)

(단위: 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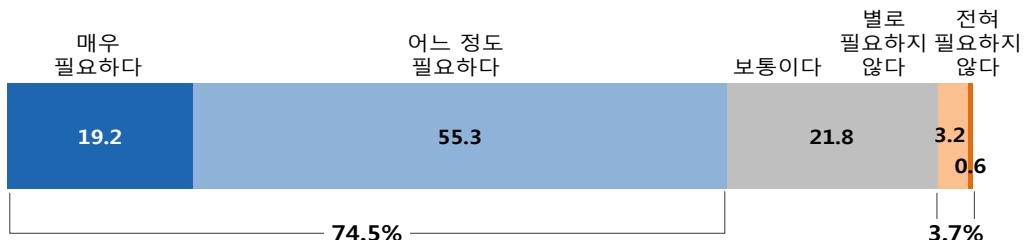
구분	2011년		2012년		합계	
	동아리수	회원수	동아리수	회원수	동아리수	회원수
자원활동	1	12	1	18	2	30
직업/지도자 양성	1	13	1	15	2	28
가정생활교육	-	-	-	-	0	0
전통문화아해교육	2	17	-	-	2	17
취미	11	164	4	34	15	198
건강 및 보건교육	-	-	-	-	0	0
기초 및 교양	8	79	8	76	16	155
국제문화아해	-	-	-	-	0	0
합계	23	285	14	143	37	428

※ 자료원: 부천시평생학습센터, “2012 부천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결과보고서”, 2013. 23쪽 재구성.

○ 문화접근권(퍼블릭액세스)

- 정보접근성에 대하여 특화 정보 제공 기관 필요하다는 응답(74.5%)이 매우 높았음⁶⁸⁾
 - 부천시민 4명 중 3명(74.5%)은 부천시민을 위한 생활문화복지 특화 정보 제공 기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됨. 비공감자는 3.7%에 그침
 - 모든 계층에서 생활문화복지 특화 정보 제공 기관의 필요성에 ‘공감’ 견해가 우세함

평균 : 3.89점



[그림5-5] 생활문화복지 특화 정보 제공 기관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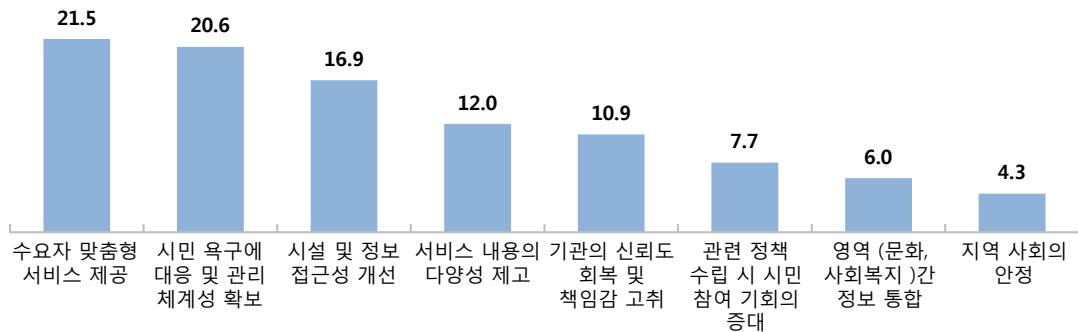
- 응답자들은 생활문화복지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시민 욕구에 대응 및 관리 체계성 확보’를 답함. 즉, 수요자가 원하는 생활문화복지 트렌트에 신속하게 맞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판단됨.

67) 지역사회 자원 활동, 직업 및 지도자 양성, 가정생활교육(부모교육), 전통문화 이해교육, 취미, 건강 및 보건교육, 기초 및 교양, 국제문화아해 교육 등

68) 부천문화재단, “부천 생활문화복지 수요조사 보고서”, 2014, 40쪽 인용.

- 그 다음으로 '시설 및 정보 접근성 개선', '서비스 내용의 다양성 제고', '기관의 신뢰도 회복 및 책임감 고취', '관련 정책 수립 시 시민 참여기회의 증대', '영역 간 정보 통합', '지역 사회의 안정' 순으로 응답됨

(N=349, 단위: %)



[그림5-6] 생활문화복지 활성화를 위한 부천시의 최우선 과제

□ 문화평등권

- 사회적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사업과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 등이 대표적임
 -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경제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향유기회를 제공해 문화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임

<표5-17> 문화통합이용권 예산 비교

(단위 : 천원)

구분	2014년	2013년	증감률
부천	820,838	627,251	23.6
수원	875,487	669,459	23.5
성남	963,219	746,535	22.5
고양	905,316	682,841	24.6
평균	891,215	681,522	23.5

※ 자료원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참조.

- 4개 자치단체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 평균 예산은 196,898천 원이며, 성남을 제외하고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부천은 6개 세부사업⁶⁹⁾에 152,490천원으로 조사 대상 자자체 중에서 사업 예산이 가장 적음

<표5-18> 찾아가는 문화 활동 예산 비교

(단위 : 천원)

구분	2014년
부천	152,490
수원	168,600
성남	313,900
고양	152,600
평균	196,898

다. 자치구별 격차 검토

- 도서관 및 주민센터 1관 당 평균 강좌 수는 13.6개이며, 오정구(9.4개)가 가장 낮게 조사됨
- 시설 수 및 강좌 수는 원미구(시설 : 25개, 강좌 : 388개) > 소사구(시설 : 11개, 강좌 : 174개) > 오정구(시설 : 8개, 강좌 : 75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1관당 평균 강좌 수는 13.6개이며, 소사구(15.8개) > 원미구(15.5개) > 오정구(9.4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5-19> 도서관 및 주민센터 1관 당 강좌 수 및 인구수

(단위 : 명, 개)

구분	도서관+주민센터	1관당 강좌수
원미구	인구수	442,638
	시설수	25
	강좌수	388
소사구	인구수	226,400
	시설수	11
	강좌수	174
오정구	인구수	186,548
	시설수	8
	강좌수	75
평균		13.6

- 도서관 1관 당 평균 강좌 수는 29.5개이며, 오정구(29.5개)는 평균 보다 낮게 조사됨
 - 시설 수 및 강좌 수는 원미구(시설 수 : 5개, 강좌 : 165개) > 소사구(시설 : 2개, 강좌 : 69개) > 오정구(시설 : 1개, 강좌 : 21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69) 차량을 이용한 찾아가는 문화마당(30,000천원), 찾아가는 작은 무대 열린 공연(37,500천원),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 운영(3,720천원), 사립작은도서관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4,370천원), 전통시장 찾아가는 문화공연(4,000천원), 찾아가는 문화 활동(72,900천원) 등임

- 1관 당 평균 강좌 수는 29.5개이며, 소사구(34.5개) > 원미구(33개) > 오정구(21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5-20> 도서관 1관 당 강좌 수 및 인구수

(단위 : 명, 개)

구분	도서관		1관당 강좌수
원미구	인구수	442,638	33.0
	시설수	5	
	강좌수	165	
소사구	인구수	226,400	34.5
	시설수	2	
	강좌수	69	
오정구	인구수	186,548	21.0
	시설수	1	
	강좌수	21	
평균			29.5

- 주민센터 1관 당 평균 강좌 수는 10.2개이며, 오정구(7.7개)는 평균 보다 낮게 조사됨
 - 강좌 수는 원미구(223개) > 소사구(105개) > 오정구(54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1관 당 평균 강좌 수는 10.2개이며, 소사구(11.7개) > 원미구(11.2개) > 오정구(7.7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5-21> 주민센터 1관 당 강좌 수 및 인구수

(단위 : 명, 개)

구분	주민센터		1관당 강좌수
원미구	인구수	442,638	11.2
	시설수	20	
	강좌수	223	
소사구	인구수	226,400	11.7
	시설수	9	
	강좌수	105	
오정구	인구수	186,548	7.7
	시설수	7	
	강좌수	54	
평균			10.2

- 부천시 권역별 문화 활동비 지출액은 전년대비 25.7% 증가한 7만 4천 원 이었음
 - 구별 지출액은 원미구(8.3만원) > 오정구(6.6만원) > 소사구(6.4만원) 등으로 나타남
 - 권역별 지출액은 송내권역(11.3만원)·상동권역(9.8만원)·중동권역(8.1만원) 등이 높은 그룹에 속했고, 역곡권역(5.1만원) 및 도당권역(6.3만원) 등이 낮은 그룹에 속함

<표5-22> 부천시 권역별 문화 활동비 지출 현황

(단위 : 만 원, %)

구분	2014	2012	증감률
전체	7.4	5.5	25.7
구별	원미구	8.3	5.9
	오정구	6.6	3.7
	소사구	6.4	6.2
권역	도당권역	6.3	5.3
	원종권역	6.5	2.9
	중동권역	8.1	4.9
	상동권역	9.8	9.6
	송내권역	11.3	7.6
	심곡권역	6.5	5
	소사권역	6.8	6.5
	역곡권역	5.1	3.1

※ 자료원 : 부천시, 「부천시 경제지표 조사」, 2012~2014, 74쪽 재구성.

라. 최소기준

□ 기준설정

최소기준(안)	문화적 권리 보장 측면에서 부천시민 모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문화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여건을 보장한다.
---------	---

-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경제적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선을 설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문화영역에서도 상대적 문화 빈곤선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⁷⁰⁾
 - 사람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한 자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인간다운 삶의 최소한의 조건을 생계지원으로 설정하고 있음
 - 문화 빈곤은 상대적 박탈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향유는 절대적 기준보다는 상대적 인식이

70) 전북발전연구원, “문화복지 기분 설정에 관한 기초연구”, 2012, 97~99쪽 참조.

강한 편임

- 2014년 기준 부천 오락·문화비 지출액은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약 3배정도 높았으나, 전국 평균 지출액(146,814원)의 절반 수준(74,000원)에 그치고 있음

<표5-23> 오락·문화비 지출 현황

(단위 : 원, %)

구분	전국			부천		
	2012년	2014년	증감률	2012년	2014년	증감률
금액	135,691	146,814	7.6	55,000	74,000	25.7

※ 자료원 : (부천시) 앞의 보고서, 74쪽 재구성.
(전국) 국가통계포털 참조.

- 프로그램 최소기준(안)은 ‘문화참여권’과 ‘문화평등권’으로 나눠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함

<표5-24> 프로그램 최소기준(안)

최소기준		기준(안)
문화참여권	문화교육권 보장	부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약기 1개는 다룰 줄 알고, 태어나서 1번은 부천시립예술단(부천필) 공연은 한번 보게 한다
	문화접근권 보장	부천시민의 문화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을 위하여 수요자맞춤형 서비스 제공체계를 만든다
문화평등권	취약계층 문화적 지원	부천시와 유사한 도시규모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유사한 규모의 ‘찾아가는 문화 활동 예산’을 확보 한다
	문화격차 해소	구 단위 문화기반시설 운영되는 프로그램 수 격차를 최소화 한다

□ 기준설정의 근거

- 프로그램 최소기준은 부천시 문화적 권리 보장 정책의 목표뿐만 아니라 보장기준으로서 의미를 가짐
- 문화권은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이나 유네스코 문화권 정의, 이후 문화권에 대한 선언문이나 권고안을 검토하였을 때 시민 복지 측면에서 ‘문화참여권, 문화평등권’등이 관련성이 있음
 - 문화평등권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세계인권선언 제7조)

● ● ● 문화마을 최소기준과 거버넌스 모델 구축

- 모든 사람은 하나의 문화 공동체와 동일시를 하든 하나 이상의 문화 공동체와 동시에 동일시를 하든, 장애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선택을 수정할 수 있다(유네스코 문화적 권리)
- 문화참여권
 -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1항)

마. 세부추진과제

<표5-25> 문화마을 프로그램 세부추진과제

최소기준	영역	사업명
문화참여권	문화교육권 보장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학교아트밸리)▶시민아트밸리로 확대)
	문화접근권 보장	영역(교육+사회복지+문화)별 맞춤형 통합정보 제공
문화평등권	취약계층 문화적 지원	찾아가는 문화 활동 예산 증액 편성 - (수원성남고양부천 찾아가는 문화 활동 평균 예산 196,898천원/부천 152,490천원) 문화 활동의 상대적 빈곤 해소를 위한 "문화비"를 지원 (ex. 부천생활임금지원조례)
	문화격차 해소	[도서관+주민센터 1관당 강좌 수 전체평균 : 13.6개 / 소사구(15.8개) > 원미구(15.5개) > 오정구(9.4개)]

4 예산기준

가. 범위와 접근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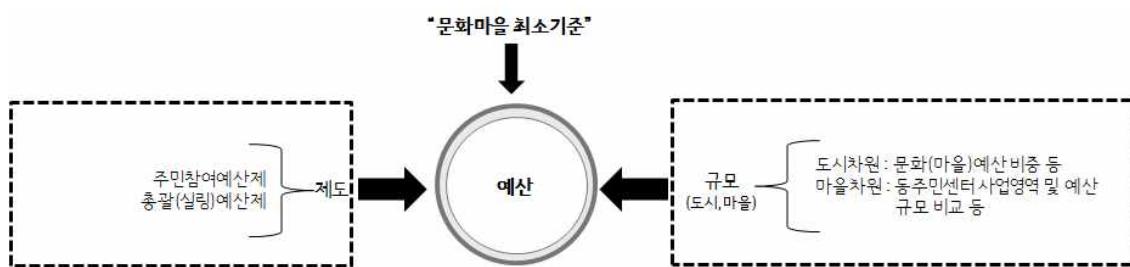
□ 문화예산 개념 및 범주

- 광의의 의미에서 '문화예산'이란 문화영역에 소요되는 국가(지방정부)재원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한 국가가 문화영역에 지출할 목적으로 수립한 수입과 지출의 예정된 계획'으로 볼 수 있음⁷¹⁾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2003년과 2008년에 이루어진 '주요 외국의 문화예산 비교 연구'(2003년 김세훈, 2008년 윤주)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김세훈(2003년)의 연구에서는 체육과 청소년을 제외한 문화재청의 예산을 합한 예산(문화예술, 문화

7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OECD 주요 국가의 문화예산 비교연구", 2011, 17쪽 인용.

산업, 관광, 문화재 영역 등)으로 한정하였음

- 윤주(2008년)의 연구에서는 체육 분야를 포함하여 예산의 범위를 설정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앞서 연구를 기초로 체육 및 청소년을 제외한 영역을 문화예산의 범위로 설정하고자 함
 - 김세훈(2003년)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문화재 영역을 문화예산의 범주로 설정하고자 함
 - 또한, 공동체 관련 사업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마을 만들기 등을 관련 영역에 포함하고자 함



[그림5-7] 문화마을 예산 최소기준 설정 구조도

□ 접근방법

-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예산 최소기준 관련 지표는 도시적 차원 접근이 이루어져 있어, 구(동)단위 현황 파악에는 한계가 있음
 - 기존 문화정책은 도시 위주로 관련 예산의 흐름을 파악, 마을단위 지역격차 현황 파악이 어려웠음

<표5-26> 문화예산 관련 지역문화지표(2012년)⁷²⁾

분류	세부지표	의의와 활용효과
정책지표	지자체 예산 대비 문화정책 예산 비율	지자체의 전체 수립예산 중 문화정책과 관련된 부문에 편성된 예산의 비율 파악으로 지자체 내에서의 문화정책의 위상 및 가치를 분석할 수 있음
	인구 천 명당 문화정책 예산 규모	인구 천 명당 형성되는 문화정책예산의 규모를 의미함

- 문화예산 최소기준은 부천시와 유사한 도시규모(재정자립도, 인구규모, 재정규모 등)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비교를 통해 파악함

7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역문화 지표개발 및 시범적용 연구”, 2012, 64쪽 인용.

- 문화마을 관계 예산을 파악함에 있어 '거버넌스, 인력양성, 축제 및 행사, 사업 및 프로그램, 공간' 등에 대한 세부항목을 설정하여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정책개선 및 예산확보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단체 차원의 낙후지역 및 균형발전 시책 지원과 바람직한 문화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나. 정책성과와 한계

- 문화관계 예산 평균은 104,257,032천원이며, 문화마을 예산 평균은 3,734,593천원으로 나타남
- 문화관계 예산이 평균 보다 높은 곳은 수원(182,976,050천원) 및 성남(130,316,979천원)이었으며, 문화마을 예산이 평균 이상인 곳은 수원(4,454,120천원) 및 부천(3,825,366천원)으로 조사됨
- 문화관련 주민센터 평균 예산은 34,425천원이며, 성남(11,967천원)을 제외하고 평균보다 낮았음

<표5-27> 지자체별 총예산(문화예산) 대비 문화마을 예산 비중

(단위 : 천원, %)

구분	부천	수원	성남	고양	평균
총예산	936,502,123	1,566,889,724	1,552,824,202	1,164,527,212	1,306,319,280
*문화관계예산	66,068,965	182,976,050	130,316,979	34,599,230	104,257,032
문화마을예산	3,825,366	4,454,120	3,595,814	3,063,070	3,734,593
-본청+구청	3,581,366	4,244,120	3,021,405	2,762,570	3,402,365
-주민센터	예산	244,000	210,000	574,409	300,500
	개수	36	40	48	39
	예산/1센터	6,778	5,250	117,967	7,705
					34,425,00

※ 자료원 :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본예산(2015년) 참조

* 문화관계예산 : 문화예술+체육+관광+문화재+도서관 등 관계예산 포함

- '거버넌스(0.6%), 인력양성(0.7%)' 예산 비중이 낮았고, '사업 및 프로그램'(0.4%) 비중은 높았음
- 본청은 사업 및 프로그램(36.9%)>공간(32.3%)>축제 및 행사(29.5%)>인력양성(0.7%)>거버넌스(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구청은 사업 및 프로그램(54.5%) 예산 비중이 과반을 넘었고, 거버넌스 및 인력양성 예산은 없었음
- 주민센터는 사업 및 프로그램(58.6%)과 축제 및 행사(41.4%)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표5-28> 부천시 행정단위별 문화마을 관계예산 세부

(단위 : 천원, %)

구분	본청	구청	주민센터	합계
거버넌스	17,200 (0.6%)	- (0.0%)	- (0.0%)	17,200 (0.4%)
인력양성	20,000 (0.7%)	- (0.0%)	- (0.0%)	20,000 (0.5%)
축제 및 행사	892,500 (29.5%)	147,400 (26.4%)	101,000 (41.4%)	1,562,798 (29.8%)
사업 및 프로그램	1,115,658 (36.9%)	304,140 (54.5%)	143,000 (58.6%)	1,562,798 (40.9%)
공간	977,968 (32.3%)	106,500 (19.1%)	- (0.0%)	1,084,468 (28.3%)
합계	3,023,326 (100.0%)	558,040 (100.0%)	244,000 (100.0%)	3,825,366 (100.0%)

다. 자치구별 격차 검토

- 문화마을 관련 예산은 본청(3,023,326천원)이 가장 많았고, 구 단위에서는 원미구 예산(856,510 천원)이 가장 많았음
- 구 단위 문화마을 예산은 원미구(856,510천 원) > 소사구(528,980 천원) > 오정구(368,605천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평균값 비교에서 원미구의 '사업 및 프로그램' 예산(758,710천 원)을 제외하고 모두 구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표5-29> 부천시 자치구별 문화마을 관계예산 세부

(단위 : 천원)

구분	본청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평균
거버넌스	17,200	-	-	-	17,200
인력양성	20,000	-	-	-	20,000
축제 및 행사	892,500	93,900	80,400	74,100	1,140,900
사업 및 프로그램	1,115,658	177,405	66,360	203,375	1,562,798
공간	977,968	-	36,900	69,600	1,084,468
합계	3,023,326	271,305	183,660	347,075	3,825,366

- 부천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하여 2011~2014년까지 총 26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원미구 채택률이 가장 높았음
- 구 단위별 채택률에서 원미구(50.0%) > 소사구(34.6%) > 오정구(15.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5-30>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문화 분야 사업선정 현황

(단위 : 개)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채택률
원미구	1	4	6	2	13	50.0
소사구	1	3	2	3	9	34.6
오정구	1	1	1	1	4	15.4
합계	3	8	9	6	26	100.0

※ 자료원 : 부천시 내부자료 참조, 내용 재구성.

라. 최소기준

□ 기준설정

최소기준(안)	민관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통한 문화마을 예산의 안정성 및 유연성 확보, 중장기적 계획 수립의 초석을 마련 한다.
---------	---

-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문화도시를 목표로 정책을 구상할 때 일(사업)을 계획하고, 배치하고, 수행하기 위한 행위(예산)를 동반하게 됨
- 우리가 문화도시(마을)를 기억할 때 문화에 돈을 많이 쓰는 도시일 것이라 기대하나, 중요한 것은 정책비전 아래 우선순위를 두고, 변화가 예산에 반영되어야 함
- 문화예술분야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편성 문화예술분야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함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 스스로의 정체성이나 지향점을 뚜렷이 하기 시작하였으며, 문화특별시를 지향하는 부천도 예외는 아님
 - 자치단체의 비전을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를 '문화도시'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임
 - 1990년대 후반 문화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인식과 깊은 관련성이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화를

산업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이 취약해지는 상황 속에서 문화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기인했을 것임

- 부천시 1인당 문화관계 예산과 1인당 문화마을 관계예산 차이는 76.3천원 차이가 발생하였음
 - 부천시 1인당 문화관계 예산(77.2천원)은 비교 자자체 평균(104.0천원)보다 낮았고, 1인당 문화마을 평균(3.0천원)보다는 높았음(4.5천원)
 - 그러나, 급간 격차는 평균 보다(101.0천원) 낮았으나(76.3천원) 마을단위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5-31> 지자체별 1인당 문화관계 예산 및 문화마을 예산 비교

(단위 : 명, 천원)

구분	인구수	문화관계예산 [A] (1인당 문화관계 예산)	문화마을 예산 [B] (1인당 문화마을 예산)	각차 [A-B]
부천	855,586	66,068,965 (77.2)	3,825,366 (4.5)	65,310,503 (72.7)
수원	1,174,228	182,976,050 (155.8)	4,454,120 (3.8)	178,521,930 (152.0)
성남	974,608	130,316,979 (133.7)	3,595,814 (3.7)	126,721,165 (130.0)
고양	1,006,154	34,599,230 (34.4)	3,063,070 (3.0)	31,536,160 (31.4)
평균	1,002,644	104,257,032 (104.0)	2,987,673 (3.0)	101,269,359 (101.0)

- 문화마을 예산 자자체 비교에서 수원(4,454,120천원) 및 부천(3,825,366천원)이 평균 예산(3,734,593천원) 보다 높았음
- 거버넌스 관련하여 수원(272,200천원) 및 부천(17,200천원) 정도만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
- 인력양성은 성남(60,300천원) 및 수원(35,000천원)이 평균 예산(33,825천원) 보다 많았음
- 축제 및 행사는 부천(1,140,900천원)정도만 자자체 평균(570,758천원)보다 많이 예산이 많았음
- 사업 및 프로그램은 수원(3,585,270천원) 및 성남(2,377,785천원)이 자자체 평균(2,194,117천원)보다 예산이 많았음
- 공간 예산은 고양(1,650,074천원) 및 부천(1,084,468천원)이 자자체 평균 예산(863,543천원)보다 많았음

<표5-32> 지자체별 문화마을 관계예산 비교

(단위 : 천원, %)

구분	부천	성남	수원	고양	평균
거버넌스	17,200	0	272,200	0	72,350
인력양성	20,000	60,300	35,000	20,000	33,825
축제 및 행사	1,140,900	438,100	561,650	142,380	570,758
사업 및 프로그램	1,562,798	2,377,785	3,585,270	1,250,616	2,194,117
공간	1,084,468	719,629	0	1,650,074	863,543
합계	3,825,366	3,595,814	4,454,120	3,063,070	3,734,593

- 문화마을 예산 최소기준(안)은 관계예산의 안정성 및 유연성 확보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체계 확보와 마을단위 인력 관련 예산 확보에 두고자 함

<표5-33> 문화마을 예산 최소기준(안)

최소기준		기준(안)
안전성	총액 예산제	문화도시(마을) 부문에 예산총액을 일괄 배정하는 방식 도입
	주민참여예산제	마을단위 문화사업 관련 채택률을 높인다
유연성	거버넌스 예산확보	공공영역(교육+문화+복지)과 관 영역(문화예술+마을 만들기+교육 등)간의 협력체계를 만들어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인다
	인력양성 예산확보	마을단위 기획 및 실행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시켜, 주체적으로 마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 기준설정의 근거

- 민선6기 정책은 스스로 소통하는 도시, 문화특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해 문화 분야 12개 공약을 선정하였음
 - 12개 공약은 문화예술(7개)과 체육(5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생활문화예술 진흥 추진은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정책 공약이라 할 수 있음
 - 문화예술 분야는 부천 예총회관 마련, 한국만화기획관 조성, 생활문화예술진흥 추진, 영상문화단지 문화산업 집적화 기지 구축, 만화애니메이션 창작 지원센터 조성, 3대 국제축제 콘텐츠산업으로 전략적 육성, 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부천필 지원 강화 등이 있음
 - 체육 분야는 실내종합스포츠타운 건립, 게이트볼장 환경 개선, 그라운드골프장 신축, 야구장 신축, 부천실내배드민턴 전용구장 조기 완공, 축구 잔디구장 확대 등이 있음
- 2014년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문화도시(마을) 및 관련 예산 확보에 대한 지자체 책무를 강화하고 있음

제6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 세부추진과제**<표5-34> 예산 최소기준 세부추진과제**

최소기준	영역	사업명
안전성	총액 예산제	<p>문화예술(산업)분야 예산 우선순위 설정 및 일괄 배정을 위한 '예산편성 실무협의회' 지속적 운영'하며, 문화관련 예산 대비 문화마을 관련 예산은 최소 5.5% 이상 되도록 한다.</p> <p>또한, 주민센터 문화관련 운영 최소예산은 34,425천 원 이상 되도록 한다</p> <p>※ 부천·성남·수원·고양 주민센터 문화관련 운영 평균 예산 : 34,425천원 부천 거버넌스 관련 예산 : 6,778천원</p>
	주민참여예산제	<p>마을단위 문화사업 관련 사업 최소 채택률은 20.5% 이상 되도록 하며, 구 단위 채택률에서 과반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p> <p>※ 원미구(13개, 50.0%) > 소사구(9개, 34.6%), 오정구(4개, 15.4%)</p>
유연성	문화마을 거버넌스 예산확보	<p>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 예산은 최소한 문화마을 예산의 1.6% 정도는 확보 한다</p> <p>※ 부천·성남·수원·고양 시 거버넌스 관련 평균 예산 : 1.6% 부천 거버넌스 관련 예산 : 0.4%</p>
	문화마을 인력양성 예산확보	<p>마을단위 활동인력 양성 및 교육을 위한 예산은 최소한 문화마을 예산의 0.9% 정도 확보한다</p> <p>※ 부천·성남·수원·고양 시 인력양성 관련 평균 예산 : 0.9% 부천 거버넌스 관련 예산 : 0.5%</p>

제3절

문화마을 거버넌스를 위한 구상

1

광역단위 거버넌스

①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지역의 노력

□ 마을 만들기의 혁신과 주체별 역할 재정립

- 행정주도형·사업 중심의 마을 만들기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마다의 자생적 대응전략을 구상하고 있음

- 지역은 저마다 그 지역의 실정과 역량에 맞게 지역형 마을 만들기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정부정책을 견인하거나 선제적으로 정책에 대응해나가고 있음
- 물리적 환경조성사업을 비롯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지역문화예술활동, 사회적경제 활성화프로그램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관련 사업을 복합 전개
- 그러나 부처·부서별 유사증복사업의 추진은 자생적으로 성장해온 지자체 마을 만들기 시스템 및 해당 마을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비효율적인 공공재원 집행, 행정주도의 성과주의식 사업추진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 지역과 현장으로부터의 ‘중앙정부’의 역할 제안

- 지역에서는 중앙정부가 지원사업의 실행에 앞서 기존사업의 재평가와 지역 의견수렴을 통해 마을 만들기 추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요소 및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상황 및 마을 만들기의 특성에 맞게 제도개선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음
- 중앙 단위의 통합·조정기능을 강화하여 부처 간·부서간 칸막이 행정 및 비효율적인 유사증복사업의 추진을 사전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마을 만들기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
- 한편 중앙 단위의 마을 만들기 관련 지원기구는 민간의 경험과 성과, 노력을 인정하여 민간부문과 정책네트워크를 보다 강화하고, 지역현장에 보다 밀착된 정책설계 및 사업추진을 고민해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 지자체 ‘마을 만들기 행정’의 역할 모색

- 광역과 기초, 중앙과 지방, 행정과 민간의 역할을 정립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마을에 등장하고 이들의 마을활동을 지원하는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힘써야 함

- 관련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정치적 요인과 부서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가 지속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마을지향행정의 지속성 도모
-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성을 제고하여 유무형의 마을 만들기 지역자산이 효과적으로 발굴·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마을활동이 생겨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인프라 조성 및 지역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구
- ‘민간’의 혁신,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재정립
 - 민간부문이 사회적 연대·협력 및 정책대응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공동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도록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강화 및 혁신에 대한 요청이 제기되고 있음

②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공공지원제도의 전략적 활용

□ 중앙정부 공모·시범사업의 현재동향

- 많은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 공모·시범사업을 활용하여 부족한 지역사업의 예산을 확충하고 사업선정을 근거로 재원을 확보하며 사업추진의 용이함, 지역민의 관심제고와 합의형성,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음
- 지역 브랜드 창출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에 맞추어 중앙정부는 지자체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공모사업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음
- 각각의 사업은 해당 부처의 정책방향과 특성에 따라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사업별 거버넌스 체계, 총괄계획의 설정, 마스터플랜 수립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차별성은 발견하기 어려운 실정
- 또한 지자체 또한 사업에 대한 기획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기존의 유사사례를 모방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많음

□ 중앙정부 공모·시범사업의 한계와 문제점

- 현행 개별 중앙부처의 공모·시범사업(지역개발계정사업 포함)은 지역행정역량이 강화된 지자체가 각종 공모사업을 독식하는 구조이며 형식적인 사업추진체계, 사업운영의 경직성, 지자체의 의지 부족,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유도장치 미흡 등의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대부분의 사업이 지역의 입장, 목표, 추진체계, 대상 등에서 차별성이 없으며, 대부분 가로경관 개선, 특화거리 조성 등 가시적인 성과도출이 용이한 사업에 편중되고 있으며, 사업관리 역시 예산집행 실적에 치중하고 있음

□ 중앙정부의 지역개발 정책동향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다양한 마을 만들기 지원프로그램의 모니

터링을 통해 공공지원제도의 전략적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

- 대규모 개발을 지양하고 소규모 단위로서 주민주도의 생활과 문화 중심의 마을 만들기 추진
 -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재량권과 자율성을 확대하되 책임 또한 강화
 - 일률적인 사업추진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특성과 노력에 따른 차별화된 예산운용 및 지원체계 구축
 - 기존 사업의 단점을 지양하면서 해당 지역의 특성과 창의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유도
 - 사업부실 및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체계 및 관리체계 강화
 - 사업 대상지역 선정에 있어 면밀한 검증을 거치고 지역별 신규 사업 또한 제한적으로 실시
-
- 행정과 주민, 전문가, 다양한 지역민간그룹이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지역발전의 공공재가 되는 ‘지역 마스터플랜’을 수립
 - 주민 스스로 지역사업의 발굴 및 추진 타당성, 우선순위 검토, 사업규모와 범위, 지역 간 연계추진 방안 등을 검토하는 주민자치의 실현과정
-
- 지역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자구적인 노력을 자극하는 한편, 중간지원조직의 권한 위임·확대를 통해 다양한 지역공동체 활동 및 자생적 마을 만들기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지역공동체의 자율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사업 발굴·기획,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포괄적·자율적 프로그램 중심으로 지원·운영
 - 지역사업의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전담조직 구축,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지역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역역량 강화사업 재편
 - 지역행정역량의 제고를 위해 계획과 사업 간의 연계성 강화, 사업추진과정 및 성과에 대한 관리 강화, 사업 추진 지원체계 강화, 사업대상 지역의 범위를 마을단위 소규모로 설정, 지자체별 사업수량 제한 등 사업관리체계의 강화 유도
-
- 지역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 혁신 및 사업지원체계 개편
 -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지자체 행정조직의 사업기획 및 관리 역량 강화 도모
 - 지역역량 강화를 우선하고 그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타 사업을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지역 중장기적인 사업 추진전략(마스터플랜) 수립
 - 사업 및 공간계획과 시설이용 및 운영에 참여하는 지역공동체의 협업주체로서의 참여역량과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형성 등

- 중앙부처 공모·시범사업과 지역개발계정사업의 차별화 및 통합·연계, 단계적 추진 등
- 독자적인 지역 공간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통한 효과적인 자원분배 및 공유자원화
- 현재 구축·운영 중인 중앙부처 포털사이트 및 정보시스템은 사업추진과정 및 사업 이후의 성과 등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고, 지자체 행정 역시 각각 수행한 사업내용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데이터베이스(DB)는 전무한 상황임
-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시범사업들의 관련 자료에 대한 DB구축 및 사업 이후 성과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바, 사업의 지속적 운영 및 체계적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사업의 자료를 축적하고 성과를 점검·확인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

③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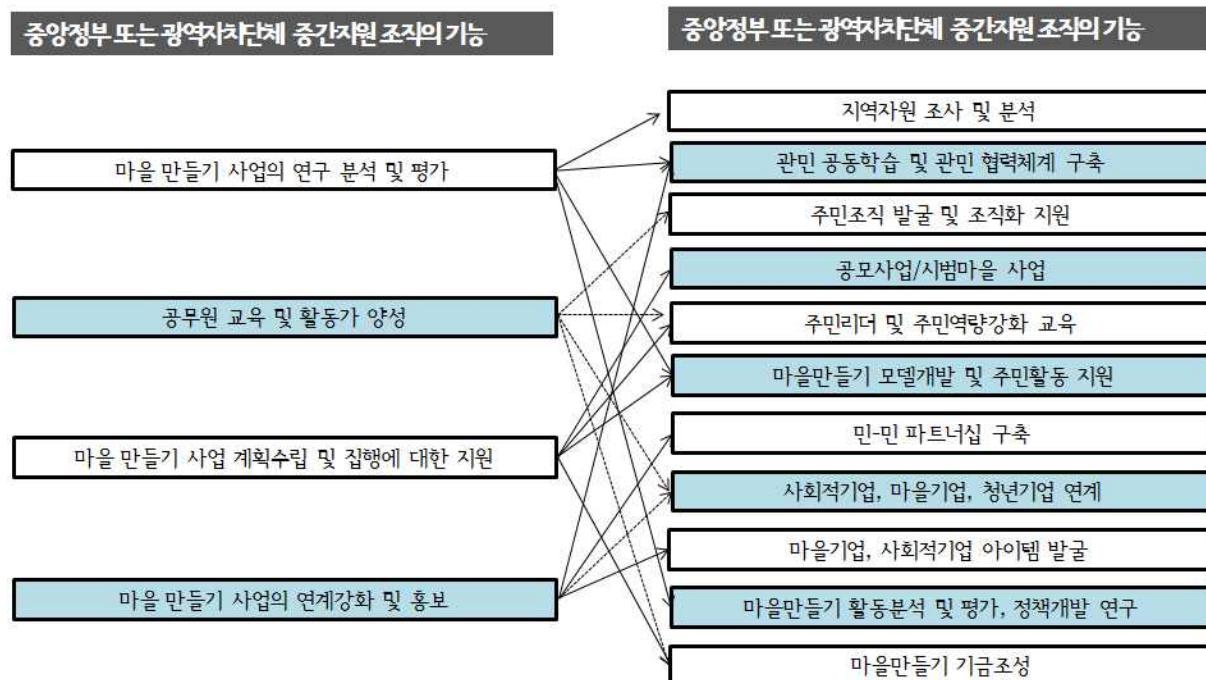
- 각 부처별 마을공동체 및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진행
- 각 부처별 경쟁하듯이 마을공동체 또는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진행
- 보조금 지원방식과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거버넌스 중간지대의 부재는 결국 행정의 성과중심으로 사업이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
- 마을공동체 사업의 정체성이 모호한 자치단체의 경우 부서별 지원정책으로 일관하는 경향이 강함. 마을공동체 담당부서가 있다하더라도 민관협력을 주도하지 않는 이상 사업관리의 성격 그 이상을 넘지 못하고 있는 한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협력과 조율의 거버넌스 중간지대
- 경기도의 중간지원조직은 단순한 지원정책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따른 관련기관, 단체, 기업과의 협력, 사업단간의 연합 또는 연대사업의 기획과 추진을 위한 매개적 역할 증진 필요

※ 광역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제언

- 거버넌스 중간지대로서의 코디네이터 역할
 - ①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주민협의체 소통 및 운영 지원
 - ② 관내 사회자원(민간단체, 사회복지관, 대학, 자원봉사센터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 ③ 주민, 주민단체 간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추진
 - ④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및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평가, 분석 등의 역할

□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 증진

- 중앙정부 및 광역단위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연구 분석 및 평가, 공무원 교육 및 활동가 양성, 마을 만들기 사업의 계획수립 및 집행에 대한 지원, 마을 만들기 사업이 연계강화 및 홍보 등이 활동 도모
- 중앙정부 및 광역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중간지원 조직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 도모



[그림5-8] 행정의 중간지원조직과의 역할분담

2 기초단위 거버넌스

가. 접근방법

□ 추진배경

- 이상이 아닌 현실로서의 ‘거버넌스’

-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도시 운영이 고도화될수록 도시정부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는 비약적으로 증대되어 왔으며, 그 결과 도시정부의 재정 부족(수요 대비)과 무기력이 일상화되는 시대가 도래함
- 도시정부의 공급형 정책이 아니라 시민 주체들의 자율적 도시 운영, 창조적인 거버넌스가 없이는 도시 운영 자체가 어려운 시기에 직면한 상황임

- 시민권, 민주주의 등의 맥락뿐만이 아니라 자본주의적인 도시경영의 관점에서 조차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와 운영을 전제로 하는 혁신적인 거버넌스 없이는, 제한된 도시정부의 재정과 인력만으로는 도시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볼 수 있음
 - 이에 거버넌스는 더 이상 낭만적인 주장이 아니라 도시의 생존과 존립에 대한 화두로 이해돼야 함
- 내·외적환경이 변화되면서 문화·복지 수요 증대
- 내적환경
 - 영역별 프로그램 여가·문화·복지 관련 프로그램 유사성 증가하고 있으며, 질적 제고 필요성 대두
 - 영역별(문화+교육+복지 등) 문화프로그램 및 강사 DB 미 구축, 효율성 및 만족도 저하
 - 외적환경
 -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등 지역 내 보편적 문화·복지 수요가 증대되기 시작함
 - 마을 만들기, 행정체계 개편 등 생활권 문화·교육·복지 지형 변화
 - 문화·복지·교육 유관 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정보교류 필요

□ 추진목적

- 기본방향
- 효율성 강화 : 유관기관 협력(정보공유 및 협력사업 발굴 등)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통합성 실현 : 기관 및 영역 별 흩어져 있는 문화마을 관련 정보 집적화, 시민 정보 접근권 강화
- 구성목적
- 지역문화생태계 형성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생태계 조성
 - 지역문화예술 커뮤니티가 서로 소통하고 네트워크하며 공동 작업할 수 있는 지원 환경 설계 및 조성
 - 지역문화예술생태계의 다양성, 공공성 등이 확장될 수 있도록 창의적 공유 환경형성
 - 창의적 거버넌스 실험 : 지역문화 주체들 사이의 능동적인 거버넌스에 기반을 둔 '커뮤니티 예술 활성화'
 - 지역문화를 둘러싼 문화적 가치와 권리의 확대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
 - 다양하고 창의적인 '민+민', '민+관' 거버넌스 시스템을 실험하고 성과를 공유

나. 정책성과와 한계

- 문화마을 관련 총 예산 대비 거버넌스 예산 비중은 0.4%(17,200천 원)임
- 부천·성남·수원·고양시 거버넌스 관련 평균 예산은 1.6%로 조사되었고, 부천은 0.4%에 그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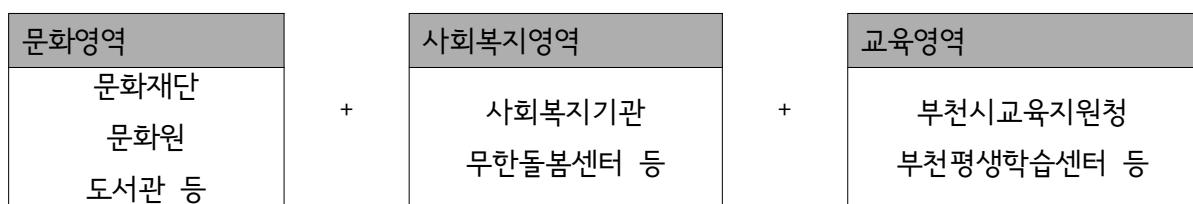
<표5-35> 부천시 문화마을 거버넌스 예산 현황(2015년 기준)

(단위 : 천원, %)

구분	합계	거버넌스	인력양성	축제/행사	사업/프로그램	공간
부천	3,825,366 (100.0)	17,200 (0.4%)	20,000 (0.5%)	1,562,798 (29.8%)	1,562,798 (40.9%)	1,084,468 (28.3%)

다. 운영방법

□ 구성방법 : 문화마을 관련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추진내용 : 강좌+워크숍+네트워킹을 통한 문화마을(문화+교육+복지 영역) 협력 추진

<표5-36> 너른문화네트워크 세부 프로그램

구분	주요내용	
“교육마당” 문화와 복지 아름다운 동거 (재교육)	이야기	생애주기 및 계층별 문화 복지 욕구와 이해 및 유형 지역에서 문화 복지를 위한 기관별 역할
	발자취	문화영역에서 실천하는 문화 복지 프로그램 사례 I 복지영역에서 실천하는 문화 복지 프로그램 사례 II
“체험마당” (워크숍)		문화·복지 활동 사례지 견학(생애주기+전략대상) 국내·외 사례조사 및 현장체험

2015년 지역문화컨설팅

※ 참고문헌

1. 연구보고서

- 강윤주(2015), 「생활예술공동체에 대한 뉴 패러다임 동아리 활동에서 마을만들기까지」, 웹진 아르코 문화정책이슈, 282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김효정 외(2014), 『문화시설 배치 및 기능조정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라도삼(2015), 『2014년 마을예술창작소 모니터링 및 평가 용역』, 서울연구원.
- _____ (2012), 『마을문화만들기 사례와 전략연구』, 서울시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13), 『문화도시 문화마을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_____ (2013),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 박수현 외(2013), 『문화마을만들기에서의 공동체의식 형성요인 연구 -성남시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5권 5호, 한국지역개발학회.
- 양혜원(2014), 「생활 속 문화예술, '사치' 아닌 '잃어버린 일상의 회복」, 나라경제 2014년 3월호.
- _____ (2013), 『문화여가사업군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_____ (2013),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운영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상구(2014), 「복지국가와 도서관 정책」, 『2014 서울시 도서관 발전 정책토론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복지국가조사이어트.
- 이소영·박진경(2014), 「지역맞춤형 기초생활시설 공급방안: 문화·체육·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제515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승택(2011), 「월평, 예술로 물들다」, 『삶과 문화』, 2011년 봄호, 제주문화예술재단.
- 이원태 외(2004), 『전국문화기반시설 최소기준수립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임번장(1991), 『생활체육의 의의와 필요성』, 한국스포츠개발원.
- 장시우(2013), 「시민문화공간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병태(2007), 『커뮤니티 아트 진흥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조광호 외(2015), 『생활문화활동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_____ (2014),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조광호(2013), 『문화도시 문화마을 선정 및 지원 방안 연구(안)』, 『문화도시 문화마을 심포지엄 자료집』,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4), 『2014 문화이모작 기획사업 사례집』.
- _____ (2014),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문화체육관광부.
- _____ (2013), 『문화도시 문화마을 선정 및 지원방안 연구』.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시민문화예술교육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시시콜콜한 이야기」.
- _____ (2009),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평가연구』.
- 한국문화원연합회(2014), 「문화로 소통하는 우리 마을 이야기 - 2014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결과자료집」.
- 박영정(2014), 「여가시설 최소기준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송미령(2009), 「기초생활권 생활 서비스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현호(2007), 「지역생활여건 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6대 생활서비스 DB 구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준(2011),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 한국사회학회,
- 주재복(2011),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선기(2014), 「지역생활권 삶의 질 분석 및 지역격차 해소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소영(2014), 「지역맞춤형 기초생활시설 공급방안(문화,체육,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오은주(2014), 「창조인재 육성을 위한 창조환경 조성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노동(2012), 「대전광역시 문화격차 해소 및 진흥방안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 박태선(2014),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서준교(200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참여거버넌스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
- 라도삼(2012), 「2012 마을문화만들기 사례와 전략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이상대(2014), 「경기도 미래지표 개발과 활용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김문현(2000),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전략보고서」, 서울연구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3), 「마을진단지표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장세길(2013), 「문화도시 문화마을 추진을 위한 전라북도 문화자원조사」, 전북발전연구원,
- 장세길(2012), 「삶의 질 시대로의 전환 전라북도 삶의 질 정책의 방향과 전략」, 전북발전연구원,
- 김통원(2006),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개발」,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 남원석(2012), 「마을만들기, 성공의 조건」, 경기개발연구원,
- 김영택(2014), 「농촌마을 발전단계별 평가지표 기준 설정 연구」, 농촌경제연구원,
- 김효정(2014), 「문화시설 배치 및 기능조정 모형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안전행정부(2007), 「지역생활여건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맹다미 외(2011), 「서울의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지역종합진단지표의 구축 및 활용방안」, 서울연구원,
- 송미령 외(2012), 「2012 지역발전지수를 활용한 농촌 실태분석과 정책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경혜(2012), 「서울시민 복지기준 설정연구」, 서울연구원,
- Armstrong, Jayne(2009), DIY Feminism: A Dialogical Account. PhD diss., University of East London.
- Chidgey, Red(2014), "Developing Communities of Resistance? Maker Pedagogies, Do-It-Yourself Feminism and DIY Citizenship", DIY Citizenship: Critical Making and Social Media, MIT Press.
- Susan C. Seifert, Mark J. Stern, and Mehreen Zaman(2004), Artists and their Social Networks, Metropolitan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October 2005(<http://www.sp2.upenn.edu/SIAP>).

2. 서적

- 김상철 외(2014),『모두를 위한 마을은 없다』, 삶창.
- 도미야마 이치로(2009), 손지연·김우자·송석원 옮김,『폭력의 예감』, 그린비.
- 댄 핸콕스(2013), 윤길순 옮김,『우리는 이상한 마을에 산다』, 위즈덤하우스.

- 데이비드 볼리어(2015), 배수현 옮김,『공유인으로 사고하라』, 갈무리].
- 데이비드 하비(2014), 한상연 옮김,『반란의 도시』, 에이도스.
- 라인보우 퍼터(2012), 정남영 옮김,『마그나카르타 선언』, 갈무리].
- 리베카 솔닛(2012), 정해영 옮김,『이 폐허를 응시하라』, 펜타그램.
- 리차드 세넷(2009), 유병선 옮김,『뉴캐피탈리즘』, 위즈덤하우스.
- _____ (2004), 유강은 옮김,『불평등 사회의 인간존중』, 문예출판사.
- _____ (2010), 김홍식 옮김,『장인. 현대문명이 잊어버린 생각하는 손』, 21세기북스.
- _____ (2014), 유강은 옮김,『무질서의 효용』, 다시봄.
- 리처드 플로리다(2008), 이원호·이종호·서민철 옮김,『도시와 창조계급』, 푸른길.
- 아마리아 센(2013), 김원기 옮김,『자유로서의 발전』, 갈라파고스.
-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2014), 정남영·윤영광 옮김,『공통체』, 사월의 책.
- 앤서니 엘리엇·브라이언 터너(2015), 김정환 옮김,『사회론』, 이학사.
- 에바 일루즈 (2010), 김정아 옮김,『감정자본주의』, 돌베개.
- 유창복(2014),『도시에서 행복한 마을은 가능한가』, 휴머니스트.
- 이종수(2015),『공동체 유토피아에서 마을만들기까지』, 박영사.
- 임동근·김종배(2015),『메트로폴리스서울의 탄생』, 반비.
- 조한혜정(2014),『자공공』, 또하나의문화.
- 찰스 랜드리(2005), 임상오 옮김,『창조도시』, 해남.
- 캐런 T. 리트핀(2015), 강경이 옮김,『에코빌리지, 지구 공동체를 꿈꾸다』, 시대의창.
- 파스쿠넬리 맷페오(2013), 서창현 옮김,『동물흔』, 갈무리].
- 하워드 가드너(2007), 문용준·유경재 옮김,『다중지능』, 응진지식하우스.
- 한나 아렌트(1996), 이진우『채정호 옮김,『인간의 조건』, 한길사.
- 홍동마을 사람들(2014),『마을공화국의 꿈 홍동마을 이야기』, 한트재.

3. 행정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5), 「2015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 공모계획」.
- _____ (2015), 「2014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 _____ (2014), 「2014년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 _____ (2015),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워크숍」.
- 부천시(2013),『2013년 제5회 부천시 사회조사 보고서』.
- 예술경영지원센터(2015), 「2015 '문화가 있는 날'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공모 안내」.
- _____ (2015), 「2015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안내(1차)」.
- _____ (2015), 「2015 전국생활문화제 제안요청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2015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공모 사업설명회」.
- _____ (2014), 「201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 _____ (2013), 「2013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공모요강」.
- _____ (2011), 「2010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시범사업 결과자료집」.
- 한국문화원연합회(2015), 「2015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공모 요강」.
- _____ (2014), 「2014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공모 요강」.

4. 관련법규 및 조례

-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제정, 2014.10.13.)
-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015.02.16.)

5. 신문

- “부천시 생활문화의 메카로 만든다” (새부천신문, 2015.2.4.)
- “부천시 ‘생활문화 활성화 기반 구축’ 우수정책 선정”, (이뉴스투데이), 2015.06.01.)
- “아트밸리 5년... 나도 예술인”, (부천포커스, 2015.11.16.)
- “월요문화기획- 경남도 올해 주요 문화예술 사업”, (경남신문, 2014.01.06.)
- “익산문화재단, 오는 23일 ‘익산문화클럽 어울마당’ 연다”, (익산시민뉴스, 2012.06.21.)
- “춘천 마을변화 프로젝트 ‘낭만골목’ 성공 마무리”, (연합뉴스, 2012.11.22.)

6. 홈페이지

- 2014 생활문화동호회축제 공식 홈페이지: <http://www.nvaf2014.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문화이모작: <http://www.imojak.kr>
-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http://www.gcaf.or.kr>
- 복권기금 문화나눔: <http://www.lotteryarts.or.kr>
- 부천문화재단: <http://www.bcf.or.kr>
- 부천시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http://bcs1.go.kr>
- 부천시 통계 홈페이지: <http://stat.bucheon.go.kr>
-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블로그: http://blog.naver.com/culture_wave
- 생활연극네트워크 - 연극학교: <http://cafe.daum.net/playnetwork>
- 서산 고용복지+센터: <http://www.workplus.go.kr>
- 서울문화재단: <http://www.sfac.or.kr>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http://www.e-sac.or.kr>

서울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 opengov.seoul.go.kr

예술경영지원센터]: <http://www.gokams.or.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춘천시문화재단]: <http://www.cccf.or.kr>

통계청]: <http://www.kostat.go.kr>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http://www.arte.or.kr>

한국문화원협회]: <http://www.kccf.or.kr>

문화마을 최소기준 설정과 거버넌스 모델 구축

발행인 : 이진선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부천시

주관 : 부천문화재단

발행일 : 2015년 12월

인쇄처 : 넥스트 기획



부천문화재단

Bucheon Cultural Foundation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상동) 복사골문화센터
Tel 032.320.6363 www.bcf.or.kr